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황 의 천



대 천 문 화 원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황 의 천



 대 천 문 화 원



오늘날 지역의 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애향심과 정주의식은 사회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자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은 경제가 발전하여 의식주가 풍요로워짐에 따라 이러한 문화적 자부심은 지역민의 애향심과 정주의식 형성에 더욱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보령지역도 다양한 문화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발굴하고 알리고 모두 공유하며 즐긴다면 보령시민들의 애향심과 정주의식은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보령지역 발전은 더욱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는 웅천 지역의 뿌리를 찾고 문화를 찾아 지역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 그리고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지역의 문화를 찾아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는 과거 보령 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웅천 대천리 지역의 남포대천장을 중심으로 한 유교유적 관방유적 수리시설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과거 이 지역이 보령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임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역사와 문화는 지역의 쇠퇴와 함께 모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시우 시장님과 김정원 의장님, 우리문화즐기기 사업으로 선정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향토문화 발굴보존에 헌신적 노력으로 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해 주신 황의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원에서는 잊혀져가는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대천문화원장 임 기 석



석재산업으로 이름 높은 웅천읍은 지금도 보령 남부권 생활의 중심지로써 주민 모두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웅천에는 무창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많은 휴양지가 발달해 있고 소항사구로 대표되는 보존 가치 높은 자연환경도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상대대로 충절과 예의를 지켜 온 명성에 걸맞는 문화유적과 유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뿌리 깊은 고장이 웅천입니다.

이러한 웅천의 문화와 역사를 ‘남포 대천장’을 중심으로 재조명한 연구 성과물이 ‘2013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을 통해 출간이 되었습니다.

임기석 대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뜻 깊은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시장(市場)은 그 시대의 생활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람과 문물이 교류되고 상공업 발달과 지역 상권을 촉진시키는 생활의 중심지가 시장입니다.

조선말기 보부상단의 등장과 함께 보령은 물론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상권의 중심이었던 남포대천장의 역사와 변천과정 그리고 주변의 문화유적과 상공업 변천사까지 방대한 자료가 이 한권의 책자에 실려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의 성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 남포대천장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그때의 시간을 회상하는 추억이 되고 시민들과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우리지역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전해주는 산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해 주신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가 웅천이 가진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과 함께 지금도 그 명성을 이어 오고 있는 웅천전통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뜻 깊은 성과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보령시장 이 시 우

축 사

새해를 맞이한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해를
다시 맞이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달 멋지게 마무리 해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문화 즐기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발자
취는 물론 얼과 정신을 생생하게 담아내어 학계와 시민들에게 향토
문화 연구에 커다란 동력이 될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책자 발
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료조사 및 번역, 집필로 오늘의 결실을
이루어 내신 대천문화원 임기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토사료를 발굴하고 잘 보존하여 후손만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연한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접하고 더 많이 알게 될 수록 내 고향과 우리 땅에
대한 정은 더욱 깊어지고 선조들을 향한 존경과 자부심은 더욱 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께서 우리지역 전통 향토문화의 기초자료가 될
소중한 성과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발간되는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책자가 우리
고장 향토 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높이
는 귀중한 사료로 널리 활용되는 값진 한 권의 책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책자를 발간하기
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보령시의회회장 김 정 원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황의천(黃義千)

- 196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출생
-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교육대학원 졸업
- 현 서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사료조사위원
- 저서 : 보령시지(2010), 보령의 금석문(2010)
집성당지(2007) 등
- 논문 : 남포오석의 역사적 위상,
성주사지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문제 검토 등
- 수상 : 만세보령대상(2006),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등

발행인 임 기 석

역은이 황 의 천

발행일 2013년 12월 20일

발행처 대천문화원

충남 보령시 대흥로 63

전화 (041) 934-3061, 931-3061

FAX (041) 936-3071

<http://daecheon.cult21.or.kr>

인쇄처 명문당인쇄사

충남 보령시 대천동 115-3

전화 (041) 935-2850

I. 남포대천장(藍浦大川場)의 지리적 위치

1. 개관 / 1
2. 화락산(花落山) / 3
3. 남포대천장의 사대부 입향 / 5
4. 남포대천장 지역의 발전 / 8
5. 대천리 지역의 지명 / 12

II. 남포현 치소 이동과 대천리

1. 백제시대의 웅천천과 사포현 / 17
2. 통일신라시대의 웅천천과 남포현 / 19
3. 고려·조선시대의 웅천천과 남포현 / 20
4. 조선시대 남포현 치소의 이동과 남포읍성 / 22
5. 남포현 치소 이동후의 대천리 / 27

III. 조선말기의 남포대천장과 오늘날의 웅천장

1. 보령지역의 보부상단과 남포대천장 / 30
2. 조선말기 남포대천장의 발달 / 32
3. 남포대천장의 이전(웅천시장 이전) / 34
4. 현재의 웅천시장(대창리) / 36
5. 저산팔읍보부상단 관련 자료 / 37
6. 일제시기 남포대천장의
모습을 알려주는 신문기사 / 48
7. 웅천시장 이전에 힘쓴 인물과 공적비 건립 / 52
8. 남포대천장의 사회활동 중심지 기능 / 53
9. 웅천지역 최초의 웅천교회 / 59

IV. 대천리의 웅천면 소재지

1. 조선시대의 면리제 / 63
2. 행정구역 개편과 웅천면 소재지 / 63
3. 웅천면 소재지의 대창리 이전 / 64
4. 대천리 소재 웅천면 관련 신문기사 / 66

* 이 책은 '2013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으로 충청남도과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목 차

V. 보령지역 관립 근대교육의 효시 웅천초등학교

1. 우리나라 공립 근대 보통교육 시작 / 68
2. 남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발전 / 68
3. 일제시기 웅천초등학교 관련 신문기사 / 83

VI. 남포대천장 주변의 유교유적

1. 집성당 / 88
2. 대천리와 남포향교 / 99
3. 효자 최광필 유적 / 101
4. 병오 홍주의병과 최상집 의사 유적 / 105
5. 일제시기 임경순(任敬淳)부친묘와 대천리 주민과의 갈등 / 129
6. 남포 대천장 주변의 비석 / 130



VII. 삼희당 윤석봉 선생과 흥경일기

1. 흥경일기 발굴 / 145
2. 조선말기 경기유생의 대천리 입향과 유생 네트워크 형성 / 146
3. 윤석봉의 흥경일기 / 160



VIII. 웅천천의 치수

1. 남포대천장의 명칭 연원이 된 웅천천 / 195
2. 웅천천의 수리시설 노전보 / 198
3. 웅천천의 다리 / 208



IX. 웅천발전

1. 석공예 산업 / 219
2. 도로 건설 운동 / 225
3. 무창포해수욕장 / 229

X. 주변 관광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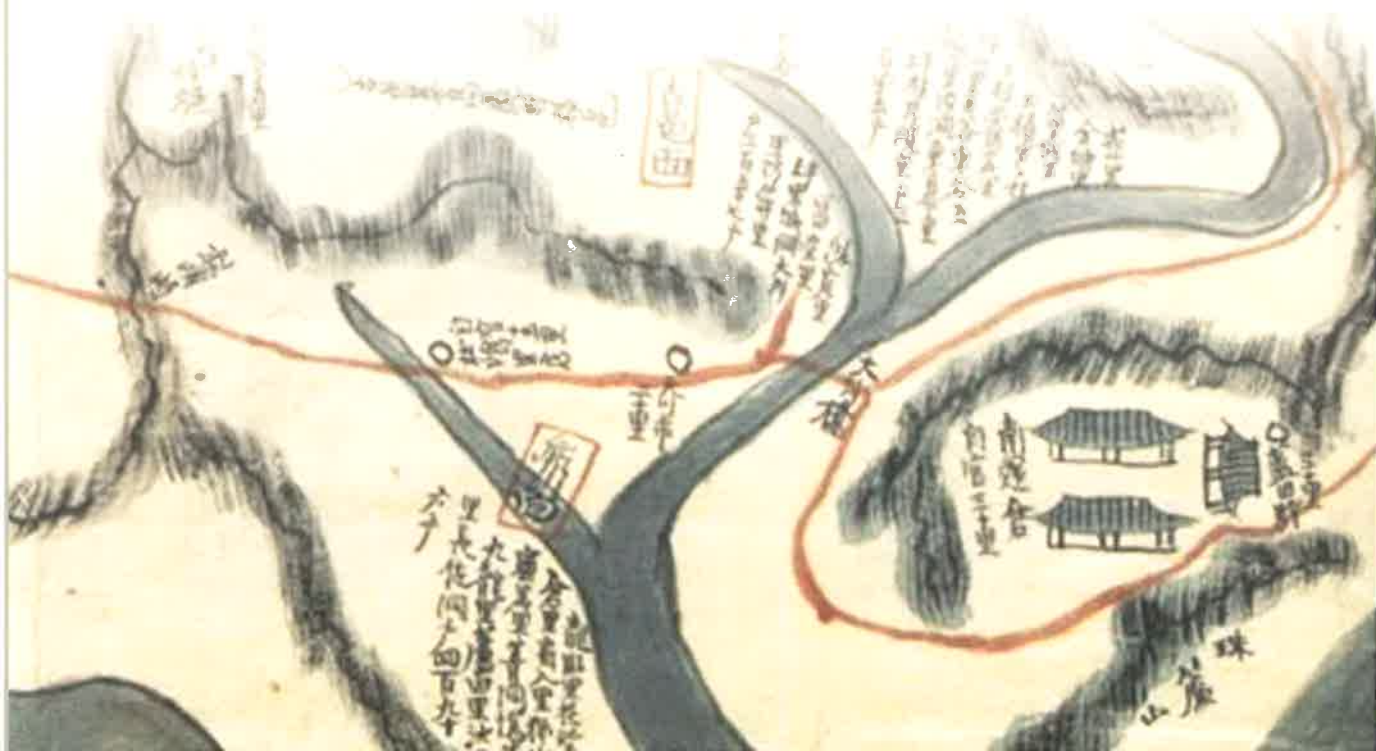
1. 대천리 산성 / 235
2. 성동리 산성(운봉산성) / 236
3. 수부리산성과 옥미봉 봉수대 / 237
4. 고려말 왜구 침입과 마량진(馬梁鎭) / 240





남포대천장과 주변의 문화

- I. 남포대천장(藍浦大川場)의 지리적 위치
- II. 남포현 치소 이동과 대천리
- III. 조선말기의 남포대천장과 오늘날의 웅천장
- IV. 대천리의 웅천면 소재지
- VI. 남포대천장 주변의 유교유적
- VII. 삼희당 윤석봉 선생과 흥경일기
- VIII. 웅천천의 치수
- IX. 웅천 발전



I. 남포대천장의 지리적 위치

1. 개관

과거 남포대천장(藍浦大川場)이 있었던 곳은 오늘날의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이다. 웅천읍 대천리는 보령시에서 남쪽으로 국도 21호를 타고 남포면을 지나 12km정도 내려온 곳에 있는 취락이다. 과거에는 시장과 면사무소 등이 있던 곳이어서 구장터로 잘 알려졌고 오늘날 대규모의 취락과 석공장들이 많이 분포한다.

이곳은 차령산맥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 내려온 지점으로, 동으로는 잔미산의 줄기가 길게 내려오다가 끝을 이루었고 마을의 서쪽은 화락산이 진산(鎭山)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운봉산이 있다. 취락은 잔미산이 끊어진 지점과 화락산 아래에 걸쳐 형성되었다.

이 잔미산과 화락산은 해발 200여 m산이지만 경사가 급해서 사람들이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잔미산은 서쪽으로 뻗어내린 긴 산줄기의 끝이어서 웅장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인지 1925년까지도 커다란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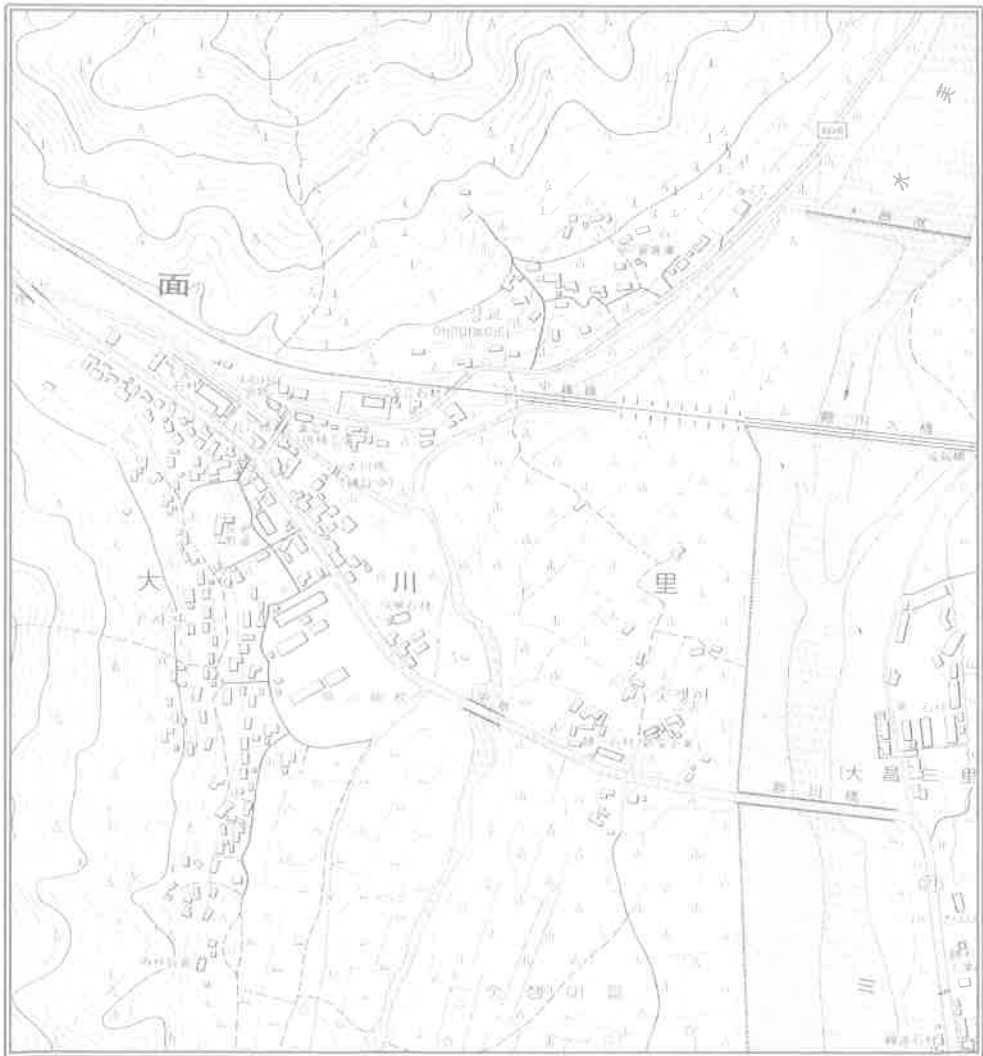
취락의 앞으로는 웅천천의 하류가 지나가고 그곳에 웅천천의 지류인 두룡천이 합류하고 있다. 전형적 배산임수의 지형을 이룬다. 또한 부여·대전 방면과 무창포 방면으로의 도로 교통의 분기점을 이루고 있어 남으로는 서천·장항, 북으로는 보령·홍성, 동으로는 부여·대전 서로는 무창포를 연결하는 길목이 된다.

화락산 아래에 취락이 형성되면서 조선시대 말기 이래로 보령시 남부지방인 남포현(藍浦縣)의 주민 생활 중심지가 된 곳이 대천리이다. 대천리의 남포대천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문화유적이 만들어졌다. 웅천천 하류 주변에 만들어진 문화의 중심지는 대천리 지역이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 웅천읍 지역의 문화 중심지를 이룬 것은 대천리의 남포대천장(藍浦大川場)이었던 것이다.

1) 동아일보 1925년 12월 14일자, 保寧 大川에 大虎, 洞民은 크게 不安中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에는 지난 9일 밤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동리 陳甲洙 집에서 돼지 1마리를 물어갔으므로 동리 사람들은 크게 놀래어 그 호랑이를 잡으려고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일반은 매우 불안 중에 있다더라

대천리의 취락은 배산임수를 이루는 곳이지만 농경지를 경작하기 위한 취락과는 거리가 멀다. 대천리의 앞에는 웅천천 하류가 지나가고 있지만 대규모 취락을 유지할 만한 농경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대천리의 취락 형성은 시장 취락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대천리가 대규모 취락임에도 불구하고 농경문화와 관련된 두레나 동제 등이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의 대천리 지역 지도



남쪽에 본 대천리(뒷산이 화락산)



동쪽에서 본 대천리(측면이 화락산)



1872년의 남포현 고지도(중앙에 大川市가 표시되어있다)

2. 화락산(花落山)

화락산(花落山)은 대천리 서남쪽에 있는 200여 m의 산으로 차령산맥이 서쪽으로 뻗어 내린 줄기의 끝부분을 이룬다. 이 산을 배경으로 하고 앞에는 웅천천에 임해서 취락이 형성되어 화락산과 웅천천을 연관시켜 화정(花汀:화락메)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졌다. 이 마을이 오늘날 대천리 남포대천장의 시초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산은 풍수적으로 떨어진 꽃과 같다고 하여 화락산으로

불린다고 하는데 남포대천장 마을의 진산(鎭山)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 산의 북쪽 너머에 있는 구룡리의 고뿌래(花望) 마을은 화락산을 앞으로 바라보며 만들어진 마을인데, 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고뿌래(花望)라고 부른다. 구룡리 고뿌래(花望) 마을은 화락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명당으로 전해온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 북거총론에 나오는 화계(花溪)가 고뿌래(花望) 마을이다. 택리지에

충청도 보령의 청라동(靑蘿洞) 홍주의 광천(廣川) 해미의 무릉동(武陵洞) 남포의 화계(花溪)에는 모두 대를 이어 사는 부유한 집이 많다. 또 여러 읍과 이웃하였고 편리한 뱃길 때문에 서울과 가까워 서울의 사대부 집들이 모두 이곳을 통해 재화를 운반한다. 비록 깊은 산과 큰 골짜기는 없지만 바다 모퉁이의 궁벽한 지역이기 때문에 난리가 애초에 들지 않아 가장 복지라 일컫는다.

라고 하여 보령의 청라, 홍주의 광천 등과 함께 남포의 화계가 바다를 끼고 있는 살기 좋은 땅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조선 후기 실학자 성해응(成海應)의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도

藍浦之花溪。稱福地土膏沃。西臨大海。有魚鹽稷稻之利

(남포의 화계는 복된 땅이라 칭하는데, 토지가 기름지고 서쪽으로는 대해(大海)가 임해 있고, 어염과 벼가 많이 생산되는 이익이 있다.)

라고 하여 화계 즉 고뿌래(花望) 마을을 복지라고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17세기 중반 이래 장수 황씨와 함안 조씨가 입향하여 오늘날까지 350여년을 한결같이 동족촌을 이루며 대를 이어 살고 있다. 그만큼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마을 한 가운데에 서해안고속도로 무창포IC가 건설되었다.

아무튼 화락산 남쪽에는 시장 취락이 형성되어 남포대천장을 이루고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북쪽에서 이 산을 바라보며 형성된 마을은 복지를 이루어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해 오고 있으니 화락산은 남포대천장 주변을 지탱해 주는 상징적인 산이라 할 수 있다.



대천리 지역의 항공사진 (김석용 님 사진)

3. 남포대천장의 사대부 입향

조선시대 화락산 아래의 대천리에 남포대천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부리수안 지역이 읍치소로서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종 때 읍치가 현재의 남포로 이동된 후에 점차로 교통의 요인으로 인하여 대천리에 시장 취락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천리 지역에는 사대부가가 입향하여 세거해온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사대부의 입향지는 은거하기 좋은 시골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시장 집단 취락이 형성되기 전 화락산 아래에 입향한 사대부는 강릉 최씨로 보인다. 강릉 최씨는 조선시대 남포현의 유력 성씨 안·황·윤·최 중의 하나로 16세기 최광필(崔光弼 1553~1608)이 무송 윤씨의 사위가 되어 남포현에 입향하면서 세거가 시작되었다. 이들의 입향지와 세거지는 웅천 소항리 지역으로 알려져온다.

그러나 대천리 향교말에는 강릉 최씨 최수원(崔壽遠)의 묘가 있는데, 이 묘는 대천리 지역의 사대부 묘소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최수원은 최광필의 장손자로 1679년에 사망하여 묘소가 만들어진 것이다²⁾. 그리고 향교말 주변의 잔미산 자락과 건너편의 화락산 자락에는 계속하여 최수원의 후손들 묘소가 조선 말기까지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천리 지역에 최광필의 장손 계열의 묘소가 오랫동안 만들어진 것은 이 지역이 강릉 최씨의 초기 입향지였고 세거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수원의 묘(대천리 향교말 소재)

또한 향교말에 있는 최광필의 효자정려는 원래 경기도에 있었으나 남포현에 옮겨왔는데, 처음에는 대천리에 있다가 다시 소항리에 옮겨졌고 최근 다시 현재의 향교말로 옮겨온 것이다.

처음 경기도에서 옮겨올 당시의 위치가 대천리였다는 것은 이곳이 강릉 최씨의 세거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정려는 동족촌의 입구나 마을에 세워져서 그 문중의 위상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문화유적이다.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정려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대천리에는 강릉 최씨가 세거하지 않고 소항리 지역에 세거한다. 이것은 조선후기 이곳에 남포대천장이 만들어지면서 사대부가의 세거지로 부적합하게 되어 소항리 지역으로 이주해 간 것으로 보인다. 소항리 지역은 최광필의 차손계열이 입향 당시부터 세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손계열의 묘소가 대천리 지역에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항리 지역에는 차손 계열의 묘소가 계속해서 형성되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세거지로 이어오며, 외가인 무송 윤씨 세거지 또한 소항리 지역인 까닭이다. 결국 강릉 최씨 장손 계열의 초기 입향과 세거지는 대천리였으나 조선후기 남포대천장이 형성되면서 사대부의 세거지로 부적합하게 되어 차손계열의 세거지로 이주해 간 것으로 보인다.

2) 입향조 최광필의 묘는 경기도 있다가 최근 소항리로 옮겼고, 장자 최윤의 묘는 경기도에 있다.



최광필 정려(대천리 향교말)



집성당

이어서 19세기 말에는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윤건오(尹建五) 윤석봉(尹錫鳳) 등 파평 윤씨 사대부들이 대천리 화정촌에 입향해왔다. 그리고 집성당(集成堂)을 세우고 지역의 유교 문풍을 진작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남포대천장이 있었을 뿐 아니라, 1918년에는 식민지 교육제도의 산물이며 근대 교육 기관인 화정공립보통학교(현 웅천초등학교)가 화락산 아래에 만들어지면서 이를 피하여 세거하지 않고 미산 늑전리, 노천리, 수부리 등지로 이주해갔다.

따라서 현재 대천리에는 사대부가의 입향과 함께 이어오는 동족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다만 시장 취락의 성격을 보여주는 성씨 분포만 보여준다. 현재 대천리의 성씨 분포는 다음 표와 같이 39개로 다양하여³⁾ 시장형성과 함께 이주해온 다양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준다.

김	강	구	나	남	명	박	배	백	서
24	4	2	1	1	1	13	1	8	4

송	신	심	안	양	오	원	유	윤	은
1	1	1	5	9	8	1	7	2	1

이	여	임	장	전	정	조	지	최	추
25	1	6	2	3	3	4	3	12	2

하	한	홍	황	고	권	노	엄	주	
2	4	1	3	1	1	1	1	2	

3) 웅천농협 발행 웅천지역 리별전화번호부(2012)

4. 남포대천장 지역의 발전

15세기 조선 세종 때 남포현의 읍치가 수부리 수안에서 현재의 남포면 읍내리로 옮겨진 후 고남포 지역은 웅천천 주변의 퇴적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인구가 꾸준히 거주하였다. 남포현의 이동 후 남쪽의 비인현 방향으로 통하는 도로가 사현(砂峴:새아니재)이 아닌 이현(梨峴:이어니재)을 이용하면서 남포대천장이 있었던 현재의 웅천읍 대천리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 지역이 웅천천 하구의 포구였던 청연포나 완장포의 기능과 어울려서 물자의 집산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인구 통행의 길목이 되었다.

오늘날 대창리의 웅천시장 자리는 당시는 바다 퇴적층 지대이고, 웅천천 범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며, 남포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웅천천을 건너야하는데, 다리 시설이 제대로 되지 못했으므로 포구와 도로 기능을 이용한 물자와 인구의 통행에 유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천리 지역은 화락산과 잔미산 아래 산록 완사면 지역을 따라 형성된 배산 임수 지형을 이용한 유리한 취락 조건이 인구와 물자의 이합집산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조선 후기 우리나라 전국에 지방 장시가 성행 할 때 대천리 지역도 인구의 통행과 물자의 집산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 장시인 남포대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 지역이 큰 취락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남포대천장 주변 동리 및 인구수(여지도서)

면	동리	거리	편호	남자인구	여자인구	계
고읍면	부근당리	남 25리	107	132	239	371
	평리	남 23리	72	99	196	295
	성동리	남 25리	33	155	347	502
	대천리	남 25리	42	48	61	109
	방축리	남 25리	51	72	158	230
웅천면	용와리	서 15리	30	57	84	141
	화망리	서 17리	58	120	152	272
	덕산리	서 20리	40	87	91	178
	간입리	서 20리	49	113	140	253
	봉오치리	서 23리	28	54	62	116

	독산리	서 25리	93	150	242	392
	대황동리	서 25리	78	138	250	388
	소황동리	서 27리	81	149	216	365
	광암리	서 30리	17	31	45	76
	내화리	서 30리	23	43	41	84
	정동리	서 20리	69	71	140	211
	구룡리	서 20리	51	75	102	177
	장좌동리	서 20리	32	40	78	118
	사근천리	서 33리	106	252	190	442

위 표의 여지도서에 기록된 내용에서 보듯이 18세기에는 남포현 웅천면에는 대천리라는 동명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남포대천장이 서는 지역에 대한 마을 이름이 공식적으로 편제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고읍면의 대천리는 오늘날 대창리 한내 마을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의 기록인 충청도읍지나 호구총수에도 마찬가지다. 남포대천장 지역이 조선후기에 전형적 5일장 공간 즉, 장날이면 물자와 사람이 많이 집결하고 장날이 아닌 날에는 텅 비는 장소였기 때문에 취락이 크게 형성된 동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공식 동리 명칭으로 편제되지 않은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0년대 세워진 남포현감 정상박의 비석부터 꾸준히 20세기에 이르도록 이 지역에 현감의 청송 비석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현감의 기념비는 읍치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거리에 세워진다. 남포대천장 지역이 읍치도 아니고 취락이 크게 형성된 동리로 기록된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감 비석이 세워지는 것은 조선후기 이 지역이 전형적인 5일장의 공간으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지역이 공식 동리로 편제되지 않은 것은 취락을 이루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이 당시의 시장이 상설시장 기능이 아니고 시골 5일장의 기능만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는 점차 상업에 관계되는 일로 인구의 이주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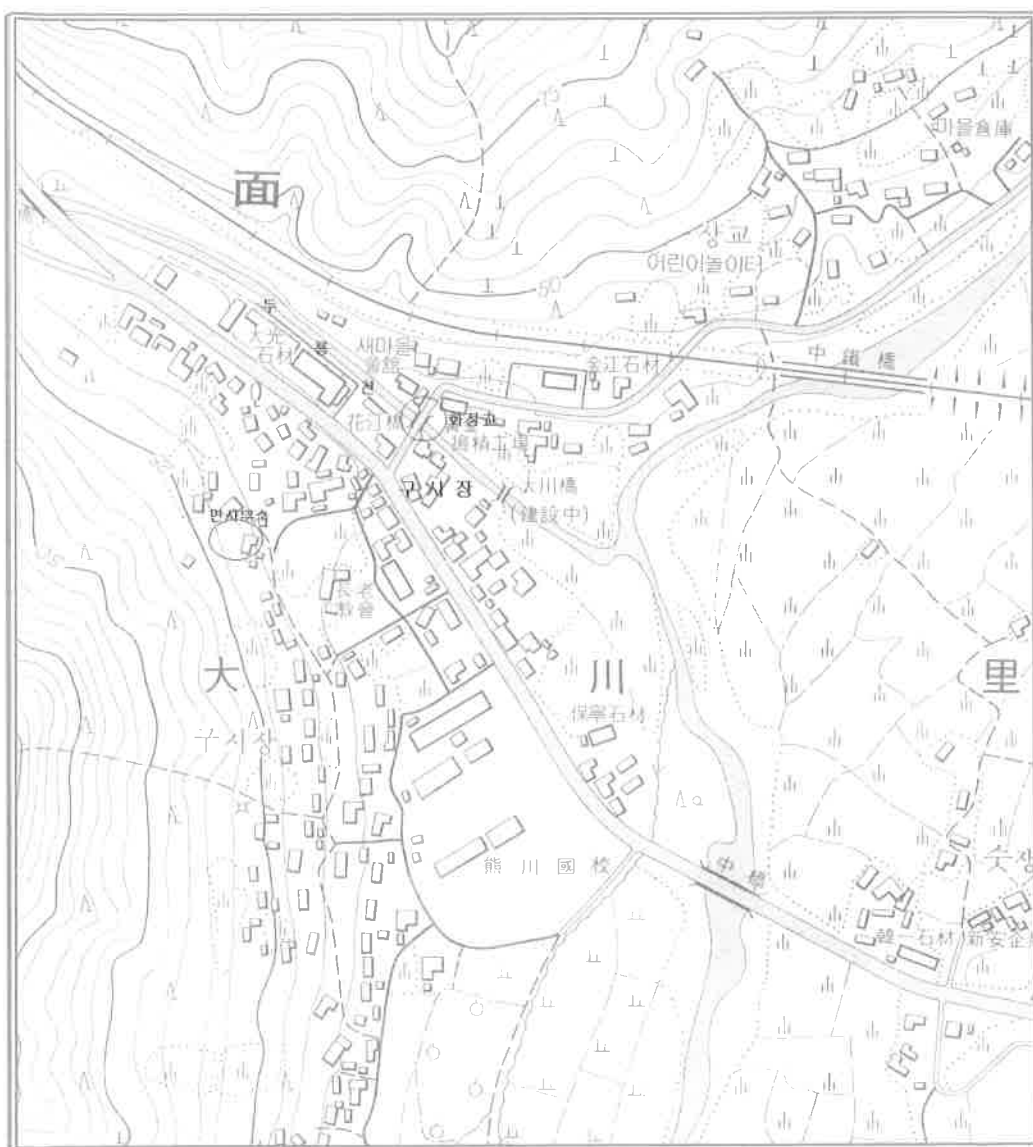
작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이 공식 동리인 대천리로 편제된다.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리지자료에 의하면 웅천면의 대천리(大川里)가 등장하고,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 지역이 정착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시장 지역이어서 웅천면 대천리로 공식 편제되기에 이른다. 결국 대천리의 행정구역 편제는 조선후기부터 시장 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구가 꾸준히 정착하게 되어온 결과 20세기에 들어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 대천리 지역은 남포대천장의 5일장 기능만 가진 채 공식 행정 구역 편제는 되지 못했지만, 대천리 주변 지역에는 많은 인구를 가진 동리들이 나타난다. 부근당리(371명) 평리(295명) 성동리(502명) 사근천리(442명) 등 모두 웅천천의 퇴적 평야지대에 형성된 대규모 취락들인데, 여기에서 사는 인구들이 남포대천장의 배후 세력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웅천천 유역의 드넓은 퇴적 평야가 남포대천장 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동리의 인구는 당시 남포현 지역의 동리 인구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그룹이다.

대천리를 통하는 육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포현 치소 이동 후 이 어니재를 넘어 잔미산 북쪽과 두룡천 사이를 따라서 내려와 대천리 지역에 다다른데, 웅천천에 합류하기 직전의 두룡천이 대천리 지역을 동서로 갈라 놓는다. 남포대천장과 웅천면사무소는 두룡천의 서쪽에 만들어졌는데, 두룡천의 동쪽에 만들어진 도로와 접점이 되려면 반드시 다리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다리가 화정교(花汀橋)이다. 대천리의 동.서를 연결하고 도로를 시장과 접근시키는 교량이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비인이나 웅천에서 올라와 대천이나 부여방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화정교를 건너야 했으므로 화정교는 통행의 중요한 기능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서쪽의 대천리 삼거리는 북으로는 대천·무창포, 동으로는 부여 방향으로 갈라지는 장소가 되어 중요한 교통 분기점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대천리 삼거리에서 북쪽방향 500여 m지점에 두룡천을 건너는 다리를 새로 만들고 대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이설하면서 화정교는 부여 미산 방면의 통행로로만 쓰이다가 1980년대 초 부여방면으로의 도로 포장 공사 때 화정교 100여m 아래 쪽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면서 중요 통행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화정교 면사무소 시장위치



화정교

5. 대천리 지역의 지명⁴⁾

고려 조선시대는 남포현의 일부였으며, 대한제국 시대는 남포군 웅천면 지역으로서, 이곳을 흐르는 큰내를 한내〔大川〕라고 불렀고 이곳에 섰던 시장을 한내장〔大川場〕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연유하여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천리라 하였다.

- 개바지고랑: 잔미산 남쪽 사면, 큰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 개치발고랑: 잔미산 남쪽 사면, 개바지고랑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 구장터: 대천리를 가장 빈번하게 부르는 이름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천리라고 하고 주민들이 부를 때는 보통 ‘구장터’라고 한다. 1928년 4월 5일 웅천면 청사를 이곳 대천리에서 대창리로 옮기면서 시장도 옮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에 섰던 시장은 ‘한내장’으로 불렸고 ‘大川場’으로 표기하였다.
- 노전보: 수부리에서 흘러오는 큰내를 옛 전기회사(변전소) 앞에서 막은 보이다. 이 물이 작은 철다리를 거쳐 두룡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 또 하나

4) 황의호, 『보령의 지명』 보령시 1998.

의 노전보를 지나 웅천초등학교 앞과 용못 위쪽을 통과하여 노천리로 들어간다. 노천리 앞들의 간척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므로 노천리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보이다.

- 노전보: 작은 철다리 밑으로 오는 물과 두룡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 바로 남쪽에 있다. 노천리로 물을 대기 위하여 만든 보이다.
- 대천1리: 1·2·3·4반 대천리, 5반 화락메.
- 대천2리: 1반 숙쟁이.
- 면소다리: 화정교를 말한다. 면 소재지에 있는 다리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 물탕: 잔미산 남쪽 사면, 개치발고랑 동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물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동리 쪽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물탕골: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물탕 동쪽의 골짜기이다. 잣티골이라고도 부른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부원군묘: 생갯말 서쪽, 잔미산의 서남쪽 끝은 풍수설로 보아 성주 8모란의 하나라는 전설이 있어 많은 묘가 들어서 있다. 그 중에 부원군 묘로 전하는 묘가 있다.
- 삼동골: 잔미산 남쪽 산록, 옷나무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성동리 외성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샘골: 세웅골을 부르는 다른 이름.
- 생갯말: 대천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과거에 남포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불렀던 향교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세웅골: 대천리의 최남단 화락메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 소금바위: 화락산의 북쪽 무창포 가는 길 입구에 있던 바위이다. 역암으로 된 큰 바위로 길 위 산쪽에 있었는데 도로 확포장 공사 때 부수어 버렸다.
- 숙쟁이: 작은내와 큰내 사이에 형성된 섬이다. 일종의 하중도(河中島)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척박한 땅이다. 과거에는 홍수의 염려가 있고 척박하여 주민의 거주가 극히 제한되었으나 근래 제방의 축조로 석공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석공장과 가옥이 들어서 있다. 과거 이곳에 있던 도로는 홍수의 위험 때문에 도로 포장되어 있었다.
- 숯쟁이: 숙쟁이의 다른 이름.
- 시장터: 화정교 동남쪽 철길 밑으로 1928년 면사무소가 이전될 때까지 시장터였다. 웅천지서도 이곳에 있었다.

- 영당: 집성당의 다른 이름.
- 윗나무골: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잣티골 동쪽의 골짜기이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용못: 대천리의 최남단, 노천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작은넷물의 공격사면에 해당되어 깊은 못을 이루었다. 깊은 웅덩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부사방조제 제방을 막기 전에는 바다 고기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가뭄이 심할때 주변의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용못 옆에 있는 산 줄기는 닭의 머리이고 용못에서 물을 먹고 있는 형국이라는 전설도 있다.
- 위뜸: 대천리의 서북쪽 정자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 작은내: 숙쟁이와 화락메 사이를 흐르는 내로 두룡리에서 흘러오는 물과 노전보에서 흐르는 물이 합하여져 흐른다. 갈수기에는 노전보로 물을 돌려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
- 작은다리: 웅천초등학교와 큰다리 사이에 있는 1937년 5월 17일 건설한 다리이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끊겼었으며 1960년대까지 다리 밑에 포탄으로 패인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원래 있던 다리는 사용하지 않고, 옆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였다.
- 작은철다리: 작은내에 놓여진 철다리이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1칸이 파괴되었었다.
- 잔미산(잣미산): 대천리의 동북쪽에 있는 산. 최고봉은 416.8m이며 대천리 쪽에도 350m 이상의 봉우리를 이룬다. 중생대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 경사가 급하며 곳곳에서 오석이 산출된다. 꼭대기에 봉수대터와 대천리산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잣티골: 잔미산 남쪽 사면에 있는 물탕 동쪽의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대천리산성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동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물탕골이라고도 한다.
- 전기회사모텡이: 생갯말 동북쪽 수부리로 통하는 모퉁이이다. 이곳에 변전소가 있어 웅천 대천 일원에 전기를 공급하였으나 남포로 이전하였다. 이곳에 변전소를 만들기 전에는 구장터 느티나무 북쪽 50여m 떨어진, 무창포로 통하는 도로변에 전기회사가 있어 전기를 공급하였다.
- 정굴: 잔미산 남쪽 산록에 있는 삼동골 동쪽 골짜기. 성동리 외성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다.
- 정자나무: 위뜸에 있는 정자나무(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이 정자

나무 밑으로 무창포 쪽으로 통하는 길이 나있어 장꾼들이 쉬어가곤 하였다.

나무 밑 담 속에는 관찰사 宋正明의 비 등 2개의 비가 있다.

- 줍방바위: 잔미산의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철길 위 부분에 있다.
- 중건내갈: 작은내의 철다리 윗 부분을 말함.
- 중뚝: 숙쟁이 북쪽 지역으로 과거에는 밭으로 이용되거나 습지였는데 주변에 제방이 축조된 뒤로 많은 가옥이 들어서 있다.
- 지네바위: 생갯말 서쪽 잔미산 서남쪽 끝에 있는 바위. 잔미산 전체가 풍수설로 보아 지네의 형국이라고 한다.
- 집성당(集成堂): 화락메 남쪽에 있는 사당으로 1898년에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이 주동이 되어 유림들이 건립하였다. 주희와 송시열이 배향되었다.
- 큰골: 전기회사 모퉁이 동쪽에 있는 큰 골짜기. 대천리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 큰내: 성주 미산 외산에서 흘러오는 큰 내로 근래에는 큰내라고 불렸으며 표기는 大川이라고 하였다. 한내는 마을과 시장(한내장)을 지칭하였고 냇물은 작은내와 비교하여 큰내로 불렸다. 큰내에는 은어가 많아 전국적으로 유명하였다.
- 큰다리: 큰내에 놓여진 다리로 일제시대 초기까지는 전기회사 앞에 돌다리가 있었고 이곳에는 나무만 있었다(1915년 측도 1:50000 지형도). 1933년 길이 75m로 가설되었다. 6.25 사변 때 미군의 폭격으로 다리가 끊겼었다. 근래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원래 있던 다리에 덧대어 폭을 확장하고 길이도 확장하였다. 다리 확장 공사 때 다리의 상판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있었다.
- 큰철다리: 큰내에 놓여진 철교이다. 6.25 사변 때 폭격을 맞기는 했으나 파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 향교말: 생갯말을 부르는 이름. 과거에는 생갯말이라고만 불렸으나 그 어원을 찾아 향교말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마을 입구에 비석도 세워 놓았다.
- 호동박굴: 잔미산 남쪽 산록 정굴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호동박굴다리: 성동리 외성(бат성굴)에서 잔미산 남쪽 산록 호동박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이 다리를 통하여 성동리 사람들이 잔미산에 나무를 하러 다녔다.

- 화락메: 대천리의 남쪽 웅천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다. 웅천초등학교가 들어서면서 여러 채의 가옥이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는 학교 서남쪽 지역을 지칭한다.
- 화락산(花落山): 대천리 서남쪽에 있는 200여 m의 산으로 차령산맥의 줄기를 이룬다. 지질적으로는 중생대 남포층군에 속하여 퇴적암으로 되어있고 경사가 매우 급하다. 이 산은 풍수적으로 떨어진 꽃과 같다고 하며, 북쪽의 고뿌래(花望)에서 꽃을 바라본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또한 화락산은 닭의 형국이고 잔미산은 지네의 형국인데 냇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다가 닭이 고개를 돌린 형국이라는 말도 전한다.
- 화정교(花汀橋): 대천리 중심에 있는 다리이다. 일제강점기에 건설하였고 과거에는 이 다리를 통하여 대천 부여 방향으로 통하였다. 1922년 가설되었다(11m). 최근 홍수에 유실되고 다시 건설하였다. 면소다리라고도 불렀다.
- 화정리(花汀里): 구장터의 중심지역을 말한다. 이곳에 면사무소와 지서, 시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이름으로 보인다.



독다리의 옛 돌다리(1992)



옛 웅천면사무소 정문(2007)

II. 남포현의 치소 이동과 대천리

1. 백제시대의 웅천천과 사포현

보령지역에는 백제시대부터 2개의 현(縣)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중앙집권체제의 통제에 편입되게 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가림군(加林郡)의 딸린 현〔領縣〕으로는 마산현(馬山縣), 설림군(舌林郡)의 딸린 현으로는 사포현(寺浦縣), 그리고 결기군(結己郡)의 딸린 현으로는 신촌현(新村縣)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림군은 오늘날 금강 유역의 서천군에 설치된 군현이고, 결기군은 오늘날 홍성군 결성 지방에 설치된 군현이어서 보령지역에 설치된 남포현과 신촌현 2개의 현은 서천과 홍성의 각기 다른 군에 딸린 현이었다.

웅천읍과 남포면을 중심으로 하는 보령 남부 일대는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이었고, 북쪽인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일대는 신촌현(新村縣)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면 남포현의 전신인 백제시대 사포현의 중심 치소는 어디인가? 백제시대 사포현의 중심 치소는 오늘날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은 대천리에서 동쪽으로 웅천천을 3Km 정도 거슬러 올라온 곳이다. 이곳은 웅천천 하구와 서해로 나가는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백제의 성왕이 서기 538년 사비(부여)로 천도한 목적이 대외진출이 용이한 곳을 택한 것이고 이렇게 선택된 곳이 금강 유역의 부여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곳에 사포현이 설치된 이유도 백제시대에 대외 관문으로서 중요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는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포현 치소 즉 오늘날의 웅천읍 수부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성주사의 전신인 백제시대의 오합사(烏合寺)가 위치하고 있었다. 오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성주사사적기에서는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성주사지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의 가람지와 유물이 확인되어 성주사 사적기의 오합사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성주사 사적기에는 백제 혜왕의 아들 법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오합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성주선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의자왕 19년에 크고 붉은 말이 오합사에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15년에 붉은 말이 북악(北岳)의 오합사에 나타나 울면서 절을 돌다가 수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 등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를 오합사와 연결하여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의 성주사지(성주면 소재)

사적기의 기록대로 백제의 오합사가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국가적 사찰이라면 사비 주변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인데도, 이곳 사포현의 한 장소에 세워진 것은 백제시대 이곳 보령 남부 지역이 백제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도 컸으며,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점이라든가 사당적 성격의 원찰이라든가 하는 점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 있는 호국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백제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 징조들은 모두 사비도성 주변의 중앙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오합사 기록 이외에 지방에서 일어난 기록은 거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서해안 보령 지역의 사포현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때 오합사의 관문으로서 웅천천 하구의 포구가 사포(寺浦)로 불리면서 대외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즉 사포현의 대외 통로는 웅천천 하구였다. 웅천천은 성주산과 부여군 외산면의 만수산에서 발원하여 감입곡류하면서 서해로 유입되는 36km에 이르는 하천이며, 이 시기 백제의 가장 큰 대외 통로인 금강과 가장 가까운 큰 하천이었으며, 금강 이외에는 사비도성과 가장 근접한 하천이었다. 이 웅천천 하구가 커다란 만구(灣口)를 이루어 대외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통일신라 시대 웅천천과 남포현

삼국사기 지리지에

서림군(西林郡)은 본래 백제 설림군(舌林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둘이었다. 남포현(藍浦縣)은 본래 백제 사포현(寺浦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비인현(庇仁縣)은 본래 백제 비중현(比衆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라고 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 후 경덕왕 16년(757) 군현의 대대적인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지방 통치체제는 완전히 정비되었다. 이때 보령 지역은 신라의 전국 9주 중 웅주(熊州)의 관할 하에 있게 되었으며, 사포현은 남포현(藍浦縣)으로 개칭되어 서림군(西林郡)의 영현이 되었고, 신촌현은 신읍현(新邑縣)으로 개칭되어 결성군(潔城郡)의 영현이 되었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는데, 주에는 도독(都督), 군현에는 태수와 현령이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백제시대의 군현 명칭을 버리고 새로운 명칭을 채택한 것은 보령 지역의 재지 토착세력의 지역성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제적인 의식이나 전통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신라적인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군현 아래에는 촌(村)이라 불리는 작은 행정구역이 있어 촌주(村主)가 지방관의 통제를 받으며 중앙의 통치를 대행하였으나, 보령 지역에서는 촌주의 통치와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 남포현의 중심지는 백제시대의 사포현과 동일한 장소인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로 추정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천리를 거쳐 내려간 웅천천 하구는 통일신라시대에도 해상관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성주사 사적기』의 성주사 건물 기록을 보면 전단림(梅檀林) 9간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단(梅檀)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의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자단(紫檀)이라 불리는 이것은 흥덕왕 때 수입을 금지한 사치품이었다. 이러한 전단으로 지은 건물이 성주사에 있었다는 것은 귀족이나 지방 호족의 해상

관문으로 남포의 역할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멀리 떨어진 동남아에서 이러한 물자가 유입되어 오는 방법은 해상 운송 수단에 의지해야 되고, 그것이 해상으로 성주사에 들어오려면 가까운 곳에 대외 진출입이 용이한 포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성주사의 대외관문이 남포, 즉 오늘날의 웅천천 하구라고 할 수 있다.

남포현 치소의 위치는 백제시대 이래로 성주사에서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진 웅천천 하류지역인 웅천읍 수부리 수안에 있었다. 이 지역은 남포현 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에 속하며 차령산맥에서 뻗어 나온 줄기가 서남쪽으로 가면서 산세가 낮아지면서 서해에 닿고 있다.

서북부는 잔미산이 이 지역을 옹위하고 있으며, 남부는 동막산 운봉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고, 그 중심부는 보령지역 최대의 웅천천이 곡류 하면서 비옥한 퇴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천리를 거쳐서 내려간 하구 지역은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농경지로 변하였지만 서해와 연결된 천혜의 포구를 형성하였었다.

이러한 자연 조건은 수운교통의 편리, 방어기능의 최적조건, 농경생활의 편리 등으로 과거부터 인류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 것처럼 사포(寺浦), 남포(藍浦)라는 지명도 단순한 포구에 불과했다기보다는 백제말기 오합사(烏合寺)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백제 왕실의 원찰(願刹)이 되었고, 신라 선문구산(禪門九山)의 하나로 호서지역 불교문화를 크게 진작시킨 성주사(聖住寺)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적 기능과 통일 신라 대외진출 역할을 수행하던 인상 깊은 장소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3. 고려. 조선시대의 웅천천 남포현

고려의 건국 이후 보령지역에는 보령현과 남포현의 2개의 현이 설치되었다. 보령의 북부 지역에는 백제 시대에는 신촌현, 통일 신라 시대에는 신읍현이 설치되었는데, 고려시대 현종 9년(1012)의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 보령현(保寧縣)이 설치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전국 5도 중 양광도 홍주에 3군 11현이 딸려 있는데, 보령현도 홍주에 딸린 속현의 하나였다.

보령지역의 북부에 보령현이 설치된 반면 남부 지역에는 남포현(藍浦縣)이 설치되었다. 남포현도 양광도 가림현에 딸린 1군 4현 가운데 하나였다.

현재는 하나의 보령이지만 보령현이 홍주의 속현이었던 반면 남포현은 가림

현의 속현이 되어 고려시대는 보령현과 남포현이 통치상으로 동질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행정구역이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남포현(藍浦縣). 본래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으로 신라 경덕왕(景德王)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현종(顯宗) 9년에 내속(來屬)하였으며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신우(辛禡) 6년에 왜구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공양왕(恭讓王) 2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성(鎭城)을 두고 유망민을 불러모았다.

라고 하고 있다. 이때 남포현의 위치는 현재의 남포면 읍내리가 아닌, 여기서 남쪽 15리 지점인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이었다. 이곳은 웅천천 하구 지역으로 웅천천 하구를 통하여 서해로 나갈 수 있는 관문에 위치한 곳이다. 여기의 지명이 현재 수안이지만 원래는 치소의 안쪽을 뜻하는 소안(所安)이며, 고읍내라는 지명이 옛 남포의 치소였음을 보여주는 바, 조선시대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고읍이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수안출토 관자명 어골문 와편

그리고 당시 관청에서 모시던 부근당 신앙과 관련하여 지어진 부근당이 있었던 ‘불근댕이’ 지명이 있는가 하면, 관자명(官字銘) 어골문기와, 문초석 등의 유물이 있어 고려시대 남포현의 치소였음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앞에는 운봉산성, 뒤에는 수부리산성이 있어, 전후에서 치소를 옹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산성은 길이가 운봉산성이 1,500여 m, 수부리산성이 2,800여 m가 되는 거대한 산성이다.

이 산성들은 조선시대 읍지 등에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운봉산성에서는 고려시대 어골문 와편이 많이 발견된다.

고려시대 까지 수부리의 수안이 치소가 되어 남포현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천리 지역을 거슬러 올라온 웅천천의 수상 교통과 북쪽으로 향하는

육로가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안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수안 뒤의 산 고개를 넘어서 오늘날의 남포면 옥서리로 가야 하는데, 이 고개가 사현(沙峴)이다. 조선 시대 남포현의 치소가 수부리에서 오늘날의 남포면 읍내리로 이동하면서 기능이 없어져서 오늘날은 거의 폐쇄된 채 흔적만 남기고 있다.



수부리 수안 출토 와편



수부리 수안 출토 와편



수부리 수안 출토 성문 문초석



수부리 수안 출토 성문 문초석

4. 조선시대 남포현 치소의 이동과 남포읍성

보령지역의 남부지역에는 백제 때는 사포현,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에는 남포현이 설치되었는데, 그 치소는 현재 남포읍성이 있는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 있었다고 막연하게 알려져 왔다. 그러나 현재 남포읍성이 있는 남포면 읍내리의 치소는 조선 세종 때 옮겨진 것이고, 그 이전에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다. 오늘날 웅천 지역의 고로(古老)들이 웅천을 ‘남포’ 또는 ‘원남포’로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고적조(古跡條)에

古藍浦가 있는데 지금의 관아 남쪽 15리 지점에 있으며, 古縣의 터가 있다

고 하여 고남포에 관하여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남포가 다른 지역에서 이동된 치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편찬된 모든 지리지(地理志)나 읍지(邑誌)에서는 남포현의 연혁을 기록하면서 고적조에 같은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고남포는 남포읍성이 있는 남포현 치소에서 남쪽 15리 지점의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이다.

수안마을의 지명 중 “불근댕이”라고 불리는 곳은, 과거 군현 관청에서 사직신(社稷神)을 모시는 부군당(府君堂)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東軒 자리’, ‘옥담안밭’ 등의 지명도 관청 시설이 있었던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원래 이 마을의 고유 이름은 소안(所安 즉 치소안)이었는데, 옛날부터 식자(識者)들이 비슷한 한자음을 따서 수안(洙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수안 앞마을인 성동리에서는 지금도 수안을 고읍내(高邑內)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

또한 수안마을에는 수많은 다양한 문양의 와편(瓦片)들이 집터, 담장 발 등에 상당히 널려 있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사격자문, 고려시대의 어골문이 대부분이다. 지방의 변두리 지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와편이 수습되는 것은 일반적 백성의 거주구역에서는 불가능하고 관청 소재지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대로 여기서 특히 “官”자가 찍힌 와편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관청용 기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곳에 과거에 관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본래 백제의 사포현(寺浦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 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옮겨 붙이었다가, 다시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홍무(洪武) 13년 경신에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6년 정축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읍 석성(邑石城)은 둘레가 3백 17보이며, 안에 우물 3개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鎭山은 九龍이다 ··· 邑石城은 둘레가 317보이며, 안에 우물이 세 개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 역이 하나이니 남전이며, 태종 癸巳에 비로소 두었다. ··· 봉화가 두 곳이니 현의 서쪽 덕산에 있어 남쪽으로는 비인 칠지에 북쪽으로는 본군 余道帖에 응한다. 현의 북쪽에 있는 여도점은 북쪽으로 보령 조침산에 응한다.

세종실록지리에 의하면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우리 나라 해안이 황폐화될 때 남포에도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왔고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이어서 진성(鎭城)을 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의 남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웅천읍 수부리 고남포 지역이 과거부터 백성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 때 웅천천 주변 수부리 대천리의 고남포 지역의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본 것이다.

그리하여 구룡산을 진산으로 삼고 317보의 진성을 쌓고 군정관인 병마사 겸 판현사(兵馬事兼判縣事)를 파견하여 주변의 산성들과 유기적 연락을 가지면서 군사 요새화하여 진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고남포의 진산이 구룡산이라 하였는데 진산은 고을 치소를 뒤에서 옹위해 주는 산이다. 조선시대 모든 고을 치소는 진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남포도 진산을 구룡산으로 삼았던 것이다. 구룡산은 현재의 잔미산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현 남포의 진산은 옥마산이다.

그 후 현재 웅천천 하구의 웅천읍 황교리 광암마을에 충청수영 휘하의 마량진(馬梁鎭)이 설치되고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어 이 지역의 관방이 구축되는 것은 고려 말의 고남포 지역 왜구침입 피해 사실과 이 지역 방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음은 웅천읍 수부리의 고남포에서 현재의 남포로 언제 치소가 이동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말선초 왜구의 침입을 당하여 조정에서는 연해안 지역의 방비를 위하여 새로운 읍성을 급히 쌓아가기 시작하였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최윤덕을 순찰사로 삼아, 후에는 정흠지(鄭欽之)로, 또 조말생(趙末生)으로 대체시켜 가면서 충청·전라·경상도 연해 읍성을 순행하여 성 쌓을 터를 살펴서 정하고, 축성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이후부터 인구증가와 주민 입보(入保)에 따른 편의와 방어를 감안하여 연해안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규모로

격식을 갖춘 읍성축조가 이루어진다.

남포읍성의 축조 논의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27년(1445)이다.

세종 27년 8월 19일(庚申)조에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해서 아뢰기를 “지난해에 충청도 남포의 성을 쌓을 것을 흉년으로 정지하였으나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쌓기를 청합니다. 또 전라·경상도의 요해처에 석보(石堡)를 각각 쌓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한 세종 27년 9월 3일(癸酉)조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금년은 화곡이 처음에는 무성하다가 나중에는 잘 되지 않았으니 청컨대 남포와 전라·경상도의 석보 쌓는 것을 정지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소서” 하니 임금이 “성을 쌓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인데 해가 만일 풍등[豐登]하지 못하였다면 이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세종 27년 10월 2일(壬寅)조에

사간원에서 “연사가 흉년이니 남포 등지의 성 쌓는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하삼도의 기근이 예전보다 배나 되오니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본래 백성을 위하고자 함인데 금년에 정지하고 명년에 또 이와 같으면 성을 쌓을 만한 때가 없을 것이다.

무릇 비변사에서 힘이 미치면 행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하니, 다시 사간원에서 “성 쌓는 것은 백성을 위함이라 하지만 흉년인데 어찌합니까?” 하였다.

다시 임금이 “한가한 때를 당하여 성을 쌓지 않고 있다가 뜻밖에 변(變)이 생긴다면 미칠 수 있겠는가. 대신이 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나 쌓기를 권하는 사람도 어찌 흉년인지를 살피지 못하고 억지로 쌓자는 것이겠는가. 참으로 부득이한 것이다.” 하였다.

세종 28년 4월 30일(丁卯)條에

왕이 의정부에 글을 내려서 “지난 가을에 충청도의 성을 쌓는 일을 과하자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내가 따르지는 않았으나 마음이 또한 편치 못하였다.”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포읍성의 축조는 세종 26년(1444)에 시작되었으나 세종 27년(1445)년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재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왕명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것이다.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축성이 추진되었기에 백

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세종은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남포읍성의 정확한 완성 시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보통 조선 초기에 읍성의 완성 기간이 농번기를 피하여 2~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세종 28년((1446)) 봄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완성된 남포읍성의 상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1451) 9월 5일(庚子)조에 나온다.

藍浦縣邑城은 주위가 2476척, 높이가 12척, 女牆의 높이는 3척이며, 敵臺가 5개소, 門이 3개소, 擁城이 있고, 女牆이 3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防川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貯水)해 왔고 垓字는 아직 파지 않았습나다.

이후의 모든 지리지 및 읍지의 남포읍성 상황은 세종 때 격식(格式)에 맞게 축성되었기 때문에 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남아 있는 남포면 읍내리의 남포읍성이다. 따라서 읍성과 진성을 겸한 남포읍성이 조선 초기에는 고남포 즉 수부리 수안에 있었고, 그것이 현 남포로 새로 축조 되어 이동된 것은 1446년(세종 28년)~1451년(문종 1년)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 완성된 읍성과 함께 관아의 건물도 새롭게 지어졌다.

남포의 고읍지역은 해상과 연결되는 수운교통, 기름진 평야 등의 자연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평지성으로 된 읍석성이었기 때문에 지리적 방어력의 이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큰 하천가의 낮은 평야지대이고 웅천천이 감조하천이어서 홍수 때 자주 피해를 겪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남포현 치소가 이동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 초기 인구증가로 인한 읍지역 인구밀집과 관청시설 증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수해지역은 주민생활과 통치의 결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옥마산 줄기를 배경으로 하고 펼쳐진 너른 들판의 한가운데 평지에 읍성을 쌓아서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바다가 바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바다 감시의 방어기능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곳인 현재 남포로 이동된 것이다.



오늘날의 남포읍성(남포면 읍내리 소재 -공주대 『남포읍성』-)

5. 남포현 치소 이동 후의 대천리

현재 남포로의 치소 이동 후 고남포 지역은 그 서남쪽 3km 지점인 현 웅천읍 대천리에 중심지적 취락이 형성되어 갔다.

고남포 시기에는 보령에서 남포를 거쳐 비인으로 통하는 도로가 주로 남포의 사현(沙峴: 현재의 웅천읍 수부리와 남포면 옥서리 사이의 고개)을 통하였으나, 치소 이동 이후부터는 사현을 통하는 도로는 쇠퇴하고, 이현(梨峴)을 넘어 잔미산 북쪽을 지나는 길(현 국도 21호)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에는 이현을 통하는 도로와 이현은 표시되고 있는 반면, 사현은 표시가 없으며, 대동지지 등 모든 지리지도 남로(南路)는 이현을 이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현을 통하여 비인으로 통하게 되면 반드시 웅천읍 대천리 지역을 지나게 되며 그리하여 현재의 웅천 철교 아래에 웅천천을 건너는 돌다리가 건설되었다.

조선후기 웅천천 하구지역에 청연포·웅천포 등의 포구가 발달하여 물자의 집산지 기능이 발달하였는데 대천리 지역은 고남포(수안)보다 웅천천의 하류 쪽에 있어서 이런 포구와 연결된 수운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이현

을 넘는 큰 도로가 지나면서 육로와 수로의 접점이 형성되어 물자 교역이 이루어지는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남포대천장이다.

조선시대 군현의 청사 소재지와, 해로와 하천수운과 도로의 접점, 교통수단의 결절점(結節點)이나 물산의 집산지에 장시가 형성되었는데 대천리 지역은 수운과 육로의 접점이었기 때문에 고읍 치소였던 수안이 아닌 이곳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남포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현청사(縣廳舍)가 있는 현 남포지역은 다른 군현의 읍치소와는 달리 읍내장이 형성되지 못하여 저자거리를 가진 단지 행정치소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읍치소 이동 후에도 고남포 지역에 시장 즉 남포대천장이 형성되면서 이지역이 주민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남포가 남포현 지역의 중심지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후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웅천읍 대천리는 계속 시장이 서고, 면사무소·초등학교 등이 설치되면서 웅천읍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장항선 철도의 웅천역이 현재의 웅천읍 대창리에 설치되는 등 모든 기능이 웅천읍 대창리에 옮겨지고 현재는 구장터로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천리에는 웅천이라는 대표 명칭을 가진 기구로 웅천교회와 웅천초등학교가 남아있어서 대천리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웅천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남포는 조선초기까지 행정 및 군사방어 기능을 수행하여 왔고, 현치소 이동 후에는 현재 남포가 단지 행정적 기능만 수행한 반면, 고남포 지역은 대천리가 중심이 되어 주민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계속 수행하여 최근까지도 보령시 남부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해왔던 것이다.



조선후기 남포현의 도로망(18세기 후반 팔도군현지도)

위 지도에 보면 도로가 이현에서 웅천천(대천)을 지나 남쪽으로 연결된다. 남포현 치소 이동전에는 이현(梨峴) 우측의 봉대(烽臺)우측으로 고읍면으로 통하여 대천(大川)에 이르러 남쪽으로 통했다.

Ⅲ. 조선말기의 남포대천장과 오늘날의 웅천장

1. 보령지역의 보부상단과 남포대천장

조선후기 전국 천여 개의 지방 장시 즉, 5일장의 발달에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방장시에서 상권을 주도하였던 상인이 보부상이다. 보부상은 보상(褌商)과 부상(負商)의 두 종류의 상인을 통칭하는 말로, 보상은 상품은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거나 질빵에 짊어지고 다니며 시장에 앉아서 보자기 위에 상품을 벌여 놓고 판매하기도 하고, 촌가로 돌아다니면서 상품을 그 집의 마루나 방에 내려놓고 앉아서 파는 상인으로 ‘봇집장수’라고도 하였다. 부상은 상품을 지게에 지고 다니다가 시장이나 촌가 마당에 상품을 내려놓고 서서 판매하는 상인으로 일명의 ‘등집장수’라고도 했다.

보부상의 기원은 삼국시대 말기부터이지만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전국적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특정상품의 독점판매권을 받고 국가의 비호를 받는 대신 국가에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많은 봉사를 하여왔다.

개항기 이후에 와서는 국가적 내외외환 속에서 충의·협동·규율의 윤리규범에 의해 강한 조직력을 갖춘 보부상단을 국가가 정치·군사적 의도로 이용하기 위해 더욱 전국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1899년 보부상단을 ‘商務社’란 이름으로 조직하였으며, 보상단을 ‘상무사우사’, 부상단을 ‘상무사좌사’로 분리 조직하였다.

원래 보부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강하게 하기 위해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어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시켜 활동하였다.

조선후기 보령지역을 관할하던 보부상단은 2개였다. 그 하나는 1851년 예산대흥 사람인 임인손(林仁孫)이 국가로부터 공문을 받아 홍주·결성·보령·청양·대흥의 5읍 상계(商契)를 조직하고, 시장에 임방(任房)을 설치하여 보령현 지역의 시장관리와 상품유통의 독점적 관리를 시작한 보부상단 조직이다.

그후 이 보부상단의 명칭이 〈원홍주등6군상무사우사〉로 되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오늘날 까지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 보부상단은 의미와 기능은 퇴색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마지막 보부상단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⁵⁾.

한편 남포현 지방에는 모시 유통권을 바탕으로 성립된 〈저산팔읍상무사(苧産八邑商務社)〉 조직이 시장을 관할하였다. 저산팔읍상무사는 모시 유통에 의해 시장이 발달한 지역인 부여, 홍산, 비인, 한산, 서천, 남포 지역의 보부상들이 보부상단을 조직하고 1845년 6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이들은 해방 후까지 사단법인 상무사를 조직하며 그 명맥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재는 조직이 소멸되었다.

오늘날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의 구장터에 있었던 남포대천장도 이 저산팔읍보부상단 관할의 시장으로 발달한 것이다.



조선후기 충청도 지역의 보부상단 관할 시장도

5) 황의천, 『마지막 보부상 六郡商務社』, 대천문화원, 2012.

2. 조선후기 남포대천장의 발달

조선후기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함께 지방장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부·목·군·현의 청사가 입지하고 있는 곳에는 교통의 요지가 되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방장시가 생겨났고, 그 밖에도 해로와 하천수운과 도로의 접점 등 교통수단의 결절점, 물산의 산지에 장시가 입지했다.

이러한 장시는 다수의 인구, 다량의 물자공급, 교통의 요충이라는 세 가지 입지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보령지역은 대부분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또한 많은 섬들이 있다. 따라서 어장이 많고 수산물이 풍부하다. 바다의 반대쪽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보령의 지형은 서쪽으로 경사져 있고, 이웃 청양과 경계를 이루는 산맥까지는 불과 30리 정도밖에 안 된다. 보령지역은 남북으로 가늘고 긴 지형으로 웅천천 대천천 등의 하천이 천수만 쪽으로 유입되며, 그 유역은 비록 넓지는 않지만 수리관개에 편리하다.

따라서 그다지 가뭄의 피해가 없고 토지는 대체로 비옥해서 농경지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보령지역은 예로부터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한 천혜의 고장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선후기 지방장시 발달 추세 속에서 보령지역에서도 지방장시가 생겨나고 보부상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웅천읍 대천리에 취락이 생긴 최초의 기록은 언제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1730년대 기록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도 대천리 지역의 동리명칭이 없다. 그러나 인구의 통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초 우리나라 전국 시장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임원경제지>에는 다음과 같이 보령지방의 장시가 기록되었다.

지역	장시명	장시의 위치	개시일	주요 거래 출시품
				주요 산출품
보령현	읍내장		1.6	魚, 鹽, 生鰓
	대천장	읍남 20리 목충면	3.8	藏石, 石炭, 黏白玉, 紫草, 天門冬,
	웅암장	읍북 20리 청소면	2.7	安息香, 鹽, 秀魚, 鱈魚, 民魚, 鯊魚,
	수영장	읍서 20리 김신면	2.7	鯢魚, 眞魚, 石首魚, 青魚, 錢魚, 麻

				魚, 銀口魚, 烏賊魚, 絡締魚, 鰻, 蛤, 江瑤珠, 石花, 海衣
남포현	대천장 간치장	읍남 20리 웅천면 읍남 40리 습의면	4.9	硯石, 靑魚, 銀口魚, 秀尾魚, 海衣, 石魚, 石花, 鯊魚,, 鹽, 苧布, 牛犢,
			1.6	鐵, 花草, 硯石, 烏石, 松篋, 蓴竹, 天門冬, 秀魚, 鱗魚, 民魚, 鯊魚, 魮魚, 石首魚, 靑魚, 錢魚, 麻魚, 銀口魚, 烏賊魚, 鰻, 蛤, 紅蛤, 江瑤珠, 白花蛇, 魚鰾, 海衣, 甕器

대부분의 군현에는 읍저(邑底)에 장시가 위치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읍저에서 10-20리 이내에 개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포현의 경우는 남포현의 치소가 있는 곳의 남포읍내장이 없고 읍남(邑南) 20리 지점의 웅천면에 대천장, 읍남 40리 지점에 간치장이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대로 남포현의 치소가 세종 때 까지 웅천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다가 현재의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 옮겨진 후 행정기능만 옮겨지고, 주민 생활의 오랜 터전인 고남포의 웅천천 하구지역에 시장의 기능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남포현은 읍내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 남쪽 고남포 지역에 대천장이 개설되고, 그 남쪽에 간치장이 개설되어 모시 유통권 시장에 포함되었다. 남포 읍내는 시장 기능은 없고 저잣거리만 형성되었다.

보령지방의 주된 상품은 해산물, 남포오석, 남포의 저포였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히 교역된 상품은 저포였다. 남포현은 저포의 주생산지인 한산·서천과 이웃하여 이른바 저산8읍 시장권에 속하였다.

저산8읍은 보부상단이 조직되어 저포 수집의 한 경로를 이루는 지역이다. 저산8읍의 개시일에서 대천리의 남포장은 한산(1.6일장), 서천(2.7일장), 비인(3.8일장), 남포 대천(4.9일장)의 순서로 순회되는 시장권에 속하였다.

1830년대인 19세기 초의 <임원경제지> 기록이후 1900년대의 보령지역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관할 상무사	장시명		개시일	시장상황
저산8읍상무사	남포군	대천장	4, 9	인천, 경성으로부터 한국상인이 金巾, 石油, 紡績絲, 기타 잡화물을 수입해 와서, 미국과 매매 교환하여 경성, 인천에 수출한다. 이 두 장시는 번성하는 장시로서 정해진 날에 모이는 매매인이 간치시에 약 500명, 대천시에 약 400명이다.
		간치장	1, 6	
홍주상무사	보령군	읍내장	1. 6	인천항으로부터 韓商人이 金巾, 石油, 紡績絲를 수입하여 미국과 교환 매매를 하고 인천항에 수출한다. 수영항은 선박의 출입에는 가장 양호하기 때문에 강경 인천 등에 미국을 수출하고 화물을 수입하는 상선이 항상 2-3척 정박한다. 대천시는 장날에는 隣郡과 부근 각지로부터 약 1만명의 매매인이 집합하고 또 대천시는 선착장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선 2-3척이 출입한다.
		수영장	2, 7	
		주교장	5, 10	
		대천장	3, 8	

조선 후기 모시 유통권 시장인 저산8읍 시장으로 형성되어 발전된 남포대천장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도 인천, 경성으로부터 한국상인이 金巾, 石油, 紡績絲, 기타 잡화물을 수입해 와서, 미국과 매매 교환하여 경성, 인천에 수출하는 번성하는 장시로서 정해진 날에 모이는 매매인이 대천시에 약 400명 정도 되었다. 이 때 주된 접근로는 육로도 있었겠지만 웅천천 하구를 통하는 해로의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남포 대천장의 이전(웅천시장이전)

조선후기에 형성된 웅천 대천리의 남포대천장은 일제 시기까지 저산8읍 시장의 하나로 보부상 조직과 함께 발전해 왔다.

한국을 병합한 일제는 전국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총독부령을 통하여 〈시장규칙〉을 만들어 적용하였다. 시장규칙은 1914년에 공포하고 1920년에 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일제는 우리나라의 시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

1호시장 : 시장 건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상품을 매매하는 장소로 장시를 포함한 재래시장 일반을 가리킨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90-95%가 1호 시장에 해당되었다.

2호시장 : 20인 이상의 특정 상인이 모여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시장 건물을 말하며, 당시에는 공설시장(公設市場)이라 불렀다.

3호시장 : 어류·채소·과일 따위의 위탁경매시장

4호시장 : 곡물거래소와 주식거래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여 시장을 운영하던 일제시대에 남포대천장은 1호시장으로 허가되어 운영되었다.

1919년에는 대천리에 황두현(黃斗顯)을 사장으로, 이한우(李漢羽)를 이사로 하는 웅천금융조합(熊川金融組合)이 자본금 15,070원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시장을 배경으로 금융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은 1928년 대천리에서 현재의 대창리로 옮겨지게 된다.

대천리에 시장이 있었던 장소는 현재 향교말 서편이며 철도 건널목 너머에서 국도 21호와 지방도 606호(웅천-부여)도로의 분기점을 이루는 삼거리 부근이 해당된다. 두룡천과 웅천천이 만나는 지점이다.

일제시기에 들어오면서 홍수 피해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대지의 협소한 문제, 여기에 대지의 주인이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대지료가 비싸져서 1926년 경에는 시장 이전문제가 등장하였다.

또한 당시 장항선 철도 개설에 따른 웅천역사 설치가 대창리 쪽에 논의되고 있었고, 일본인 유력자 井上 清(이노우에 기요시)이 또한 대창리로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당시 웅천면장이던 황시현(黃始顯)의 적극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리하여 웅천면에서는 1928년 2월 시장이전 인가원을 충남도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1928년 7월에 시장을 대창리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어서 1928년 12월에는 시장이전 기념식까지 거행하면서 15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천리의 남포 대천장은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 시장 상인의 몰락과 피해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후로는 구장터에 가끔씩 가뭄시에 기우(祈雨)의 염원을 담아 임시 시장이 서기도 했다. 그리고 지명만 구장터로 남게 되었다. 동아일보 1960년 8월 15

일자에는

[가뭄이 빚어낸 소동]

웅천면에서는 지난 9일의 기우제에 이어 그후 연일 산정에서 봉화를 올리며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12일에는 비가 올 때까지 시장을 대교(大橋)천변으로 일시 이전하였다. 시장을 이전하는 이유는 한발이 계속 될 때 시장을 이전하면 비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여 가뭄시에 웅천시장이 큰다리 건너 웅천천 북쪽의 대천리 천변에 옮겨 개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이 서는 날도 대천리에서는 저산8읍 보부상단 시장권으로서는 4일과 9일장으로 조선후기부터 유지되어 왔으나, 대창리로 옮기면서 2일과 7일로 변경되면서 오늘날까지 웅천장의 설장일이 되었다. 주산장(간치장) 1일·6일, 대천장 3일·8일, 광천장 4일·9일과 연계하여 2일·7일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4. 현재의 웅천시장(대창리)

1928년 대천리에서 대창리로 이전한 후 장시의 명칭을 남포 대천장에서 웅천장으로 바꾸었다. 웅천장은 면사무소와 장항선 웅천역의 설치와 어우러지면서 최근까지 크게 발전해 왔다. 시장 북쪽에 우시장, 남쪽에 짜전 등이 만들어지면서 번성하였다. 특히 대천으로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던 60-70년대는 주산과 미산 주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여 크게 번성하는 5일장으로 보령지역에서는 대천장 다음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보령 남부 지역의 중심 시장이 되었다.



현재 웅천시장

최근 웅천장은 과거 장옥들을 상설 점포화해서 상설시장의 기능을 갖추고 농촌 서비스기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도 보령지역내에서 대천장과

함께 5일장다운 5일장이 서는 곳이다. 특히 1995년 3월 2일 웅천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교통비의 동일화 및 큰 시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웅천장도 점차 대천장의 상권에 의해 위축되어 가고 있다.

5. 저산팔읍보부상단 관련 자료

15세기 말 남부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한 장시(場市)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1천 여개소가 개설되었다. 장시는 지방민들의 교역장소로 인근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이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물건을 교환하였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렸다.

일부 장시는 상설시장이 되기도 하였지만 장시는 인근의 장시와 연결하여 하나의 지역적 시장권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8세기 말에는 장시 중에서 광주의 송파장 은진의 강경장 덕원의 원산장 창원의 마산포장 등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였다.

농촌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킨 상인은 보부상이었다. 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행상으로 장날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역안의 시장권에서, 또는 전국적인 장시를 무대로 하여 활동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단결을 굳게 하기 위하여 보부상단이라는 조합을 이루고 있었다. 남포대천장을 관할한 저산8읍상무사 보부상단의 단결을 위한 계(契)가 조직된 사실은 다음의 상고계입의(商賈契入議)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저산8읍 보부상단은 권역내 시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포대천장의 모시 판매세가 보부상단에 귀속된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인 완의(完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장활동을 하던 저산8읍보부상단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관군을 도와 동학군 토벌에 공헌했음을 완문(完文)과 최돈옥비(崔燾郁碑)를 통해 알 수 있다.

【商賈稷入議6)】

이 상고계입의(商賈稷入議)는 1853년 한산 서천 임천 홍산 남포 정산의 7읍 시장 보부상들이 서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를 조직한 문서이다. 남포대천장의 李致秀 石致鉉이 有司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右入議事段惟我韓·舒·林·鴻·庇·藍·定七邑坐行諸商賈同心結稷 俾有相救之誼是在果賈人之出入囂塵可謂危亂之方而其中破落無賴人亦多有之間間有破壞不測之事是乎則勢將舉一牧議以社日後市上囂難之弊而捨此不禁則禁山林木之禍 可以逆料故以僚中有能人各出任事

一大論議同事結稷是遣各其條目刊錄于後依此奉施行事

一. 接長賻儀 上布二疋

壯紙三束

代二十兩

一. 公員賻儀 中布二疋

壯紙二束

代八兩

一. 有司賻儀 中下布二疋

白紙三束

代五兩

一. 執事賻儀 中下布二疋

白紙三束

代五兩

一. 閑散人賻儀錢 二兩二錢

一. 童蒙所在浮蟻 四兩

一. 市上街路 有相鬪作梗之弊是去等 諸所任這這自斷處理是遣 若爲拒逆則期於告官懲理事

一. 行商之錢 其與之受之一大爲難者 各所員中百倍操心處事爲稱 或於八方無賴之人不審石條是如乎 後有見失之弊是去等 此是案之不能事也此等見敗之事勿爲煩告事

6) 이 자료는 1853년 한산·서천·임천·홍산·남포·비인·정산의 7읍 보부상들이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계를 만들고 내용을 문서화 한 것이다. 남포대천장의 石致鉉이 유사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一. 契員中宴會時 無故不來之員 罰錢一兩式上爲齊
 一. 童蒙所任賻例段非大戾已行之兒則依閑散人例施行事
 公員 李根哲 居鴻山
 衣藍公員 張允化
 漢山公員 盧士鉉 金華信 崔士寬
 執事 曹敬元 姜百興 李教甫 卓聖彦
 有司 李致秀 石致鉉 居藍浦
 童蒙
 大司 崔漢成 劉百孫 盧聖燁
 公員 黃興丕 金世龍 李判龍 金丕成

癸丑(1853) 九月 十四日 宴會時

接長
 上公員 盧士鉉
 副公員
 都執事
 童蒙有司
 已行
 接長 李直偶 吳海輔

【상고계약의】

이에 결의한 일은 우리 한산·서천·임천·홍산·남포·비인·정산의 7읍에 있는 모든 좌상과 행상이 동심의 稵로서 相救之誼를 맺는 일이다. 시장에 상인의 출입이 번잡하여 가히 어지럽다고 말 할 수 있으니 그 가운데에 난 봉난 불량배가 많이 있어서 간간히 파괴하는 변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 세력이 한 고을을 움직이니 사일(社日:춘분과 추분에 가장 가까운 戊日 土神에게 농사를 빈다)후에 市上이 시끄럽고 잡스러운 폐단을 금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禁山에서 林木을 모조리 도벌당하는 逆習과 같으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동료 중에 유능한 사람을 각각 차출하여 일을 맡기고 크게 의논하여 같이 일할 것을 結稵한다.

각 조목에 다음을 刊錄하노니 이것을 받들어 시행하여야 할 일이다.

一. 집장부의 : 상포 2필과 장지 3묶음, 대금으로는 20냥

- 一. 공원부의 : 중포 2필과 장지 2묶음, 대금으로는 8냥
- 一. 유사부의 : 중하포 2필과 백지 3묶음, 대금으로는 5냥
- 一. 집사부의 : 중하포 2필과 백지 3묶음, 대금으로는 5냥
- 一. 한산인부의전 : 2냥 2전
- 一. 동몽소임 부전 : 4냥
- 一. 시장거리에서 서로 싸움질 하는 폐단이 있거든 여러 소임에서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고 만약 소임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관청에 보고하여 징계 처리한다.
- 一. 행상들이 돈을 주고받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니 所員들은 백배 조심하여 처리하여야하고 혹 팔방의 무뢰한 들이 옛 조목을 살피지 않아 손실의 폐단이 보인다면 위에 있는 시행안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실패되는 일을 보거든 관청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 一. 계원 중 이 상고계의 연회에 무고히 불참하는 사람은 벌전을 1양씩 물어야한다.
- 一. 동몽소임의 부의사례는 한산인의 예에 따라 시행해야한다.

【完議⁷⁾】

이 완의(完議)는 1901년 저산8읍 시장내의 모시 판매세금을 보부상단에서 징세하라는 문서이다. 보부상단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남포대천장의 모시판매세도 보부상단에서 관리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이다.

右完議事八郡苧稅一是綏慶園香炭之需一是弊郡補弊之資也該稅額諸付貴社以完上納之意 以言以通非止一再是加乎凡 謀事在人 成事在運 此稅之成否 惟在於弊間隨機變通之中故同稅額件無議二同永付貴社 數件條約鑪刊于後 依此常目永久遵行事 右恩鴻山右社掌內準此
忠淸道廳首席 申德才

7) 사헌부(司憲府)나 사간원(司諫院)의 관원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 둥글게 가까이 둘러앉아서 탄핵(彈劾)하는 일이나, 배직(拜職)한 사람의 서경(署經)을 비밀리에 의논하던 일. 원의(圓議). 이 완의는 저산팔읍보부상단이 저산팔읍 시장의 苧稅를 받으라고 국가에서 위탁해 준 내용이다. 이 지역 시장의 모시 유통의 위세를 엿 볼 수 있다.

梁季勳

公員 金駿濟

掌議 季鳳奎

林命濟

辛丑(1901) 五月十九日

- 一. 韓山 舒川 庇仁 藍浦 林川 鴻山 扶餘 保寧 等 八郡 苧布麤 收稅永付貴社事
- 一. 稅金一如一年三千五百五十兩所定爲去等一千七百七十五兩六月三十日一千七百七十五兩十月三十日勿替輸送事
- 一. 右稅金若過當限不送則自弊廳費與各項浮費自貴社擔當爲稱軫以過日字 卽計推來日字右稅金以市邊依例徵送事
- 一. 此稅本出於貴掌握之中則若或有革罷之命飭自貴社依例收稅以待更設是加可如或有入廉生傾之境則自弊廳擔當周旋以免貽憂事
- 一. 右各條約一是施行是稱 矣迫不是約於永掌則先約稅金計朔還出給事

【완의】

이 완의 일은 8군의 苧稅를 일부는 수경원(綏慶園)의 숲 수용비(需用費)로 하고 일부는 본군의 폐단을 바로잡는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다. 이 세액을 귀사에 붙여서 안전하게 상납하는 뜻을 말로 통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도다. 무릇 謀事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成事는 운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 세금의 성공여부는 오직 귀사와 본군사이에서 임기응변하는 가운데 달려 있는 까닭으로 이 세금액 건은 의논할 것 없이 둘이 같으니 영구히 귀사에 붙이노라. 數件의 조약을 뒤에 활자로 간행하여 이를 보면서 영구히 준행하라. 이 일(활자로 판각하는 일 등)은 홍산 우사가 이에 준하여 관장한다.

1901년 5.19

충청도청 수석 신덕재 양수훈

공원 김준재

장의 이봉규 임명재

- 一. 한산 서천 비인 남포 임천 홍산 부여 보령 등의 8군은 저포전의 수세를 영구히 귀사에 붙이노라.
- 一. 세금은 한결같이 1년에 3,550냥으로 결정하였거늘, 그 절반의 1775냥은 6월 30일에, 그 절반의 1775냥은 10월 30일에 어김없이 納金해야 한다.
- 一. 이 세금이 과다하여 만약 납금하지 않는다면 본청비와 각항의 부비를 귀사에서 담당하고 기한이 지난 일자는 計推하여 이 세금에다 시장변리의 사례에 의거하여 가산 징송하여야한다.
- 一. 이 세금은 본시 귀 장악(掌握)내에서 나오는 것인 바 혹 혁파의 명칙(命飭)이 있으면 귀사에서 의례(依例) 수세의 명령을 기다려 경설(更設)하고 이에 추가함이 옳을 것이고, 혹 고의로 만들어낸 탈이 염탐으로 드러나면 본청에서 담당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선해야 한다.
- 一. 이 조약을 똑같이 시행하고 영구히 관장할 조약이 아니라면 선납한 세금은 초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돌려주어야한다.

【完文】

이 원문은 저산8읍의 부상들이 동학농민운동 때 보부상을 거느리고 관군을 도운 것에 대하여 정부의 보답 문서이다. 남포 지역의 보부상들도 동학군 진압에 참여하였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내용이다.

爲完文成給事夫士農工商其民一也鰥寡孤獨其窮也而惟獨負商者四民中一最窮者也本以浮萍之踪 蟻虱之質靡室無家 東食西寄病無救療之道死無掩尸之路至於轉壑而忠義二字常作佩身之符有事則進忠無事則趨義極爲嘉尙可勝言哉往在太祖大王倡率義旅負米扈駕及有於壬辰宣祖廟播遷西州之日輸糧扈從丙子仁祖廟行幸南漢之時負米守城聖上丙寅運糧於江華亦爲付陳於湖南匪類之作亂也 付陣戰亡者亦爲夥然而輸糧付陣終始一如加勝欽哉自上營錢文五百兩大中一隻賞勞以給往古以今 負商之忠肝義膽可謂不愧於天不忤於人矣故太祖廟特念省憂創設負商任房魚鹽與水鐵土器木物五條物種屬之於負商廳以渙散轉壑之民以爲病救死葬之資特下完文與節目其後宣祖廟仁祖廟 特憐負商之困窮判下完文與節目從以愛護創設商理局特下錢文幾萬兩以爲負商病救死葬之資國家之前後恩澤與天無極負商之今古忠獻竝日孔昭矣其所以趨義者雖吳南楚北之人逢着於穢草汚池之中酬以百拜之禮結以桃園之誼病則救之死則葬之班首接長特之如父公員執事護之如赤子爲上愛黨病救死葬之四法猗然成規矣官未知其所由來者也而今年適因國家有事所謂東學之徒猖獗於兩湖戕害吏民 將

成尾大之患救命如不及擇住富城郡平夷匪類以安邦民豫領兵至湖西討滅匪徒濟民塗炭是其時也 負商嚴順榮宋學憲金明求崔海昇等率其同僚百餘人迎接地境補翼軍兵步跋營縣通悉敵情不嫌凍餒 不避水火噫古所謂疾風知勁草板蕩識誠臣之者一負商亦有之矣且前後判下文與節目昭詳載在極護負商是無負列聖朝遺澤負商之忠義者歟自茲已往營邑亦從斗護無得侵漁以安商業魚鹽水鐵土器木物五條物種依前例付屬而其前後功蹟亦從有分揀褒揚之日矣奉公之忠趨義之節一遵前例無敢違越宜當者右帖下負商時

任班首 嚴順榮

舊任 金昌憲 禹東五

接長 宋秉憲

公員 崔海昇 李璉求

書記 金明求

執事 李會哲

親軍經理行陣所也

開國五百三年十二月(1894.12)

【완문】

이 완문을 주는 것은 사·농·공·상은 백성의 하나이고, 환·과·고·독은 그 곤궁한 사람들이니, 특히 부상(負商)은 사민(四民) 중에서도 가장 곤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래 부평초⁸⁾처럼 정처 없이 떠다니며 개미와 이처럼 작은 방과 집도 없이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자니 병에 걸렸어도 구료(求療)의 길이 없으며, 죽었어도 시체를 거둘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혹 구렁에 떨어진 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의(忠義)’ 두 글자를 부표(符標)로 하여 항상 몸에 차고, 유사시에도 진충(進忠)하고 무사시에도 추의(趨義)하니 매우 가상하다고 칭찬할 수 있다.

옛날 태조대왕 때는 의병들을 창술(倡率)하여 쌀을 등에 지고 임금의 수레를 따랐고, 임진년 선조께서 의주로 피난하던 날에도 식량을 수송하면서 호종(扈從)하였다. 병자년에 인조께서 남한산성에 행행(行幸)하였을 때도 쌀을 등에 지고 나르며, 성상이 계신 성곽을 지켰고, 병인년에는 강화도로 식량을 운반하였을뿐더러, 비류(匪類)가 난을 일으킨 호남에서 참전하여 전사자가 많았다. 그들이 양곡을 운송하고 진지(陣地)로 합류함이 시종 한결 같으니 가히 높이

8) 물위에서 떠다니며 사는 개구리 밥

흡양할 분들이로다. 이에 상부의 관영(官營)으로부터 전문(錢文) 500냥과 대중(大中)의 배 1척씩을 상으로 주었다.

자고로 부상(負商)의 충간의담(忠肝義膽)은 하늘을 우리러 부끄럽지 않고 사람을 굽어보아 부끄럽지 않다. 그러므로 태조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걱정하여 부상임방(負商任房)을 창설하고 어.염.수철.목물.토기의 5가지 물건을 주관하는 권리를 부상청에 귀속시켜주고, 부상의 단체에서 흩어져 구렁에 빠진 부상민의 질병을 구제하고, 죽어 장사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자금을 주도록 하는 완문과 절목을 특별히 내리셨다. 그 후 선조와 인조께서도 특별히 부상의 곤궁을 가련하게 여겨 완문과 절목을 내리셨다.

지금 성상께서도 애호(愛護)하여 상리국(商理局)을 창설하고 전문(錢文) 몇 만 냥을 특별히 내리시어 부상들의 질병 구제와 장사지내는 자금으로 하니 국가의 전후 은택이 하늘과 더불어 끝이 없도다. 부상들의 고금 충헌(忠獻)이 해와 아울러 크게 밝도다.

그 추의자(趨義者)라 함은 비록 남쪽 오(吳)나라 사람과 북쪽의 초(楚)나라 사람이 더러운 풀과 더러운 연못 가운데서 만났다 할지라도 백배(百拜)의 예로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형제 결의를 맺어 병석에 누우면 이를 구호하고 사망하면 극진히 장사지낸 것처럼 상리국 임소의 반수와 접장을 아버지처럼 대우하고, 공원과 집사를 어린 아들처럼 보살피 주는 위상(爲上)·애당(愛黨)·병구(病救)·사장(死葬)의 4법을 아름답게 성규(成規)하였다. 관청에서도 그 유래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마침 국가 유사(有事)로 말미암았는데, 이른바 동학도가 양호(兩湖)에서 창궐하여 관리와 백성을 잔혹하게 상해하여 장차 환난의 끝이 크게 벌어져서 목숨을 구제하고 왕거(往居)조차 택정(擇定)하지 못하게 되었다.

부성군(富城郡)의 이비류(夷匪類)를 평정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자 관군을 거느리고 호서에 이르러 비류를 토벌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그 때였다. 부상인 엄순영(嚴順榮) 송학헌(宋學憲) 김명구(金明求) 최해승(崔海昇) 등이 동료 백 여 명을 인솔하여 지경에서 영접하고 군병을 보익(補翼)하고 영현(營縣)을 넘나들며 적정(敵情)을 정통하게 알려주는 일에 열고 굽주림을 불구하고 수화(水火)를 피하지 않았다.

옛 말에 ‘질병이 지나간 후에 굳센 풀을 알게 되고 정치가 문란할 때 성실한 신하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에 또한 두드러진 충의의 부상들이 있도다. 또 전후하여 완문과 절목이 판하(判下)되어 부상을 극진하게 보호한 사실이

있으니 이는 열성조께서 부상의 충의에 못지않게 내린 은택이니라. 이리하여 예로부터 영읍(營邑)의 보호로 침범되는 일이 없이 상업에 편안하였으니, 어.염.수철.토기.목물의 5가지 물건은 전례에 의하여 그 권리가 그들에게 부속되었고, 그 전후의 공적도 분간하여 밝게 하여 날로 표창하였다. 봉공(奉公)의 충성과 추의(趨義)의 절조(節操)는 한결같이 전례를 준수하여 감히 어긋나고 넘침이 없도록 할지어다.

이 문서를 부상에게 내릴 때의
임반수(任班首)는 엄순영(嚴順榮)이다.
구임 김창헌 우동오
집장 송병헌
공원 최해승 이연구
서기 김명구
집사 이회철
친군 경리는 진소(陣所)에서 행하다.

1894년 12월

【보부상 활동 관련 비석】

이 비석은 유림으로 활동했던 최돈욱(崔燾郁)이 저산8읍보부상단에 가입해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시장에서의 상업활동과 함께 동학농민운동 때 관군 편에서 활동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에서 2012년 3월 발견되었다.

〈전면〉 前中樞院議官殷鴻山右支社公事員崔燾郁紀功碑

光武六年 壬寅 七月

〈후면〉

崔公○○以故家世德素性公廉市不二價事折片言尙信義重然諾殆有急難之風矣時當甲午東匪猖獗隻身奮呼義旅齊起背彼歸此者日以百數於時招討使李公勝宇深嘉義慨辟爲駐防將爰謀金雨植勦捕匪類事休旋凱不犯秋毫迺焉一鄉多士撫實經歷呈官級營○○○登聞未遑 褒賞之典實爲志者之齋嘆而他山片石不欲泯蹟用鐫公廉○義四字嗚呼百世之下宜其觀感而興念哉

前主事殷鴻山右支社公事員 李秉濟 撰

時公事員 崔昌均

公事員 金國培 書

掌務員 沈宜勛

書記 池錫弘 財務員 崔文守 執事 丁敬天

大房 趙七星 任正鎬 金良七 吳光國 金七龍

【譯】최공 돈육은 대를 이은 전통 가문에서 대대로 덕을 쌓아 본래 공정하고 청렴하여 시장에서 물건 값을 받는데 2가지로 하지 않았으며, 편언(片言)이라도 꺾어버리지 않고 신의를 숭상하고 연낙(然諾)을 중히 여겼는데 자못 위급한 어려움의 풍조가 있었다.

이때 갑오년의 동비(東匪)가 창궐함을 당하여 단신으로 떨어져서 의려(義旅)를 불러 모아 일제히 일어나니 저들을 배신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100여명 이었다. 이에 초토사 이승우가 심히 가상하게 여기고 의로운 개탄을 하며 주방장(駐防將)으로 삼으니 이에 김우식(金雨植)과 도모하여 비류(匪類)들을 체포하고 일이 끝난 후에 개선하는데 추호도 범함이 없었다.

한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실제의 경력(經歷)을 모아서 관(官)과 영(營)에 보고하고 ○○○ 아뢰니 포상의 전례(典例)가 있을 겨를이 없었던 것이 실로 뜻있는 사람들의 탄식을 불러왔다. 타산의 편식으로 公廉○義 4자를 새겨 발자취가 민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아! 백세 후에도 마땅히 보고 느껴서 생각할 지어다.

전 주사 은홍산우지사 공사원 李秉濟 撰

시 공사원 崔昌均 공사원 金國培 書

장무원 沈宜勛 서기 池錫弘 재무원 崔文守 집사 丁敬天

대방 趙七星 任正鎬 金良七 吳光國 金七龍



(해제)

보령문화연구회는 2012년 3월 15일 충남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재배마을에서 조선말기 옛 남포현 지역의 보부상 활동과 관련된 비석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이 비석은 은홍산우지사최돈욱기공비(殷鴻山右之社崔燉郁紀功碑)로 되어 있고, 1902년 7월에 남포대천장 [웅천장] 및 간치장 [주산장] 그리고 부여, 서천지역 시장을 관할하던 보부상 조직인 은홍산우지사(殷鴻山右之社)에서 세운 것이다. 재료는 오석이며 크기는 높이 120cm 폭40cm이다.

비석의 내용은 남포현 지역인 주산 창암리의 유림이며 은홍산우지사의 공사원이던 최돈욱(崔燉郁, 1842~1910)이 시장을 관리하며 정직한 상거래를 주도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도를 회유하고 유흥군을 조직하여 남포지역의 동학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워 홍주목사 이승우로부터 포상을 받았으니 길이 그 공을 전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석은 남포현 지역의 유림들이 보부상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을 이끌어갔음과, 보부상 조직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보부상은 동학군과 적대적이었으며 지배층인 유림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조선말기 남포현 지역은 서천 부여의 모시 유통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저산8읍 보부상단의 활동무대였으며, 보령현 지역의 시장은 원흥주등6군상무사 보부상단 관할이었다.

이 비석은 후손의 허락이 있을 경우 장차 향토사료관이 완성되면 전시할 예정이다.

6. 일제시기 남포 대천장 [웅천장] 의 모습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

○ 1926. 4. 2 조선일보

[垈主 日人の 無理로 熊川市民 大憤慨, 市場革新會를 創立하고, 最後 移轉까지 決心]

충남 보령군 웅천시에서는 去月 25일 朝鮮人 및 日人 70여인 當地 公普校內에서 회합하여 市場革新會를 창립하고 數個 조항을 결의한 후 교섭위원 三氏를 선정하여 市場 地主에게 교섭하되, 만일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면 市場은 절대 이전하리라는데, 그 내용인 즉 원래 웅천시장은 同郡 두룡리 거주하는 金鳳濟의 宗土로서, 이래 70여 년간 地租에 한 하여는 다만 매 년간 추수기에 한하여 전부 正租 30두에 불과하였으므로 일반시민에게만은 편의가 될 뿐 아니라 웅천은 보령의 중앙지 이므로 장래 발전상 企望이 不少하던 중 前記 金鳳濟가 該 基地를 同郡 大川市場에 居住하는 日人 金行貞市에게 금 2,150원에 매도한 후 該日人은 私利만 획득하기 위하여 前의 幾十倍되는 地租를 추가함으로 시장 일반은 크게 분개하여 此의 방지책을 강구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3개 星霜의 長歲月을 지내오던 중, 此로 인하여 市場은 점점 축소되고 생활까지 유지하기가 極難하여 同面長에게 歎願하고 同郡 郡守와 협의한 후 地主 金行에게 相當한 가격 2,500원에 매도하기를 累累 권유하였으나, 그 日人이 절대 불응하므로 일반 시민은 더욱 분개하여 그와 같이 결의한 후 장차 面民大會도 개최할 터이라는데 郡面兩局에서도 此에 대하여 徹底 후원할 터이라 한다.

○ 1928. 2. 20 毎日申報

[웅천면 大川市場, 이전 同面 대창리로]

【公州】웅천 대천리의 시장은 從來위치가 협소하고 일반 시민의 거래가 매우 복잡하여 불편이 많음으로 동면 黃面長은 인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장래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부근 대창리로 인가원을 당국에 제출하였는바, 작년

12월 15일부로 이미 인가가 나왔는데 아직은 日氣관계로 이전하지 못하고 解凍이 되면 즉시 이전하겠다 하며 따라서 통신기관으로 沈福鎭 경영인 우편소를 설치케 하고 벌써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더라.

○ 1928. 7. 18 중외일보

보령군 웅천시장은 自古로 其垆地가 심히 狹窄하여 草幕 1棟도 더 증축할 空地가 없을 뿐아니라 대지가 읍내의 모 일본인의 소유로 대지 요금이 심히 過多하여 시민들과 면 당국에서는 2-3년전부터 시장을 이전하고자 도 당국에 열렬한 요망을 한 결과 금춘에 꽤히 허가를 득하여 동면 대창리 포구부근 광야에 場屋을 건축 중인바, 市場이전 기일은 금월 23일로 결정되었다더라(熊川)

웅천시장 이전으로 말미암아 舊市場 빈민들은 주택난이 막심하여 수심 중에 차있다.

○ 1928. 7. 26 중외일보

충남 보령군 웅천시장은 거금 60여년전(辛亥) 대홍수로 인하여 전부 流沒된 후 그 부근 산하에 약간의 草幕을 건축하고 于今껏 시장의 명칭만을 유지하였으나 其實은 후면에는 □岩絶壁에 一手를 不入할 산봉이요, 前面으로는 하천이라. 심히 협착하여 草幕 20여 호 외에는 다시 1칸의 천막도 증축할 여지가 無하여 발전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그 대지는 대정 11년(1922) 읍내 某 일본인의 소유가 되었던 바 그 垆地料가 너무나 過多함으로 □□시민이 每朔□□□□出하고는 도저히 생활을 □키 難하므로 □□ 2-3년 전부터 당지에서 약 2馬場 거리 되는 浣汀浦부근 광야에다가 시장을 이전하고자 시장 □□ 주민들이 시장이전 혁신기성회를 조직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열렬한 운동을 하였던 결과로, 꽤히 今春에 허가를 득하여 현재 가옥을 건축 중, 근일 시장을 이전케 된 것은 一般이 共賀하는 바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긴말을 要하지 않고, 이전

운동 당초의 그 취지와 본위의 약속 내용이 정반대로 금에 이르러서 場市 인민들의 사활문제에 관한 數語만 논하오니 관계자들이여 思하여 보라? 君들도 □□이 있으라.

◇ ◇ ◇

시장 이전의 目的을 말하면 이상에서 □□□□목적과 □□료 □의 과중함에 □□하여하여 시장을 이전하고자 한 것도 元市場人의 發起요 운동자들의 주장도 시장인민의 사활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이 아니었던가, 아니 생각뿐이었으랴, 도당국에 제출하였던 허가원서와 진정서 내용을 지금 찾아다가 볼지라도 분명히 시장인 사활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 발전의 목적보다도 오히려 선두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舊市의 주민들도 이전을 희망하나 家屋을 건축할 금전이 없어서 生意치 못하는 사람에게도 자본을 대여하여 1인에게도 불평이 無하도록 하겠다는 서약서인지 무엇인지까지 도당국에 제출까지 하지 않았던가? 비단 당국에 제출한 것 뿐이라. 일반 주민들을 향하여 날인이나 하라고 하여

◇ ◇ ◇

그런데 현재에 至하여는 □□□者의 가옥 건축은 커녕 □□□□者들에게도 무엇을 □□히 하였느냐? 허가 취득한 이후로는 全然히 책임을 謾避하고 면 당국에 일임시켜 원시장 거주민으로는 ○個人에 不○(有○者)하고 전부가 자기네 心腹之人들만 이전케 되었으니 그 얼마나 애석한 일이나. 그리하여 구시 주민들은 뉘를 잃고 불평을 부르짖는 □군들도 짐작치 않는 바이냐? 또 그런데 주택의 문제는 참담하고 酒食 영업자인 □□□□□ 가게 있어도 큰 불평이나 없을 만치 조금이라도 분배해 주어야 할 것인 데, 10여동의 면.....구시장인으로는 3-4인에 불과하고 기타 전부가 타지.....심복지인들에만 지정 분배하였으니 이것이 어찌한 심사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어찌하여 구시장 주민들만 골리기로 작정하였느냐 말이다.

◇ ◇ ◇

君들도 이목이 있거든 紛亂시장을 1차만이라도 巡□하여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아우성을 들어 보아라? 君들의 소유시장이 아니었던 것인데 어찌하여 제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냐. 자세한 내용을 ○○하여 천하에 공개하려하나 지면의 관계로 나머지는 후일에 미루어두고 이만 止筆하여 둔다.

○ 1928. 10. 26 동아일보

[熊川市場移轉 祝賀式舉行, 大昌里로 移轉]

충남 보령군 웅천시장은 地方이 본래 狹小하여 제반 營業이 확장되지 못함으로 수년전부터 市場移轉 期成會를 조직하고 대창리에 이전키 위하여 市場移轉 願을 道廳에 제출하였던 바 금년 2월에 허가가 되어 同 面長 黃始顯氏는 市場 基地를 面基本金으로 매수하고 제반 시설을 하여 去 7월경에 大昌里로 시장을 이전한 바 일반 상업의 발전이 日益繁昌함으로 시민들은 來 28일에 웅천 시장 이전 축하식을 거행한다 한다 하는데 熊川靑年側에서는 當日에 素演劇을 舉行한다더라(熊川)

○ 1928. 11. 1 동아일보

[市場移轉祝賀式 延期(保寧)]

충남 보령군 웅천시장 이전 축하식을 거행한다 함은 既報한바이어니와 형편에 의하여 축하식 거행일은 11월 19일로 연기하였다더라.

○1928. 12. 8 조선일보

[熊川市場 移轉 祝賀會 盛況으로 舉行]

보령군 웅천면에서는 在來의 시장인 同面 大川里는 장소가 좁아서 발전상 불편을 느끼는 동시에 當地 官民은 일치단결하여 同面 大昌里 完汀浦 接近地로 昭和 2년 11월 17일 이전 허가를 得하여 그후 當地 面長 黃始顯氏와 同市 移轉 期成會長 井上淸氏 등의 苦心熱誠의 결과로 금년 8월 23일부터 開市가 됨에 따라서 市街地의 整理는 日進月展의 상태로 착착 進行되어서 現今에는 移轉 前에 보지 못하던 大 新市를 완성하였으므로 此에 대한 祝賀會를 今月 1일 에 거행하였는바 當日은 面內 有志와 各地 內賓이 列席하여 順序있게 進行되었는데 本郡守 金容晟氏의 祝辭와 期成會長 井上淸氏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餘興으로 中間에 靑年團의 素人劇⁹⁾이 있어 盛況을 이루었다더라(보령)

○ 1928. 8. 30 중외일보 주재소 이전을

충남 熊川新市長은 이전한 후 발전은 잘 되었으나 나날이 술주정꾼이 늘어서 별명이 싸움장이라는데 하루바삐 주재소를 이전함이 좋겠다고.

9) 전문적인 배우가 아닌 사람들이 출연하는 연극

○ 1928. 11. 2 동아일보

[黃始顯氏 熊川面長功勞者立碑]

충남 보령군 웅천면장 黃始顯씨는 취임 이래 5년간 면내 대소사를 원만히 처리하여 면민의 많은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였고 또 웅천시장에 거주하는 井上淸씨도 웅천면에 많은 열성으로 노력하였다하여 웅천 면민들은 양씨의 공로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9일에 웅천면 각리 구장과 다수 면민이 대천리 金寅權 邸에 회합하여 양씨의 공로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자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비용은 웅천면 매호에 대하여 각 5전씩 수합하되, 방법은 각리 구장에 일임하기로 하였다더라.(熊川)

7. 웅천시장 이전에 힘쓴 인물과 공적비 건립

웅천 발전을 위해 웅천시장 이전과 면사무소 이전에 힘쓴 황시현 면장과 일 본인 유지 정상청의 공적비가 1928년 건립되었다. 오늘날 황시현 면장의 공적비는 남아있으나, 정상청의 공적비는 없어져 찾을 수 없다.

○ 황시현(黃始顯, 1889~1946)

보령 웅천 구룡리 출신이다.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원익(元翼), 호는 계룡당(鷄龍堂)이다. 선친 황직이 세운 남포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졸업했다. 8년 여간(1923.7~1931.10) 웅천면장을 역임하면서 무창포 도로 개설, 성동리 제방 건설, 웅천시장 이전 등 많은 치적을 쌓았으며, 또 재임시 지방 발전에 私財를 아끼지 않았다. 면민들에 의해 송덕비가 세워졌다.

○ 井上淸(이노우에 기요시, 1872~?) 일본 愛媛縣 喜多郡 長濱町 출신

熊川의 총독이라고 불림

1908년 천안으로 와서 과자제조업에 종사하는 한편 식림사업에 착수

1920년 웅천으로 이주

조선녹화운동의 선구로서 산림 2백 정보를 매수하여 많은 희생을 치루면서 식림을 하는 모범을 보이는 등 산림사업에 공헌

면협의원, 소방조두 등의 요직에 추천되어 소방에 공헌하기를 10여년

1929년 소방조두로 親閱의 영광을 입음.

1930년 소방협회 총재 宮殿下로부터 소방공로장을 받음.

1931년에는 소방공로자로 표창되어 은배를 받음

○ 면장 황시현(黃始顯) 송덕비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비석군(碑石群)
- 건립 : 1928년 10월
- 크기 : 36×100×11.5
- 자경 : 6×6, 3×3
- 석질 : 오석

〈전면〉

面長黃公始顯永世頌德碑

五載一日 力殫百爲 5년을 하루같이 힘을 다해
백 가지 일을 해냈으니

校完道竣 乃奐乃夷 학교 완성하고 길 준공으로
이미 크게 기뻐하는 바라.

以捐以勸 郵新廬移 수고로움을 덜어서 우소를
새로 하고 시장을 옮김으로

利澤咸頌 伊公匪私 이로운 혜택 모두 칭송하네. 저 공이 한 일은 사사로운 바
가 아니어라.

〈후면〉

昭和三年戊辰十二月日 建



8. 남포대천장의 사회 활동 중심지 기능

조선후기에는 대천리의 남포대천장은 보부상들이 중심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유통경제 중심지로 발전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면사무소 지서 보통학교 등이 들어서면서 시장 기능과 함께 치소(治所)의 기능이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많은 행사나 모임 등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동아일보신문사 지국의 설치, 청년회 창립 총회, 노동협회 창립총회, 사회주의자 모임인 제일선동맹(第一線同盟)간담회, 야소교 강연회, 소인극(素人劇) 개최, 충남학생 정구대회 등이 대천리 시장에서 있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동아일보 1920년 5월 21일

보령군 웅천시장 동아일보사 보령분국장 吳玼, 총무 金商五

右와 같이 분국을 설치하였사오니 보령 부근 구매 제위는 전기 분국으로 직접 청구하심을 요망함. 동아일보사 천안 지국

○ 동아일보 1920년 6월 25일

본사 보령분국 기자에 尹濤씨 임명

○ 동아일보 1920년 9월 3일 보령청년회 창립

보령 청년유지 諸氏의 발기로 덕성함양 지식계발 산업발전 체육장려 위생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금반 청년회를 조직하고 8월 25일 창립총회를 본군 화정 공립보통학교내에서 개최한 바 회원이 천여 명에 달하였다는데 회장 이하 중요 임원을 투표로 선거하고 각계 임원을 선정하며 본회 규칙을 통과한 후 임시 회장 黃義敦씨의 취지 설명과, 내빈 측으로 경찰서장 田中貞枝, 郡書記 申鳳燮씨 등의 축사가 있었고, 金愛日羅여사의 獨唱이 있어 滿場喝采裡 하오 11시에 개최한 바 當席에 有志諸氏의 義捐總額 3천2백9십2원에 달한 盛況을 모한 바 피선된 임원은 如左하더라.

회장 李恒奎, 부회장 李豊求, 평의장 尹濤, 총무 尙渭文, 藝部長 金廷濟, 체육부장 李啓完, 실업부장 李昇雨, 서무부장 李鍾權, 경리부장 李珍九, 사교부장 高元在, 심사부장 金商震

○ 1923. 11. 11 동아일보

熊川에 會堂 建立

保寧郡 熊川市場에는 會議나 會集할 장소가 없어 遺憾이던바 近年 夏間부터 基督教會에서 熊川市場 後園에 二百名 이상 會集할 만한 會堂을 建築하다가 財政이 부족하여 中途에 停止되었으나 衡平社 保寧分社의 同情金 六十圓과 미국인 선교사 梅約翰¹⁰⁾氏가 金百圓을 寄附하고 熊川勞動協會에서 人夫 二百名을 부담하여 곧 완성하고 一般 社會에 공개케 되었다한다.(보령)

10) J. McEachern(梅約翰) 夫婦는 1896년 군산에 선교 기지를 설치하고 이후 1920년대에 들어와 보령 전역과 부여의 옥산·외산·남·홍산, 서천의 서남·마동·중촌·화양·기산·한산·마산·문산 등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했다.

○ 동아일보 1923년 11월 30일 웅천노동협회 총회

보령군 웅천노동협회에서는 지난 23일 제 1회 정기 총회를 熊川會堂에서 개최하였는데, 회원 100여 명과 내빈 수십 명이 출석하였고, 위원장 金應時씨의 열렬한 개회사 끝난 후 여러 가지 사항을 결의하고 이상적 노동이란 演題로 白南振 李昌秉 양씨가 열변을 토하여 일반 청중에게 多大한 감흥을 주고 내빈 측의 기부금 11원 50전이 있는 후 小宴으로써 무사히 폐회(보령)

○ 동아일보 1924년 5월 9일 웅천노동협회 慘死同胞 추도, 지난 1일에 메이데이도 축하

충청남도 웅천면 웅천노동협회에서는 지난 1일 熊川基勞會館에서 제 2차 정기총회를 열고 메이데이 축하문을 낭독한 후 日本震災當時 慘死同胞狀況을 설명하고 추도가를 처량하게 부른 뒤에 순서에 따라 여러 사항을 토의하는데, 다수 경관이 출동하였으나 무사히 진행되었고, 오는 10일에는 朴一秉 趙容寬 兩氏를 청하여 강연을 듣기로 하였다더라.

○ 시대일보 1925년 8월 14일 精勞 긴급총회, 강연까지 있어

충남 보령군 웅천면에서는 지난 9일 精一勞農會 제1지부, 제2지부를 연합하여 當地 基勞會館內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한 바 출석회원은 200여명에 달한 중에 金應時君의 사회하에 경리보고와 소작운동에 대한 토의가 있는 후, 第一線同盟會員 任允宰군의 「우리의 삶은 다만 단결에 있다.」는 연제로 열변을 토하고 다음에 禹浩景군의 「罪惡의 假名」이란 연제는 臨場警官의 검지로 청중의 흥분은 더욱 긴장되어 다만 축사만으로 만장의 박수갈채가 진동하였으며, 입장 경관의 엄중한 경계리에 의장 답사로 무사회 폐회하였다 한다.

○ 시대일보 1925년 12월 10일 第一線同盟 오는 12일 보령서 例會

사상단체 第一線同盟에서는 지난 12일 충남 보령 熊川市에서 例會를 개최한 다는바, 금반 例會에서는 중대한 토의사항이 많다하며 전반 회원은 반드시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 동아일보 1925년 12월 18일 경찰이 傍聽 금지, 충남북 사회주의자 모임인 第一線同盟 간담회를

충청남북도 사회주의자로 조직된 第一線同盟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1시에 보령군 熊川市에서 제1회 월례회를 열려다가 출석회원이 소수임으로 유회되고

간담회를 열었다는데,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방청은 금지되고 鄭亨澤군을 의장으로 선거한 후에 永同을 비롯하여 대전, 논산, 당진, 보령 각 지방의 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청년운동과 노동운동의 조직과 교양에 관한 건과 여러 사항을 토의하고 내년 1월 5일에 會務委員會를 大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후 무사히 폐회하였다고(보령)

○ 동아일보 1925년 12월 20일 형평사원 侮辱, 亭布組合書記가, 보령 웅천에서 충남 보령 웅천시장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6시경에 同郡同面 大川里에 거주하는 저포조합 서기 徐昶圭란 사람이 돌연히 同里에 거주하는 보령형평사 분사 상무집행위원 金應時씨에게 대하여 일반 형평사원을 들어 무수한 모욕을 하였으므로 氏는 대항코자 하였으나 결국 무도한 사람에게 난타까지 당하여 거의 危境에 이르렀다는데, 이 급보를 들은 보령 일반사원들은 분개하여 즉시 同 웅천시장에서 회합하여 대항책을 강구하였다고(보령)

○ 시대일보 1926년 4월 27일 金氏出獄 환영, 지방단체 연합으로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 金應時씨는 원래 有志한 청년으로 同郡 미산, 주산, 웅천 3면을 통하여 精一勞農會, 革新青年會, 浣通車夫組合, 自由勞動同盟, 衡平分社 5개 단체를 조직하고 伊來 四個星霜이란 긴 세월을 두고 투쟁 노력하였던 바 작년 12월 경에 저포주식회사 사무원인 徐昶圭의 衡平分社員 侮辱한 것을 膺懲코저 하다가 도리어 위협과 상해란 죄명으로 피소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의 선고를 받고, 즉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여 수개월 동안 무고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벌금형을 받고 금번 귀향하였으므로 當地에 있는 각 단체 회원 50여인이 회합하여 同里 熊川旅館에서 위로연을 성대하게 개최하였다고.

○ 동아일보 1926년 6월 23일 耶蘇敎 講演會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 장로교에서는 마침 순회교사 李根浩씨의 來訪함을 기회로하여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강연회를 當地 基勞會館에서 개최하였는데, 청중은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더라.

○ 동아일보 1926년 7월 12일 勞働야학 경영, 혁신청년회에서
충남 보령군 웅천 精一勞農會에서는 앞으로 3년전부터 同會위원 제씨의 열성으로 일반 노동계급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同會館 내에 夜學을 설치하고,

아동 4~5십 명을 수용하여 열성으로 교수하여 오든바 원리 무산계급의 경영
이므로 모든 경비 충용에 부득이하여 伊來 1개년 동안이나 폐교되어 문맹에
주름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도로에 방황하며 제도의 불합리를 저주하는 소리
가 날로 높아가는 중 當地 革靑委員 李達, 金鐸 양씨는 이에 그들의 전도를
비판하고 약간의 경비를 주선하여 야학을 更設하였으므로 방금 農務期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야학생들은 大暴에 甘雨를 만난 것 같이 날로 증가되어 대성황
을 이룬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6년 10월 20일 충남학생 庭球, 웅천공보체육회 주최
충남 보령군 웅천공보교에서는 체육회 주최로 충남학생정구대회를 개최할 터
인데, 도내 일반 학교에서는 多數히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하며, 참가 단체에
대한 입회금은 每人當 40전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 정했으며, 時
日場所와 상품은 左와 如하다더라.(보령)

一. 장소 : 보령군 웅천공보교 운동장

一. 時日 : 11월 6일

一. 상품 : 우승기, 부상품

○ 동아일보 1926년 10월 20일 黃奭顯氏 송별회 개최
오래 전부터 朝鮮社會運動에 獻身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活動을 하였
으며 兼하여 地方에 있어서도 각 團體와 無産大衆을 위하여 物資로나 精神上
으로나 多大한 공헌이 있던 黃奭顯氏는 이하 여러가지 事情上 不得已 함에 따
라 赤手單身이 多率□□로 하여금 多情多感한 故國을 등에 지고 멀리 현해탄
을 건너게 되었으므로 이에 보령군 웅천에 있는 四□團體委員 二十餘人이 지
난 28일에 當地 熊川旅館에 會合하여 氏의 送別會를 開催하였다더라 (保寧)

○ 동아일보 1927년 12월 18일 대천우편소 신설 준비
충청남도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는 俗에 藍浦大川이라 칭하여 시장 소재지로 되
어 있으나 通信局에서는 同地의 발전에 鑑하여 請願施設로서 우편소를 설치하
게되어 今回 請願受理의 지령서를 발하는 동시에 개설 준비에 착수하였다더라

○ 중외일보 1928년 2월 2일 請願郵便所 신설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에 請願시설로 우편소를 신설하여 2월 11일부터
사무를 개시할터이라더라.

○ 동아일보 1928년 4월 20일

동아일보 웅천지국 설치, 지국장 吳熙貞, 기자 金應時, 총무 李世起, 고문 黃命顯, 趙重壁 任命

○ 동아일보 1928년 4월 30일 웅천기독교 음악회

보령군 주산, 웅천 양 교회에서는 朴燦圭, 方正寬 양씨의 주선으로 지난 24일부터 약 2주간 예정으로 음악대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樂士는 10인조로 외국인 목사 부위럼¹¹⁾씨가 대동하였으며, 매일밤 청중도 수백 명에 달하였다더라(웅천)

○ 동아일보 1928년 6월 4일 熊川酒造會社 주식으로 조직

충남 보령군 熊川市 주조업자들은 금반 군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종래의 소규모적 각자 제조영업은 부득이 폐지가 되고 1-2개인의 단독영업으로 실행케 됨에 따라 과거의 제조업자들은 일대 몰락을 당한 후에 何等良策이 없이 다만 口歎하던바 同地 有志 黃命顯氏外 某某氏의 발의로써 1-2개인의 단독 영리를 圖得케 함 보다는 吾人의 생존상 공존 생활을 보장케 함이 최대 의무임을 절실히 感한 나머지 과거의 소규모적 양조업자들을 전부 망라하여 주식제로 회사를 조직함을 필요로 認한 동시에 지난 5월 27일에 양조주식회사 창립총회를 웅천시 가설회장에서 개최한 바 황명현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를 비롯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당일까지 申請株□는 50명이었으며, 주수는 400주에 대한 총자금 2만원으로 결정되고 피선 役員은 如左한 바 방금양조에 착착 진행중이라더라.

△役員：社長 沈福鎮, 專務取締役 黃命顯, 監司 趙重壁

○ 동아일보 1932년 9월 2일

충남 보령군 웅천예배당에서 진흥회 개최,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진흥회 개최

11) 충남지역에는 부위럼(Bull.william Ford)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개척된 교회들이 있다. 부위럼 선교사는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1899년부터 40년간 군산, 부안, 김제 그리고 충남지역에 선교를 했다. 그는 천막을 가지고 다니며 12인조 악단을 활용하면서 개척전도에 힘썼다.

9. 웅천지역 최초의 웅천교회

웅천지역 최초의 교회는 일제시기 대천리에 세워진 웅천교회이다. 남포대천장을 중심으로 한 대천리 지역이 웅천의 중심지였을 당시에 만들어진 웅천교회 명칭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면사무소가 대창리로 이전된 후에 최초로 웅천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웅천교회 명칭은 대창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대천리에서 웅천이라는 대표 명칭으로 기구를 유지하는 경우는 웅천교회와 웅천초등학교 뿐이다.

우리나라에는 조선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으나 유교 윤리에 저촉된다하여 많은 박해를 받아오다가 1886년에 와서야 비로소 포교의 자유가 인정되었다. 한편 기독교는 천주교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등이 입국하면서 학교와 병원 설립 등을 통하여 포교가 이루어졌다.

그후 개항장 중심으로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 포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방에도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충청 서남부 지방은 1899년 미국인 선교사 부윌럼(Bull William) 등이 군산에 들어와서 전라도 북부 지역과 아울러 포교하면서 기독교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웅천지역도 이러한 기독교 전파의 바람을 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최초는 대천리 남포대천장에 만들어진 웅천교회이다. 처음 웅천교회가 만들어진 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었던 것이다. 웅천교회의 시초는 웅천교회 연혁¹²⁾에 의하면 1918년 3월이고,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 향교마을에 교회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웅천면내의 최초의 교회였다. 보령지역 최초의 교회는 보령시 대천동의 제일감리교회로 1908년에 설립되었다.

1918년 웅천교회 설립 당시의 설립위원과 절차에 대하여는 알려진바 없다. 생존자의 구전에 의하면 전도자들이 여러차례 충청도 서부지역을 심방하였는데, 그 때 군산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던 선교사 뚜부인(본명미상)과 평나리의 엄동환 장로 웅천면 소황리의 전운 성도가 웅천면 대천리 향교마을 한가정에 유숙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때부터 교회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최초의 전도사는 방정관(方正寬) 씨가 시무하였다.

웅천교회 설립에 기여한 엄동환(廉東煥, 1882~1948)¹³⁾은 미산면 평라리 출

12) 웅천교회 연혁

13) 엄동환 장로에 대하여는 윤인희 「평라리 제일교회에 대한 추억」 『보령문화』 12집 참고

신으로 서당에서 유교를 학습한 후 일찍이 생각하는바가 있어 서천군 기산면에 1901년 세워진 화산교회로 가서 신앙을 배우고 1902년 미산면 평라리에 평라교회를 세웠다. 이 화산교회가 충남지역 최초의 장로교회이고 평라교회가 2번째 장로교회인 것이다.

평라교회 설립에는 당시 군산에 있는 「구암선교병원」의 부위렴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힘도 컸다고 전해진다. 염동환은 1902년 21세 때 교회를 세운 후에 교회의 일은 지역의 신도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객지로 나가 공부와 여러 가지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 하다가 40세가 넘어서야 다시 고향 마을로 들어와 본인이 세운 평라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고 선교활동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했다. 이때의 대외 활동과정에서 웅천교회 설립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서양 선교사 부위렴의 간접적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염동환 장로의 묘소는 현재 양각산에 있다. 그의 묘비의 전면에는 충남 교회 개척·대일투쟁 선봉·중중사업 진력·청년사업 용장 등의 네 가지 글귀가 적혀 있다. 그리고 옆면과 뒷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원래 성품이 강직, 충명 하였고 한문사숙에서 수학(修學)하시고 예수를 믿으신 후에 전주성경학교 고등과를 마치셨고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셨다.

위선(爲先)을 위한 종사(宗事)에 전력 하였고 서울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충남지역 교회의 개척자로 남포지방과 홍산지방의 전도사로 10여 처(處)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충남기독교청년회(YMCA충남지부로 추정) 회장으로 청년운동에도 힘 쓰셨고 1925년에 『평라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시 웅천시장에서 회의나 회집할 장소가 없어 웅천교회에서는 웅천시장 후원에 200명 이상 집합할 만한 회당(會堂)을 건축하다가 재정이 부족하여 중도에 정지되었으나 형평사(衡平社) 보령분사의 지원금과 미국인 선교사 매약한(梅約翰¹⁴)씨가 100원을 기부하고 웅천노동협회(熊川勞動協會)에서 인부 200명을 부담하여 완성하고¹⁵ 교회와 각종 집회 장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1926년 6월 대천리 장로교에서는 마침 순회교사 이근호(李根浩) 씨가 내방하여 기독교 강연회를 기로회관(基勞會館)에서 개최하였는데, 많은 청중이 운집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¹⁶

14) 앞의 주8) 참조

15) 동아일보 1923년 11월 11일자 참조

1928년 4월에는 주산, 웅천 양 교회에서는 박찬규(朴璨圭) 방정관(方正寬) 두 사람의 주선으로 2주간 음악대회를 개최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악사(樂士)는 10인조로 외국인 목사 부위렴¹⁷⁾씨가 대동하였으며, 매일밤 청중도 수백 명에 달하였다¹⁸⁾ 또한 웅천교회는 진흥회를 개최하는 장소¹⁹⁾가 되는 등 사회운동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1933년 3월 군산에서 이사온 최경동 장로가 웅천면 대천리 150-3의 대지 369평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 곳에 목조건물 교회 25평과 주택 13평을 짓고 교회를 향교마을에서 현 위치인 이곳으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1939년 임일준 씨가 초대 장로로 임직하고, 1943년 임달호 목사가 시무하면서 계속 발전하여 왔다.

1949년에는 웅천 대창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대창리에 신웅천 교회를 분립하였다. 1976년에는 교회당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88년에는 어린이 선교원을 설치하였다. 이 선교원은 2003년 웅천어린이집으로 변경 개원하였다. 1998년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교회당을 확장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던 중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교회가 직영하여 2004년 4월 완공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웅천교회는 장로교 소속으로 신도는 약 150명이며, 최정홍 목사가 이끌고 있다²⁰⁾. 장로교회는 1884년 미국 북장로회의 알렌(H. N. Allen)부부와 1885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선교사가 입국하여 선교의 문을 열면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장로교는 그 조직에 있어서 2가지 기본요소가 있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훈을 맡아서 하는 장로인 목사와 일반교우의 대표자로서 교회를 처리하는 치리장로이다. 행정제도에는 제직회,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제직회는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교회의 영적사업을 담당하며,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예배, 권면, 징계, 학습과 세례와 그 밖의 신령상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와 치리장로로 구성되며 총회는 장로회의 최고기관으로써 교리와 교회지도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개정하

16) 동아일보 1926년 6월 23일 耶蘇敎 講演會

17) 앞의 주9) 참조

18) 동아일보 1928년 4월 30일 웅천기독교 음악회

19) 동아일보 1932년 9월 2일

20) 보령시지. 2010.

기도 한다. 보령시 내의 장로교회는 2007년 12월 현재 111개 교회가 있으며 신자수는 총 8,368명에 이르러서 개신교 중 가장 많은 교회와 신자를 가지고 있다.



대천리의 시가지와 웅천교회

IV. 대천리의 웅천면소재지

1. 조선시대의 면·리제

조선시대는 면·리제(面里制)를 실시하여 면리임(面里任)을 임명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보좌하고 백성을 교화 감독하게 하였다. 면리임은 유향품관(留鄕品官)이나 학덕과 신망 있는 재지 사족에게 맡겼는데, 실제 향촌의 학식있는 사람이나 유생들은 기피하였다. 이유는 면리임은 직책상 수령 향리와 연결된, 때로는 중인층인 향리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평소 관아 출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한 이들은 향리 관속들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족들이 면리임을 기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반해 비양반계층은 면리임을 통한 대민 관계에서 관권을 빙자하여 신분을 향상시키거나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면리임 임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 대천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는 웅천면(熊川面) 고읍면(古邑面) 등이 있었다.

2. 행정구역 개편과 웅천면소재지

한일합방 후인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지방관제(地方官制)에 의하여 지방행정기구가 개편되었는데, 이때의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13도(道)로 크게 구획하고, 그 밑에 부(府)·군(郡)·도(島)를 두었으며, 말단 행정단위로 읍(邑)·면(面)을 둔 3단계 조직이었다. 도에는 주임관(奏任官)인 도장관(道長官: 뒤에 道知事)을 두고, 부와 군에는 주임관인 부윤(府尹)과 군수(郡守)를 두었으며, 면에는 판임관(判任官) 대우의 면장(面長)을 두었다. 이때 도·부·군의 수는 종전과 같았으나, 종전에 사(社), 방(方), 면(面)의 명칭으로 불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던 면이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군의 하부 행정단위인 면으로 되어 4,332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행정상의 개혁 필요성을 느낀 일제는 1914년 3월 1일 부군폐합령(府郡廢合令)을 발표하고 지방 행정구역을 대수술하여 폐합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행정구역 정리 기준으로서는 부는 부제(府制) 시행상 될 수 있는 대로 구역을 한축(限縮)하고, 군은 면적 약 40방리(方里) 인구 약 1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군은 인접군에 병합하며, 면은 대체로 약 4방리 800호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병합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의 지방 행정구역은 13도 220군 2,521면이 되었다.

그동안 면장(面長)은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하등의 직제상 규정이 없던 것을 1917년 칙령1호(制令1號) 면제(面制)에 의하여 군수 하부 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면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군은 도와 면의 중간 단계로서 국가 행정기관의 위상이었지 지방자치 단체는 아니었다.

면장의 주요 업무는 호적의 시초인 전 면민에 대한 민적(民籍)을 만들고 전답 등 토지에 대한 세금 및 가옥세 부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 때 면장은 군수가 부과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의한 독자적 권한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기초자치단체가 군이 아니라 면이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토지 측량을 하면서 도·부·군·면의 경계의 대강을 정했다. 이때의 면리의 구획 확정은 분수령(分水嶺)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 행정단위로 웅천면(熊川面)이 생기면서 면사무소는 웅천읍 대천리 화락산 아래에 만들어졌다. 남포대천장이 있는 대천리에 처음으로 행정의 중심기구 즉 관청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어서 1920년대에는 지서도 함께 설치되면서 대천리는 남포 대천장과 함께 면사무소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웅천면의 행정과 시장경제의 중심권이 되었다. 이 때 웅천면은 종전의 고읍면(古邑面) 웅천면(熊川面)과 신안면(新安面)의 두명리 습의면(習衣面)의 벽동 심전면(深田面)의 동막리를 통합하여 이루어졌다. 웅천면 관할의 리(里)는 다음과 같았다.

평리(坪里) 수부리(水芙里) 성동리(城洞里) 대창리(大昌里) 대천리(大川里) 두룡리(杜龍里) 구룡리(九龍里) 관당리(冠堂里) 독산리(獨山里) 소황리(小篁里) 황교리(篁橋里) 죽청리(竹淸里) 노천리(蘆川里)

3. 웅천면소재지의 대창리 이전

대천리 면소재지 시절의 초대 웅천면장은 백낙준(白樂濬)이었고, 이어 이익호(李翊鎬) 백낙춘(白樂春) 황시현(黃始顯)이었다. 대천리가 웅천 면소재지로 기능한지 15년 후인 1928년 4월 5일 면사무소가 대창리 428번지로 이전하였다. 황시현(黃始顯) 면장과 일본인 유지 정상청(井上淸)의 노력이 컸다. 그후 대창리가 웅천면소재지가 되었고, 1967년에는 청사를 개축하였다. 다시 1983년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연건평 793㎡의 2층 건물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에는 웅천읍으로 승격되어 웅천읍사무소로 되었다.

<역대 웅천면장 및 웅천읍장>

대수	성명	취임	이임	기간		출신지	대수	성명	취임	이임	기간		출신지
				연	월						연	월	
1	白樂濬	1914. .	15.12.26	1		웅천	20	許在旭	61. 7. 8	62. 5.30		10	청소
2	李翊鎬	15.12.27	19.11.23	3	11	웅천	21	車慶浩	62. 6. 1	64. 8. 3	2	2	대천
3	白樂春	19.11.24	23. 7.30	3	8	웅천	22	金德元	64. 8.22	66. 9.24	2	1	웅천
4	黃始顯	23. 7.31	31.10.22	8	3	웅천	23	姜榮煥	67. 1. 1	69. 7. 5	2	7	대천
5	李翊鎬	31.10.23	33. 5.30	1	7	웅천	24	趙玉來	69. 7.10	71. 9.24	2	2	웅천
6	李敬鎬	33. 5.31	35. 3.26	1	10	대천	25	李漢步	71. 9.25	73. 4.15	1	7	대천
7	任熙準	35. 3.27	35.11.19		8	웅천	26	鄭敬和	73. 4.18	74.12.31	1	8	주산
8	李敬鎬	35.11.20	45. 9. 2	9	10	대천	27	成樂俊	75. 1. 1	76. 3.15	1	2	대천
9	朴錫圭	45. 9. 3	45.12. 4		3	웅천	28	權大植	76. 3.16	81.11.12	5	8	웅천
10	吳熙貞	45.12. 5	46. 6.24		6	웅천	29	白樂中	81.11.21	89. 2.19	7	3	웅천
11	金德元	46. 6.25	48.11.11	2	5	웅천	30	申定燮	89. 2.20	91. 3. 3	2	1	주산
12	吳日圭	48.11.12	50.10.20	1	11	웅천	31	金泰煥	91. 3. 4	92.10.26	1	7	남포
13	黃命顯	50.10.21	52. 2. 3	1	4	웅천	32	李鍾聖	92.10.27	93. 6.30		8	청라
14	金鍾億	52. 2. 4	52. 5. 5		3	남포	33	金命烈	93. 7. 1	95. 3. 1	1	8	웅천
15	徐七星	52. 5. 6	53. 4.18		11	웅천	34	尹承祐	95. 3. 2	95.11.20		8	오천
16	白南鵬	53. 4.19	56. 1.27	2	9	웅천	35	任瑾嫻	95.11.21	99.10.13	3	11	주산
17	金顯璞	56. 1.28	60.12.25	3	11	웅천	36	朴鍾京	99.10.14	03.12.19	4	2	웅천
18	金錫冀	60.12.26	61. 6.15		6	웅천	37	李龍雨	03.12.20	06. 2.19	2	2	웅천
19	李春溶	61. 6.16	61. 7. 7		1	남포	38	金南龍	06. 2.20				웅천

<초기의 웅천면장>

○ 초대 백낙준(白樂濬, 1883~1925)

본관은 남포, 백이정 후예, 웅천 구룡리 출생, 대한제국시대 의정부 농상공부 기수(技手), 일제시기 초대 웅천면장 역임.

○ 2대 이익호(李翊鎬, 1872~1940)

본관은 전의, 호는 아석(我石), 약관인 1893에 무과에 올라 남행선전관(南行宣傳官)을 역임하고, 웅천면장, 주산면장 등 30여 년 간 지방 공직을 역임하였다. 웅천·남포면장 재직시에 보통학교와 농업전수학교 설치에 공헌

하였으며, 간선에 의한 충청남도평의원을 역임하였다. 남포 대덕동 출신으로 충청수사를 역임한 이희눌(李熙訥)의 손자이다. 1927년에는 대천에 대천산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했다.

○ 3대 백낙춘(白樂春, 1860~1942)

본관은 남포, 백이정 후예, 웅천 구룡리 출신, 자는 원인(元仁) 호는 무은(武隱), 무과 급제 후 순무영별군직(巡撫營別軍職) 역임, 일제시기 웅천면장 역임

○ 4대 황시현(黃始顯, 1889~1946)

보령 웅천 구룡리 출신. 본관은 장수이고 자는 원익(元翼), 호는 계룡당(鷄龍堂). 선친 황직이 세운 남포 명덕학교(明德學校)를 졸업. 8년여 간 웅천면장을 역임하면서 무창포 도로 개설, 성동리 제방건설, 웅천시장 이전 등의 많은 치적이 있다.

○ 6대 이경호(李敬鎬, 1893~1957)

대천 내항동 출신, 본관은 전의, 호는 우곡(又谷) 웅천면장, 체신부 주사, 우체국장 역임

○ 7대 임희준(任熙準, 1896~1938)

웅천 성동리 출신, 본관은 풍천, 임향의 후예, 웅천면장과 충청남도 평의원 역임

4. 대천리 소재 웅천면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24년 2월 3일

白樂春 熊川前面長 頌德碑 建立

보령군 웅천면민 일동은 전 면장 백낙춘씨의 송덕비를 웅천시장 서편에 건립하였는데, 右씨는 백발노인으로 4년동안 新舊의 충돌없이 인민을 愛護하다가 昨夏에 사면한 관계이라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3.12.19

熊川面長 非難

충남 보령군 웅천면에서 웅천시장에서 관당리까지 통하는 등외도로 문제로 분규(紛糾)된 일은 본보에 일찍이 보도되었거니와 지난 7일에 동면 화정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도작심사회(稻作審査會)를 개최하였는데, 열등자(劣等者)라고 벌금을 당한 관당리 인민들은 군수에게 진정하기를, 심사위원이 최

초에 관당리의 도착을 최초로 심사할 때에 우등(優等)이라고 칭찬한 것을 면장이 도로에 토지를 기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감정으로 열등자를 만들었은 즉 불복(不服)이라 하였고, 또 지난 8일에 同 학교에서 보령전부57개소 진흥회(振興會)연합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량 성적이 있는 진흥회에 시상하고 그 행사 성적을 발표한다고 흑판에 대서(大書)하여 놓고는 시상만 하고 성적을 발표하지 않고 폐회하였으므로, 산회(散會)한 후 회원들은 말하기를 면장 자기가 연합회 부회장인 까닭으로 작년에도 아무 성적 없이 자기 동리 진흥회를 1등상을 주고 금년에도 자기 동리에는 상을 주고 타리(他里) 진흥회에서는 빈민의 자질(子姪)을 위하여 야학을 확장한다 회관을 건축한다 등 여러 가지 시대에 적합한 성적이 많이 있으되 상품은커녕 칭찬 한마디 없었다고 비난이 높다더라(보령)



옛 웅천면사무소 정문(2007)

V. 보령지역 관립 근대 교육의 효시 웅천초등학교

1. 우리나라 공립 근대 보통교육의 시작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은 1883년의 함경도 덕원부에 세워진 원산학사이지만 이는 지역 주민들이 세운 사립학교이며, 정부에 의해 근대교육 학제가 시작된 것은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고종황제에 의해 교육입국조서(敎育立國詔書)가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근대화를 내세웠다. 교육입국조서에 의해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가 설치되고 학부아문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보통교육기관인 소학교가 설치되어 보통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서울 종로에 관립한성사범학교부속소학교가 1895년 5월에 설립되었고, 이어서 서울 종로에 재동소학교가 1895년 12월 100여명의 학생으로 문을 열었고 얼마 후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경된다.

2. 남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발전²¹⁾

1) 남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

현재 보령지역에서 가장 오랜 근대교육의 역사를 가진 학교는 웅천초등학교이다. 웅천초등학교는 남포공립보통학교에서 출발한다. 현재 웅천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1911년 4월 말 일자로 기록된 학교일람표의 연혁대요가 있는데 여기에 남포공립보통학교에 대한 시원이 기록되어 있다.

當校는 明治38年(1905) 秋 郷舍를 假用하여 創設하고 明達學校라 칭하고, 同 41年(1908) 10월 客舍를 修繕하여 이곳으로 옮겨 靑出普通學校라고 改稱하여 同42年(1909) 5월 補助普通學校로 指定받아 同年(1909) 7월 9일 田中 稔을 當校 訓導 兼 校監으로, 黃昌顯을 本科副訓導로 임명하였다.

당시 生徒數는 불과 50인에 불과하고 設備 역시 不完全하여 敎授用 器具器械도 거의 드물었다. 同年(1909) 9월 13일附로 乙種公立으로 認可받고 그후 學部로부터 여러 敎授用 器具와, 生徒用 敎科書 등을 받게 되어 교육발전의 兆朕을 가지게 되었다. 近時 地方人民亦是 敎育 必要의 覺으로 生徒의 入學者가 나날이 늘어나 다음 차례차례로 보무도 당당히 발전하였다.

21) 황의호, 「보령지방의 근대 교육」, 『보령문화』 제22집, 보령문화연구회, 2013에서 요약 정리

위 연혁대요의 내용으로 보아 보령지역 최초의 학교는 남포군의 향사(鄉舍)를 임시로 빌려 1905년 세운 명달학교(明達學校)이다. 이것은 충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빨리 세워진 학교로 공주사립소학교, 영명학교, 서령학교에 이은 4번째의 학교이다.²²⁾

그러면 학교를 세우는데 힘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선 향사(鄉舍)에 학교를 세운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사는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기관인 향청의 건물이기 때문에 군수의 지지와 향청에 드나들던 지역 유지의 의사로 세워졌다고 보인다.

명달학교는 3년 후인 1908년 객사 건물로 옮겨지고 명칭을 청출보통학교라고 개칭한다. 객사 건물은 크고 웅장한 건물로 중앙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놓고 군수가 초하루 보름으로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장소가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익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으며 고종황제도 칙령으로 객사를 학교로 사용하도록 하였다.²³⁾

따라서 전국적으로 객사가 학교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많은 학교가 옛 읍성 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청출보통학교라고 개칭한 것은 청출어람(靑出於藍)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년 뒤인 1909년 5월에는 보조보통학교로 지정받아 교육경비를 보조 받았다. 이는 1908년 8월 28일 학부령 14호로 발표된 사립학교보조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一. 普通學校令에 依호야 設立호는 者又는 普通學校의 敎科課程에 準據호는 者
二. 相當호는 敎員及設備가 有호는 者 三. 設立後二個年을 經호는 者 但特別호는 事情이 有호는 者는 此限에 不在호는 四. 成績佳良호는 者

이어야 하였으므로 청출보통학교는 보통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설비와 교원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09년 7월 9일에는 田中 稔을 當校 訓導 兼 校監으로, 黃昌顯을 本科 副訓導로 임명하였다. 당시에 교장은 남포군수인 신기수가 겸임하고, 전중임이 훈도겸 교감으로 발령을 받았다. 당시의 교감은 교무를 장리하는 권한이 있어 학교 업무를 총괄한 직위였다. 전중임은 계속해서 남포보통학교에 재직하다가 1913년에 임천보통학교로 전근하게 된다. 황창현(1980.6.4-1987.9.27)²⁴⁾은

22) 충청남도교육청, 2006, 충남교육사 1권 P190.

23) 충청남도교육청, 2006, 충남교육사 1권 P196.

24) 황창현은 필자와 같은 집안 어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독학으로 공부하고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마을 출신으로 한성사범을 졸업하고 청출보통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고, 1918년까지 남포공립보통학교에 재직하다가 1919년 대천공립보통학교로 전근한다. 그 후 1921년에는 홍성공립보통학교, 1923년에는 화정공립보통학교로 부임하게 된다.²⁵⁾

보조학교로 지정받은 뒤 임명된 훈도 田中 稔과 부훈도 黃昌顯은 상당히 실력 있는 교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중임은 여러 곳에서 훈도를 하다가 1936년 이후에는 경성사범 훈도를 지내고 황창현은 한성사범을 졸업한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청출학교 당시에 훈도는 엘리트였으나 학생은 50여명에 불과하고, 교수학습 자료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달 후 을중보통학교로 지정되어 여러 설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서당교육이 주를 이루고, 일본인 교사가 하는 근대교육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1909년 9월 13일에는 을중공립보통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다. 갑중공립보통학교는 도 단위에 1개교씩 설치되고 부(府)·군(郡)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는 을중학교로 인가되었는데 남포군의 소재지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을중 공립보통학교로 인가 받은 것이다. 이때 학교의 명칭도 공립남포보통학교(公立藍浦普通學校)로 바뀌고²⁶⁾, 교장은 申祺秀 군수가 겸임하게 된다.²⁷⁾ 정



남포공립보통학교 일람표

군산에 가서 일본말을 익혔고, 한성사범학교에 시험을 쳐 합격했다고 한다. 한성사범을 졸업한 뒤 청출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인천에서 배로 군산으로 와 부임했다고 한다. 장항으로 건너와 부임했는데 장항에서부터는 말을 타고 각 지서 순경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남포 학교에 부임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훈도의 권위가 매우 높아 보통학교의 교감이 경찰서장을 불러 어떤 일을 상의하였다고 한다. 아들이 철주, 현주, 진주이다.

25)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색,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26) 대한제국 관보, 발행일 隆熙三年(1909)九月十五日 水曜, 學部告示第十號公立普通學校의設置를許可한 者의名稱及位置左와如하 隆熙三年九月十三日 學部大臣 李載崑, 名稱公立藍浦普通學校, 位置忠清南道藍浦 認可年月日 隆熙三年九月十三日

27) 황성신문 1909년 9월 13일자, 신기수 겸임 공립남포보통학교장.

식 보통학교로 인가된 후 학부로부터 여러 敎授用 器具와, 生徒用 敎科書 등을 받게 되어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학생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1910년 이전에 충청남도에 설치된 공립보통학교는 공주, 강경, 홍성, 온양, 남포인데 군세로 보아 남포에서의 공립보통학교 설치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이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웅천초등학교로 이어졌으므로 오늘날의 대천리에 있는 웅천초등학교는 보령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설립된 근대식 학제에 의한 보통교육기관인 것이며, 충남지역 전체로 보아도 공주²⁸⁾·강경²⁹⁾·홍주³⁰⁾·직산(稷山)³¹⁾·온양(溫陽)³²⁾ 등지의 공립보통학교 설립 다음가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것이다.

다만 처음 시작이 남포면 읍내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1918년 이전 시기까지 약 10여 년간의 역사를 오늘날의 웅천초등학교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의 근대학제에 의한 보통교육기관이었던 것이다.

남포군에 이렇게 빨리 보통학교가 설치된 것은 군수인 신기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1912년 4월말에 작성된 남포공립보통학교 연혁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當校 沿革을 기록하는 것에 特筆할 사항은 前當郡守 申祺秀가 當郡 敎育事業을 진척(盡瘁)³³⁾한 일이다. 當郡은 隣郡에 비하여 먼저 보통학교를 창설하고, 이것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모두 이분의 힘으로써 當校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紀念할 만한 일이 되었다.

또한 황성신문 1910년 4월 5일자에

藍倅興學 藍浦郡守申祺秀氏가 莅任三載에 該郡敎育이 不振함을 慨歎호야 本郡有志士李翊鎬、金在珪、崔昌均張民赫四氏로더부러 敎育振興의 方針을 講求호야 竹杖芒鞋로

28) 1906년 공주공립보통학교로 개교(현 공주 중등초등학교)

29) 1907년 강경공립보통학교로 개교(현 강경 중앙초등학교)

30) 1907년 홍주공립보통학교로 개교(현 홍성초등학교)

31) 독립기념관 소장 관보(1901년 2월 27일자)에 노승옥 씨가 직산군 공립소학교 초대 부교원 임명 사실이 있음

32) 1908년 온양공립보통학교로 개교(현 온양초등학교)

33) 열심히

村間巡行하면서 愚民을 招集하여 激切한 言辭로 懇惻히 開牖한 後郡內에 學校를 創立하고 高明한 教師를 延聘하여 熱心으로 教育함이 附學하는 生徒가 百餘名에 達한지라 學部에서 該校의 成績이 良好함을 嘉尙하여 公立으로 認定하고 訓導를 派送하여 教育을 獎勵함으로 該校가 完全히 成立함이 申倖의 熱心所致라고 人皆贊頌한다더라

라고 하여 공립남포보통학교의 인가는 신기수 군수와 李翊鎬、金在珪、崔昌均、張民赫 등 4분이 노력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신기수는 漢城 北署 陽德坊 桂洞 출신으로 1892년 10월 25일 軍部主事로 등용되고 진천군수를 거쳐 1908년 3월 12일 남포군수로 부임하고³⁴⁾ 합방 직후에도 그대로 군수를 역임하다가 1912년 4월 말 이전에 이임하였다.³⁵⁾

2) 학무위원 임명

융희 2년(1908) 6월 22일 발표된 學部訓令第六十六號에 의하여 각 보통학교 소재지에 학무위원을 두도록 되어있다. 남포공립보통학교도 1909 9월 13일附로 乙種公立으로 認可받으면서, 1909년 10월 29일자로 충청남도관찰사 명의로 학무위원을 임명하고 1910년 2월 14일자로 학무위원을 관보에 게재 하게 된다. 초대 학무위원은 白樂和 崔勉植 黃輔顯 金在珪 李翊鎬 白樂濬 朴晟夏이다.³⁶⁾

학무위원의 임무는 학부훈령 66호의 學務委員規程準則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학무위원 사령장(황보현)

34) 일성록 1908년 3월 12일자.

35) 대한제국직원록,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36) 대한제국 관보, 1910년 2월 21일자.

〈學務委員規程準則〉

第一條 官公立普通學校所在地에서는必要함을應히야學務委員을置함을得함

第二條 學務委員은官公立普通學校에關히야左開事項에就히야府尹郡守學校長을
輔佐하며又는其諮問을應히야意見을陳述함

一. . 入學의勸誘及出席의督促에關히事

二. 設備에關히事 三. 其他普通教育獎勵에關히事

第三條 學務委員員數는官公立普通學校一校에對히야七人 以下로定함

第四條○ 學務委員은觀察使及漢城府尹이囑託함

第五條 學務委員의任期는二個年으로되但補缺就任者의任期는前任者의餘任
期로함

第六條 學務委員은名譽職으로함第

七條 府尹或郡守가必要로認히時又는學校長의請求가有히時는學務委員會를開함
이可함

第八條 學務委員會에는府尹或郡守는會長이되고學校長及 敎監은參與함이可함

학무위원 회의는 매월 1차례정도 열린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남포군수가 소집하고 회의도 군수가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도
군수가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남포공립보통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을 군
수가 겸임했기 때문에 군수가 소집하고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학무위원은 학교에 어떤 업무가 생기거
나, 졸업식 등에 소집되고 각 지역을 분담
하여 잡부금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학교
설립초기에는 학교 시설이나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열리는 순종황제의 생일 경축
행사에 초청되는 안내장도 있어 이채롭다.
학무위원의 역할은 오늘날의 운영위원과
비슷한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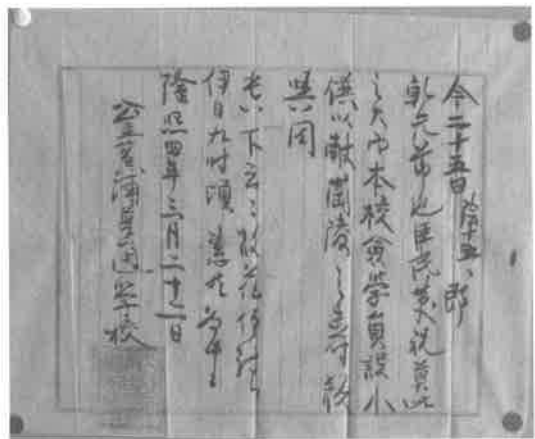
학무위원의 의무금 조사록

3) 학생의 모집

남포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초기에는 학생 모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양반들의 생각이 성리학적 사고에 젖어 있었고, 학교에 내는 수업료도 상당한 액수였으며, 신학문을 배우다는 것은 결국 일본에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시의 실정을 잘 표현한 보고서이다.³⁷⁾ 1909년 직산보통학교의 일본인 학감은 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직산(稷山) 군내에는 서방(書房)의 수가 비교적 많아, 그 수 33, 방생(房生) 222명에 달한다. 본교가 보통학교로서 인가를 얻고 교감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맹렬히 아동을 서방에 모아 놓고 보통학교에 대하여 반대를 부르짖으며, 허설(虛說)을 유포하여 우민(憂民)을 농락하였다. 우민 또한 이를 경신(輕信)하고, 부질없이 망평(妄評)할 뿐이다. 따라서 친절하게 입학할 권유하면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차라리 농사에 종사하게 하겠다고 한다.

또 말하길, 서방은 선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곳이라 하면서 보통학교를 적대시하였다.



순종황제 생일 경축행사 초청장
(1910.3.22)

이런 상황에서 남포공립보통학교 교장은 각 마을에 광고를 내어 학생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였다. 학생모집 광고의 해역문³⁸⁾은 다음과 같다.

37) 충청남도교육청, 2006, 충남교육사 1권 P190.

38) 廣告

公立學校는 國內 教育을 發達하는 責任이 有한지라 學徒가 振興하야 校務가 擴張됨으로 五車書籍과 百種器械와 千種圖書가 石渠를 作하야 靑年子弟의 普通教育이 日就月將하난 此時라 芻矣生徒는 風從雲集하야 競爭進新하건이와 衾此暗昧는 徒守蔽廬殘煙하야 求古天皇作之史와 二十三年晉大夫之句를 喊讀終歲한들 所得은 何事며 所習은 何效아 先生의 撻楚-酷과 講米-督은 何以堪耐오 厭症도 自此生焉하며 苦況도 自此甚焉하야 於焉之間에 十年星霜을 憂愁中에 度了하고 年過三十에 生活家計가 終歸敗散하야 妻飢兒啼에 救活無術한즉 于斯時에 通鑑史略의 學力으로 能免此厄가 十年工夫는 竟歸阿彌陀佛하고 歸于農業할가 入于商務할가 投于工場할가 凡百勞働이 俱不合於冊床退物이라

平生長物の 通鑑史略을 收拾塵案하고 又復 作新學究營業언들 文明人物이 誰肯見欺리오 講米一

〈광고〉 39)

공립학교는 국가의 교육을 발달시킬 책임이 있다. 학도가 늘어나고 학교업무가 확장되어 많은 서적과 여러 기구, 수많은 그림이 튼튼하게 마련되어 청년자제(靑年子弟)의 보통교육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때이다.

훌륭한 생도들이 바람 따라 운집하여 경쟁적으로 새롭게 나가고 있는데, 이불 속 같이 어두운 사람은 쓰러져가는 집의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 옛 천황의 역사와 23년 진나라 대부의 구절을 구하여 평생 소리 내어 읽은들 소득은 무엇이며, 배우는 것은 어디다 쓸 것인가?

선생한테 좋아리 맞는 고통과 선생에게 주는 곡식의 부담은 어떻게 감내하리오. 실증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고생이 심한 것도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어언지간에 10년을 근심 속에 보내고 나이 30에 가정 살림이 끝내 파탄되어 처자식은 굶주려 우는데 구할할 방법이 없는 즉, 이런 때에 통감(統監) 사략(史略)을 배운 힘으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는가?

10년 공부는 도로아미타불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까? 장사를 할까? 공장에 들어갈까? 무릇 백가지 노동이 모두 책상물림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평생 쓸데없는 통감사략을 버리고 또다시 새로운 학문을 익힌들 문명인물 누가 인정하리오. 종차에는 쌀 한 홉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다 죽을 지경에 다시 누구를 원망하라. 여기에 미쳤을 때는 크게 소리질러도 깨닫지 못한다. 세월은 흘러가고 남겨주지 않으니 이것을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때는 때인지라 공립학교를 졸업하면 입신양명(立身揚名)도 자기의 직분이요. 많은 재산도 자기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믿지 않거든 학교에 와서 실상을 보시라. 일각(一刻)을 빌리기 어려우니, 촌음(寸陰)이 아깝다. 어찌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할 것을 즐기느냐.

부형 여러분들아 우리의 생애는 이미 지나고 있는 것이나, 사랑하는 자제를

합도 從此掃如라 濱死之形에 復誰怨尤아 與言及此에 不覺大聲疾呼라 日月이 逝矣라 歲不殘與하니 是誰之怨고 時乎 時乎인더 公立學校의 卒業하면 立身揚名도 自己의 儼職이오 累巨財産도 自己의 固有라 此言을 不信커던 學校에 來集하야 實狀을 親見하라 一刻을 難貸요 寸陰을 可惜이라 胡不警醒하고 甘作自滅고 父兄諸君아 我生은 已矣나 愛重子弟를 何不念哉아 我不愛子면 誰愛我子오 不敎면 禽獸난 聖訓도 忘却耶아 念哉念哉어라 舊曆來年正月은 學徒募集을 大擴張할지니 時哉時哉不再來라 此期를 勿失하고 一齊就校할지어다
隆熙四¹⁾月 一月二十七日 公立藍浦普通學校長

어찌 염려하지 않으리오.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사랑 하리오.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禽獸)가 되어 성스러운 가르침도 망각한다.

생각하고 생각할 지어다. 음력 내년 정월은 학도모집을 대 확장할 것이다.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학교에 나와 불지어다.

음희4년(1910) 1월 27일 공립남포보통학교장 申祺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포공립보통학교의 학생 모집 광고문은 모두 웅은 말이고 명문으로 되어 있으나, 당연한 내용을 각 마을에 광고한 것으로 보아 관내 모든 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 같지는 않다. 필자의 조부가 당시 학무위원을 역임했어도 한일합방 후 학무위원을 사퇴하고 본인의 자녀(4남3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결국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학문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제들을 학교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남포공립보통학교의 학생모집
광고(1910, 1. 27)

4) 학생수의 증가

현재 남아있는 웅천초등학교 일람표는 1911년부터 1939년까지인데 이 중 3장이 결락되고 26년분이 남아있다. 최초의 일람표인 1911년 4월말에 작성한 일람표에 의하면 학생 총원은 123명이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급이 편성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을종학교로 인가된 1909년 이후에 모집한 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1905년부터 설립되어 공부하던 학생들의 학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립으로 바뀌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1911년에 4학년인 학생들은 1908년에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학생수는 초기에 120-130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1919년에 79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3, 4학년 학생이 6명으로 줄어든다. 이때는 대천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고 남포공립보통학교는 화정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웅천으로 이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천지역에 거주하던 학생들은 통학의 불편 때문에 대천공립보통학교로 전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학생수는 계속 증가하여 1923년에는 200명을 넘고, 1934년에는 300

명을 넘었으며, 1936년에는 400명, 1938년에는 500명, 1939년에는 600명을 넘게 된다.

여학생이 처음 입학하는 해는 1924년이다. 이 해에 6명이 입학한 뒤 계속 해서 증가하게 되어 1937년에는 전체학생의 20%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1910년대에는 14세 정도를 유지하다가 1930년대에는 11세 정도로 3세쯤 낮아진다. 1910년대에는 결혼한 학생들이 많아 기혼율이 약 30%정도 되었다가 1930년대 후반에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학생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영향도 있겠지만 조혼의 풍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포공립보통학교 일람(학교일람표에서 정리)

학년/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남여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11	36		41	0	30		16						123		123
1912	48		32	0	21		21						122		122
1913	27		31		24		16						98		98
1914	40		26		27		23						116		116
1915	50		32		29		26						137		137
1916	44		31		24		28						127		127
1917	42		35		27		28						132		132
1918	19		31		34		22						106		106
1919	53		20		4		2						79		79
1920	42		26		31		17						116		116
1921	47		38		23		22						130		130
1922	77		56		34		23						190		190
1923	72		74		64		38		24	0			272		272
1924	36	6	64	0	74	0	43	0	37	0	14	0	268	6	274
1925	47	0	33	5	53	0	52	0	40	0	29	0	254	5	259
1926	42	11	38	4	34	2	53	0	42	0	30	0	239	17	256
1927	43	6	32	7	44	4	37	0	46	1	32	1	234	19	253
1928	50	6	41	5	30	5	42	3	34	0	36	1	233	20	253
1929	54	17	32	4	38	4	31	6	39	3	29	0	223	34	257
1930															
1931	65	10	56	6	37	3	28	4	33	5	26	4	245	32	277
1932	52	9	55	5	49	5	36	2	23	4	30	6	245	31	276
1933															
1934	62	13	59	13	50	4	57	6	45	5	32	2	306	43	349
1935															
1936	58	22	56	21	65	12	65	12	53	6	53	4	351	77	428
1937	80	35	58	22	59	17	67	11	65	11	54	7	383	103	486
1938	100	41	77	34	54	20	61	18	64	11	63	11	419	135	554
1939	144	46	97	38	80	32	58	21	65	15	63	11	507	163	670

연도	여자비율	평균연령	기혼율(%)	학교명	학교위치	졸업횟수
1911	0	13.5	31	남포	남포	
1912	0	13.1	24	"	"	
1913	0	13.7	38	"	"	
1914	0	14.4	43	"	"	
1915	0	14.2		"	"	
1916	0	13.5	38	"	"	
1917	0	14.5	34	"	"	
1918	0		-	화정	남포	
1919	0	14.4	34	화정	웅천	
1920	0	14.3	49	"	"	1
1921	0	14.5	32	"	"	2
1922	0	14.0	24	"	"	3
1923	0	13.5	16	"	"	4
1924	2.2	14.2	33	"	"	5
1925	1.9	13.0	30	"	"	6
1926	6.6	12.5	17	"	"	7
1927	7.5	11.6	15	"	"	8
1928	7.9	11.3	8	웅천	웅천	9
1929	13.2	11.2	4	"	"	10
1930						11
1931	11.6	10.5	3	"	"	12
1932	11.2	10.7	3	"	"	13
1933						14
1934	12.3	10.9	1	"	"	15
1935						16
1936	18.0	11.2	1	"	"	17
1937	21.2	11.3	0.6	"	"	18
1938	24.4	11.2	0.5	"	"	19
1939	24.3	10.7	0.3	"	"	20

5) 학교 명칭의 변경과 이전 그리고 발전

남포공립보통학교는 1909년에 을중공립보통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 남포면 읍내리 읍성 안에 있다가 1917년 11월 13일 화정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게 되고, 약 1년 후인 1918년 12월 28일 웅천읍 대천리로 옮기게 된다. 1917년에 화정공립보통학교로 교명을 바꾼 것은 웅천읍 대천리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교명을 바꾼 것이었다. 웅천읍 대천리의 마을은 '화락메'라고 불렸고 보통 화정(花汀)이라고 표기하였다.

학교를 이전한 후 사실상 1919학년도부터 웅천읍 대천리에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1919 학년도 말, 즉 1920년 초에 졸업한 학생을 화정공립보통학교 1회 졸업생이라고 칭하였다. 실제 졸업횟수는 1905년 입학생부터 계산해야 되고, 최소한 을중공립보통학교로 인가받은 뒤 입학한 1910년도 입학생부터 따져야 될 텐데 1919학년도 졸업생, 즉 1916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횟수를 따진 것이다. 이런 잘못으로 남포공립보통학교 교육의 역사는 실제보다 10여년이 늦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한편 남포공립보통학교가 있다가 1918년 화정보통학교로 개칭하여 웅천 대천리로 이전 된 후의 남포면 읍내리에는 1924년 4월 남포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오늘날의 남포초등학교가 되었다. 그리하여 1909년부터 1918년 까지의 남포 읍내리에 있었던 공립남포보통학교는 오늘날 남포초등학교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아 이시기 남포공립보통학교의 역사는 남포초등학교나 웅천초등학교 역사에도 졸업 횟수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무튼 오늘날 웅천 대천리의 웅천초등학교는 보령 뿐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의 근대식 학교인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 후인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1차 조선교육령 공포되어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이 시작되었다. 남포공립보통학교는 이 교육령에 의해 4년제로 운영되었다. 1차 조선교육령은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기르는 교육과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짜여져서 조선의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위주로 하고 수업연한을 일본의 학제와 달리 4년으로 축소한 것이었다. 일본의 보통교육학제는 6년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헌병경찰통치 대신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교육정책도 변경시켰다. 그리하여 1922년 2월 4일 칙령 19호로 제2차 조선교

육령을 발표하고 종래 4년의 보통학교 수업연한을 일본인과 동일하게 6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남포공립보통학교도 이에 적용을 받게 되었다.



1940년대 초의 웅천초등학교

지금까지는 남학생만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했지만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4년부터는 여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남녀 공학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24년에 여학생 6명이 입학한 것이 웅천지역의 관립 여성 근대교육의 효시였던 것이다.

1928년 2월 화정공립보통학교는 웅천면의 이름을 따서 웅천보통학교(熊川普通學校)로 개칭하였고 웅천면 지역을 상징하는 학교가 되었다. 그후 웅천국민학교 웅천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38년 3월에는 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는데 이에 따라 웅천공립보통학교는 웅천공립심상학교로 개칭되었고, 1941년에는 4차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공립심상학교를 국민학교(國民學校)로 개칭하여 웅천국민학교가 되었다. 국민학교는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식민 통치의 잔재물이다.

이 명칭은 해방 후 1995년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이어서 1996년부터는 웅천초등학교(熊川初等學校)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8년에 웅천 대천리에 보통학교가 세워져서



제13회 졸업사진(1932), 여학생도 보임



1960년대 웅천초등학교 교사

웅천면 지역의 보통교육을 실시하였지만, 보령시 웅천읍 소항, 황교, 독산, 죽청 등 웅천면 서부지역 4개 마을은 웅천공립보통학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최돈목(崔돈穆), 황세주(黃世周), 김우원(金우元), 김동규(金東奎) 씨 등의 노력으로 1933년 협성의숙(協成

義塾)을 설립하게 된다.

이 협성의숙이 1934년 웅천공립보통학교 부설 황교간이학교로 만들어져서 교통이 불편한 웅천 서부 지역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해방 후에는 1948년에 황교초등학교를 위시하여 1957년에 수부초등학교 1967년에 대창초등학교 1970년에



1960년대 화락산에서 내려다본 웅천초등학교와 주변

관당초등학교를 설립하여 웅천초등학교의 기능을 분리시켰다.

특히 황교초등학교가 해방 후 가장 먼저 분리 독립한 것은 서부지역의 많은 인구와 대천리로의 통학 불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6) 현재의 웅천초등학교

① 연혁

년 월 일	내 용
1909. 09. 13	남포공립보통학교 계승 개교
1911. 02	갑종 보통학교 조직변경
1917. 11. 02	화정공립보통학교 개칭(설립인가)
1918. 04. 01	화정공립보통학교 개교
1928. 02. 24	웅천보통학교로 개칭
1934. 05. 01	황교간이학교 개교
1938. 04. 01	웅천공립심상학교로 개칭
1941. 04. 01	웅천공립보통국민학교로 개칭
1943. 04. 01	웅천공립보통국민학교 황교 분교장 승인
1946. 12. 01	웅천국민학교로 개칭
1948. 03. 09	황교국민학교 분리 승격
1948. 04. 01	웅천국민학교 수부분교장 승인
1957. 04. 15	수부국민학교 승격 및 개교
1967. 03. 01	대창국민학교 분리 동시 승격
1969. 09. 01	웅천국민학교 관당분교장 승인
1970. 03. 14	관당국민학교 승격
1996. 03. 01	웅천초등학교로 개칭
1999. 09. 01	수부초등학교와 통폐합
2007. 03. 01	초등 7학급 인가(특수학급 포함), 유치원 1학급
2008. 02. 15	제89회 졸업(남10명, 여10명, 계20명, 총 9,098명 졸업)

② 역대 교장 명단

대 수	성 명	부 임 일	대 수	성 명	부 임 일	대 수	성 명	부 임 일
1	田中稔	1909.07.09	2	中尾猪太郎	1913.04.01	3	池本高義	1920.01.14
4	土屋瀨	1921.11.03	5	結緣忠治	1923.09.30	6	横田三作	1927.03.31
7	上水流仁之助	1930.03.31	8	在原安業	1935.03.31	9	古賀信龍	1937.03.31
10	平野一之	1940.03.31	11	郡英一	1942.03.31	12	佶梁百仁	1944.03.31
13	임민재	1945.10.25	14	임학순	1947.03.16	15	전익균	1949.02.28

16	이종학	1950.03.30	17	김정철	1951.12.06	18	정모남	1958.09.09
19	나광표	1961.09.04	20	이병권	1965.03.01	21	이춘봉	1968.09.01
22	백복균	1973.03.01	23	정규옥	1974.03.01	24	이풍호	1981.03.01
25	유한정	1984.04.01	27	방효준	1989.03.01	28	김익수	1990.03.01
28	조경행	1992.03.01	29	김요집	1995.03.01	30	백장호	1997.03.01
31	김선흠	1999.09.01	32	박성업	2002.09.01	33	김동렬	2004.03.01
34	김덕기	2007.03.01						

③ 교훈: 착하고 슬기롭게

④ 교가: 이병권 작사 작곡

(1절) 차령산맥 줄기찬 화락봉 아래 푸른 강물 웅천내 바라보면서
 많은 인재 길러낸 배움의 전당 빛내리라 우리의 웅천초등학교
 (2절) 그 옛날의 도덕이 이어진 위에 굽이치는 완장포 내다보면서
 많은 학우 배움 준 역사의 보금 밝으리라 우리의 웅천초등학교

⑤ 학급 및 학생 현황(2008)

구분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특수	총계
학급수	1	1	1	1	1	1	1	7
학생수	6	14	9	12	17	16	3	74

⑥ 교직원 현황(2008)

구분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서기보	사무원	위생원	운전원	조무원	소계	총계
정원	1	1	10	12	1	1	1	1	1	5	17

3. 일제시기 웅천초등학교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1923. 12.18 화정보통학교장의 학부형 초대연

보령군 웅천면 화정보통학교에서는 조선인을 무시하던 土屋 前 교장은 동맹휴교로 인하여 2개월전에 타처로 전근되고 結緣忠治氏가 부임되어 丁寧히 敎權을 執하므로 幾日前에 학부형 측에서 환영회를 開한 事가 有하였는데 右 교장은 지난 11일 그 답례로 학부형을 초대하여 연회를 開하고 賓主間에 담소로 폐회하였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4. 2. 1 保寧郡花汀公立普通學校白南振訓導餞別

보령군 화정공립보통학교 訓導 白南振氏는 부임한지 2개월 동안 열심히 교육할 뿐더러 일반 사회의 多大한 同情을 받다가 의외에 서천으로 전근케 되었으므로 학부형과 유지들은 氏를 위하여 餞別宴을 개하였고 氏는 지난 29일 朝에 자동차로 출발하였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4. 3. 14 화정공보 金元鎭 훈도 환영회

보령군 화정 공립보통학교 학부형들은 去 9일에 훈도 金元振氏를 위하여 환영회를 開하였는데, 氏는 1개월전에 영변공보(寧邊公普)로부터 전임되었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4. 3. 14 화정공보 학예회

보령군 웅천면 화정공립보통학교에서는 春期에 여학생을 會募키 위하여 지난 8일에 일반 母妹를 청하고 아동의 학예회를 개최하였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5. 10. 31 화정공보 추계운동회

보령군 웅천면 화정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 26일에 추계 대운동회를 개최하였다는데 30여 종의 경기로 수 백명 관중에게 쾌감을 주었다고(보령)

○ 동아일보 1926. 7. 11 훈도가 학생 수업료 전담, 熊川普校의 金大權氏

충남 보령군 웅천공보교 훈도 김대권씨는 동교에 전근한 후 이래 4개월 동안에 어린 학생을 열성으로 교수하여 겸하여 그 중 빈궁학생의 월사금 미납으로 고통 받음을 더욱 불쌍히 여겨 학생 6명의 월사금을 전부 부담하였으며 따라 敎授에 더욱 열심임으로 일반 인사는 氏의 열성을 찬양한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6. 8. 23 보령 素人劇, 웅천보교 동창회 주최

충남 보령군 웅천공립보통학교 동창회에서는 농촌 무산아동의 문맹을 퇴치하고자 素演劇을 조직하고 방금 준비 중이며 開演日割은 오는 26일부터 양일간으로 단행하리라는 데 지방인사는 물론이요 타면 인사까지라도 다수히 참관하기를 바란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6. 8. 31 소인극(素人劇)도 금지, 보령경찰

충남 보령군 웅천공보교 동창회에서는 무산아동의 문맹퇴치와 모교 발전을 위

하여 소인극단을 조직하고 26일부터 흥행한다함은 既報한 바이어니와 동회에 서 연극 조직의 당시에 주재소에 교섭한 결과 동 주재소에서는 허가하는 동시에 입장료까지 받으라고 하였다는데 이 소식을 들은 본서에서는 지난 25일에 同團위원 2인을 호출하여 심문하고 타지방에서도 허가를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불미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니 허가치 못하겠다며 其時 동석한 同郡 庶務주임은 위원 金敎三氏에게 대하여 교육자의 처지에 있어서 如此한 일에 찬성하여 교육발전에 유익은 고사하고 도리에 탈선적이며 방해되는 일을 한다하여 허가할 수 없다하므로 부득이 돌아왔다는데, 저간(這間) 준비에 수 십원의 손해도 있을 뿐 아니(不啻)라 무산아동의 문맹퇴치에 열성으로 노력한 결과가 결국 수포로 돌아갔으므로 同회원들은 억울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며 일반 인사도 당국자들의 무리 억압이 너무도 몰상식하여 교육발전을 위하여는 사업까지 불허 금지한다하여 원성이 비등한다더라(보령)

○ 동아일보 1926. 10. 25 충남 학생 庭球, 웅천공보체육회 주최(보령)

충남 보령군 웅천공보교에서는 체육회 주최로 충남 학생 정구대회를 개최할 터인데 도내 일반학교에서는 多數히 참가하여 주기를 바란다하며 참가 단체에 대한 입회금은 매인당 40전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 정했으며 時日場所와 상품은 左와 如하다더라.(보령)

- 장소 : 보령 웅천공보교 운동장

- 시일 : 11월 6일

- 상품 : 우승기, 부상품

○ 중의일보 1928. 8. 30 보령 3普校 秋期運動一束

△웅천공보 : 보령군 웅천공보에서는 추기 대운동회를 예년과 같이 지난 10월 1일에 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였는데 57종의 □□가 □□한 경기로 수천 명 운집하에 대성황으로 하오에 5시에 무사 폐회하였다더라(웅천)

△주산공보 : 보령군 주산공보교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추기 대운동회를 지난 10월 3일 동교 코트에서 개최하였는데 예상 이외의 관람객 수천 명의 운집으로 대성황리에 무사폐회하였다더라(웅천)

△남포공보 : 보령군 남포공립보통학교에서는 추기 대운동회를 오는 10일에 개최한다는 에 예년보다도 대대적 준비 중이므로 대성황을 이룰 □□이라더라(웅천)

○동아일보 1933년 8월 16일 協成義塾落成, 熊川の曙光, 無産兒童을 위하여
충남 보령군 웅천면 소항, 황교, 독산, 죽청 4개리는 웅천공립보통학교까지
거리가 1리 이상되는 관계로 유산자 자질들은 기숙하고 배우게 되지만은 무
산자의 자질은 조식도 변변히 먹지 못하고 통학할 수 없으므로 문맹이 됨을
느끼고 있던 최돈목(崔돈穆), 황세주(黃世周), 김우원(金우元), 김동규(金東奎)
외 유지 제씨의 발기로 협성의숙이란 강당 10여 간을 건축하고 지난 10일 낙
성식을 거행하였는데 4개리 학부형 수백명이 회집하여 의연금 50원 당석에서
□□□고한다.

○ 경향신문 1948. 3. 9 황교분교장 승격

【웅천】충남 보령군 웅천면의 황교분교장은 그 동안 맹렬한 운동의 결과로
이번에 국민학교로 승격되었는데, 초대 교장은 박찬규(朴燦圭)씨라 한다.

○ 경향신문 1957. 7. 10 수부국민학교 승격

【웅천】당지 웅천국민학교 수부분교는 6월 15일자로 수부국민학교로 승격하
고 교장에는 백복균(白馥均)씨가 임명되었다 한다.



1969년 50회 졸업사진



현재 웅천초등학교



웅천초등학교 깃대(현재 웅천초등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물이다)



웅천초등학교 비석군

VI. 남포대천장 주변의 유교유적

1. 집성당(集成堂)⁴⁰⁾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산 14번지
- 지정 : 보령시 향토유적 제2호(1991년 12월 10일 지정)

1) 연 혁

집성당은 1898년 3월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의 주도 아래 보령지역과 인근 서천·홍성·청양·부여 지역 유림들의 도움을 받아 웅천읍 대천리에 세워진 사우이다.

윤석봉과 함께 집성당을 창건하는 데 앞장선 인물은 율농(栗農) 신섭(申潑)과 돈간재(敦艮齋) 조진학(趙鎭鶴)이었다. 율농 신섭은 일찍이 경기도 지역의 유생 대표로 항일 위정척사의 상소문을 고종에게 올렸다가 전남 지도(智島)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충청도 비인에 낙향하고 있던 항일의 선비이며, 돈간재 조진학은 숙재 조병덕의 제자로 보령주산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낙론계(洛論系)의 뛰어난 학자였다.

이렇게 세워진 집성당은 일제 침략의 어려움에 처한 한말에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의 영



집성당



집성당(구)

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음력 2월과 8월에 행하면서 인근의 선비들이 강학

40) 황의천, 오현규, 『집성당지』, 대천문화원, 2007. 참고, 자료번역 노승석

(講學)하였으며, 인륜도덕의 문란을 바로 잡고, 항일 위정척사(抗日衛正斥邪)의 정신을 지켜 나갔던 곳이다.

이곳의 유림들은 항일 위정척사의 사상을 강론하였으며,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이나 1919년 파리장서운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거나 관련을 가진 유림들 중 항일운동가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많다. 우선 삼희당 윤석봉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조선말기 가장 실천적 항일의 병운동을 하였던 화서학파의 인물이며, 그가 교유한 인물이 면암 최익현, 의암 유인석, 경암 서상렬 등 당대 최고의 의병장들이었다. 그 또한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2개월 간의 옥고를 겪었다.

그리고 홍성의 항일 운동가 지산 김복한, 복암 이설, 위관 김상덕이 있으며, 윤석봉 선생의 제자로서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된 소위 대마도9의사 중 보령의 우록 유준근, 비인의 운초 문석환, 공주의 택당 이식이 있고, 보령 5열사 중 백관형이 있다. 그 외 김지정·유호근·조구원·윤용원·박영철 등 항일 유림들이 이곳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대천리의 집성당은 단순한 사우가 아니고 항일의 사상을 가진 보령·서천·홍성·청양 등 인근의 선비들이 모여 활동하던 의미 있는 장소였다.

그동안 6.25사변 등 어려움 속에서 훼손되기도 하였으나 유림들의 노력으로 몇 번의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정(影幀)은 없어져서 위패로 대신하고, 강학하던 장소는 터와 복구된 사우만 남아있다. 현재는 지방 유림들이 관리하며 해마다 음력 2월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2) 현재의 집성당

집성당은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웅천초등학교 앞의 하천을 따라 500여 m 정도 남쪽으로 내려 온 곳의 화락산 동향 사면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6.25전까지는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향사(享祀)를 행해 왔지만 6.25 때 영정을 도난당한 후부터는 위패를 모시고 지역 유림들이 매년 향사를 행해 왔고, 건물은 계속 중수(重修)해 왔다. 그러다가 1990년에 보령시의 도움으로 새롭게 개수(改修)하였는데, 정면 2칸 측면 3칸의 건물로 정면의 각 칸에는 4분합문(分閤門)이 설치되었고, 왼쪽의 문 위에는 집성당(集成堂)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편액의 좌우에는 작은 글씨로 된 집성당 중수기 현판 4개가 걸려 있다. 홀처마에 맞배지붕 양식을 한 이 건물의 양 옆 박공 아래에는 방풍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납도리식 건물이다.

집성당의 건물은 2단의 기단 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형 초석 위에 원주(圓柱)를 세우고 있다. 집성당의 주위는 담장이 둘러 있으며, 맞배지붕의 솟을문이 있다.



집성당 제향(2002)

3) 집성당 학맥 화서학과와 민족운동

화서 이항로(李恒老)를 비조(鼻祖)로 하여 형성된 화서학파는 한말 제국주의 침략이 밀려오는 시대 상황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항일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 학파 가운데 하나다. 기호계 주리론에 입각한 이항로의 학문은 실천을 전제로 한 강렬한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 의리와 명분을 생명으로 하는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에 그 본령이 있었다. 화서학파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자로 활동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보령지역에 화서학파가 성립되게 된 것은 1900년 최익현의 청양군 정산 이주와, 1898년 이후 윤석봉의 보령 남포 이주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최익현은 대원군 탄핵상소와 강화도조약 반대 도끼상소를 통하여 유명한 인물로, 정산에 낙향한 이후에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노성 권리사에서 일제에의 세금납부 거부 투쟁을 주동하고,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등 항일운동을 유감없이 실천했던 화서 이항로의 제자였다. 최익현은 정산에서 거주한 6년 동안 화서학파의 맥을 호서지방에 심었는데, 그중 보령의 인물로는 백관형 · 김관제 · 유준근 등이 유명하다.

최익현과 함께 보령지역 화서학파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봉이다. 윤석봉은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이항로의 제자인 중암 김평묵의 문인이다. 1888년 일족과 함께 서천 비인면 울리로 낙향했다가 1898년 보령 웅천읍 대천리에 이거한 후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춘추로 제향하며 춘추의리를 강론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하자 김상덕 · 유호근 등과 함께 홍주성에 들어가 참전하였다가 체포되어 경성감옥으로 끌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한편 윤석봉이 웅천 대천리에 세운 집성당은 호서지역 화서학파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이 집성당의 창건의 대표 발기인은 윤석봉, 신섭, 조진학이었다. 윤석봉은 김평묵의 제자이고, 신섭도 마찬가지로 김평묵의 제자로 신사년(1881) 척사소를 올렸다가 유배 후에 풀려난 뒤 비인에 낙향·정착한 화서학파의 중심인물이다. 그리고 조진학은 주산 거주 학자로 낙론계 학맥을 이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집성당은 화서학파가 중심이 되어 이 지역 학파를 아우르는 유림계의 중심 역할도 하였던 곳이다.

또한 집성당은 지역적으로도 호서지역 항일 유림 교유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곳의 향사를 통하여 지역의 남당학과 인물들인 김복한 · 이철 · 유호근 · 심의덕 · 임한주 · 조구원 등과 화서학파인 백관형 · 이교헌 · 문석환 · 윤석기 ·

윤명오·유준근 등이 교유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봉과 집성당이 있었다.

백관형은 보령 남포 출신으로 윤석봉과 최익현에게 수학하고 1906년 홍주의병 참여, 1916년의 만동묘에서의 항일연설, 1919년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한 대표적 항일 유림이다. 그의 문인으로 김지정이 있는데, 그는 웅천 수부리 출신으로 백관형과 함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유준근은 보령 내항동 출신으로 1906년 홍주의병 유병장으로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의 유배지에서 최익현에게 수학한 인물이며, 파리장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또한 유준근과 함께 홍주의병에 서기로 참여한 문석환은 서천 비인 출신이지만 윤석봉과 신섭의 제자로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학자였다.

홍주의병진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교현은 최익현의 문인으로 부여 외산면 장항리 출신이지만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원래 보령을 비롯한 호서지역은 남당학파들이 그 학맥을 이어 가고 있었으나, 윤석봉을 중심으로 한 화서학파들이 이주하여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남당학파와 화서학파는 서로 교유하면서 호서지역에서 의병운동 등 여러 항일 민족 운동의 선봉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4) 집성당 관련 자료

① 주자(朱子)·송자(宋子) 양부자(兩夫子) 영당창건통문(影堂創建通文)

- 각항(各項)의 문자를 첨부함. -

윤석봉(尹錫鳳) 등은 삼가 재계하고 목욕한 다음 글을 지어, 경내 인근 고을의 여러 진신(縉紳, 벼슬아치) 사대부[章甫] 여러분께 올립니다.

아아! 명나라의 국운이 비색하여 요강(姚江)⁴¹⁾의 학설이 거리에 가득하고 주자(朱子)의 도가 꺾였으며, 조선의 기운이 쇠퇴하여 흑수(黑水)⁴²⁾의 화가 하

41) 요강(姚江) : 명대(明代)의 학자 왕수인(王守仁)의 학파를 말한다. 왕수인은 여요(餘姚) 사람으로, 진사(進士)를 거쳐 정덕(正德) 때에 순무(巡撫)로 대모산(大帽山)의 제적(諸賊)을 평정하였다. 그의 학문은 양지(良知)·양능(良能)을 위주로 하여 요강파(姚江派)라 일컫는다. 일찍이 양명동(陽明洞) 안에 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세상에서 양명 선생이라 칭한다. 『명유학안(明儒學案)』

42)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자로 겹다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늘에까지 뻗치고 송자(宋子)의 학문이 분열되었습니다. 아! 슬프도다. 하늘이 앞뒤로 대현(大賢)을 내심이 정말로 심상치 않은 것인데 어찌하여 그 몸은 당대에 용납되지 않고 도는 후세에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해악이 흘러 넘쳐 신주(神州)⁴³⁾가 침몰하여 명나라가 망한 지 지금 2백여 년이고, 우리나라의 기강이 무너진 것 또한 벌써 30여년입니다. 두 부자(夫子)의 조두(俎豆, 제기)가 있는 곳에 풀이 우거졌으니, 그 까닭에 그 효과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까.

기독교가 횡행하며 온 천하 해외의 온갖 오랑캐들이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서로 무리를 지어 지주(砥柱)⁴⁴⁾를 무너뜨리고 여량(呂梁)⁴⁵⁾을 부리뜨린 이래 한 덩어리가 되어 나라의 풍속을 파괴하였으니, 오백년 예의에서 양존(羊存)의 아낌⁴⁶⁾을 볼 수 있는 때가 없고 삼천리 강산에서 우후(牛後)의 부끄러움⁴⁷⁾을 씻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이렇게 된다면 두 부자의 도가 세상에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멸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한 즉 아무리 인류가 존속한다한들 어디에서 그 분들의 도를 듣고 어디에서 그 분들의 학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생각하다가 홀연 사도(斯道, 유학의 도)의 맥을 보전할 한 가지 방도를 얻었습니다. 대개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이 없다면 사방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 43) 신주(神州) : 중국 사람이 그들의 나라를 일컫는 칭호. 『사기(史記)』 맹자전(孟子傳)에 “추연(鄒衍)이 중국을 적현신주(赤縣神州)라 했다.”고 하였다.
- 44) 지주(砥柱) : 황하(黃河)가 물이 맹진(孟津)이라는 곳에서 급류로 흐르는데, 그곳 강 한복판에 돌기둥이 서 있는 것이 지주이다. 급류에도 아랑곳 않고 서 있어 흔히 무너진 세도를 다시 일으킨 인물에 비유되곤 한다. 여기서는 우암을 상징한 것이다.
- 45) 여량(呂梁) : 중국 사수(泗水)에 있는 험난한 여울이다. 어떤 사람이 윤휴를 비호하자, 우암이 편지를 보내어 그 “윤휴가 이미 ‘임금을 낮추고 중통(宗統)을 이종(貳宗)으로 여겼다.[卑主貳宗]’ 이 4자를 좋은 제목으로 삼았고 보면 다시 여지가 없으므로, 오늘날의 화는 자연 지주(砥柱)를 무너뜨리고 여량(呂梁)을 부리뜨려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은데, 어찌 유생의 소가 격동하는 것을 기다리겠는가.[其人既以此四字爲好題目, 則更無餘地矣, 其有今日之禍, 自然如衝砥柱折呂梁而到海矣, 顧何待於儒疏之激之乎]” 한 것을 빌려 쓴 표현이다.
- 46) 양존(羊存)의 아낌 : 예의의 근거가 되는 제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을 말한다. 노 문공(魯文公)이 종묘에 삭일(朔日)을 고유(告由)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자공(子貢)이 그 제사에 소용되는 양(羊)마저 없애려 하니, 공자가 “사(賜)야,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끼노라.[爾愛其羊我愛其禮].” 하였다. 제물에 바치는 양이라도 있으면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양마저 없애면 그 예는 드디어 없어지게 되는 까닭이다. 『논어(論語)』 「팔일(八佾)」
- 47) 우후(牛後)의 부끄러움 : 왜구인 일본을 추종하는 부끄러움을 말한다. 중국 전국 시대의 유세가인 소진(蘇秦)이 한(韓)나라 선혜왕(宣惠王)에게 진(秦)나라에 신복(臣服)하지 말도록 설득하면서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 [寧爲鷄口 無爲牛後]”는 속담을 인용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

팔방 마구 쏘아야 할 것이니 어디를 향해 쏘겠습니까. 다니는 자가 집이 없다면 천 길 만 길 아득히 이어질 것이니 어디로 가서 머무르겠습니까. 근래 학자들이 지향할 곳 없는 형편이 마치 활을 쏘는 자가 표적이 없고 다니는 자가 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사우(士友)와 함께 몇 칸짜리 모옥(茅屋, 사당)을 창립하여 두 부자(夫子)의 영정(影幀)을 봉안(奉安)한 다음 봄가을로 모여 삼가 제향의 예를 행하며, 또한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焚香)하고 전배(展拜, 문안배례)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부자의 글을 강송한다면 한갓 후학의 사사로운 마음을 조금 펴는 것일 뿐 아니라 장차 사문의 운수를 되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문을 강하게 하고 오랑캐의 학술을 배척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정성이 아니면 사물이 있을 수 없고 재물이 없으면 사업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고을에서 의리를 추구하는 분들이 몇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다, 또한 모두 척박한 토지를 소유한 형편이니, 비록 훌륭한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끝내 잘 계승하여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원근의 여러 군자들께서 만약 다른 의리를 추종하는 분이 아니라면 강한(江漢)⁴⁸⁾과 갱장(羹牆)⁴⁹⁾처럼 존송하고 사모하는 정성이 의당 저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과 짐승이 판연하게 구분되고 길이 분명하게 갈라졌으니, 사문을 향하면 사람이 되고 오랑캐를 추종하면 짐승이 됩니다.

무릇 중화(中華)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배척함이 관계된 바인지라 이번 설립을 강명하는 데에 정히 지극함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각각 성력(誠力)을 출연하고 함께 도모하여 사업을 마친다면 이것이 이른바 활을 쏘는 자에게 표적이 있고 다니는 자에게 집이 있어 모두 지향할 바른 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에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후학의 책임이 만에 하나 만이라도 메워질 것입니다.

48) 강한(江漢) : 돌아가신 선생의 숭고한 덕을 비유한 말이다. 공자 사후에 증자(曾子)가 그 덕을 기려 “강한으로 씻고 추양으로 쬔었으니 밝디 밝아 더할 수 없도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 皜皜乎不可向已]”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맹자(孟子)』 「등문공 상(滕文公上)」

49) 갱장(羹牆) : 돌아가신 성인이나 현철을 사모한다는 말이다. 옛날 요(堯)임금이 별세하자 순(舜)임금이 요임금을 그리워하여 국그릇을 대하여도 국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담장을 대하여도 담벼락에 요임금의 모습이 어른거린 일을 가리키는바, 곧 선현인 주자와 송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작은 정성을 품고 동지 여러분께 두루 고하노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
자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힘을 모아주신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영력(永曆) 251년 丁酉(1897) 8월 일 유학(幼學) 윤석봉(尹錫鳳)

감역(監役) 조진학(趙鎭鶴)

비인(庇仁) 유학(幼學) 신섭(申櫟) 등은 재배(再拜)합니다.

② 집성당기(集成堂記)

삼가 생각건대 요순(堯舜) 이래로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中道)를 행하시
며⁵⁰⁾, 여러 성인들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集大成)한 분은 공자(孔子)이고, 공
자 이래로 박학(博學)과 약례(約禮)를 양면으로 온전히 하며 여러 현인들의 말
씀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주자(朱子)이다. 그리고 주자 이래로 명(明)과 성(誠)
에 모두 도달하며 여러 유자(儒者)들의 말씀을 모아 집대성한 분은 송자(宋子)
이다. 그렇다면 주자는 공성(孔聖, 공자) 이후 한 분이고, 송자는 주자 이후
한 분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주(周)나라 왕실이 동쪽으로 도읍을 옮기며 제후가 참람하고 어지러우니 하
늘이 반드시 한 분의 공자를 내시어 천하의 왕들을 위해 『춘추(春秋)』를 지어
‘천하대일통(天下大一統)’의 의리를 밝히고, 송(宋)나라의 두 황제가 북쪽으로
잡혀 가심에⁵¹⁾ 금(金)나라 오랑캐들이 중화(中華)를 어지럽히니 또한 한 분
주자(朱子)를 내시어 황제를 위해 토벌(討伐)과 수복(收復)을 주장하여 불공대
천(不共戴天)의 의리를 밝혔으며, 명나라가 남쪽으로 내려와 멸망한 뒤 흉악한
청나라 오랑캐들이 천위(天位)를 차지하매 또 한 분의 송자(宋子)를 내시어 대
군(大君)을 위해 번방(藩邦)을 지켜 ‘만세필보(萬世必報)’의 의리를 밝혔다. 하
늘이 이 세 분의 부자(夫子)를 내시어 일치(一治)⁵²⁾의 천운에 부응한 것이 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50) 정밀하고 전일하여 중도를 행하시며 : 정일집중(精一執中)의 심법(心法)을 말한다. 『논어』 「요왈(堯曰)」에, “요(堯) 임금의 말씀하기를, ‘아! 순(舜)아, 하늘의 역수(曆數)가 네 몸에 있으니, 너는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으라.[允執厥中]’ 했다.” 하였으며, 『서경』 「대우모(大虞謨)」에 순 임금의 우(禹) 임금에게 선위(禪位)하면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니, 정히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중도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하였다. 이후 이것은 유가의 심결(心訣)이 되었다.

51) 송 휘종(宋徽宗) 정강(靖康) 연간에 금(金)나라가 송나라 서울 변경(汴京)을 함락하고 휘종과 홀종(欽宗)을 사로잡아 북으로 가니, 이로써 북송(北宋) 시대가 끝났다. 이때에 주자는 화친을 거부하고 북쪽으로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힘껏 주장하였다.

52) 일치(一治) : 천하가 한 번 어지러워진 뒤 한 번 찾아오는 태평 정치의 시대란 의미이다.

아! 기수(氣數)가 궁박하여 하늘 또한 어찌할 수 없어서, 이때에 이 분들로 하여금 대강(大綱)과 대법(大法)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순전한 음기(陰氣)가 극성한 때라도 양기가 완전히 소멸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 세 분의 부자(夫子)가 없었더라면 천지가 붕괴하고 일월(日月)이 빛을 잃어 중화와 오랑캐가 구분이 없고 사람과 짐승이 분별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이 더러운 곳에 빠지고 기강(紀綱)과 윤상(倫常)이 부정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후생이 세 분 부자를 존모하여 모실 때에 어찌 한갓 힘을 다해 죽음으로 갚을 뿐이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공자께서 천하에 성인이 되신 지는 오래되었다. 그것은 그렇거니와 주자와 송자의 차이는 비록 생소하고 익숙하며 수고롭고 편안한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난 시대에 대소(大小)와 난이(難易)의 구별이 있었던 까닭이다. 무슨 말인가.

주자의 시대에는 향해(香孩)⁵³⁾의 국토가 그나마 6천리 정도 광대하게 남아 있던 때였으나, 송자의 시대에는 명나라의 강산이 한 줌의 땅덩어리조차 회복하리라고 말할 수 없는 때였다. 사정이 이러한 즉, 다만 천하의 힘없는 영향과 종이 위의 속절없는 말로 이단을 물리치고 오랑캐를 쓸어낼 때 공력을 씀이 어찌 백배나 어렵지 않겠는가. 비단 이리할 뿐만 아니라 흑수(黑水)⁵⁴⁾의 화가 강서(江西)⁵⁵⁾의 거친 물결보다 더욱 심했으니, 송자의 학문이 이 때문에 분열되어 거의 멸식되었다.

아! 사도(斯道)가 정도를 이기지 못함은 이치의 몇몇한 법칙이요, 굽은 것이 반드시 펼쳐지는 것은 기운의 정당한 흐름이니, 태양이 크게 빛나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선생의 대도(大道)가 찬란하게 다시 밝아진 지가 2백여 년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늘은 뉘우치지 않아 두 부자의 사당과 서원에 화를 내리시어 곳곳마다 빈 제단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그리고 서양 오랑캐들의 사설(邪說)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요순(堯舜)과 공맹(孔孟)을 좁은 소견의 인

53) 향해(香孩) : 송(宋)나라 태조를 지칭하는 말로, 송 태조의 출생시 병영 중에 3일 동안 기이한 향기가 넘쳤으므로 낙중(洛中)의 사람들이 응천선원(應天禪院)을 향해 아영(香孩兒營)이라고 불렀다. 『공씨담원(孔氏談苑)』 여기서는 단순히 송나라 자체를 가리킨다.

54) 흑수(黑水) : 윤휴(尹鑄)를 가리킨다. 윤휴가 살았던 경기 여주(驪州)의 ‘여(驪)’ 자가 ‘검은 말 여’자로 읽히는 뜻이 있고 거기에 여강(驪江)이 있으므로 윤휴를 배척하는 측에서 그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55) 강서(江西) : 육상산(陸象山)을 말한다. 육상산이 강서성(江西省) 사람이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호는 존재(存齋) 혹은 상산(象山), 시호 문안(文安), 이름 구연(九淵)이다. 귀계(貴溪)의 상산에 강당을 짓고 후학 양성에 전념하여 당시 유일한 석학이었던 주자(朱子)와 대립하여 중국 전체를 양분(兩分)하는 학문적 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사상적 계보로는 모두 정자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한때 주자학에 의하여 압도되기도 하였으나, 명대(明代)의 왕양명(王陽明)에 의해 계승되었다.

물로 보는 형편이거니, 더구나 뒷시대 주자와 송자 두 분이야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형편이 이렇고 보면 두 부자께서 집대성한 도가 세상에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필시 멸절(滅絶)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까닭에 남포고을의 선비들이 세교(世敎)가 쇠퇴한 것을 통렬히 한스러워하여 정성을 모아 초당을 짓고 삼가 두 부자의 화상을 그려 봉안한 다음, 봄가을로 조출하게 제향을 올리고 초하루보름으로 모여 그분들의 글을 읽고 그분들의 도를 강마(講磨)하여 세도가 변하는 것을 막았다. 그 형세가 비록 조각배로 거친 파도를 헤치는 것과 같고 작은 나무로 큰 집을 지탱하는 것과 같지만, 또한 천지(天地)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生民)을 위하여 도를 세우는 것⁵⁶⁾이 되니, 뒷날 양기를 회복할 기반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으로 어찌 알라.

아! 슬프다. 고인들께서야 비록 동상을 세워 모시는 예를 행했으나 지금은 흡사하게 화상을 그려 모시니, 아마神明께서 의지하시기에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즉 고을 사람들의 오늘 이 거사는 또한 족히 억울한 개인적인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게 할 것이다. 공사를 마치고 영당이 새롭게 지어지자 많은 분들께서 나에게 기문을 지어 전말의 사실을 제양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의 이름은 집성당(集成堂)이다. 삼가 평소 사우(士友)들께 들은 바를 가지고 감히 식견 없는 말씀을 펴노니, 혹 대작상수(代斲傷手)⁵⁷⁾라는 꾸지람을 듣지는 않겠는가. 후인들 가운데 이 집성당에 올라 배알하는 자들이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높으며 태산처럼 우뚝하고 대지처럼 드넓은 두 부자의 화상을 우러러 뵈을 것이다. 그런즉 돌아보건대 이 글은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가늠하거나 자를 쥐고 하늘을 재는 것⁵⁸⁾과 다를 바 없으니, 어찌 감히 두 부자의 큰 덕을 형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선 이 내용을 기록하노니 훗날 사람이 수정하고 윤색할 것을 깊이 바란다.

56) 『근사록(近思錄)』에서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하여 도를 세우고, 지나간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계승하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열어야 한다.[爲天地立心 爲生民立道 爲去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57) 대작상수(代斲傷手) : 자신이 문장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 말이다. 『노자(老子)』 74장에 “거장(巨匠) 대신 칼을 휘두를 경우 손을 다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夫代大匠斲 希有不傷其手矣]”라고 하였으니, 문장에 뛰어난 대가 대신 자신이 집성당 기문을 짓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비방을 받거나 않겠나 하는 뜻이다.

58) 반고(班固)의 「유통부(幽通賦)」에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본다.[既傾蠡而酌海 遂側管而窺天]”라고 한 것을 원용한 표현이다. 자신의 집성당기가 주자와 송자의 덕을 도저히 형용할 수 없다는 겸사이다.

③ 영건 유사 현판기(營建有司懸板記)

도(道)가 천하에 있어 혹 없어지지 않으니, 그러므로 천지와 함께 영원한 것이 도이다. 그런데 세상이 혹 지극히 어지러워지면 도 역시 멸망하거니와 이(理)는 종식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불행히 지금과 같은 때를 만났은즉, 하늘이 반드시 도를 부식(扶植)할 사람을 내어 그로 하여금 도가 멸식(滅息)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니, 이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이 한 가지 이치여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도이다.

오호라. 서양 귀신이 마구 횡행한 이래 천리(天理)는 땅을 쓴 듯 없어지고 인도(人道)는 짐승이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본심이며 사람의 본정이겠는가. 기수(氣數, 운수)가 막힌 곳에는 하늘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람도 또 휩쓸리어 따른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한두 사람은 본성을 잃지 않은 채 위로 하늘의 본심을 체인(體認)하고 있는 이가 있은즉, 사도(斯道)를 부식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삼아 생사와 안위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말씀하신바 “죽어도 의리를 변치 않는다.[至死不變]”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행할 줄 알아야 한다.[守死善道]” “후회 없이 도에 목숨을 건다.[靡悔以身殉道]” “삶을 버리고 의리를 취한다.[捨生取義]” 등의 허다한 말로서 뒷사람들에게 경계를 내려준 것이 지극히 직절(直切)하고도 분명하다.

그런 까닭에 하늘의 본심을 받들어 성인의 가르침을 지키며 조화를 주관하여 액운을 돌리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가 이렇고 보면 그 사람이 꼭 모두 성현일 필요도 없고, 출신의 고하(高下)나 지위의 대소(大小), 학문의 천심(淺深), 재주의 우열(優劣)도 따질 것 없이 진실로 이러한 마음을 먹고서 능히 말을 하여 막을 수 있는 자라면 이런 사람이 소위 성인의 무리이다.

지금 천하 가운데서도 한 모퉁이 동쪽의 끝, 동쪽의 끝에서도 한 모퉁이 남전(藍田)에 척박한 지방의 한두 사람이 요사한 기운이 침략하는 것을 근심하고 양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을 통탄스럽게 생각하여, 새로이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경건히 주자와 송자 두 부자의 영정을 모신 다음, 나아가서는 영정에 배알하고 물러나서는 남기신 글을 읽고 있다. 그 의도는 대개 장차 경전을 보위하고 성인을 수호하며 오랑캐를 물리치고 사설(邪說)을 물리쳐서 천하의 대세에 대적하여 한 줄기 바른 기운이 꺾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뜻은 바르거니와 마음은 슬프고 사업은 장하거니와 힘은 미미하다.

아! 빼어나도다. 이 일을 누가 주관하였나. 사인(士人) 이헌세(李憲世), 백관진(白觀鎭), 황진(黃稹), 유세리(柳世利), 이종익(李鍾益) 다섯 분이 더욱 월등히 힘쓴 사람들이다.

2. 대천리와 남포향교

1) 고남포(古藍浦) 시기의 남포향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중등 교육기관으로 군현에 향교(鄕校)를 설립해서 중앙에서 훈도(訓導)를 내려 보내 지방 교육을 하였다. 지방의 향교는 읍치 근처에 세워져서 지방관의 관리를 받았다. 고려시대 남포현의 치소가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에 있었던 관계로 향교도 이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남포향교의 최초 창건에 관한 기록은 현재 정확히 밝힐 수 없다. 전언에 의하면 고려시대는 웅천읍 평리 중상굴에 있다가 태종 13년(1413)에 웅천읍 대천리로 옮겨왔다고 한다. 대천리 구장터에는 현재 향교말로 불리는 마을이 있다. 향교말은 생갯말 향교말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로서 이 곳에는 과거에 향교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남포의 관아가 수부리 수안에 있었지만 당시 이곳 대천리까지도 관아의 범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대천리에서 부여방면으로 가는 분깃점 도로에서 20m정도 가면 철도 건널목이 나오는데 건널목 너머의 마을이 향교말이다. 마을의 산중턱에는 와편이 지금도 산재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수부리 중상굴에 있던 남포향교가 조선 태종때 이후로는 여기에 남포향교가 있었음을 또한 알 수 있게 해준다.

2) 남포향교의 이전

이어서 세종 때 남포현 치소의 이동과 함께 남포향교는 현재의 남포면 옥동리에 이전하게 된다. 그 때의 상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는 현의 동쪽 1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곳이 오늘날 남포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583년에는 이 향교에서 선성(先聖) 선현(先賢) 위판 8위가 부수어져 산골짜기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서 1646년의 『학교등록』 기사에는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현의 동쪽 1리에 있던 향교를 현재의 위치인 옥동리에 신축했다고 하였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1711년(숙종 37)에 남포향교는 특별한 이유없이 다시 현의 서쪽인 현재의 옥서리 열구리마을로 이전된다. 그런데 이전한 서쪽의 향

교터는 지반이 습하고 읍의 관청이 향교보다 위에 있어서 향교터로서 적합하지 못했으며, 1843년까지 130여 년이 지나자 향교건물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이에 현감 박효묵(朴敎默)이 중심이 되어 예조에 이건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교 이전에 대해서 당시 금령이 내려져 있었으므로 순상 김필균(巡相金弼均)을 내려보내 직접 조사하게 하였다. 그는 계문을 올려 말하기를 향교의 터가 옛터인 동쪽에 하나, 새로 이건하려 했던 서쪽에 하나인데, 그중 향교자리로는 동쪽이 적합하다고 알렸다. 이에 8월에 동쪽옛터인 옥동리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9월에 완공하고 11월에 봉향하였다. 이때 현의 사족 150명이 20만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1843년 남포향교는 현재의 위치에 이 건된 것이다. 이때 이전되기 전 향교의 위치는 현재의 남포저수지 아래 마을인 옥서리 열구리 마을(月村)이다. 남포관아보다 아래 마을이며, 위치도 낮다.

1843년 이 건 후 1890년(고종 27)과 1898년에 중수가 있었다. 이 중수의 사실은 1898년의 중수기(都有司 李敎玩 記)에 전하고 있다. 1890년의 중수는 정이번(鄭李繁) 현감이 자신의 봉급과 아전의 봉급을 걷어 370냥을 만들어 수리한 것이고, 1898년의 중수는 또 다른 중수기(黃邦顯 記)에 전한다. 그에 따르면 이해에 김용제(金用濟) 현감이 자신의 봉급 200금을 내어 춘추향사시 음식을 차리는 데 쓰게 하고, 또 800금을 모아 향교전답을 마련, 흥학의 자산으로 삼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1907년의 중수 역시 중수기(李哲圭 記)로 전한다. 즉 남포군의 이무영(李茂榮), 조용필(趙鏞弼), 이종응(李鍾應) 세 집의 문중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향교를 존모한 지가 60년이 되어 지난해인 1906년 가을에 다시 집의 재산을 기부하여 향교를 중수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일제시기에는 별다른 중수가 없었고, 해방 이후의 중수로는

- 1946년 대성전, 동·서양재 중수
- 1966년 명륜당, 외삼문 중수
- 1973년 대성전 중수
- 1976년 문묘 중수
- 1983년 명륜당 중수
- 1984년 전사청, 내·외삼문 중수를 거쳐서 1984년 5월 대성전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136호로 지정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남포향교)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9번지
- 지정 :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111호(1997년 12월 23일)

3. 효자 최광필(崔光弼) 유적

대천리 철도 건널목 건너에는 효자 최광필(崔光弼, 1553-1608)의 정려가 있다. 최광필은 강릉최씨의 남포현 입향조이다. 임진왜란을 피하여 무송윤씨와 함께 남포현에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번창하여 조선후기 소위 안·황·윤·최로 불리는 남포현의 유력 성씨중의 하나가 되었다.



남포향교

1) 효자 최광필(崔光弼) 정려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철도 건널목 옆에 위치한다. 원래 웅천읍 소항리 황골에 있었으나 공군사격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최근 이 곳으로 옮겼다.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내부 중앙 상단과 뒤편 상단에는 효자 최광필과 최성집(崔聖集)의 처 전주이씨 열녀문 편액이 걸려 있고, 뒤편 중단에는 중수기가 걸려 있다. 편액에는 “孝子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



최광필 효자문

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通訓大夫使朝正郎崔光弼之門萬曆四十六年七月日立” “烈女學生崔聖集妻孺人全州李氏之閭今上卽位二十四年丁亥四月日命旌” 이라 각서되어 있다. 효자문은 1618년, 열녀문은 1887년에 세워졌다.

최광필(1553~1608)은 본관이 강릉(江陵)으로 임진왜란 중에 아버지를 모시고 조종현(朝宗縣: 경기도 가평)에 피신하던 중 아버지의 상을 당함에 그 곳에 임시로 장사지냈는데, 왜구의 노략질과 살육이 심하여 주민들 모두가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묘소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남아서 낮에는 산에서 왜적을 피하고 밤에는 여막으로 돌아와 시묘를 하니 마을 사람들이 그 효성에 감

동하여 양식을 가져다 주고 친척처럼 보살피 주어 복을 마쳤다. 1618년 조정에서는 최광필의 지극한 효행을 기려 정려를 내렸다.

이 정려는 원래 이곳에 있었다가 광복 이후 소항리 황골로 옮겨졌고, 최근 공군사격장 관계로 다시 이곳에 옮겨졌다.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건물 내부에는 1618년 명정된 최광필의 명정 현판과 1887년 명정된 최성집의 처 열녀 전주이씨의 명정 현판 그리고 중수기가 걸려 있다.

2) 최광필 묘갈명(工曹正郎崔公墓碣銘 并序) (谿谷 張維⁵⁹) 지음)

公諱光弼。字某。崔氏出江陵。高麗三重大匡慶興府院君必達。其鼻祖也。曾祖諱士諱。禮賓寺參奉。祖諱福慶。王孫師傅。考諱諤。司憲府監察。妣泗川陸氏。監察誠之女。公幼喪母。既長。力學通經。戊子春。中進士選。是歲第文科。壬辰之難。奉親避兵于朝宗縣。遭監察公喪。就其地權窆焉。時賊鋒充斥。所在屠掠。人皆鳥竄苟活。公獨守死不去。晝則入山避寇。夜還廬次。居民感其誠孝。得艱食必以進。奉護如其親戚。服除。歷成均館學諭學錄。轉議政府司錄。由博士陞繕工監主簿。累遷成均典籍。刑禮二曹佐郎奉常寺主簿。陞工曹正郎。出監禮安縣。方天兵東征。屢爲接伴官。天將甚重之。宮闕役起。公上疏極言土木病民。因及時政得失二十餘條。頗觸時諱。未幾。爲江原道都事。又陳民隱。用事者惡之。噉言官劾罷。自是不復仕。先是懿仁王后薨。公喪食至卒哭。及戊申宣廟上陟。公執方喪之禮。山陵既訖。猶處外寢食素。不預隣人會集。羸毀將成疾。親舊交勸之。不可奪。竟以十月十三日卒。年五十有六。久之。朝廷知公雅有至行。白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公天性溫謹。篤於孝義。平居晨起謁祠堂。出入必參拜。奉先一遵古禮。事繼母能色養。每以家貧不能備物。爲至恨。而其身之陋窮。非所戚也。喜讀書。安分守拙。其於干時趨利。視之若浼。故人頗目爲迂拙。坐是連蹇。釋褐二十年。未離郎署。而公恬然自適也。娶茂松尹氏。贈領議政彥清之女。賢而得婦母道。以公贈封淑夫人。後公二十六年崇禎甲戌卒。壽八十二歲。生三男一女。男長曰崧。僉知中樞府事。次業。歸厚署別提。次巢。進士。女適士人尹義民。崧無子有一女。巢有三男二女。男曰基遠。壽遠。行遠。巢有一女。始公葬于長湍某里先塋之兆。及夫人卒。將祔焉。窆中有水。乃改卜傍近地得某向之原而合葬焉。維少

59) 장유(張維 1587~163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 우의정 김상헌(金尙憲)의 사위이며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아버지이고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1609년 증광문과 급제했고 1623년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그후 대사간·대사헌·대사성을 지내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신풍군(新豐君)에 봉해졌다. 이정구(李廷龜)·신흠(申欽)·이식(李植) 등과 더불어 조선문학의 4대가로 불린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從公受經。公之喪也。維狀公名行。將請銘於立言君子。久之文不成。諸孤乃以屬維。維不敢辭。銘曰。

嗚呼崔公。敦行而力學。入孝而出忠。人皆侈其襮。己獨存其衷。便儼之黨。睨我慙慙。窮而不悔。奈何乎公。

공의 휘(諱)는 광필(光弼)이요, 자(字)는 모(某)이다. 최씨의 계보는 강릉(江陵)에서 비롯되는데, 고려 때 삼중대광(三重大匡)의 관직을 역임하고 경흥부원군(慶興府院君)에 봉해진 필달(必達)이 그 비조(鼻祖)이다. 증조 휘(諱) 사순(士淳)은 예빈시 참봉(禮賓寺參奉)이요, 조부 휘 복경(福慶)은 왕손(王孫)의 사부(師傅)요, 부친 휘 영(諱)은 사헌부 감찰이요, 모친 사천 목씨(泗川睦氏)는 감찰 함(諱)의 딸이다.

공은 유아기 시절에 모친을 여의었다. 일단 장성해서는 학문에 힘을 기울여 경서에 통달한 결과 무자년 봄에 진사시(進士試)를 통과한 다음 이해에 바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모시고 조종현(朝宗縣)으로 피난을 갔는데, 이때 감찰공의 상을 당하였으므로 그곳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당시는 왜적이 없는 데가 없었고 살인과 노략질을 일삼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새들처럼 뿔뿔이 흩어져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공만은 한사코 떠나지 않고 낮에는 산속에 들어가 왜적을 피하고 있다가 밤에는 다시 여막(廬幕)으로 되돌아오곤 하였다. 이에 거주민들이 그 성효(誠孝)에 감복하여 어렵사리 먹을 것을 구하기라도 하면 꼭 공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치 친척처럼 대하며 보살피 주었다.

상복을 벗고 나서 성균관 학유(學諭)와 학록(學錄)을 역임하고 의정부 사록(司錄)으로 옮겨졌으며 박사(博士)를 거쳐 선공감 주부로 승진하였다. 여러 차례 성균관 전적과 형조·예조의 좌랑, 봉상시 주부를 거친 다음 공조 정랑으로 승진하였으며 예안 현감(禮安縣監)으로 외방에 나갔다. 그리고 중국 군대가 동정(東征)할 때를 당하여 몇 번이나 접반관(接伴官)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중국 장수들이 공을 매우 중히 여겼다.

궁궐을 세우는 역사(役事)가 일어나자 공이 상소하여 백성을 병들게 하는 토목 공사의 폐해를 극언(極言)하는 한편, 20여 조(條)에 걸쳐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언급하는 등 시휘(時諱)를 자못 저촉한 결과 얼마 뒤에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백성의 고달픈 사정을 진달하자 권세를 잡은 자가 미워한 나머지 언관(言官)을 사주하여 탄핵해서

파직토록 하였다. 이로부터 공은 다시 벼슬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의인왕후(懿仁王后)가 홍(薨)했을 당시에 공이 졸곡(卒哭) 때까지 상식(喪食 거상(居喪) 중의 식생활)을 했었는데, 급기야 무신년에 선묘(宣廟)가 승하하자 공이 방상(方喪)의 예를 지켜 준행함은 물론, 산릉(山陵)의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외침(外寢)에 거처하고 소식(素食)을 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모임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통함에 몸이 바짝 야위어 장차 병이 들려 하자 친척과 고구(古舊)들이 서로 권유하였으나 그 뜻을 뺏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10월 13일에 죽고 말았으니 그때의 나이 56세였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조정에서 공이 평소부터 지극한 행실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서 위에 아뢰어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고 승정원 도승지의 관직을 추증하였다.

공은 천성적으로 온화하고 근실하였으며 독실하게 효의(孝義)를 실천하였다. 평소 아침에 일어나면 사당에 참배하였고 외출할 때나 돌아올 때면 꼭 사당에 고하였으며 선조를 받드는 일을 한결같이 고례(古禮)대로 준행하였다. 계모(繼母)를 섬기면서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정성껏 봉양하였는데, 늘 집안이 가난하여 제대로 갖추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그지없이 한스럽게 생각하였을 뿐 자신의 고달픈 신세는 전혀 서러워하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서 우직할 정도로 자신의 신조를 고집하였다. 그리하여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마치 오물을 뒤집어쓰는 것처럼 여겼으므로 사람들이 꽤나 오활하고 졸렬하다고 지목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잇따라 낭패를 당한 나머지 조정에 진출한 지 20년이 되도록 낭서(郎署)를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공은 정작 담담하게 여기며 유유자적할 따름이었다.

공은 무송 윤씨(茂松尹氏)에게 장가들었는데, 부인은 영의정을 증직받은 언청(彦淸)의 딸로서 현숙한 인품에 부도(婦道)와 모도(母道)를 두루 구비하였다. 공으로 인하여 숙부인(淑夫人)의 봉호를 추증받았는데, 공보다 26년 뒤인 승정(崇禎) 갑술년에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율(崔)은 첨지중추부사이고, 차남 업(業)은 귀후서별제(歸厚署別提)이고, 그 다음 집(集)은 진사이며, 딸은 사인(士人) 윤의민(尹義民)에게 출가하였다. 율은 아들 없이 딸을 하나 두었다. 업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기원(基遠), 수원(壽遠), 행원(行遠)이다. 집은 딸이 하나 있다.

처음에 공을 장단(長湍) 모리(某里)의 선영의 묘역에 안장하였는데, 뒤에 부

인이 죽어 합장하려고 보니 광중(壙中)에 물이 고여 있기에 가까운 지역을 다시 택해서 모향(某向)의 언덕에 합장하였다.

나는 어려서 공에게 경서를 배웠다. 그래서 공이 작고했을 때에 내가 공의 행장을 지어 장차 입언 군자(立言君子)에게 명(銘)을 부탁하려 하였는데, 오래도록 글을 이루지 못한 관계로 여러 자제들이 그만 명을 나에게 부탁하게끔 만들고 말았다.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할 수가 있겠는가.
명은 다음과 같다.

아 최공이여 / 嗚呼崔公
돈독한 행실로 학문에 정진하며 / 敦行而力學
집에선 효성 나가선 충성 바쳤어라 / 入孝而出忠
사람들 모두 겉치레에 바빴건만 / 人皆侈其褻
공만은 홀로 속마음 단속했지요 / 己獨存其衷
약삭빠른 무리들이야 / 便儂之黨
무능하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 眊我慳慳
아무리 곤궁해도 후회 않는 걸 / 窮而不悔
그런 공을 그들이 어찌하리요 / 奈何乎公

4. 병오홍주의병과 최상집 의사 유적

대천리의 남포대천장은 을사조약 후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진이 서천에서 홍주(홍성)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진을 쳤었던 장소이고, 여기에서 화락산 아래 살고 있던 유생 윤석봉을 만나 참여를 권하는 등 세력을 확장한 장소이다. 그리고 2006년에는 대천리 향교말에 홍주의병진의 소모장(召募將)으로 활동했던 웅천 소황리 출신의 최상집(崔相集, 1849~1909)의사 추모비가 세워졌다.

1) 병오홍주의병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주권이 일제에 의해서 강탈당하자, 1906년 1월 청양 정산에 내려와 살던 전 참판 민종식을 비롯한 지사들은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공격하여 일제에 대항하기로 하고, 3,0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예산군 광시면 광시장터에 모였다. 이 때 참여한 인물은 민종식(閔

宗植)·정재호(鄭在鎬)·박윤식(朴潤植)·박창로(朴昌魯)·안병찬(安炳瓚)·최상집(崔相集)·최선재(崔璇在)·이상구(李相龜)·이세영(李世永)·채광묵(蔡光默)·이만직(李晩植) 등이었다.

의병진이 갖추어지자 민중식은 광시를 출발하여 홍주 동문(조양문) 밖 하우령에 진을 치고,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광시장터로 퇴각하여 군제를 바로잡고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의병진이 공주를 향하여 진군하여 선두부대가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 묵방 마을에 이르렀을 때 척후병이 공주 병력과 경병(京兵)이 청양읍에 도착하여 휴식 중이라 보고하였다.

이에 민중식은 진로를 바꾸어 청양군 화성면 화성장터로 가서 진을 치고 하루밤을 지냈다. 그날 공주 병력이 주민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의병진의 위치를 알아내어 화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의병이 진을 친 부근에 잠복했다가 밤을 틈타 총격전을 벌였다. 여기에서 민중식을 비롯한 의병들은 대부분 도망을 갔고, 23명이 체포되었다.

그 후 1906년 3월 민중식의 처남으로 부여군 구룡면 죽절리에 살던 이용규(李容珪)는 화성에서 흩어졌던 동지들과 전주·진안 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서천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남포(藍浦)·오천(鰲川) 등지를 다니며 식량을 모아 홍산에서 기병할 준비를 하였다.

1906년 음력 4월 19일(양 5. 12) 홍산 지티(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에서 민중식을 대장으로 하여 다시 기치를 높이 들고 두 번째로 의병을 일으켰다. 《의사 이용규전》에는 홍산에서 기병할 때의 부서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대 장(大 將) : 민중식(閔宗植)

참모장(參謀將) : 김광우(金光佑) 조희수(趙羲洙) 채광묵(蔡光默)

중군장(中軍將) : 정재호(鄭在鎬) 황영수(黃英秀) 이세영(李世永)

유격장(遊擊將) : 채경도(蔡景燾)

좌군관(左軍官) : 윤필구(尹弼求) 윤병일(尹炳日) 송순묵(宋淳默)

우군관(右軍官) : 이병년(李秉年) 이범구(李範九) 홍순대(洪淳大)

소모장(召募將) : 지우범(池禹範)

소모관(召募官) : 이만직(李晩植)

수문장(守門將) : 최선재(崔璇在)

수성장(守城將) : 조병순(趙炳舜) 박영두(朴永斗)

선봉장(先峯將) : 이남규(李南珪)

후군장(後軍將) : 정해두(鄭海斗)
 서 기(書 記) : 문석환(文奭煥)
 운량관(運糧官) : 박방현(朴方賢) 성재평((成載平)
 향 관(饗 官) : 박윤식(朴潤植)
 좌우소모장 : 최상집(崔相集) 엄순영(嚴淳永)
 좌익장(左翼將) : 이상구(李相龜)
 우익장(右翼將) : 신현두(申鉉斗)
 참 모(參 謀) : 안병찬(安炳瓚) 박창로(朴昌魯) 안항식(安恒植) 신보균(申輔均)
 유병장(儒兵將) : 유준근(柳濬根)
 유병소 양관(儒兵所養官) : 민정식(閔廷植)
 유격장(遊擊將) : 김광현(金光鉉) 윤상보(尹相普)
 참모사(參謀士) : 이동규(李東珪) 이식(李佚) 남계원(南啓元) 안병림(安炳琳)
 안교헌(安敎憲) 박시림(朴始林)
 돌격장(突擊將) : 남계원(南啓元) 안병림(安炳琳) 곽한일(郭漢一)

이들은 홍산을 점령한 후 서천 구병동으로 행군하여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비를 무릅쓰고 문장동으로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서천읍을 공격하였다. 이때 의병이 천여 명이였다. 여기서 며칠을 머무르며 양총을 빼앗고, 군수 이종석(李鍾錫)이 의병의 요구를 듣지 않자 체포했다가 놓아 주었다. 이종석은 몰래 일본군과 내통하여 의병을 도적이 침입했다고 하여 많은 일본군이 모여들도록 했다.

다음날 비인을 함락하고 웅천 대천리의 남포 대천장에 들어와 진을 쳤다. 그리고 인근에 사는 유림 종장인 윤석봉의 참여를 권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어서 남포대천장을 출발하여 4월 22일(양 5. 15)남포읍성에 들어갔다. 이때 의병 수는 2천으로 늘었다. 남포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2-3일 동안 공방전을 벌이며 남포성을 점령하였고, 남포병력 31명이 의병진에 귀순하였다. 그리고 주산면 간치 장터에 있던 유희병사 33명도 영입하였으며, 웅천 대천리에 집성을 건립하고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유생들인 윤석봉(尹錫鳳)·윤석기(尹錫祺) 등 인근의 선비들이 참여·격려차 웅천 대천리에서 남포성으로 들어왔다. 이어서 민중식은 대천 내항동에 살던 유준근(柳濬根)을 초청하였으며, 병중이었던 유준근은 기꺼이 참여하였다.

보령지역의 당시 상황은 황성신문(1906. 5. 21)에 의하면 ‘의병대장 민중식

등 200여 명이 5월 14일부터 남포에 집결하여 남포군수를 협박하고 무기와 전곡(錢穀)을 빼앗았고 일본인 3명을 체포하였으며, 또 의병이 보령군수에게 병사 70여 명, 돈 1만냥, 마필 약간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므로 군수가 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버렸고, 일본인 1명이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또 황성신문에 5월 초순부터 남포지역에 의병 400여 명이 촌가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주에서 관군을 파견한다는 내용, 미산 평라리 등에 의병이 출몰하고 있어 정찰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보령지역에서 많은 의병들이 모집되어 민종식 의병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4월 26일(양력 5. 19) 의병진은 보령·결성을 거쳐 홍주에 진격하여 삼신당리에 이르러 일본군과 싸워 이기고, 성중(城中)을 향하여 포화를 퍼부었다. 남문 성벽에 의지하여 저항하던 일본군은 우세한 의병진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류 일본인들과 함께 북문으로 탈출하여 예산 덕산 쪽으로 달아났다. 홍주성을 점령한 의병진에서는 곧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진용을 정비하여,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피를 마시며 구국 전투에 몸 바칠 것을 맹서하였다.

이어서 윤 4월 7일에는 곽한일·남규진 등의 의병이 홍주성에 합세하여 들어왔다. 소모된 병사도 늘어났고, 주민을 동원하여 성을 보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4월 9일(양 5. 31) 일본군의 공격으로 홍주성의 의병진은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민종식은 피신하였지만 의병 140여 명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홍주에서 3일간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그 가운데 의병활동의 중심에 섰던 78명은 윤4월 16일 다시 경성 일본군 사령부로 압송되어 갔다. 천안까지는 걸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고 윤4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여 2달간 투옥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혹독한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최후로 의병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로 인정된 9명은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마도에 끌려가 유배형을 당했던 최상집·유준근·이식·안항식·신보균·신현두·이상구·문석환·남규진 등 9명을 '대마도9의사'라고 한다.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의병 가운데 국외로 끌려간 경우는 1906년 대마도에 억류된 의병이 유일하다. 문석환·남규진·신현두·최상집이 1908년 음력 9월 14일(양 10월), 유준근·이식·이상두가 1909년에 석방되었다.

대마도에 억류된 9의사와 가장 연고를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국내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보령의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이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남포군 웅천면(보령 웅천읍 대천리)에 낙향한 이 지역 화서학파의 종장인 윤석봉은 1898년 웅천 대천리에 집성당을 세우고 강학하면서 위정척사의 항일활동을 전개한 학자였다.

윤석봉은 자신도 1906년 병오홍주의병진에 민중식의 초청으로 참여하였다가 홍주에서 체포되어 경성일본군 사령부로 끌려가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되어 끌려갔던 9명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특히 유준근·이식·신현두·문석환·남규진은 서울 경성사령부 감옥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고생을 함께하면서 옥중에서도 의를 강마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기로 하기도 하였다. 유준근·이식·문석환은 집성당의 제향에도 참여하였으며, 문석환은 윤석봉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또 윤석봉 사망 시에는 이식과 문석환은 제자의 의리로 각각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윤석봉은 최상집과도 교분을 가져 최상집이 1909년 회갑을 맞이하였을 때 회갑을 축하하는 수연시(壽宴詩)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또 이상구는 유준근의 재종형인 유호근과도 친분이 두터웠고, 안향식의 조카인 안병찬은 유호근이나 윤석봉과도 교분이 상당하였다.

2) 최상집 의사

① 최상집 의사의 활동

최상집의사는 1849년(기유년) 1월 8일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옛 남포현 황동)에서 아버지 규석(奎錫)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에서 차자(次子)로 태어났다.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호는 남호(南湖)이며, 자는 중일(重日 또는, 仲一)이라 하였으며, 장릉(章陵)⁶⁰⁾ 참봉을 역임하였다. 그의 가계는 9대조인 최광필(崔光弼, 1553-1608)이 임진왜란 후 최초로 경기도에서 남포현 황동(篋洞)에 입향하면서 그 후손들이 조선 후기 남포현의 명문향족을 이루었고,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서 살아온 가문이었다. 그의 처가인 무송윤씨가 조금 먼저 황동에 낙향해서 자리 잡은 것이 이 지역 입향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남포현의 유력성씨인 소위 안·황·윤·최로 불리던 성씨가 되었다. 최광필은 1588년 문과에 급제한 후 강원도 도사(都事), 승지 등을 역임하였고, 효자로 인정되어 정문이 내졌다.⁶¹⁾

최상집 의사의 자세한 일생의 행적은 집안에 행장 등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가없다. 강릉최씨 남포파 족보에 의하면 최상집은 아들이 없었는

60)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군(定遠君, 元宗)의 능, 경기도 김포에 있다.

61) 최광필의 정문은 현재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향교앞 도로 옆에 있다.

지 조카 돈식(燾植)을 양자로 삼았는데 그마저도 홍주의병 봉기 직전인 1904년 최상집 보다 먼저 사망하고 만다.⁶²⁾ 그 후 후손들의 생활이 어려웠던 관계로 의사의 행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의사의 묘소도 실전된 상태이다.

최상집 의사는 1906년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킬 때 1차 광시의병 당시에도 참여하였고, 홍산 지터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킬 때도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장(召募將)으로 참여하여 홍주성 공격에 가담하였으며, 홍주성에서 조직을 정비할 때도 계속 소모장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다. 이때 의사의 나이는 환갑에 가까운 58세였다. 그러나 1906년 5월 31일(양) 홍주성이 일본군에게 점령되면서 민중식 의병장 등은 피신하였지만, 의병 140여명이 포로로 잡혀 홍주에서 왜병의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다시 78여명은 경성일본군사령부로 압송되었고, 7월에 대부분은 거기에서 석방되었으나, 의병의 주동인물로 판명된 9명은 대마도 유배형을 받았다.

최상집 의사는 소모장의 직책을 수행한 관계로 대마도 유배형 9명 속에 포함되어 1906년 8월 6일(음 6.17)서울에서 열차로 부산에 도착하여, 배로 다시 대마도에 건너가 이즈하라(嚴原)의 일본군 대마도경비대 영내에서 감금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마도 감금생활의 기간, 즉 형기(刑期)는 얼마였는지 모른다.

그 후 면암 최익현⁶³⁾도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그의 제자 임병찬(林炳瓚)⁶⁴⁾과 함께 대마도 3년 유배형을 받고 1906년 8월 28일

62) 이 사실은 함께 유배생활을 했던 유준근의 『마도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즉 1906년 8월 19일의 일기에서 ‘최상집은 그 아들 대상이 오늘이라 하고, 임병찬도 역시 그 손자 소상이 오늘이라 하며 슬픔을 견디지 못한다.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된 자로서 몸이 이역에 있게 되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다.

또한 임병찬의 『대마도일기』 8월 20일자에도 ‘참봉 최상집도 역시 재작년에 아들을 잃었는데, 오늘이 바로 대상(大喪)이라 한다. 낮은 종일, 밤은 밤이 새도록 서로 마주 대해서 서로 불쌍히 여겼다.’하였다.

63)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본관은 경주, 호는 면암(勉菴), 경기도 포천 출신, 화서 학파의 종장(宗杖)으로 강화도조약 반대 단발령 반대 등의 투쟁으로 투옥생활을 하였으며, 1900년 충남 정산으로 내려와 살았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순절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묘소는 예산군 광시면에 있다.

64) 임병찬(林炳瓚 1851~1916) 호는 돈헌(遯軒), 본관은 평택(平澤). 전라북도 옥구(沃溝) 출생. 1899년(고종 36) 철충장군첨지중추부사가 되었고, 그 뒤 절제사 겸 낙안군수를 지냈다. 1906년 2월 최익현(崔益鉉)과 태인(泰仁)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초모(招募)·군량·연병의 책임을 맡았다. 태인·정읍(井邑)·순창(淳昌)·곡성(谷城) 등을 쳐서 관곡으로 군량을 충당, 진용을 정비하였다. 그해 6월 순창에서 일본군과 격전하다가 최익현과 함께 붙잡혀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와 재거를 피하다가 1912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독

(음7.9) 대마도에 끌려와 먼저 와있던 최상집 의사 등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홍주의병 9의사들은 74세의 최익현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학문을 배우고, 서로 우국충정의 시로서 교유하였다. 그러나 최익현은 고령에 머나먼 낯선 이국땅에서의 고생과, 일제에 대한 분노가 겹쳐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병이 나서 앓다가 대마도에서 사망하고 말았다⁶⁵⁾. 최상집 의사 등은 그 곳에서 제자의 예로서 극진한 병 간호는 물론이고 죽은 후에는 상복을 입고 애도하였다.

그 후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일제에 의해 형기가 감축되어 최상집 의사는 문석환·남규진·신현두와 함께 1908년 음력 9월 14일 석방되어 고국에 돌아왔다. 대마도에 끌려간 지 만 2년 2개월, 햇수로 3년이 되는 해였다. 그러나 최상집 의사는 환갑의 고령으로(사실상 대마도 9의사 중 가장 고령이었다) 겪었던 혹독한 심문과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돌아온 지 1년 후 병이 들어 61세의 나이로 1909년 12월 사망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러나 함께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의사들이 1960년대-1970년대에 걸쳐 모두 포상된 것에 비하면 너무 늦게 된 것이다.

② 최상집의사 실체와 연고지 확인 전말

장릉최씨 족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崔相集 : 字仲一號南湖章陵參奉一八四九年己酉正月八日生公天性峭直鄉黨稱之高宗丙午與閔參判宗植起義旅敗績于洪州被執至對馬島崔勉菴益鉉同留勉菴之喪勤勞備之至後三年乃還竟病瘴而卒乃純宗三年己酉十二月二十日也其高忠大義庶不讓蘇中朗之北海文文山之燕獄曷勝欽慕哉 墓扶餘郡恩山面獐項里 配豐川任氏

【최상집의 자는 중일이고 호는 남호이며 장릉참봉을 지냈다. 1849년 기유년 정월 8일 출생하였다. 공은 천성이 바르고 엄하여 고을에서 칭송이 있었다. 고종 병오년(1906년) 참판 민중식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다가 홍주성에서

립의군부의 조직과 계획이 드러나자 그도 잡혀 거문도(巨文島)로 유배되어 병사했다. 저서로 《돈헌문집》이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65) 현재 대마도 이즈하라(嚴原)항의 절 슈젠지(修善寺)에 최익현 순국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 절은 최익현이 순국했을 때 경비대 감옥에서 9의사들이 최익현의 시신을 옮겨 장례를 치른 절로, 1986년 한·일 양국의 유지들이 뜻을 모아 비를 세운 것이다. 비의 전면에는 ‘大韓人崔益鉉先生殉國之碑’라 쓰여 있고, 후반에 그의 충절을 기리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러나 최익현과 대마도9의사들이 감금되어 있던 감옥은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다만 옛 일본군 경비대 자리는 지금도 일본 자위대 경비부대가 주둔하고 있다.(신동아 2005.3월호)

패배하여 대마도에 붙잡혀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면암 최익현과 함께 지냈고, 면암의 상사에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여 힘썼고, 3년 후 돌아왔으나 마침내 병을 얻어 사망하니 순종 3년 기유년 12월 20일이었다. 그 높은 충성심과 큰 절의는 중국 한나라의 소중량이 오랑캐에 붙잡혀 가서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일과, 송나라 문천상이 몽고족에게 굴하지 않고 순절한 것과 어찌 비교되지 않겠는가. 더욱 흠모 할 일이라. 묘는 부여군 은산면 장항리에 있고, 부인은 풍천임씨였다】

1995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독립유공자서훈록》에는 최상집을 부여사람으로 기록하였고, 《벽계연원록》 66)에도 부여인으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그의 양자(養子)가 부여에 살았던 관계로 잠시 그곳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그런 것이다. 그와 그의 아들 묘소가 부여에 있게 된 것도 그러한 연유인 것으로 보인다. 본래는 보령 웅천 소항리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이는 그가 대마도에 끌려가서 생활할 때 함께 있던 돈헌 임병찬이 지은 《의병항쟁일기》 67)에 최상집은 남포인(藍浦人)으로 나와 있고, 홍주에서 체포된 후 기록된 체포자 명단에도 남포(藍浦) 황동(篁洞) 68)으로 기록되어있다. 이는 출생지와 거주지를 남포라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현재 중종의 사람들도 모두 웅천에서 태어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최상집은 자기의 이름 대신 자(字)인 중일(重日)을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이점 때문에 오늘날 홍주의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대로 최상집과 최중일이 동일 인물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의 자 중일은 족보에서는 仲一, 독립운동 관련기록에서는 重日로 나타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임병찬이 기록한 것 69)에 근거한다면 重日이 맞지 않을까 한다.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 연구소의 유한철 박사의 논문 70)에서도 참여자 명단 소개에서 ‘남포의 최중일’로 표시하고 있어 대마도9의사 최상집과의 연관성을

66) 장삼현, 『藥溪淵源錄』, 양평문화원, 1999.

67) 林炳瓚, 『의병항쟁일기』, 한국인문과학원, 1986.

68) 김상기, 「홍주의병의 1906년 홍주성 전투」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04.11 p35

69) 임병찬, 『대마도일기』에 ‘定山의 李伏, 禮山의 南敬天, 保寧의 柳濬根, 洪州의 安恒植, 夫餘의 李相斗, 藍浦의 崔重日, 洪州의 申輔均, 申鉉斗, 庇仁의 文錫煥 등이 차례로 와서 면암을 뵈었다’고 하고 있다.

70) 유한철, 「홍주의진(1906)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p20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충남대 김상기 교수도 「홍주의병과 1906년의 홍주 성전투」 논문에서 윤시영의 『홍양일기』 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78명의 포로 명단과 나이 거주지 직책이 나와 있는 자료를 소개하면서⁷¹⁾ ‘崔重一 나이 (59세), 거주지 남포 篋洞’으로 소개하고, 비고란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 최중일과 최상집이 동일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崔成集이라는 사람이 나이 43세로 홍주 남문외에 거주하는데, 이 사람이 대마도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으로 애족장을 추서 받았으며, 崔相集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최상집을 최성집의 오기로 표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준근 안항식 이상구(이상두) 신현두 신보균 이식 남규진(남경천) 최상집(최성집) 문석환 등 9명(홍주9의사)는 대마도에 유배되어 嚴原에서 감금 생활을 하였다’⁷²⁾라고 서술 하고 있어 최상집 의사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③ 최상집 의사의 시(詩)

문중에서는 최상집의 문집이 있었다고 하나, 관리가 되지 않아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금은 어떤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가 남긴 문장이나 항일운동 이외의 행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함께 대마도에 끌려가 유배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⁷³⁾ 속에 그가 최익현 등과 주고받은 시가 몇 편 들어 있다. 이를 소개하여 최상집 의사의 애국충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마도에서 말복(末伏)을 맞이하면서 지은 시】

오늘도 또 하루라 가을을 보내면서
산을 보고 물을 보니 마음 절로 상하누나
나라 생각 누구는 눈물을 흘리는고
신세가 하도 슬퍼 내 역시 애를 끓네

바람이 이니 나뭇잎은 한없이 소실하고
달이 뜨니 산 집은 더욱 더 쓸쓸하구나
거울 속의 내 머리 아침마다 희어가니
모두가 수심 때문 말길 길 바이 없네

-1906년 6월 25일(음) 말복-

71) 김상기, 위의 논문.

72) 김상기 위의 논문. p36

73) 유준근, 『馬島日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독립운동사자료집으로 번역

【최익현이 대마도 9의사에 준 시에 대한 차운(次韻⁷⁴⁾)】

무슨 일로 그대들은 이 길을 왔단 말인가
나라 일 붙들자면 성인(聖人)의 마음 저버릴 수 없느니
사람을 옮겨 잘 대접함은 무엇을 구하려 함인지
오랑캐 섬 풍속은 예부터 이름났는데

-최익현- 1906년 7월 14일(음)

강은 만 번 휘어도 동으로 쏟는 거라.
늘그막에 나라위해 잡혀 왔네.
부슬 부슬 밤비에 꿈을 깨어보니
숲속의 부는 바람 선들 기운 보내준다.

- 최상집 - 1906년 7월 15일(음)

바다밖에 줄지에 늙은 상공(相公) 오신다 전하니
처음 듣고 눈물 흘러 참을 길 없네
하늘에 치솟는 절의(節義) 사는 것만 어이 취하리
만 리 밖에 우뢰와 같이 크게 소리 날 날 있으리

-최상집- 1906년 7월 15일

【최익현이 최상집에게 준 시】

오랑캐 세상이라 하늘도 무심한데
늙은 늙이 잡혀왔다. 무엇이 부끄럽나
소매 속에 가득히 연하(煙霞)를 주워 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손님에게 자랑하소.

1906년 7월 23일(음)

【최익현의 시에 대한 최상집의 차운】

양풍(洋風)에 휘말리어 습속이 바뀌지니
머리 깎고 갓 없애고 이 무슨 재변이나
방·원(方圓)의 옛 제도를 모멸할 자 뉘란 말인가
이제부터 행동은 의식을 갖추겠네

-최익현- 1906년 7월 27일(음)

74) 남이 지은 시에서 운자를 따서 시를 지음

비록 몸은 늙었지만 뜻이야 변하겠나
갓을 벗고 앉았을 적에 내 눈물이 쏟아졌네
궁하면 제자리로 되돌아온다더니
하느님이 이제야 옛 모습 찾아 주네

-최상집-1906년 7월 27일(음)

【최익현과 함께 유배 온 제자 돈헌 임병찬이 최상집에 준시】

굳고 장한 선생의 의지를 사랑하네
대의를 존중하고 정도를 붙잡길래
남을 위해 일한다 생각을 아니하고
거침없이 다니는 그 용기 대단하구료

-임병찬-1906년 7월 28일(음)

【최상집의 차운】

지난날 원님이 오늘 날 의사
이역에 멀리 와도 성화는 높네
더구나 사제(師弟)간의 의를 다하니
명예가 백대를 전하오리다.

-최상집-1906년 7월 28일(음)

가을이라 쌓인 비 시름을 자아내니
길 손이 물(物)을 보고 정을 어찌 참겠는가
다락 위엔 주렁주렁 산유자 열매 맺고
창창한 송림사이 새벽달 비쳐 온다.

안력(眼力)도 함께 있어 먼 곳은 못 보나니
꿈 혼은 몇 번이나 한양성 들렸던고
의복세탁 바느질 제 손으로 맡기시니
한 가닥 빨래 줄이 빈공에 비끼었네.

1906년 7월 29(음)

【머무르는 집의 주인이 친절하여 그 情誼를 치하해 주면서】

맑은 샘물 끌어들인 좋은 별장에

먼 나그네 와서 보니 때마저 가을,
말은 서로 모르지만 수·화(水火)를 통해 주고
한 집안 사이 마냥 거처를 빌려 주네

괴석을 의지하여 국화가 많고
물결 따라 갈매기는 떠다니누나
세상사는 재미가 이에 족하니
고기 낚고 나무하며 날을 보내네.

1906년 8월 2일(음)

【병정 三澤增治가 와서 시 1수를 청하기에 지어준 시】

이역에서 한번보고 마음이 맞아
군무가 바쁜 데도 틈틈이 찾네
필답을 써서 나를 위로하면서
저도 고향으로 가게 된다고 . . .

1906년 8월 10일(음)

【대마도 풍속인 팔번궁제(八幡宮祭)를 보고 지은 시】

하얀 달 붉은 등불 밤경치 새로운데
그림 같은 사람들 거울 속에 오고 가네
듣자하니 한가위 사흘간 모임에는
늙은이 젊은 사람 어울려 논다는군.

④ 최상집의사 추모 현양·사업

현재 강릉최씨 남포파 문중에서는 최상집 의사의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상집 의사 묘소는 족보에 부여 장항리에 있다고 나와 있으나, 후손들이 어릴 적에 성묘한 후, 생활고 때문에 오랫동안 고을을 떠나 있어서 지금까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찾지 못하고 있었다. 묘소가 실전된 상태였던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묘소 단장비로만 추모사업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관계로 묘소가 없으면 추모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묘소 실전도 안타까운 일인데, 묘소가 없어 국가의 추모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이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문중에서는 보령시의 도움, 그리고 문중과 후손의 성력(誠力)으로 보

령시 웅천읍 대천리 향교말 삼거리에 최상집의사 항일운동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후손들의 기억을 살리고 문중의 조언을 바탕으로 외산에서 실전된 묘소를 찾아서 대천리 항일운동추모비 뒤에 이장하였다.

④ 최상집의사와 홍주의병진의 보부상(褓負商)참여 문제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의 유한철 박사는 「홍주성 의진(1906)의 조직과 활동」이라는 논문에서 홍주 의병진에 보부상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충남대 김상기 교수도 하고 있다.⁷⁵⁾

홍주의병의 병사 계층은 2가지 점에서 보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지역적 관계이다. 민중식 의병이 홍산에서 기의하여 홍주성에 입성하기까지 서천·남포·보령을 경과하게 되고 앞서 살핀 대로 이 지역에서 다수의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바로 이 지역은 보부상의 주 활동 무대였다. 즉 충남의 부여·정산·홍산·임천·한산·비인·남포·서천은 葦山八郡의 보부상단이 유명한데, 홍주성 의병의 기반은 바로 이 지역에서 마련되어진 것이다. 둘째는 실제로 보부상의 참여 사례가 보인다는 점이다. 「運糧官 朴斗杓가 부상 7명을 이끌고 해미관아에서 홍주로 양곡을 운반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위의 두 가지 사실로 보면 홍주성 의진의 병사층에는 보부상이 다수 참여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과연 보부상원에서 참여했는지 개인적으로 참여했는지의 문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홍주성의진과 보부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다⁷⁶⁾.

홍주의병 연구에서 김상기 유한철 등의 학자들은 저산팔구 지역의 보부상의 참여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부상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던 소모장(召募長)의 직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병오홍주의병 조직에서 최상집 의사의 직책이 《의사 이용규전》에 의하면 홍산 지티에서 기의(起義) 할 당시에는 좌우사 소모장(左右社召募將)이고, 홍주성 점령 후 정비된 조직에서는 좌우 소모장(左右召募將) : 최상집(崔相集) 엄순영(嚴淳永)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친 의병진 조직에 있어 소모장 직책을 맡은 사람은 지우범(池禹範)이었다. 여기서 좌우(사) 소모장과 소모

75) 김상기,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p189, 224.

76) 유한철, 앞의 논문.

장의 직책이 별도로 조직된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의 유한철 박사나 김상기 교수도 지적하듯이 홍주의병의 모집 근거지는 오늘날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등이 중심인데, 이 지역은 조선후기 모시생산 지역이어서 모시 유통을 중심으로 보부상단이 조직되어 시장권을 지배하면서 크게 활동하던 지역 이었다⁷⁷⁾. 보부상은 보상(裨商)과 부상(負商)을 통칭하는 말로, 보상은 붓짐장수를 말하고, 부상은 등짐장수를 말한다. 이들은 조선후기 국가 권력의 비호아래 보부상단인 상무사(商務社)를 조직했는데, 저산팔구지역의 보상조직은 〈저산팔구상무사우사(苧山八區商務社右社)〉, 부상조직은 〈저산팔구상무사좌사(苧山八區商務社左社)〉라는 공식명칭으로 활동하였다. 약자로써는 〈좌사(左社)〉 〈우사(右社)〉로 통칭한다. 따라서 의진의 조직에 있어서 소모장 지우범이 있으면서, 최상집 의사의 직책이 좌우(사) 소모장이라 함은 저산팔구지역의 보부상단을 동원하는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더욱 심증을 가게 하는 것이 홍주성 점령 후의 조직에서 좌우소모장 직책에서 최상집 이외에 엄순영(嚴淳永)이 등장한 점이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저산팔구지역의 보부상들은 관군을 도와 동학군 진압에 공헌을 하였다. 1894년 국가에서 내려준 완문(完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富城郡의 이비류(夷匪類)를 평정하여 백성들을 안정시키고자 관군이 호서에 이르러 匪類를 토멸할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때였다. 부상인 嚴順英 · 宋學憲 · 金明九 · 崔海昇 등이 동료 백 여명을 인솔하여 地境에서 迎接하고 군병을 돕는 일에 열고 굽주림을 불구하고 水火를 피하지 않았다⁷⁸⁾.

이 기록에 의하면 동학농민운동당시 負商(左社)조직을 이끌고 嚴順英은 관군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홍주의병진에서 좌우사 소모장 중의 한 사람으로 嚴淳永이 기록되어있어, 한자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다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의병진의 기록이나 완문의 기록 중 하나가 오기일 가능성⁷⁹⁾ 있기 때문에 동일인일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보부상단 특히 저

77) 황의진, 「개항기 보부상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연구」, 『대보문화』 3, 1994.

저산팔구지역의 상무사는 1960년대 사단법인으로 활성화되기도 하였고, 1978년 까지 명맥을 유지하면서 公事 내용을 기록해 왔다. 현재는 이들 보부상의 후예들이 없어지고 최근까지 문서를 보관해온 김재련씨와 황인철씨가 사망한 관계로 관계문서는 부여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었는데, 아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지지 못해서 열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8) 이훈섭, 황선민, 『부보상연구』, 보경문화사, 1990. p165.

79) 보부상 문서인 『청금록』에는 嚴順英이 嚴順永으로, 宋學憲이 宋鶴憲으로 나오기도 한다.

산팔구지역의 보부상단은 국가 권력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진 단결력이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진압에 참여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⁸⁰⁾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항일의병운동에도 충분히 참여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며, 좌우사 소모장 직책의 최상집이 저산팔구 지역의 보부상단을 동원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⑤ 대마도9의사

1906년 병오홍주의병당시 체포되어 대마도에 끌려가 유배형을 당했던 최상집·유준근·이식·안항식·신보균·신현두·이상구·문석환·남규진 등 9명을 ‘대마도9의사’라고 한다. 여기에 나중에 대마도에 끌려온 최익현과 임병찬을 포함하여 ‘대마도11의사’라고도 한다.

첫 번째로 대마도 9의사는 어떤 인물들인지 간단히 소개해 본다.

○ 유준근(柳濬根, 1860~1920)

보령시 대천 내항동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우록(友鹿)인데 대마도 유배시 함께 있던 최익현이 지어준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 유병장(儒兵將)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 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후에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馬島日記』가 있다. 1977년 정부에서는 건국포장을 추서(追敘)하였다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올려 追敘하였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고삼마을에 있으며, 1980년에 이병권 지음 황면주 씀의 묘비가 있고, 2004년에 황의천 지음 보령시장 이시우 세움의 항일운동사적비가 있다. 최근 의사의 묘역을 새롭게 정화하였다.

○ 이식(李弼, 1873~1936)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출신으로 본관은 연안이고 호는 화산(華山) 또는 친구당(愼懼堂)이다. 정산에 낙향한 최익현에게 사사를 받았고, 병오홍주의병 때에는 참모사(參謀士)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간 유배되었으며, 1912년에는 고종의 밀지(密旨)를 임병찬에게 전하여 그와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1968년 대통령표창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집으로 『친구당집』이 있으며, 묘소는

80) 황의천, 앞의 글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에 안선영이 짓고 청양군수 이준배가 1985년에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 문석환(文奭煥, 1869~1925)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幼學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운초(雲樵)이다. 을농신설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에 서기(書記)로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대마도일기』가 있다. 스승 윤석봉 사망시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묘소는 비인면 장포리에 조익순(趙翊淳)이 지은 묘비와, 그리고 서천군수가 1980년에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그가 지은 『대마도일기』는 2004년 그의 손자가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였다. 1977년 건국포장(建國褒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이상구(李相龜, 1859~1926)

공주군 우성면 보흥리 출생으로 본관은 단양이고 호는 정관(靜觀)이다. 그의 형 이상린(李相麟)은 1895년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3년 형을 받았고, 이상구는 병오홍주의병에 좌익장(左翼將)으로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의 묘소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2리에 부여군수가 1980년에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1977년 건국포장(建國褒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안항식(安恒植, 1860~1922)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에서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순흥이고 호는 화농(華農)이다. 그의 집안은 형인 안창식이 1895년의 홍주의병에 가담하였고, 조카 안병찬과 안병림도 의병운동에 가담한 항일운동 가문이었다. 병오홍주의병에 참모로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가 돌아왔다. 묘소는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에 김시종이 짓고 청양군수가 1981년에 세운 묘비와 함께 있다. 1977년 건국포장(建國褒章),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 신보균(申輔均, 1861~1912)

홍성군 홍동면 왕지동 출신으로 본관은 평산이고 호는 미호(眉湖)이다. 병오홍주의병에 참모로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3년의 유배형을 치르고 1908년 6월 18일 고국으로 돌아온 후로는 오로지 후세들 교육에 힘쓰다가

1912년 별세하였다. 1986년 12월 16일 정부에서는 건국포장(建國褒章)을 추서(追敘)하는 한편 묘비 건립금을 지급하여 묘역 정비사업을 끝내고 1988년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애국장(建國勳章愛國章)으로 추서되었다. 유고(遺稿)로는 각계에서 보낸 격려 서한문과 상소문을 기록한 『한훤록(寒暄錄)』과 옥중일기 『동고록(同苦錄)』이 있다.

○ 남규진(南奎振)

본관은 의령이고 자는 경천(敬天), 호는 창호(滄湖)이다. 『벽계연원록』에 의하면 예산 창호(滄湖)에 거주했다고 한다. 병오의병 당시 충남도지휘관 이기흥이 올린 포로 명단⁸¹⁾에는 당시 나이가 44세이고, 예산 今平面면에 거주했다. 일명 남계원(南啓元)이라고도 했다. 최익현의 명으로 곽한일과 함께 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에 들어와 민종식과 합류하여 돌격장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생몰 연대나 관련후손 내용은 알 수 없고, 독립유공자 포상도 되지 않고 있다.

○ 신현두(申鉉斗)

호는 사운(思雲)이었고, 병오홍주의병에 우익장으로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되었다는 것만 알려지고 생몰연대나 후손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독립유공자포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오홍주의병 당시 충남도지휘관 이기흥이 올린 포로 명단⁸²⁾에는 당시 나이가 21세이고, 홍주 화성면(현 청양 화성면)에 거주했다. 그리고 《벽계연원록》에는 字 敬七 平山人 官議官으로 기록되었다.

둘째로 대마도 9의사의 억류와 석방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⁸³⁾.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의병 가운데 국외로 끌려간 경우는 1906년 대마도에 억류된 의병이 유일하다. 이들을 대마도로 유배하는 정책적 결정은 통감부가 주관하였으며, 이를 일본 내각에서 결의하여 치밀하게 시행하였다. 9명은 8월 8일(음6.17) 대마도에 도착했고, 이어서 8월 28일(음7.9)에는 최익현과 임병찬이 도착했다. 피체 후 이들의 대마도 구금될 당시의 형량이 얼마

81) 김상기, 「홍주의병의 1906년 홍주성 전투」, 『홍성지역 독립운동 전개와 독립운동가』, 충청문화연구소, 2004. p35.

82) 김상기, 위의 글, p35.

83) 박민영, 「한말의병의 대마도 유배 전말과 의미」-문석환의 마도일기를 중심으로- 2004. 독립기념관 학술세미나 발표 요약문-

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마도 구금 후 최익현이 순국하여 운구된 직후인 1907년 1월 14일 임병찬과 안항식의 석방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들의 감량된 형량을 통보 받은 사실로 미루어 형기를 짐작할 따름이다.

즉 1907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유준근 남규진 이식 신현두 등 4인은 14년 29일간 복역하는 1921년 3월 26일까지 이고, 이상두는 6년 4개월 29일간 복역하는 1913년 7월 26일까지, 최상집은 2년 4개월 29일간 복역하는 1909년 7월 26일까지, 문석환은 1년 10개월 29일간 복역하는 1909년 1월 26일까지이며, 신보균은 1년 4개월 29일간 복역하는 1908년 7월 26일까지이며, 임병찬과 안항식은 즉시 석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폐된 의사들의 석방되는 시기는 신보균이 예정기한보다 10일 단축된 1908년 7월 16일, 문석환 남규진 신현두 최상집은 1908년 음력 9월 14일(양 10월), 유준근 이식 이상두는 가장 늦게 다음해 1909년에 석방되었다.

셋째로 대마도 9의사와 보령지역 유림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대마도에 억류된 9의사와 가장 연고를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국내 인물 중의 한사람이 보령의 삼희당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이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남포현(보령 웅천 대천리)에 낙향한 이 지역 화서학파의 종장인 윤석봉은 1898년 웅천 대천리에 집성당을 세우고 강학하면서 위정척사의 항일 활동을 전개한 학자였다.

윤석봉은 자신도 1906년 병오홍주의병진에 민종식의 초청으로 참여하였다가 홍주에서 체포되어 경성일본군 사령부로 끌려가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되어 끌려갔던 9명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특히 유준근 이식 신현두 문석환 남규진은 서울 경성사령부 감옥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고생을 함께하면서 옥중에서도 의를 강마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기로 하기도 하였다⁸⁴⁾. 유준근 이식 문석환은 집성당의 제향에도 참여하였으며, 문석환은 윤석봉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또 윤석봉 사망시에는 이식과 문석환은 제자의 의리로 각각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윤석봉은 최상집과도 교분을 가져 최상집이 1909년 회갑을 맞이하였을 때 회갑을 축하하는 다음과 같은 수연시(壽宴詩)⁸⁵⁾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84) 황희천 「삼희당 윤석봉 선생과 홍경일기」, 『보령문화』 11, 2002, p168.

85) 윤석봉, 「奉呈崔參奉壽宴韻」, 『三希堂文集』 권2. 미간행.

花開鐵樹六旬春 穀日良辰歲又新 鶴髮垂形仙坐席 兕觥稱慶客來鄰

철수(鐵樹⁸⁶) 꽃이 피는 옥순의 봄
 곡일(穀日⁸⁷) 좋은 날에 한 해가 또 바뀌었네.
 백발은 신선의 형체 자리에 드리우니
 이웃에서 온 객이 뿔잔으로 칭경(稱慶)하네.
 두루 살펴보니 한여름에 같은 감옥에 갇혔던 노인
 마도(馬島)에서 3년을 홀로 고생한 사람이네.
 국가를 위하고자 하는 일에 기력이 쇠하여 어렵구나.
 원컨대 이제부터는 천진(天真)하게 지내시구려.

최상집과 함께 홍주의병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경성일본군사령부로 압송되었다가 석방되어 돌아온 윤석봉은 대마도9의사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⁸⁸)를 쓰고, 이들의 충정을 기리는 시⁸⁹)를 짓기도 하였다. 이로 보면 윤석봉은 당시 대마도9의사 억류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였던 원로 학자였던 것이다. 또 이상구는 유준근의 재종형인 유호근과도 친분이 두터웠고⁹⁰), 안항식의 조카인 안병찬은 유호근이나 윤석봉과도 교분이 상당하였다.

⑥ 최상집((崔相集) 의사 유적

【안내기】

- 위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향교말
- 관리 ; 강릉 최 씨 보령문중

최상집(崔相集, 1849~1909) 의사는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출신으로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자(字)는 중일(重日, 仲一) 호(號)는 남호(南湖)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1906년 민종식(閔宗植)은 부여군 내산면 지터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산·서천·판교·웅천·남포·보령·광천·결성을 거쳐 홍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최상집

鑒旁一夏同囚老 馬島三年獨苦人 衰力難爲國家事 願言從此任天真

86) 철수는 식물(植物) 이름으로, 잎은 향포(香蒲)와 같고 자색(紫色)을 띤 나무인데, 소철(蘇鐵)이라고도 하고, 해송(海松)이라고도 하나 자세하지 않다. 다만 이 나무는 원래 열대 식물인데,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으므로, 선가(禪家)에서는 이것을 무심(無心), 무작(無作)의 묘용(妙用)에 비유하여 사려와 분별을 단절하는 수행의 법칙으로 삼는다고 한다

87) 음력 초하룻날부터 시작하여 여덟 번째 되는 날로, 이날 전답에 거름을 내면 풍년이 든다고 하여 봄 농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하였다.

88) 윤석봉, 「與馬島八義士」, 『三希堂文集』 권11. 미간행.

89) 윤석봉, 「憶馬島九義士」, 『三希堂文集』 권3. 미간행.

90) 유호근, 『四可集』, 권1, '呈李友洛瑞相龜壽席'

의사는 58세의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장(召募將)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왜병의 반격으로 홍주성이 무너지면서 의사는 포로가 되어 유준근·이식·안항식·신보균·신현두·이상구·문석환·남규진 등과 함께 대마도 유배형을 받고 끌려가 기약 없는 기간의 고생을 하면서도 저들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절의를 지켰으니, 최상집 의사를 비롯한 이들을 「홍주의병 대마도 9의사」라고 한다.

의사는 몇 번에 걸친 감형이 이루어져 3년만인 1908년 10월 석방되어 고국에 돌아왔으나, 의병운동의 후유증으로 병이 들어 이듬해인 1909년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02년도에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사의 업적을 발굴하고 2006년도에 이곳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부여군 외산면에 있던 의사의 묘소를 추모비 뒤편의 언덕에 옮겨 모셨다.

【최상집의사 항일운동 추모비】

최상집(崔相集) 의사는 본관이 강릉(江陵)이고, 자(字)는 중일(重日, 仲一) 호(號)는 남호(南湖)이다. 의사의 가문은 고려 삼중대광 필달(必達)공이 시조이며, 9대조 광필(光弼)공이 문과에 급제하고 승지(承旨) 등을 역임하다가 최초로 남포현 황동(보령 웅천 소황리)에 입향한 이래로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이 고을의 명문향족을 이루면서 대대로 올바른 행실을 지켜왔다.

의사는 1849년(기유년) 아버지 규석(奎錫)과 어머니 전주이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보령 웅천 소황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성이 바르고 엄하여 주변에서 많은 칭송이 있었으며, 외세 침략의 격변기에 살면서 장릉(章陵)참봉을 역임하였고, 유교의 춘추대의를 익혀 위정척사의 항일정신을 심화하면서, 항상 국력이 쇠약해져 감을 탄식하였다.

1905년 일제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니, 이 나라의 백성 된 사람으로서 진실로 국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한번 주먹을 치고, 소리라도 지르려는 행동이 없겠는가. 전 참판 민종식(閔宗植)은 1906년(병오년) 1월 예산 광사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이어서 다시 의병을 모집하여 그해 4월에 부여 내산 지터에서 의병을 일으켜 홍산, 서천, 판교, 웅천, 남포, 보령, 광천, 결성을 거쳐 홍주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니, 당시 우리나라 항일 의병 운동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최상집 의사 항일운동 추모비

이 두 번에 걸친 민중식 의병진에 의사는 58세의 노구를 이끌고 기꺼이 참여하여 의병을 모집하는 소모장(召募將)으로 활약하였다. 많은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진의 세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이었기에 세상에 명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왜병의 반격으로 홍주성이 무너지면서 의병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피신하였지만, 의사를 비롯한 140여명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홍주에서 3일간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그 가운데 의병활동의 중심에 섰던 78명은 다시 경성 일본군 사령부로 압송되어 2달간 투옥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혹독한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비롯한 유준근 이식 안항식 신보균 신현두 이상구 문석환 남규진 등 9명의 의사들은 대마도 유배형을 받고 그해 8월 대마도 이즈하라(嚴源) 경비대에 끌려가 낯선 이국땅에서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기간의 고생을 하면서도 저들의 협박과 회유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절의를 지켰으니 이들을 홍주의병 대마도 9의사라고 한다. 특히 의사는 1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과, 9명의 의사 중 58세의 최고령으로서,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이 더욱 컸겠지만 곳곳이 견뎌내었다.

얼마 후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도 대마도에 끌려와 함께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는 다른 동지들과 함께 74세의 최익현을 모시고 학문을 배우면서 우국충정의 시로서 교유하였으며, 최익현이 병이 나자 다른 동지들과 함께 제자의 예를 갖추어 극진히 간호하였고, 그가 죽은 후에는 상복을 입고 애도하였다. 그러다가 몇 번에 걸친 감형이 이루어져 3년만인 1908년 10월 석방되어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다.

그러나 의사는 고령으로 체포된 후 왜병의 혹독한 심문과 대마도 유배시 겪은 고통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 고국에 돌아온 이듬해인 1909년(기유년) 12월 6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일 의병 운동에 뛰어드는 의사의 충의와, 대마도에서 끝까지 지킨 의사의 절의는 열렬하고 뚜렷하여 마땅히 세상에서 사모하는 바가 되어 비록 백대가 지난 뒤까지도 그 이름이 잊히지 아니하고, 죽어도 오히려 산 것과 같이 했어야 함에도, 의사 사망 후 100여년 동안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알리지도 못했으니, 의사는 천하후세에 할 말이 있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후세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의사의 빛나는 애국충정의 행적을 찾아 이 언덕 여기에 새겨 해와 달이 영원히 비추게 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고 길이 추모하게 되었음은 가문의 영광이요, 이 고장의 자랑이요, 민족 정기가 살아있음을 보이는 것 이이라. 또한 당시 의사의 의병진이 함성을 울리며 지나갔던 이 언덕 이 길목에 비를 세워 지나는 이 모두가 의사의 충절을 추모하고 그날의 역사를 되새기게 되었음은 더욱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 비는 문중 유사 종진(鍾振) 종우(鍾禹)와 유림 오현규(吳顯圭) 등의 노력, 그리고 문중과 후손의 성력(誠力)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서기 2006년 3월 일
장수(長水) 황의천(黃義千) 지음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세움



최상집 의사 묘(향교말)



최상집 의사 추모비 제막식(2006.3)



유적 안내판



대마도 유배시 최상집 의사 등이 유폐되어 있던 장소였에 있던 대마도의 하치만구 신사, 의사는 시간이 나면 여기를 거닐었다.

5. 일제시기 임경순(任敬淳)의 부친묘와 대천리 주민과의 갈등



잔미산 중턱의 임기재의 묘

대천리 구시장터 동쪽 잔미산 중턱에는 주산 출신의 임경순(任敬淳)의 부친 임기재(任基宰)의 묘가 있다. 임경순은 본관이 풍천으로 부호였는데, 생전에 상리현 임세준과 함께 현재 주산산업고등학교의 전신인 주산농업고등학교 설립 당시 토지와 자금 등을 희사하여 주산에 학교가 설립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독지가이다⁹¹⁾.

임경순은 부친의 묘소를 만들기 위해 대천리 잔미산 자락을 당시 주인이었던 두룡리 김봉제(金鳳濟)에게서 매입하여 부친 묘소를 정하고 장례를 지내려는데 지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갈등을 빚었다. 아마도 풍수지리설적으로 명당으로 여겨서 주산에서 연고도 없는 이곳에 묘소를 이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천리 주민들은 마을의 명당에 타지의 사람이 들어와 묘소를 쓰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신문 기사가 잘 설명해 준다.

○ 1928. 7. 27 중외일보

산 上下에 결진 대기, 형세 험악한 미신전, 보령 웅천면 대천리 주민 등 당지 경찰은 방관 태도

지난 24일 오후경부터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에서는 동민 100여명이 돌연 진을 치고 구시장 노상에 집합하여 사람이 희생될지라도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결의를 하고 구시장 뒷산에 등산하여 이슬을 맞으며 잠도 안자고 ○○○산을 경계하고 있다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듣건대 자고로 조선 습관에 의하여 인가 뒷산에 장사나 면례를 하면 무슨 방위에 걸려서 살이 닿는 동리는 대단히 불길하여 사람이 죽고 동리가 망하여 진다는 그말에 놀래고 겁하여 생사를 결단하고 그와같이 주야로 계속 집합하여 산을 경계중이라 하며 그산은 본면 두룡리 김봉제의 소유이던 연고로 불하신청을 하여 사설 묘지로 허가를 얻어서 주산면 황률리 임경순이란 부호에게 다액의 금전을 받고 양도를 하여 그곳에 소위 명당이란 곳을 택하기에 이르러 구시장

91)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篤志家尙利鉉任敬淳任世準頌德碑가 현재 주산초등 정문 앞에 있다.

에서 약 30간되는 뒷산으로 결정되어 2-3일 이내로 임경순의 선산을 면제하려는 소문을 듣고 동민들은 죽기는 일반이니 산상에 머무르면서 어디까지든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원인으로 이같이 된바 임경순은 작년에도 그곳에다가 밤중에 투장까지 하였다가 사실이 발각되어 보령경찰서에 과료까지 물었고 산주의 한 사람은 시체까지 도난 당하였던 사람도 있던 터이라 금번에 또한 그 곳에 면제를 행하고자 함이라 하는바 일반은 매우 주목중이요, 경찰은 아직 관망하고 있고 임경순의 상사군들은 수십명이 ○재에 머무르고 있어....(웅천)

○ 1928. 7. 28 중외일보

웅천 迷信戰 경찰 간섭으로 해결, 매장허가 취소한 후에
보령군 웅천면 구시장 뒷산에 동군 주산면 황율리 임경순이가 자기의 선산을 연장하여 한다는 소문을 들은 대천리 주민 100여명이 지난 24일 밤부터 밤을 새어가며 산상에 집합하여 산을 지키고 있다함은 작보에 보도한 바이어니와 그 이튿날인 15일 오후 1시경에 유골을 메고 떠들며 오고 있는 상여에 일행 5-6명이 동리 주재소 앞에 도착하자 산상에 수직하던 100여명의 군중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상여를 밀어버려 크게 소동이 일어나서 잠시는 형세가 위험하여 지난번에 주재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진무를 시키며 면당국에 협의하여 할수없이 면허를 취소하여 무사히 해결되었다더라..

6. 남포대천장 주변의 비석

조선 세종 때 남포현의 치소가 수부리 수안에서 현재의 남포면 읍내리로 이동 후에 대천리 지역에 남포대천장이 만들어지면서 백성 생활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한 관계로 이 지역에는 읍치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민관이나 독지가의 송덕비가 많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읍치소가 있는 곳에 목민관의 송덕비가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조선후기부터 근래에



두룡리에 있는 비석군

이르기까지 이러한 비석이 읍치소가 아닌 대천리 지역에 많이 건립되었다는 것은 대천리에 사람들의 통행이 읍치소 이상으로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대천리 지역 여기저기에 분포하던 비석들이 훼손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어 1995년 웅천읍에서 대천리와 두룡리의 경계부근 21호 국도변에 옮겨 모아 놓았다.

○ 중추원의관 김우식(金雨植)비



○ 김재동(金在東) 불망비



○ 중추원의관 김우식(金雨植)비

〈전면〉

通訓大夫行中樞院議官金孝子雨植表彰碑

貧厨屢空 養具甘旨 가난에 부엌이 여러 번 비었어도 맛 좋은 것을 갖추어 봉양하고

親瘠思食 飴餅不匱 아버지 병환에 먹을 것을 생각하여 옛과 떡이 다하지 아니했고

禱天願代 上墓必漏 대신 아프길 원해 하늘에 빌고 묘에 오를 때는 꼭 눈물 흘렸다.

南賊猖獗 義奮寸丹 남쪽에 도적이 창궐할 때 마음에 의분하여

前後樹切 四境賴安 앞과 뒤에 공을 세우므로 사방 지경이 편안함을 힘입게 했다.

忠孝雙全 勒銘如磐 충효를 쌍으로 갖추었으니 돌에 새겨 반석같이 하리라.

〈후면〉

甲子三月日恩鴻山右支社 立(1924)

○ 김재동(金在東) 불망비

일제시기 전기에 의한 기계식 연마기 석공업 방식을 도입해서 웅천지역 석공업 발전의 전기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였던 김재동(金在東 1901~1964)의 업적을 기념하는 비이다. 김재동은 웅천 대천리에 살면서 1920년 봄 일본에 건너가 석공(石工)으로 일하면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1932년 귀국하여 석공 공정에 마석(磨石)분야의 기계화를 시도하였다.

〈전면〉

石齋先生金公在東不忘碑

山川依舊 彬彬鄉友 산천이 의구하듯이 빛나고 빛나는 향우여!

公之來熊 起死面復 공이 웅천에 오면서 기사(起死) 회복 되었도다.

開拓石物 文物繁茂 석물을 개척하여 문물이 성하게 번창했으며

後輩疊出 相呼其主 후배들이 첩첩이 나와 서로 그 주인으로 부르나니

公之傳術 仁與誠柔 공은 기술을 전했으며 어질고 성실하고 부드러우셨기에

鐫刻大恩 深感其厚 큰 은혜를 돌에 새겨 그 후하심을 깊이 느끼게 하노라

檀紀四二九九年丙午蔭十二月 日豎 石友一同(1966)

○ 학무위원 남길원(南佶元) 송덕비



○ 현감 남이완(南履完)비



○ 학무위원 남길원(南吉元) 송덕비

일제 시기에 보통학교의 발달과 운영을 위한 학무위원회와 학무위원제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전면>

前學務委員南公佺元頌德碑

丁得耕權 可勝己土 경작권을 얻음에 당하여 가히 좋은 땅이라.

力穡進益 勸農自臨 힘써 농사지어 더욱 약진하고 권농하며 스스로 임해서

州有二年 斗餘多惠 삼십 이 년을 두량으로도 남는 많은 은혜를 주었으니

許多地主 鮮觀其偉 허다한 지주 중에 자세히 보아도 그 누구를 짝하랴.

儉以爲德 勤以修業 검소함으로 덕을 삼고 부지런으로서 사업을 닦으니

同頌銘茲 知名以賞 이 곳에 새겨 함께 칭송하며 이름을 알고 보게 하노라.

<후면>

乙亥十二月 日立(1935)

○ 현감 남이완(南履完)비

남이완(南履完)은 현종10년(1844) ~ 현종13년(1847)까지 3년간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전면>

縣監南侯履完永世不忘碑

道光二十八年戊申十二月 日立(1848)

○ 현감 박이명(朴履命) 선정비



○ 관찰사 박제순(朴齊純) 불망비



○ 현감 박이명(朴履命) 선정비

박이명(朴履命)은 철종10년(1859)~철종13년(1862)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전면>

縣監朴侯履命愛民善政碑

我侯下車 百里陽春 우리 현감께서 수레에서 내리신 후 백리에 봄별이로다.
水溢惠澤 風振綱倫 혜택은 물처럼 넘치고 삼강 오륜이 바람처럼 떨치도다.
廉豈水瑕 政若有神 청렴이 어찌 옥에 티를 받을 것이며 정사는 신과 같았다.
萬古傳頌 片石不磷 만고에 칭송을 전하러 편석에 기록하니 아름답지 않은가.
崇禎紀元後四庚寅六月 日(1860)

○ 관찰사 박제순(朴齊純) 불망비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은 1905년 을사조약 때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으로 조약에 찬성하여 후일 을사5적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충청관찰사를 지냈다. 해방 후 주민들에 의해 훼손된 흔적이 보인다.

<전면>

觀察使朴公齊純戡難恤民不忘碑

○ 현감 송능규(宋能圭) 불망비



○ 관찰사 신억(申億) 불망비



○ 현감 송능圭(宋能圭) 불망비

송능圭(宋能圭)는 순조29년(1829) ~ 순조31년(1831)까지 약 1년 6개월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전면〉

縣監宋侯能圭永世不忘碑

五馬來暎 大寒春陽 오마(五馬)⁹²가 어두운 때 온 것 같고 대한(大寒)에 봄
별과 같도다.

武城聽誦 南康踏○ 무성(武城)⁹³에서 음악과 글 읽음을 들은 것 같고 남강
(南康)⁹⁴을 밟아 보는 것 같다.

惠益簫斛 名立紀綱 은혜는 약곡(簫斛)⁹⁵에 넘치고 이름은 기강(紀綱)⁹⁶에
세워졌도다.

杜召遺風 大川水長 두소(杜召)⁹⁷의 유풍이라. 대천(大川)⁹⁸의 물은 길게 흐
른다.

〈후면〉

庚寅十月(1830)

○ 관찰사 신억(申億) 불망비

〈전면〉

觀察使申公億永世不忘碑

同治六年丁卯九月 日 暨(1867)

92) 춘추시대 오패

93) 노나라에 속했던 작은 고을

94) 주자가 머무르며 권농문(勸農文)을 강(講)했던 고을 이름

95) 작은 것부터 큰 것 까지

96) 나라를 다스리는 것, 기율과 기강.

97) 두시(杜詩)와 소신신(召信臣)을 말함. 남양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

98) 웅천의 지명, 크게 흐르는 물.

○ 현감 이경간(李敬簡) 불망비



○ 현감 한문혁(韓文赫) 선정비



○ 현감 이경간(李敬簡) 불망비

이경간은(李敬簡)은 정조23년(1799)~순조 4년(1804)까지 약 4년 9개월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1806년에 건립된 것을 추정된다. 비석의 庚寅은 丙寅의 오기로 보인다.

〈전면〉

縣監李侯敬簡永世不忘碑

侯來六載 民借一年 현감 이후(李侯)께서 오신 후 6년은 백성에게는 1년과 같았다.

志操薤盂 政令蒲鞭 지조는 해우(薤盂)⁹⁹⁾와 같고 정령은 포편(蒲鞭)¹⁰⁰⁾과 같았다.

村斂有節 倉徭既革 조세 거둠에 법도가 있고 창고 지키는 부역은 이미 혁파하는 등

百廢俱興 萬世斯石 많은 폐단 없애고 갖추어 일으키니 이 돌에 만세까지 전하리라.

99) 해체가 담긴 그릇 즉 뜻이 매우나 세상에 유익함을 말함.

100) 부들채찍으로 가벼운 형벌을 뜻한다.

〈후면〉 庚寅十月(1806?)

【남포현감 이경간의 공적 -승정원일기 1802년(순조2) 6월 9일자 -】

本道沿路邑中藍浦縣監李敬簡段，詳明之治，濟以綜核，四載居官，始終如一，民隱則至誠字恤，邑弊則一心釐革。浦倉稅穀，露置守直，誠一痼弊，而捐其薄廩，不擾民役，亟期修葺，道伯巡邑，延逢軍馬，責立良軍，徵錢不少，而自備補給，永除其弊。田結疊徵，覈實蠲減，戶籍浮費，從願代捧，嚴於束吏，莫售其奸，闔境晏如，譽聞隣邑是如爲白乎旆

(역) 본도의 연해안 고을 중 남포 현감 이경간(李敬簡)은 속속들이 파헤쳐 자세히 하는 다스림으로써 밝은 치세 만드는 것을 4년 동안 현감의 관직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곧 지성으로 조정에 구휼을 청하였고, 읍의 폐단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혁파하여 바르게 하였다. 포구 창고의 세곡이 노상 방치되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진실로 하나의 고질적 폐단이어서 작은 봉급을 내어 백성들의 역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빨리 수습하였다. 감사가 고을을 순시할 적에 군마를 가지고 나가 맞이하는 것, 양인(良人) 군역을 세우는데 금전을 거두는 것을 조금도 하지 않고 스스로 대비하였다가 보급(補給)하여 그 폐단을 영원히 제거하였다. 토지세의 이중 징수는 자세히 살펴서 확실하게 감액하였으며, 호적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것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고, 아전들을 엄히 단속하여 그 간사함이 쓰이지 못하게 하니 온 고을이 편안했기에 인근 고을에까지 칭송이 있다.

○ 현감 한문혁(韓文爌) 선정비

한문혁(韓文爌)은 순조33년(1833) ~ 헌종원년(1835)까지 약 1년 11개월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전면〉

縣監韓侯文爌善政碑

三載莅民 一境安閑 삼년 백성 다스림 자리에 있어 한 지경 편안하고 한가로웠다.

賑期濟博 糶必精均 진휼할 때는 널리 구제했고 곡식 살필 때는 정밀하고 고르게 했다.

恩溢藍水 德厚玉山 은혜는 남수(藍水)에 넘쳐 나고 덕은 옥산 보다 후했다.
水蘖之殷 斯石不磷 물이 물들여 지듯 이 돌에 새기니 아름답지 않은가.

<후면>

道光二十四年甲辰九月 日(1844)

○ 군수 한영석(韓永錫)비



○ 관찰사 송정명(宋正明) 유애비



○ 군수 한영석(韓永錫)비

<전면>

行郡守韓侯永錫爲正範民碑

漏網餘孽 釀禍滋蔓 누망(漏網)¹⁰¹한 자들의 싹들이 남아 재화(災禍)를 빚어
내는 것이 덩굴처럼 불어나는 것을

兩郡胥警 一心以斷 양군이 서로 경계하여 일심으로 끊어버리고

繼設鄉約 導化愚民 이어서 향약을 설치하여 우민을 지도하여 교화했음으로

萬口成碑 畏威衛恩 여러 사람이 비석을 만들어야 한다 했다. 외경스런 위품
에 은혜를 느끼노라.

光武七年九月 日(1903)

101) 놓친 죄인, 잡히게 된 죄인이 도망감.

○ 관찰사 송정명(宋正明) 유애비

이 비는 두룡리 비석군이 있지 않고 대천리 정자나무 밑의 민가 담벽에 있다. 송정명은 본관이 여산으로 1712년 무렵 충청관찰사를 역임했다. 이 비석은 1716년에 건립되었다.

<전면>

觀察使宋公正明至誠恤民萬世遺愛碑

丙申三月 日

○ 현감 정상박(鄭尙樸) 청덕비



○ 면장 황시현(黃始顯) 송덕비



○ 현감 정상박(鄭尙樸) 청덕비

정상박은 1685년부터 1687년까지 남포현감을 역임했다. 이 비는 비신과 이수가 일체형으로 되었으며, 대천리 지역 비석 중 가장 이른 시기 것으로 추정된다. 두룡리 비석군에 있지 않고 대천리 정자나무 아래 담장 옆에 있다.

<전면>

縣監鄭尙樸善政愛民清德碑

廣漢神明 延壽恩施 크신 신명¹⁰²⁾으로 연수¹⁰³⁾의 은혜를 베풀고

102) 神明:사람의 마음

103) 延壽:새해를 맞음

精白寡慾 前後窄此 깨끗하고 욕심이 적었으므로 전후를 여기에 착운¹⁰⁴)으로 기록한다.

○ 면장 황시현(黃始顯) 송덕비

황시현은 1923-1931까지 웅천면장을 역임하며 시장과 면사무소 이전에 공헌했다.

〈전면〉

面長黃公始顯永世頌德碑

五載一日 力殫百爲 5년을 하루같이 힘을 다해 백가지 일을 해냈으니
校完道竣 乃奐乃夷 학교 완성하고 길 준공함으로 이미 크게 기뻐하는 바라.
以捐以勸 郵新廛移 수고로움을 덜어서 우소를 새로 하고 전조를 옮김으로
利澤咸頌 伊公匪私 이로운 혜택을 다 같이 칭송하네. 저 공이 한 일은
사사로운 바가 아니어라.

〈후면〉

昭和三年戊辰十二月日 建(1928)

○ 김성준(金聖駿) 기념비



○ 전참봉 이종래(李鍾來) 송덕비



104) 窄韻:詩韻의 글자가 적은 것

○ 김성준(金聖駿) 기념비

〈전면〉 學士金公聖駿令德記念碑

通川世家 淸庵肖子 통천의 세가이고 청암(김윤환)의 아들이로다.
 其心其門 如水如市 그 마음과 그 문중이 물처럼 맑고 저자같이 번성하도다.
 施恤貧粟 爲春農作 곡식 없으면 구휼하여 베풀고 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捐資學金 得英育樂 자금 내어 학문 금전으로 하고 영재를 육성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富而且仁 古所罕聞 부유해도 또 인을 행하였으니 옛날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라
 斯人斯行 可俟子雲 이 사람의 행동은 옛날의 자운(子雲)¹⁰⁵⁾을 기다린 것이다.
 昭和十六年 五月 日(1941)
 熊川 珠山 帽山 小作人 一同

○ 전참봉 이종래(李鍾來) 송덕비

〈전면〉 前參奉李公鍾來頌德碑

天性溫良 志操端潔 천성이 온후하고 어질었으며 지조가 바르고 깨끗했네
 行仁修德 必信好義 인을 행하고 덕을 닦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하고 의를 좋아했네
 寬厚爲主 喜怒不形 너그럽고 후덕함을 주로하고 기쁨과 노함은 나타내지 않았네
 惠反小作 頌聲成碑 은혜가 도리어 소작인에게 미쳤으니 칭송소리로 이 비를 이루었다.
 乙亥 三月 日(1935)

105) 한나라 때의 학자 양웅(楊雄, 기원전 53~18)

○ 전면장 백남봉(白南鵬) 기념비



○ 전면장 백낙춘(白樂春)송덕비



○ 전면장 백남봉(白南鵬) 기념비

백남봉은 1953-1956까지 웅천면장을 역임했다.

〈전면〉 前面長白公南鵬紀念碑

檀紀四二八九年 二月 日

面民一同 立(1956)

○ 전면장 백낙춘(白樂春)송덕비

백낙춘은 1919-1923년까지 웅천면장을 역임했다.

〈전면〉 前面長白公樂春頌德碑

四載莅職 治參新舊 4년을 관직에 있으며 옛 것과 새 것을 조화하여 다스려서
一副成規 民無怨咨 하나의 규칙을 이루어 백성들은 원망과 탄식이 없었다.
入校省役 徵稅寬期 학교 보내고 부역 보살핌 세금 거둠 기한을 관대히 하여
衆口咸頌 紀蹟尺碑 모든 사람들이 함께 칭송하니 한 자 비에 업적을 기린다.

〈후면〉 : 熊川面民一同

癸亥十二月九日立(1923)

○ 전참봉 김윤환(金閔煥)자혜비



○ 전참봉 김윤환(金閔煥)송덕비



○ 전참봉 김윤환(金閔煥)자혜비

〈전면〉 前參奉金公閔煥慈惠碑

偉哉清庵 廣連阡陌 위대하도다 청암(김윤환의 호)이여 밭두둑이 넓고 연이어서
和錐無者 行得佃作 내 땅없는 사람이 소작을 얻어 경작하게 되었다
仁義附焉 亦行其德 여기에 인의를 붙이니 또한 그 덕을 행한 것이다.
如有不信 徵諸斯刻 믿지 않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징험하여 여기에 새긴다.

〈후면〉 壬午正月 日(1932)

○ 전참봉 김윤환(金閔煥)송덕비

〈전면〉 前參判金公閔煥頌德碑

性本仁厚 德施寬廣 성품 본래 어질고 두터워 덕을 베풀어 관대하고 넓었으며
賑荒周窮 勸農重賞 가뭄에 진휼 주선함을 다하며 농업을 권장하여 포상하고
興學設校 慕聖建宮 학교 세워 학문을 흥하게 하고 향교 세워 성현을 흠모했네
忠良爲寶 薄俗可敦 어진신하를 보물로 여기고 박한 풍속은 돈독히 하고
人未病涉 橋梁人通 사람이 건너지 못하면 다리 놓아 통하게 하였으니
萬口咸頌 永世有存 모든 사람이 함께 칭송함이 세상에 영원히 있으리라.

辛未十二月 立 (1931)

○ 전면장 김덕원(金德元) 기념비

〈전면〉 前面長金公德元紀念碑

公은 慶州人이니 西紀 1905年 9月 本面 蘆川里에서 낳아 크다. 일찍이 普通學校를 卒業한후 面書記 郡雇員 面長 大韓食量公社支社長 漁業組合理事 水利組合理事 保寧教育委員會 忠淸南道教育委員會 副議長 等を 歷任 熊川中學校의 創設에 특히 盡心竭力하고 本面 面長 重任 오직 爲民獻身하였으며 大昌平野耕地整理를 筆頭로 市場下水道 熊川大橋延長 面増産會館 改築 支署改築 面廳舍改築 工事等 推進이 德을 崇尚하여 이 碑를 세우는 바이다.

西紀 1967年 1月 日



VII. 삼희당 윤석봉 선생과 홍경일기

1. 홍경일기(洪京日記) 발굴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는 1899년에 건립된 집성당(集成堂)이라는 사우(祠宇)가 있다. 집성당은 주자와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지역의 유림들이 춘추로 제사를 지냈던 사우로 삼희당(三希堂) 윤석봉(尹錫鳳) 선생이 조선 말기에 창건하였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집성당을 창건한 윤석봉이라는 인물이 중암 김평묵이나 성재 유중교의 제자라고만 알려져 왔을 뿐이지 불과 100여 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 보령 지역에서 이 분에 관해서, 또는 이 분의 후손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의 행적이나 활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집성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필자는 1996년 동료 윤재창 교사에게서 자기 집에 옛 고문서가 많이 전해 온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를 해 보니 조선말기 윤석봉과 함께 보령지역에 함께 낙향한 집안이었고, 여기서 윤석봉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집성당에 참여한 여러 인물들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윤석봉일가가 낙향하여 낙향 세력을 중심으로 만든 『과평윤씨파보』¹⁰⁶⁾를 발굴 할 수 있었는데 이 족보는 당시 윤석봉과 낙향 윤씨 세력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다.

이러한 여러 자료를 통하여 집성당과 윤석봉은 보령지역 화서학파의 중심체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좀더 확실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윤재창가의 일족이나 지역의 나이 드신 유림들에게 알아보아도 윤석봉의 후손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윤석봉 선생의 후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으로 윤재창가에서 발굴된 집성당 참여자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그 후손을 찾아서 자료를 찾아 나갔다. 그러던 중 보령시 웅천읍 평리 출신 한학자로 윤석봉의 제자로서 활동한 이응복(李應復, 1880-1956)의 손자 이주훈(李胄勳)가에서 이응복과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尹柱河)가 1920년대 주고받은 서신의 봉투를 발견하였는데, 여기에서

106) 이 『과평윤씨파보』는 필사된 것으로 약 50여 쪽에 불과하며, 제본도 부실한 것으로 보아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봉의 후손이 웅천 대천리 화락산 아래에서 살다가 경기도 양주로 다시 되돌아갔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곳에 적힌 경기도 양주의 주소지 면사무소에 가서 일제강점기의 호적과 제적부를 열람하여 현재에는 高孫과 5代孫의 후손이 있음을 찾아냈다. 여러 번의 탐문과 조회를 거쳐 2002년 5월 경기도 양주에 사는 윤석봉의 후손 댁을 방문하여 윤석봉 선생의 문집 등 여러 자료를 찾아 윤석봉 선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최초로 알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윤석봉 선생이 1906년 민중식의 병오홍주의병에 참여하였던 기록인 홍경일기를 발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 지역에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윤석봉의 생애와 가계에 대하여 윤재창가의 문서와 윤석봉 후손가에서 발굴된 윤석봉의 행장 등을 기초로 하여 알아보고,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홍경일기의 번역문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향토사 연구와 1906년 병오홍주의병 연구의 자료로 삼고자한다.

이 홍경일기는 윤석봉 선생이 화락산 아래에 살면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고, 옥고를 치르고 다시 본가가 있는 대천리 화락산 아래에 돌아와서 그 동안의 사실을 정리한 일기이다. 웅천 대천리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인 것이다.

2. 조선말기 경기도 유생의 대천리 입향과 유생 네트워크 형성

남포 대천장이 있는 대천리의 화정촌(花汀村)은 육로와 수로의 접점이어서 물산이 모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장취락으로 발달한 곳이다. 그리하여 남포 대천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곳은 은거지(隱居地)가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양반 유생들의 입향 세거지가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취락이 형성되었지만 동족촌을 이루지 않는다. 오늘날도 다양한 성씨가 분포하여 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 윤건오(尹建五 1835~1918)의 대천리 입향

그러나 조선말기인 1890년 경기도 양주에서 세거해 왔던 파평 윤씨가 화락산 아래 화정촌에 입향해왔다. 이들 파평윤씨가들은 조선시대 수도권 유력 사족들이었는데, 개항이후 외세의 침입에 따른 시국의 어수선했음 속에서 대천리 입향전인 1888년(庚寅年)에 세거지인 경기도 양주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충청도 비인면 울리 석천(石川)¹⁰⁷⁾마을로 낙향하였다.

그들의 낙향은 부해지의(浮海之義)를 실천한 것이었다. 부해지의는 논어 공야장(公冶長)의 道不行 乘桴浮于海(공자가 천하가 어지러움을 탄식하여,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라)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것은 어지러운 세상을 버리고 차라리 바다에 뗏목을 띄우고 멀리 떠나고 싶다는 내용인 것이다.

대표자가 윤건오(尹建五)였는데 이때 윤건오와 함께 낙향한 인물이 그의 再從姪인 三希堂 尹錫鳳이었다. 중암 김평묵과 성재 유중교의 제자인 윤석봉은 윤건오의 재종질이며 자신보다 7세 연하의 인물이지만, 일찍이 함께 학문을 하여 학문과 뜻이 서로 통하여 형제처럼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그리하여 같이 낙향을 하여서도 서로 이웃에 살면서 한가족처럼 지내면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그들의 친분은 화정(華汀)이라는 호를 같이 쓸 정도였다.

윤건오가 비인에 정착한 것은 그의 사돈집안인 신섭이 신사위정척사운동당시 귀양에서 풀려나 먼저 비인에 정착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윤건오와 함께 낙향한 사람들은 윤석봉家 뿐만 아니라 윤건오의 외척 이규창(李圭昌)家, 민영완(閔泳完)家 등이 있는데 이규창가¹⁰⁸⁾는 비인 봉하(峰下)에 민영완가는 비인에 정착하였다.

그 후 1890년 윤석봉이 보령 웅천 대천리에 먼저 이주하여 지역 유림들을 이끌고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影堂)인 집성당을 세우고, 지역에 유교적 예속(禮俗)과 문풍(文風)을 진작시키자 곧 윤건오도 비인에서 웅천 대천리에 이주하여 집성당 근처에 살면서 再從姪 윤석봉, 再從兄 윤광오¹⁰⁹⁾와 함께 집성당에서 강회(講會)하면서 노년을 보냈다.

윤건오는 항상 면암 최익현¹¹⁰⁾을 만나보기를 원했었는데, 1900년 청양의 정

107) 현재의 비인 월명산 동사면의 마을이다.

108) 李奎昌은 윤건오와 함께 낙향하였다가 현재의 서천군 서면 주항리(봉하)에 살게되었는데, 세종대왕의 次子인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그의 증조부 李亨錄이 尹建五의 조부 尹義植의 장인이 된다. 이러한 사돈간의 인연으로 함께 낙향하여 비인 봉하에 정착하고 파평윤씨가와 함께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규창의 차자 李輔善이 보령 항일운동가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되었던 友鹿 柳瀋根의 사위가 되고, 이규창의 손자 李承敦이 웅천 구룡리 幼學 黃穩의 손녀사위가 되면서 지역 유림들과 혼맥을 형성하였다. 『集成堂祭官錄』에 의하면 李奎昌 - 李永善 李輔善 - 李承敦 - 李甲秀의 4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규창가도 집성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인 봉하에는 이규창의 증손인 이갑수 이관수 이윤수씨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

109) 尹光五는 尹建五의 三從兄으로, 함께 낙향하여 웅천 대천리에 살고있었다. 그의 아들인 尹錫健이 집성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尹錫健의 딸이 웅천 구룡리 幼學 黃穩의 손자며느리가 되면서 지역 선비와 혼맥을 형성하였다.

110) 최익현(崔益鉉, 號: 勉菴, 1833~1906) 본관이 경주이며, 화서 이항로의 문인으로 1873년 대원군 탄핵상소로 제주도 유배형을 받았고, 1876년에는 강화도조약에 반발하여 개항 반대 도끼상소를 하였으나 흑산도로 유배형을 받았고, 1895년 단발령이 내리자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산에 낙향한 최익현이 호서의 여러곳을 돌아다니다가 1905년 대천리의 윤건오의 집을 방문하였다. 윤건오는 마당에까지 내려가서 최익현을 맞이하여 자기보다 2세 연상인 최익현과 밤새도록 의리를 강론하고, 현 시국에 대하여 통분을 함께하였다. 1866년에도 대구서씨 집안에 출가한, 유인석의 제천의병 6의사중 한사람인 서상렬의 모친인 누이(妹)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¹¹¹⁾를 만나 의리를 강론한 적이 있었다.

일생동안 닭이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좌(定座)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경사(經史)를 낭송하고, 추위도 온기(溫氣)를 취하지 않는 깨끗한 선비의 자세로 일관했던 윤건오는 1918년 84세의 나이로 대천리의 정침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임종직전까지도 중암 김평묵이 지은 『華東合編』과 華西 重菴 省齋의 大義를 찾았으며, 임종시에는 자손들에게 “今此裕昆訣 矢心判獸夷(지금 내 자손에게 영결하노니, 마음이 짐승들과는 다름)이라는 戒子詩를 남길 정도로 철저한 성리학적 의리론자였다. 이 戒子詩는 이후 이 지역 선비들의 인구에 회자(膾炙) 되었고, 『조선환여승람』에도 기록되었다.

그의 묘소는 부여군 내산면 괴목리에 次子 尹錫禧가 撰한 묘비와 함께 있다.

1896년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그는 자손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자르면 華夷와 人獸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단발을 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며,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그 치욕을 잊을 길이 없다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다가 머리를 깎고 죄인을 자처하려다가 자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윤건오는 1905년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순절한 조병세(趙秉世)와 민영환(閔泳煥), 그리고 대마도에서 순절한 최익현의 만사(輓詞)를 지어 그들의 우국충정의 뜻을 추모하였으며, 사망 직전인 1918년에는 최익현(崔益鉉) 유인석(柳麟錫) 민영환(閔泳煥) 이재운(李載允) 안중근(安重根) 이준(李儁)을 6군자로 칭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만사를 지어 우국충정을 추모하였다.

1896년 그의 庶弟 尹命五가 군수로 임명되어 관직에 나갈 때 어지러운 시국

없다'고 강경하게 저항하다가 투옥되었으며, 1906년에는 을사조약에 저항하여 전라도 순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왜군에 체포되어 대마도로 유배되어 순절하였다. 그는 말년에 청양 정산에 낙향하여 살면서 호서지역에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고, 그의 위패를 모신 慕德祀가 청양군 목면에 있다.

그의 아들 崔英祖 손자 崔元植 증손자 崔炳夏는 청양에 살면서 집성당에 출입을 하기도 하고 지역 유생들과 교유하였다. 최병하의 아들이 전 흥성 지역국회의원이고 전 독립기념관장을 지내고 현 성균관장인 崔昌圭이다.

111) 柳重敎(號: 省齋, 1821~1893) 본관은 고흥이며, 화서 이항로와 중암 김평묵에게 수학하고, 화서의 지도로 <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찬하였고, 1881년 김평묵이 간신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절도에 안치되매 서울에 올라가 글을 올려 같이 처벌받기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을 한탄하며 여러 가지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한일합방 후에는 庶弟 尹昌五가 웅천면장 후보로 나서려 하자 庶弟를 불러놓고 자신의 종아리를 치면서 극구 만류했다 한다.

또 그의 주변에서 위정척사의 항일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경기유생 栗農 申櫟, 유인석의 제천 의병진 6의사로 유명한 敬菴 徐相烈이 있다.

중암 김평묵의 제자인 신섭은 1882년 위정척사의 상소를 올렸다가 전라도 金甲島로 귀양간 인물인데, 신섭의 아들 申台熙가 윤건오의 사위가 되면서 신섭家와는 사돈으로서 사이가 아주 절친하였다.

유인석의 제천의병 6의사중의 한 사람인 경암 서상렬은 윤건오의 생질(甥姪)인데 제천의병당시 강원도 낭천(현재의 화천)에서 전사한 의병장이었다.¹¹²⁾

또한 윤건오의 손자인 尹用源은 1919년 주산 3.1만세운동에 가담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만세운동 이듬해에 3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¹¹³⁾

그리고 윤건오의 庶弟 尹命五¹¹⁴⁾는 1910년 한일합방 후 고종의 밀명(密命)에 의해 최익현의 제자인 전라도 유생 임병찬(林炳贊)이 조직한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의 藍浦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윤건오의 사후 친척들과 지역의 유생들은 제문(祭文)과 만사(輓詞)를 지어 성리학적 의리론에 따라 위정척사의 선비로 일관했던 그의 일생을 추모하였다.

제문을 지은이로는 사위이자 신섭의 아들인 신태희(申台熙)¹¹⁵⁾,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尹柱河)¹¹⁶⁾, 최익현의 제자이며 長子 윤석기(尹錫祺)의 知己인 이교

112) 서상열(徐相烈) 1854 ~ 1896 號 : 敬庵)

충청북도 단양(丹陽) 출신의 의병장, 강원도 낭천 전투에서 전사,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

113) 尹用源은 윤건오의 次子인 尹錫禧의 장남으로, 그의 부인은 전주이씨로 임영대군의 후손인 주산면 증산리의 幼學 주계(珠溪) 이사옥(李思戩)의 딸이었다. 이사옥의 손자가 주산 3.1만세운동을 주동한 이철원(李哲源)이므로 윤용원은 이철원의 고모부이다. 주산 3.1만세운동 참여자 18의사의 대부분이 주산 증산리의 전주이씨가들을 비롯한 이사옥과 친인척 관계를 맺고있는 사람들이다.

3.1만세 사건으로 체포된 윤용원은 일경의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지만 현재 수형 사실을 입증할 공식적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4) 尹命五(1856-1938) 윤건오의 庶弟로 형인 윤건오와 함께 낙향함. 호는 老圃이고, 을미사변 후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利原 積城 丹陽군수를 역임하였고(各司謄錄에도 나옴), 독립의군부 남포지역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15) 윤건오의 사위이면서 신섭의 아들이며, 비인에 거주하면서 지역유림으로서 집성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16) 尹錫鳳의 손자이며 부친은 尹秉源이다. 조부 윤석봉의 사후 원래의 고향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으로 돌아갔으나 자주 보령지역 선비들과 교유하였으며, 윤건오의 손자 윤영원과 함께 낙향한 파평윤씨

헌(李敎憲)¹¹⁷이 있고, 만사를 지은이로는 이병규(李秉奎)¹¹⁸ 윤방현(尹邦鉉) 민영운(閔泳雲)¹¹⁹ 백관형(白觀亨)¹²⁰ 이교헌(李敎憲) 이사옥(李思彧)¹²¹ 임형재(任亨宰)¹²² 김상달(金商達)¹²³ 백낙철(白樂喆)¹²⁴ 김금제(金兢濟)¹²⁵ 김희수(金熹洙)¹²⁶ 이승규(李昇圭)¹²⁷ 지헌하(池憲夏)¹²⁸ 김상기(金商綺)¹²⁹ 김지정(金智貞)¹³⁰ 이찬구(李燦九) 신탁현(申鐸鉉) 등이 있다.

가의 족보를 편찬하였고, 조부 윤석봉의 유고를 모아 문집을 정리하였다.

117) 李敎憲은 본관이 全義이며 호는 艮靑 또는 寬溫齋로 현재의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당시에는 홍산 소속임) 만수산 아래에 살던 유학자였다. 최익현과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고, 병오홍주의병에 스승 윤석봉을 모시고 참여하였다가 의병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학자이다. 그의 제자들이 부여 서천지역에 많았다. 집성당의 창건유사로서 집성당 창설에 기여하였고, 이후 그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집성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거주지가 비록 외산이었지만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집성당과 이 지역 화서학과 인물들이었다. 尹建五의 아들 尹錫祺 그리고 白觀亨과는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문집으로 그의 제자 吳在燮 등에 의해 1979년에 간행된 『寬溫齋集』이 있다. 묘소는 미산 양각산에 있다.

118) 이병규는 본관이 전주이고, 흥선대원군의 심복으로 수군절도사 금위대장을 역임한 장신(將臣) 이장렴(李長濂)의 아들이다. 어느 시기에 낙향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윤건오와 비슷한 시기에 낙향한 것으로 보이며, 낙향하여 웅천 수부리에 살면서 윤건오 윤석봉 이관영 임상호 등과 五老會를 만들어 교유하였다. 그의 아들 이상휘(李祥輝)도 지역유림으로 활동하였다.

119) 비인으로 낙향한 척족 민영완가의 한사람이다.

120) 白觀亨은 본관이 藍浦이고 호는 玉齋이다. 남포면 양기리에서 태어나서 의암 유인석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만동묘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전국의 많은 인물들과 교유하였다. 1915년 萬東廟祭에서는 항일연설을 하였다가 충북 괴산 경찰서에 체포되어 단식투쟁을 하였고, 보령경찰서로 이관되어 곤욕을 치렀다. 홍주의병과, 파리장서, 12인 등의 장서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보령 五烈士의 한 사람이다. 보령지역의 대표적 화서학파의 한 사람으로 지역유림계를 이끌어 나갔으며, 윤건오의 아들 윤석기 그리고 이교헌과는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이며, 삼희당 윤석봉의 사망시 호상 맡았고, 삼희당의 상복을 입을 정도로 낙향세력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집성당 창건유사로 활동하면서 집성당 창건에 공헌하였고 이후 집성당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의 묘소는 웅천읍 구룡리 예전산에 있으며, 국가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았다.

121) 주산면 중산리의 幼學으로 본관은 전주이며, 임영대군의 후손이다. 호는 주계(珠溪)이다. 그의 손자 李哲源은 주산 3.1운동의 중심인물이며, 사위 尹用源은 尹建五의 손자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遺稿로 손자 이철원이 간행한 『珠溪詩集』이 있다.

122) 웅천 성동리 幼學으로 본관은 豐川이다.

123) 웅천 수부리 洙岸 幼學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124) 웅천 구룡리 幼學으로 학자 惠山 白奎洙의 아들이며, 進士 白泳洙의 조카이다. 낙향한 파평윤씨가 및 김상덕 김복한 등과 교류가 깊었다.

125) 웅천 노천리 思川 幼學으로 본관은 경주이다.

126) 서천 幼學으로 敦良齋 趙鎭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나, 尹錫鳳 문하에서 수학한 후에는 낙향한 파평윤씨가들의 화서학파들과 친하게 지내며, 집성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27) 주산 중산리 유학 李思彧의 長子이며 임영대군의 후손이다.

128) 홍산 土洞 幼學으로 본관은 충주이고 최익현 문인이다.

129) 남포면 양기리에서 출생한 학자로 최익현과 윤석봉 문하에 수학하였으며, 본관은 경주이며 호는 皓一이다. 孝子로서 유명하며, 이 지역의 대표적 화서학파의 한 사람으로 낙향한 파평윤씨가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집성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30) 웅천 수부리 幼學으로 본관은 순천이다. 백관형의 제자로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렀다. 국가 독립유공자에 올라있다.

윤건오에 대한 기록은 『조선환여승람』¹³¹⁾보령인물의 유행조(儒行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號華汀坡平人贊成重三後進士義植孫性素篤厚苦心力歷學孝友爲政謙卑自牧惟人恐知及臨終戒子孫詩末句曰今此裕昆訣矢心判獸夷此可見素履之篤

그리고 1971년판 『보령군지』 인물조에도

尹建五 坡平人 號는 華汀 天性이 篤厚하고 苦心力行하며 自身을 謙卑하며 臨終하며 子孫에게 戒詩를 주었으니 '今此裕昆訣(자손들아 이제는 영결하노니) 矢心判獸夷(금수와 오랑캐를 구분하라)'

그러나 1990년 보령군지에는 윤건오에 대한 기록이 없다.

2) 윤석기(尹錫祺 (1860~1927))의 활동

尹錫祺는 철종11년(1860) 庚申年 4월 8일 세거지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아버지 윤건오와 어머니 풍양조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繼母)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자는 수경(壽卿)이고 호는 지산(芝山)인데, 성장한 마을의 반지산(盤芝山)에서 붙인 이름이다.

부친인 윤건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나아가 중암 김평묵과 성재 유종교 문하에서 수학한 삼종형 윤석봉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리하여 대대로 내려오는 기호학맥과 화서학파의 학문인 집안의 정훈(庭訓)을 계승하였다.

1890년 수도권 주변에서 외세의 침입이 심해지자 부친인 윤건오는 古人의 浮海之意를 생각하며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으로 낙향하였는데, 31세의 윤석기도 부친을 따라 낙향하였다.

얼마 후 윤석봉이 먼저 비인에서 보령 남포현 한천(寒川) 즉 현재의 웅천읍

131) 충남 공주(公州)의 유학자인 이병연(李秉延:1894~1977)이 1910년부터 100여 명을 동원, 12년 동안 전국 13도 229개군 가운데 129개군을 직접 조사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적인 지리서이다. 편찬을 마친 후 간행기간만 16년이 걸린 이 지리서는 129개군 중 26개 군의 내용만 책으로 제본되어 보급되었을 뿐, 나머지 103개 군의 것은 일제의 감시와 재정난으로 미결책(未結冊)으로 보관되어왔다. 내용은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1530)과 《대동지지》(1864)를 바탕으로 국토의 변화된 모습을 새롭게 기술하였다.

대천리에 이거(移居)하여 지역의 유림들과 함께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집성당을 세우니 인근의 여러 선비들이 다투어 찾아오고, 예속(禮俗)과 문풍(文風)이 크게 진작되었고, 이 지역 유림들의 항일운동 중심지로 역할 하였다. 윤석기도 부친 윤건오와 함께 집성당 근처로 이거하여 스승인 윤석봉과 함께 집성당에서 강의(講義)하면서 예속과 문풍을 진작시키는 것을 필생지계(畢生之計)로 삼았다.

1905년 을사지변(乙巳之變)에 통분(痛憤)을 이기지 못하고 밤낮으로 걱정하다가 다음해 인1906년 병오년에 전참판(前參判) 민종식(閔宗植)이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으로 진격하는 도중에 웅천 대천리를 지나게 되었을 때, 윤석기는 동문이자 절친한 친우인 백관형(白觀亨), 이교헌(李敎憲) 등과 함께 민종식의 병진에 참여하여 남포성 전투에 참여하고 남포성에 들어가 민종식에게 여러 방책(方策)을 진술하고, 나중에 홍주성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때 스승 윤석봉은 65세의 노구(老軀)를 이끌고 홍주성에 먼저 들어갔다. 윤석기도 곧이어 홍주성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홍주성은 왜군에게 무너진 뒤였다. 스승의 소식을 수소문해보니 왜경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어 간사실을 알게되어 뜨거운 초여름 날씨에 걸어서 서울로 스승을 찾으러 갔으나 실패하였다.

윤석봉은 이때 45일간의 옥중 후유증과 1910년의 한일합방에 대한 통분 등이 겹쳐 결국 1910년 사망하고 만다. 윤석기는 동문들과 함께 스승의 장례를 주관하고 제문과 만사를 지어 스승에 대한 예의를 올렸다. 그리고 제자로서 5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부친 윤건오도 일생을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윤석봉이 사망하자 충격으로 병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풍증으로 수족이 상당히 불편하여졌고, 이에 윤석기는 매일 부친의 의관을 챙겼다 그러나 윤건오도 얼마 후 사망하였다.

부친사망 후 1919년에 윤석기는 살고 있는 대천리에 공립화정보통학교(현 웅천초등학교)가 들어서고, 웅천 시장¹³²⁾이 활성화되면서 일제 물자가 들어오고 신문물 및 일본인들이 드나들게 되자 이것들을 피하여 자정지계(自靖之計)를 위하여 가족들을 거느리고 미산면 늑전리로 이거하였다.¹³³⁾

스승 삼희당 윤석봉과 부친 윤건오의 계속된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어 그 자

132) 웅천 시장은 조선 시대부터 일제 시대 초기까지 계속 웅천 대천리에 '대천시(大川市)'라는 이름으로 열리다가 1920년대 후반 현재의 대창리로 옮겼다. 그리하여 대천리를 현재도 '구장터'라고 부른다.

133) 그 후 그의 후손들은 다시 미산면 평라리로 이주하였고, 현재 평라리가 보령담 수물지구가 되면서 대천시내로 이주하였다.

신이 평생 존모지지(存慕之地)로 여겼던 집성당의 활동이 약화되어가고, 설상가상으로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尹柱河)마저 수구지심(首邱之心)에 경기도 양주로 다시 이거 하여 스승 윤석봉의 묘소¹³⁴⁾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기는 파평윤씨 일가 및 낙향 친인척들 그리고 지역 모든 유생들의 좌장(座長)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백관형 이교헌 등 지역 유생들과 집성당 보호계(集成堂保護稷), 동사계(同社稷), 존화계(尊華稷), 사일계(事一稷) 등을 조직하여 집성당과 윤석봉의 향사위토(享祀位土)를 마련함과 동시에 집성당을 중심으로 한 예속과 문풍 진작활동에 나섰다. 그리고 고조(高祖) 견암(狷菴) 윤념(尹滄) 위한 견암공위토창설계(狷菴公位土創設稷), 소종계(小宗稷)를 조직하여 낙향한 일가의 崇祖精神을 강화하여 가문의 단결을 꾀하였다.

집성당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계속 집성당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윤석봉의 제자인 돈암(敦菴) 이응복(李應復)¹³⁵⁾과 아들 운포(雲圃) 윤영원(尹永源)¹³⁶⁾을 지도하였고, 이응복과 윤영원은 절친한 지기(知己)로서 이후 일제시대 말까지 집성당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윤석기는 스승 윤석봉과 함께 송시열을 제향하는 청주의 화양동서원에도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의 복구에 앞장서고, 장의(掌儀)로서 활동하면서 전국의 유림들과 교유하면서 항일 위정척사의 정신을 지켜나갔다. 그의知己인 백관형은 1915년 화양동에 있는 萬東廟祭에서 항일 항일 연설을 하였다가 괴산 경찰서에서 피체되어 옥고를 치르고, 보령경찰서에 넘겨져 곤욕을 당하기도 하였다.

윤석기도 부친 윤건오처럼 일생 동안 닭이 울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경사(經史)를 낭송하고 날이 밝으면 세수를 하고 사당에 들어가 조상의 위패를 배알(拜謁)하는 곳곳한 선비의 자세를 유지하였으며, 말년에는 “示門內諸孫姪戒辭

134) 윤석봉의 묘소는 원래 웅천 대천리 화락산에 있었으나 1951년도에 윤주하가 고향인 경기도 양주로 이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곳이 공원지대로 개발되면서 묘소가 훼손되어 현재는 윤석봉의 묘소가 없는 상태이다.

135) 웅천 수부리의 儒學者로 조부 李正文의 영향으로 남당학파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나, 윤석봉 문하에 從遊한 이후로부터는 낙향한 파평윤씨가들의 화서학파와 절친하였으며, 윤건오의 장손인 윤영원과 절친하여 함께 집성당 운영에 전념하였다.(吳顯主, 「保寧의 마지막 儒學者 敦菴 李應復 先生」, 『保寧文化』 10 참조)

136) 윤건오의 장손이며, 윤석기의 아들로 윤석기의 사후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와 함께 낙향한 파평윤씨가들의 좌장역할을 하였으며, 李應復 등과 함께 집성당을 이끌어 갔다. 집안의 문집인 『파산세고』를 만들었으며, 尹滄이하만 기록한 『파평윤씨과보』를 편찬하였는데 이것들은 현재 발굴되어 파평윤씨가의 보령입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있다.

(가문내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경계의 글), 再示諸孫姪戒辭”(다시 가문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경계의 글)를 지어 가문의 좌장으로서 가문의 모든 손자와 조카들에게 오랑캐 학문인 신학문을 하지말고 성리학을 철저히 공부하여 華夷와 人獸를 구분하는 생활을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낙향세력의 좌장으로서 지역 유림계를 이끌어가던 윤석기는 1927년 9월 68세의 나이로 미산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묘소는 현재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에 아들 尹永源이撰한 묘비와 함께 있다.

윤석기가 사망하자 그의 절친한 지기이며 동문이었던 백관형(白觀亨)과 이교헌(李敎憲)은 제문과 만사를 지어 항일위정척사의 자세를 견지해온 그의 일생을 추모하였으며, 지역 선비 이경직(李涇植)¹³⁷⁾과 후배 이응복(李應復) 그리고 윤석봉의 손자 윤주하(尹柱河)도 제문과 만사를 지어 추모하였다. 백관형은 그의 제문에서 홍주의병에 가담한 일, 집성당 창설과 운영을 주도한 일, 화양동 서원¹³⁸⁾ 복구와 운영에 적극 참여한 일, 평생을 의리정신으로 살아간 일 등을 기렸다. 또한 이교헌은 생전의 윤석기와 의 우의를 추모하였고, 윤주하는 가문의 동량(棟樑)이었다고 추모하였다. 그리고 만사를 지어 추모한 사람으로는 신태희(申台熙), 백낙철(白樂喆), 신용희(申用熙)¹³⁹⁾, 이병두(李秉斗)¹⁴⁰⁾, 조병갑(曹秉甲)¹⁴¹⁾, 구은서(具殷書)¹⁴²⁾ 이종뢰(李鍾雷), 이종경(李鍾卿), 이상휘(李詳輝)¹⁴³⁾, 이병학(李丙學), 김지정(金智貞), 조장환(曹章煥)¹⁴⁴⁾, 김기택(金箕擇) 등이 있다.

윤석기는 그의 부친 윤건오와 함께 을사조약에 분개하여 순절(殉節)한 조병세(趙秉世)와 민영환(閔泳煥) 그리고 대마도에서 순절한 최익현(崔益鉉)의 만사를 지어 그들의 우국충정을 추모하였다. 그리고 유인석 의병진의 6의사 중

137) 서천 한산의 幼學으로 본관은 韓山이다. 낙향한 파평윤씨가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집성당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서천 한산의 한산이씨가 李恒珪의 사위가 尹永源이다.

138) 충북 화양동에 있던 송시열을 제향 하는 서원이었는데, 조선후기 기호노론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이 서원의 위세 또한 대단하였고, 많은 민폐를 끼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대원군에 의해서 훼철 되었는데 이후 많은 유생들이 복구노력을 하였다.

139) 신섭의 아들이며, 윤건오의 사위인 신태희의 동생이다. 비인 桐谷 幼學으로 본관은 평산이다.

140) 미산면 평리리 幼學으로 본관은 延安이며, 그의 아들 李炫이 윤건오의 증손자 尹柱天의 丈人이 된다.

141) 본관이 昌寧이며, 주산 금암리 通店에 살던 유학이다.

142) 비인유학으로 본관은 綾城이다.

143) 웅천 수부리 幼學으로 본관이 전주이며 대원군의 심복으로 금위대장을 역임한 李長濂의 손자이고, 윤건오와 함께 五老會를 만들어 활동한 李秉奎의 아들이다.

144) 주산 금암리 通店 幼學으로 본관은 昌寧이다.

한사람이며, 내종형인 경암 서상렬, 신사위정척사운동으로 지도에 귀양갔던 사돈인 율농 신섭, 한말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을 주도한 면암 최익현, 스승이자 삼종형인 삼희당 윤석봉, 친우로서 편지를 내어 일제의 우두머리를 질타한 남계(藍溪) 박영철(朴永哲)¹⁴⁵⁾의 제문을 지어 그들의 위업을 기렸고, 집성당에서 함께 활동한 지역의 선·후배 유림인 김상달(金商達)¹⁴⁶⁾, 이병규(李秉奎), 김상기(金商綺) 유세리(柳世利)¹⁴⁷⁾, 유호근(柳浩根)¹⁴⁸⁾, 조구원(趙龜元)¹⁴⁹⁾, 송병제(宋秉濟)¹⁵⁰⁾, 백용진(白用鎭)¹⁵¹⁾ 임흥준(任興準)¹⁵²⁾ 문석환(文錫煥)¹⁵³⁾ 등의 제문을 지어 의리를 지키며 살아간 그들의 유학자적 행적을 기리고, 지역의 명문가와 유대를 강화하였다.

병오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대마도에 유배를 당했던 우록(友鹿) 유준근(柳濬根)의 제문에서는 우암 송시열의 의리 정신을 이어받아 평생을 실천하여 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홍주의병에 참여한 그를 칭송하면서 복수지설(復讎之說)을 누구와 의논하고, 존양지의(尊攘之義)을 누구와 강토(講討)하겠는가? 하면서 위정척사 항일운동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남당학과로 당시 호서유림의 종장(宗丈)인 지산(志山) 김복한(金福漢)의 제문에서는 그

145) 密陽人으로 司憲府 監察을 역임하였으며, 말년에 청교(靑橋, 현재의 주산면 금암리 청석다리마을)에 은거하면서 일본총리대신 가쓰라 다로오(桂太郎) 및 조선총독 등에게 편지로 조선침략을 규탄하다가 옥고를 치렀다. 윤석기와는 친분이 두터웠으며 윤석기는 그를 朝鮮義人이라 칭하였다. 집성당에 출입하였다.

146) 웅천 수부리 洙岸 幼學으로 윤석봉의 門下이고 본관은 慶州이다.

147) 남포현에서 살다가 부여 은산 首陽里에서 거주한 幼學으로 윤석봉의 門下이며, 본관은 文化이고, 집성당 창건시 營建有司로 활동하였고 집성당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48) 청라 옥계리 幼學으로 본관은 全州이며 호는 四可이다. 독학으로 학문을 이루었고, 南塘의 大義를 尊信하였다. 復菴 李僎 志山 金福漢 韋官 金商德 靑農 趙龜元 菑山 沈宜惠 등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들과 함께 南塘年譜를 간행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윤석봉과 함께 內院寺 등지에서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1896년에는 윤석봉등과 함께 유인석에게 글을 보내 유인석 의병을 지원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진에 참여하였고,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한 독립지사이다. 보령 五烈士의 한사람인 柳濬根의 재종형이다. 윤석기와 친분이 두터웠고, 집성당 활동에 참여하였다.

149) 청라 幼學으로 본관은 漢陽이며 호는 靑農이다. 南塘의 大義를 尊信하였으며, 復菴 李僎 志山 金福漢 四可 柳浩根 韋觀 金相惠 菑山 沈宜惠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이들과 함께 南塘年譜를 간행하였고, 이들을 포함하여 윤석봉 등과 함께 內院寺와 자신이 운영하던 遯山書堂에서 학문을 강론하였다. 1896년 윤석봉 등과 함께 유인석 의병진에 글을 보내 의병진을 지원하였으며, 집성당 활동에 참여하였다. 조구원의 손녀와 윤석봉의 손자가 혼인함으로 인하여 윤석봉과는 사돈관계가 되었다.

150)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망해(望海) 유학으로 본관은 은진이며, 최익현 문인이다. 집성당 활동에 참여하였다.

151) 비인 유학으로 본관은 남포이다.

152) 任興準(1851-1910)은 주산 금암리 幼學으로 본관은 豐川이고, 호는 忍齋이다. 肅齋 趙秉德과 敦良齋 趙鎭鶴의 문인이며, 말년에는 화서학과 계열의 파평윤씨들과도 교유하였다.

153) 비인 장포리 유학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운초(雲樵)이다. 율농 신섭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에 書記로 가담하였다가 홍주성에서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애국지사이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대마도일기』가 있다.

를 대한학사(大韓學士)로 칭하면서 송나라 말의 난세(亂世)에 주자가 나타나 화맥(華脈)을 이었고, 명나라 말의 난세에는 송시열이 나타나 춘추지의(春秋之義)을 이은 것에 비유하면서 한말 난세에 김복한의 학문은 화이인수지대판(華夷人獸之大判)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것이 홍주의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그의 학문을 칭송하였다. 30 여 년에 걸친 김복한과의 교유로 윤석기 사후 김복한의 아들 삼형제인 김은동(金殷東) 김노동(金魯東) 김명동(金明東)은 공동으로 조문을 지어 가지고 와서 문상하였다.

윤석기는 집성당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志山 金福漢, 韋觀 金商德, 四可 柳浩根, 雲齋 崔永祚, 靑農 趙龜元, 友鹿 柳濬根 등의 항일운동가¹⁵⁴⁾들과 도의지계(道義之契)를 맺었다. 그리고 玉齋 白觀亨 寬溫齋 李敎憲과는 동문으로 항상 뜻이 맞아 서로 의리를 講究하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慨歎하였다.

그리고 尹錫祺는 敬菴 徐相烈, 三希堂 尹錫鳳, 重菴 金平默, 毅菴 柳麟錫, 藍溪 朴永哲, 寬溫齋 李敎憲, 四可 柳浩根, 玉齋 白觀亨 등과의 서신을 통하여도 義理를 강론하고, 항일위정척사의 의지를 다져나갔다.

윤석기에 대한 기록은 『조선환여승람』 보령인물의 유행조(儒行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號芝山建五子世襲庭訓篤志自守天姿剛介不染俗態執贄於金重菴柳省齋崔勉菴門薰灸其餘緒平生篤守尊華大義斷己苦裏備於遺稿中

그리고 1971년판 『보령군지』에는

尹錫祺 號는 芝山 天稟이 剛直하며 世態에 물들지 않고 大義를 존중하며, 遺稿가 있다

그러나 1990년판 보령군지에는 윤석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154) 金福漢은 남당학맥을 이은 호서유림의 종장으로 단발령과 민비시해 당시 홍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1919년에는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고, 金商德은 병오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전사 일보 직전에서 구출되어 천북 향리에서 은거한 인물이고, 柳浩根은 보령지역의 학자로 병오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한 인물이고, 崔永祚는 최익현의 장남으로 부친의 대마도 유배시 뒷바라지 했으며, 화양동서원을 이끌어간 인물이고, 趙龜元은 보령지역의 학자로 병오홍주의병에 가담하였으며, 柳濬根은 병오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대마도에서 4년의 유배생활을 하였고, 파리장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하였으며, 白觀亨은 병오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하였으며, 李敎憲은 병오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은거하면서 제자를 양성한 인물이다.

3) 윤석봉의 대천리 입향

윤석봉(尹錫鳳) 선생은 1842년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 태어났다. 자는 운서(雲瑞)이고 호는 삼희당(三希堂)이며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시조는 고려 태사(太師) 신달(莘達)이며, 5세인 관(璫)은 고려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고 문하시중을 지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19세인 희인(希仁)은 사마양시(司馬兩試)와 문과(文科)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으며, 22세인 중삼(重三)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갔으며, 사마양시와 문과에 합격하고 호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29세인 염(滌)은 윤석봉의 고조부로 생원이며, 정조 때는 염의 아들들인 인식(仁植) 의식(義植) 효식(孝植) 3형제가 동시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¹⁵⁵⁾함으로써 정조임금이 이를 칭찬하고 잔치를 특사(特賜)하여 가문을 현양 하였다.

일찍이 윤석봉의 12대조인 22세 중삼(重三)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하에 나간 이래로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로 이어지는 서인 기호학파의 학문을 정훈(庭訓)으로 삼아 대대로 계승해왔다. 仁植 義植 孝植 이후에는 과거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해왔다.

윤석봉은 1842년 아버지 윤희오(尹羲五)와 어머니 능성구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7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조모와 계모(繼母)손에서 자랐다. 그 후 동당(洞堂) 서응순(徐應淳)과 진암(鎭菴) 박홍수(朴洪壽)문하에 나아가 수학을 하였고, 이어서 37세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인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이 가릉(嘉陵)에서 강학(講學)한다는 말을 듣고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였고, 이어서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문하에 나가서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공자 주자 송시열을 정맥으로 하는 화서학파의 의리를 체득하였으며, 최익현 유인석 등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동문으로 교유하였다. 화서학파는 조선 말기 가장 실천적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여 그 문하에 유인석 최익현과 같은 의병장이 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석봉은 서원철폐, 강화도조약 등 일련의 사건 속에서 화양동 등의 유적지를 유람하며 의리 정신을 더욱 심화시켜 나갔지만 일제의 침략은 더욱 심해져서 조선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관이 계속 흔들려갔다. 윤석봉은 이를 개탄하여 1888년 경기도 양주에서 충청도 비인 율리로 재종숙 윤건오(尹建五)¹⁵⁶⁾와 함

155) 이 점에 대하여는 (주)서울시스템, 『CD사마방목』에서도 확인된다.

156) 윤석봉의 재종숙으로 윤석봉 자료 발굴의 단서를 제공해준 윤재창의 5대조이다. 현재 보령지역에는 윤건오의 후손 일부만이 남아있다.

께 낙향하였다.

거기서 후학들을 지도하다가 2년 뒤 189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에 이주하여 후학을 가르치면서 1895년의 홍주의병장인 김복한(金福漢) 이설(李僊) 등 호서 지역의 남당학과 학자들과 의리로서 교유하면서 지역에서 화서학파의 의리를 전파하였다.

그가 중앙의 유력한 유림으로 대천리의 화정촌에 입향하게 되면서 이어서 윤건오가 들어왔고, 함께 집성당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유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가 비인에서 대천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웅천천을 한내로 부른 것을 주자의 고향 지명인 한천(寒泉)으로 연관하여 생각하고 주변의 무이산과 신안사가 또한 주자 고향의 지명과 일치 된다는 것에 마음이 끌렸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소개하는 화정복거설을 참조한다. 그리고 마을 이름 화정(花汀)을 자신은 화정(華汀)을 부르면서 여기에 정착했다. 함께 입향한 윤건오는 호를 화정으로 하기도 했다.

유인석이 을미의병을 일으켰을 때는 화정에서 보령 여러 유림들과 연명으로 글을 보내어 격려하였으며, 유인석 의병이 만주로 갈 때는 따라 가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따라가지 못함을 한탄하며 자정(自靖)의 생활을 하였다.

1899년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문풍(文風)을 진작시키기 위해 웅천 대천리에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 영당(影堂)인 집성당(集成堂)을 세우니 주변의 많은 선비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항일위정척사의 정신을 실천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조약 폐기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서울에 올라갔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1906년 민중식이 의병을 일으키자 65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여하였다가 45일간의 구류 후 풀려났다. 1907년에는 지역에서 의병을 선동하고 민심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김복한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이때 김복한은 공주감옥으로 끌려갔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나라가 없어진 것을 분개하여 제자 백관형(白觀亨)¹⁵⁷을 시켜 집성당 주송(朱宋) 양부자(兩夫子)에게 고문(告文)을 올리고, 집안 사람을 시켜 사당에 고문(告文)을 올렸다. 그러나 65세라는 고령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가 투옥 생활로 얻은 지병이 악화되어 얼마 후인 1910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 후에도 그는 집성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157) 윤석봉의 제자로 홍주의병 파리장서 등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국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됨

유생들의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 존재하였다.

윤석봉은 그의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낙향해서도 이 지역 유림사회에서 좌장(座長)역할을 하였으며, 보령지역 화서학파의 종장(宗丈)역할을 하였다. 그의 묘소는 보령시 웅천 대천리 화락산(花落山)에 있다가 손자에 의해서 1951년에 고향 경기도 양주에 이장되었는데, 최근 필자가 확인해 보니 개발 과정에서 유실되어 없어졌다.

【華汀卜居設】 158)

윤석봉이 대천리의 화정(花汀)에 정착하게 된 이유를 기록한 글이다. 주변에 무이산 신안 등 주자의 고향과 일치하는 지명이 있고, 웅천천을 한천(寒川)으로, 화정(花汀)을 화정(華汀)으로 주자와 연관 지어 인식하면서 유교문풍을 진작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여 대천리 화정촌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庚寅春余自維陽之西山浮湖而南初居于劔城之栗里村矣家宅不利水土不服乃復移動遠近絕無可居者竊聞藍田有武夷山山下有寒泉泉上有華汀蓋其山水之名偶與晦翁所居相符而村之西五里地又有新案祠以朱子爲主壁以我東白彝齋李益齋宋尤菴權遂菴韓南塘五先生爲配食焉又亦盛矣嗚呼天有陰陽消長之里世有治亂盛衰之運六先生俎豆之所忽焉而鞠爲茂草矣亦自近日設壇炷香以伸後學之私情而山之高水之清依舊是諸先生之道岸心源則院之成毀不復論也竊惟朱子孔聖後一人宋子朱子後一人也且白李兩賢生於羅麗陋俗之末卓然立於□教之外而能尊信朱子之道權韓兩先生親受尤翁之學遂得嫡傳之任四先生所造雖不敢窺其淺深疎密之不同一是朱宋之學則後生之尊慕豈有間然哉遂決意定居縱不若古人合完之義□書杞(也)聊且粗略乃於暇日登山而俯野則昭曠之域豁然於眼前臨水而遡源則流動之波霈然於(心)頭且其汀鷗浦楫野花山鳥亦合幽人之趣此吾所以桑榆之景而又得與二三子誦讀朱宋兩夫子之書脫然□免於鷗兒行塵則我之卜此豈偶然哉喜其山水之名而識之

경인년(1890) 봄 내가 유양(維陽)의 서산(西山)에서 호서(湖西)로 내려가 남쪽에서 처음 검성(劔城)¹⁵⁹⁾의 율리촌(栗里村)에 거주했다. 가택이 불리하고 수토(水土)가 불복(不服)하여 다시 원근에서 살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말을 들으니 남전(藍田)에 무이산(武夷山)이 있고 산 아래에는 한천(寒泉)이 있는데

158) 삼희당선생문집, 대천문화원, 2008.

159) 서천군 비인의 옛 이름

한천의 위에는 화정華汀)이 있다 한다. 대개 그 산수의 이름이 우연히도 회옹(晦翁)이 살던 곳과 서로 부합하고 촌의 서쪽 5리에는 또 신안사(新案祠)가 있어 주자를 주벽으로 우리나라 백이재白彝齋) 이익재(李益齋) 송우암(宋尤菴) 권수암(權遂菴) 한남당(韓南塘) 5선생을 배식하였으니 또한 성대한 일이었다.

아! 하늘에는 음양이 성하고 쇠함의 이치가 있고, 세상에는 치란(治亂)의 성쇠하는 운이 있어 6선생의 제사 장소도 홀연히 풀이 자라 무성하게 우거졌다. 또한 근일(近日)에 설단하고 향을 피워 후학들이 사정(私情)을 펼치고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것이 옛날과 같았으니 이리하여 제(諸) 선생의 도가 마음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 원(院)의 이루고 꿰찰함은 논할 것도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주자는 공자 이후 일인(一人)이고 송자는 주자 후의 일인이다. 또 백이재 이익재 양현은 신라 고려의 유교가 없던 시기에 태어나 탁월하게 덕화가 미치지 않는 곳에 주자의 도를 세워 존신하였고, 권·한 양선생은 우옹(尤翁)의 학문을 친히 받아서 드디어 적전(嫡傳)의 임무를 맡아 4선생의 조예를 친히 세웠다. 감히 엿볼 수 없지만 그 깊고 알고 소원하고 밀접한 것은 주자와 송자의 학문과 한가지로 같지가 않다. 그러니 후생들이 존모하는 것이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드디어 나는 화정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옛 사람의 완전한 의리와 같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부족하나마 조략(粗略)하기 위하여 한가로운 날 산에 올라 들을 내려다보니 눈앞이 밝게 트인 지역이고, 다다른 물이 근원을 거슬러서 만들어 움직이는 물결이 마음속에 시원하다. 또 강변의 포구에는 들꽃과 산새가 모이고 또한 은거하는 사람과 합해지니 이것이 내가 늘그막에 취하는 이유이다. 또 2-3명의 아동들과 더불어 주·송 양부자의 책을 읽고 외워서 아이들이 길에서 묻은 먼지를 훌쩍 벗어나게 되었으니 내가 살게 된 것이다. 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 산수의 이름을 좋아하여 기록하노라.(필자 역)

3. 윤석봉의 홍경일기(洪京日記)

1) 내용 요약

이 일기는 남포군 대천리 화정에 살던 윤석봉이 1906년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3개월의 옥고를 겪고 웅천 대천리의 집에 돌아와서 지은 일기이다. 현재 경기도 양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

일기의 표제는 홍경일기라고 하였고, 서문이나 발문은 없으며, 가로 18cm 세

로 28cm의 한지에 해서와 반초서체로 38쪽 분량이며 의병가담부터 체포·투옥·서울 압송·심문·석방 과정의 2개월에 걸친 기록이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윤석봉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최익현과 함께 의병을 모의하기로 하고 있던 중에, 전 참판 민중식이 최익현보다 먼저 충남 부여군 지티에서 거병하여 서천을 거쳐 윤석봉 집 앞인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지나가다가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1906년 음력 4월 22일 윤석봉은 나가서 민중식을 만나보고 그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그의 계획을 청하여 들었다. 그러나 의병진 참여 요청에 대하여는 집안 사정을 들어 고사하였다.

며칠 후 민중식 의병진은 홍주성을 함락하였는데 민중식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윤석봉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윤석봉은 제자 이교현과 조카를 대동하고 홍주성으로 갔다.

그러나 이미 홍주성 주변에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회를 보아 홍주성에 들어간 윤석봉은 의병진의 조직과 군사제도를 관찰한 후 대장 처소에 가서 민중식을 만났다. 민중식에게 바깥의 상황을 보니 왜병이 포위하고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 대책을 물었으나 민중식은 자만심으로 인하여 상황을 오판하여 왜병이 아니라 일진회의 무리일 뿐이라고 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심히 불만스러워 더 이상 민중식과 대화하지 않고 물러 나와 군사장(軍師長)인 보령 천북 출신의 학자 김상덕(金商惠)과 보령 청라 출신의 학자 유호근(柳浩根)과 함께 장차 여기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옛 고사(古事)에 따라 모두 의리를 지켜 끝까지 떳떳한 행동을 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왜병의 공격이 시작되어 성안이 어둠 속에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김상덕과 유호근은 피신을 하였지만 윤석봉은 불타지 않은 건물에 있다가 새벽에 조카와 함께 왜병에게 체포되었다.

이때 유병장(儒兵將)으로 가담하였던 유준근(柳濬根), 참모사(參謀士)로 가담하였던 이식(李弼), 서기(書記)로 가담하였던 문석환(文奭煥) 그리고 예산에서 의병을 이끌고 온 남경천(南敬天)이 체포되어 왔는데 모두 자신의 제자이거나 화서학과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나중에 다른 5명과 함께 대마도에 끌려간 홍주의병 9의사들이었다. 여기서 윤석봉은 나이로나 학문적으로나 좌장(座長)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윤석봉은 함께 체포되어 수감된 이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의리

를 지킬 것을 주문하고 단식투쟁을 주도하였다.

윤석봉은 홍주감옥에서 진위대(鎭衛隊) 영관(領官) 이기홍(李起弘)의 심문을 받으면서 그가 조선인으로 왜에 협조함을 꾸짖고, 자신이 의병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다. 홍주에서 왜병의 2차 문초에서도 오적을 없애고 대의를 펴보기 위해 의병진에 가담한 것을 지필로 진술하였으며, 왜병이 윤석봉을 참모장으로 알고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사실에 따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문초 현장에서 왜병들이 의병 가담자 색출을 위해 체포된 다른 사람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가혹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윤석봉과 유준근이 힘써 싸워 말려서 형장(刑杖)이 그치기도 하였다.

홍주에서 취조를 받은 후 적극 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드디어 서울 왜병 사령부로 압송되어갔다. 윤석봉은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왜병들에게 이번 홍주의병진에 참모장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되는 바람에 압송 대열의 맨 앞에서 걸었다.

홍주에서 신레원을 거쳐 온양까지는 걸어서가고, 온양에서는 말을 타고 천안까지 가고, 천안에서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3일만에 도착하여 왜병 감옥에 투옥되었다. 윤석봉 등 체포되어온 사람들은 감옥에서 의리를 강론하면서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다.

왜병 사령부에서의 문초에 대하여 왜병들이 의병에 참여한 죄인이라고 하는 물음에는 의리에 따른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고, 민종식의 행방에 대한 물음에는 행방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알려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고, 의병이 아무리 일어나도 강한 왜병을 이길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인의(仁義)로서 족히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조선과 왜가 친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양국이 서로 영토와 정치를 존중하고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홍주의병에 왕의 밀지(密旨)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전국에 왕명으로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해서 더욱 강한 의병이 되었지 이렇게 실패하여 체포되지 않았을 것이라 대답을 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얼마나 알고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유준근 이식 문석환만 알 뿐이라고 대답하였고, 참모장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참모장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민종식이 시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의병에 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오적을 없애기 위함이라 대답하였다.

문초 후에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윤석봉의 요청에 의해 사식(私食)이 들어

왔고 얼마 후 아들 병원(秉源)이 왔음을 알았으나 왜병이 면회를 허락하지 않아 만나보지 못하였다.

또 얼마 후에는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최익현도 체포되어왔음을 알게되었다. 반가운 마음에 만나보기를 왜병에게 청하였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후의 문초에서는 최익현과의 의리를 강조하였고, 최익현의 참모장은 할 수 있노라고 대답하였다.

어려운 감옥 생활 중에서도 학문을 아는 왜인 영산(永山)이라는 자가 있어 우국충정의 시를 지어 주니 그가 감동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층이나 지식인 대부분이 우국충정으로 일으킨 의병에 대하여 비난을 일삼으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결국 윤석봉은 참모장의 혐의가 풀리어 1906년 음력 5월 22일 석방되었고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음력 6월 7일에 그 동안의 사실을 일기로 기록하였다.



홍경일기

2) 홍경일기(洪京日記) 번역문

※단락 구분과 단락의 제목은 필자가 임의로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임.

〈홍주 감옥과 경성 일본군 사령부 두 곳에서의 일을 합해서 기록한 것임(병오년 1906년)〉

【을사조약에 대한 비분】

을사년 10월 21일에 오적(五賊,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 왜노(倭奴)에게 나라를 팔아먹어 이로부터 4천 년 성현(聖賢)의 도맥(道脈)이 여기서 끊어졌고, 3천리 조종(祖宗)의 강토가 여기서 상실되었으며, 5백년 종사(宗社)가 여기서 폐허가 되었고, 2천만 인종이 여기서 장차 멸망이 되었다. 온 나라의 신민이 무릇 혈기가 있어 몇몇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춘 자라면 누가 분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그 가운데 춘추의 의리(義理)를 알고 군신(君臣)의 분수를 아는 자라면 더욱 팔을 걷고 이를 갈면서 도맥(道脈)을 보전하고자 하고, 국치(國恥)를 장차 씻고자 할 것이다.

儒賢 宋秉璿¹⁶¹과 大臣 趙秉世¹⁶²와 輔國 閔泳煥¹⁶³과 侍郎 洪萬植¹⁶⁴ 제공(諸公)이 의를 이끌고 충절을 지팡이 하여 자살을 하였고, 그 외에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상소를 올리어 힘써 간한 자가 자못 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아래로 여대주졸(輿臺走卒)¹⁶⁵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목졸러 죽은 자가 또한 있었으니

160) 공자가 『春秋』에서 말한 의리를 말함이니, 君父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王統을 위하여 亂賊을 토벌하는 것과 中華를 존중하고 夷狄을 배척하는 民族大義를 말한다.

161) 송병선(宋秉璿, 1836~1905) 본관은 은진이고 우암 송시열의 9대 손이며, 호는 연재(淵齋)이다. 지금의 대전시 동구 성남동에서 태어났다. 학생이 뛰어나 사헌부 대사헌까지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향리에서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반대와 오적 처벌 상소를 올리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살을 하였다.

162) 조병세(趙秉世, 1827~1905) 고종 때 의 대신 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양주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음독 자살하였다.

163) 민영환(閔泳煥, 1861~1905)시호는 충정(忠正)이고 본관은 여흥이다. 시종무관장으로 있을 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병세 등과 조약 폐기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단도로 자살하였다.

164) 홍만식(洪萬植, 1842~1905) 조선말의 지사(志士)로 호는 호운(湖雲)이며 시호는 충정(忠貞)이고 본관은 남양이다.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로 동생 홍영식이 갑신정변을 일으키자 아버지 순목은 자살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만류로 자수하여 복역하다가 석방되었다. 그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통분한 나머지 음독 자살하였다.

165)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니 곧 천한 신분을 말한다.

역시 동방 예의의 풍속이 오히려 민멸(泯滅)되지 아니한 것을 가히 보겠음으로 하여 천하 후세에 길이 말할 것이 있게 되었다.

여러 현인들의 공이 많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귀결점은 자기의 몸을 정결히 하는데 돌아갈 따름이요, 능히 요분(妖氛)¹⁶⁶⁾은 청소(淸掃)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교만한 섬 오랑캐가 두려워하여 겁을 먹지 아니하고 옛날 그대로 포학(暴虐)한 마음을 방자하게 발휘하면서 육량(陸梁)¹⁶⁷⁾을 날뛰고 있게 되었다. 아~ 저 적신(賊臣)이 아직도 머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 호강하고 날뛰고 있다.

오직 勉菴 崔先生¹⁶⁸⁾이 원수인 오랑캐가 뜻을 얻은 것을 분하게 여기고 국가가 장차 멸망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어 뜻이 같은 사우(士友)들과 약속하고 맹서하였으니 하나는 조중봉(趙重峰)¹⁶⁹⁾의 대의를 본받은 것이고, 하나는 왕손고(王孫賈)¹⁷⁰⁾의 고사(古事)를 거행한 것으로서 광명정대(光明正大)한 의리는 후세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疑惑) 할 것이 없고, 귀신에게 질문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다. 어리석은 내가 이 노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뜻을 같이하고자 옛 정의(情誼)로서 모획(謀劃)과 방략(方略)의 두서(頭緒)를 간략히 정하였었는데 아직 의병을 발기하지 못하였다.

【홍주성으로 진격중인 의병장 민중식을 만나다】

전 참판 민중식이 그 전택(田宅)을 다 매각한 재산으로 많은 선비들을 널리 모집하기를 면옹(勉翁)보다 먼저 하여 대장기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남포(藍浦)의 대천(大川)¹⁷¹⁾을 지나게 되었는데, 두어 시간 행진을 머무른 곳이 내가 사는 이웃이었다.

내가 장차 나가서 만나 보고자 하였는데 閔台¹⁷²⁾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166) 요사(妖邪)한 기운

167) 육지의 교량(橋梁)을 말함이니 곧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168) 최익현(崔益鉉, 1833-1906) 본관은 경주, 경기도 포천 출신, 화서 학파의 종장(宗杖)으로 강화도조약 반대, 단발령 반대,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순절하였다.

169) 조헌(趙憲, 1544-1592) 조선 선조 때의 학자, 호는 중봉(重峰) 본관은 백천(白川)이다. 율곡 등과 교유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금산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의병 700 여 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170)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15세에 민왕(閔王)을 섬겼는데 왕이 없어져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자 시중(市中)에 들어가 4백 여 인을 모집해서 왕을 시해한 노치(淖齒)를 잡아 죽였다.

171) 현재의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를 말한다. 민중식 의병진은 1906년 4월 19일 지티(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을 출발하여 홍산을 거쳐 서천 구병동(九兵洞) 문장동(文章洞)을 거쳐서 서천읍성을 점령하고 판교 비인을 거쳐 웅천을 지나 남포로 향하는 중이었다.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위로를 하면서 閔台에게 큰 계획을 물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오적의 목을 베어 국법(國法)을 바로잡고, 오조약(五條約)을 환수하여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데 지모(智謀)가 얇고 짧으며 병력(兵力)이 과약(寡弱)하니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과 이롭고 불리한 것은 감히 미리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그 말에 감동하여 드디어 말씀드리기를 대감의 계획이 이와 같으니 나라가 거의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이번 길에 장차 선생을 모시고 진중(陣中)으로 같이 가고자 합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마음으로는 허락을 하겠으나 몸은 감히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팔십 노친이 항상 병석에 계시는데 또 봉양할 형제가 없고 천한 나이가 장차 칠순에 육박하여 마문연(馬文淵)¹⁷³의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를 힘이 없으며, 장자방(張子房)¹⁷⁴이 유옥(帷幄)¹⁷⁵에서 계책을 운용하였던 것처럼 할 계책이 없으니 비록 따라간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마음은 단연코 다름이 없을 것이고 비록 천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삼로동공(三老董公)의 계책을 감히 본받겠습니다. 閔台가 말씀하시기를 정상(情狀)과 형세(形勢)가 그리하시겠습니다. 지금 홍주로 향하오니 조만간에 한번 오시어 계책을 만들어 우리 군중(軍衆)을 도와 주십시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가르침을 삼가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그 날이 곧 4월 22일이었다.

【홍주성으로 들어가다】

수 일 뒤에 閔台가 홍주에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군세(軍勢)가 조금 진기(振起)하였고, 사졸(士卒)이 날로 모이어 가히 도모할 형세가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閔台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자는 부탁이 있는 까닭으로 윤4월 4일에 족질(族姪) 용원(容源)¹⁷⁶과 사인(士人) 이교헌(李敎憲)¹⁷⁷

172) 태(台)는 대감 또는 공(公)의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다.

173) 중국의 역사 인물인 것 같은데 상고할 수 없음.

174) 중국 한나라의 창업공신 장량(張良)의 자(字)이다.

175) 유(帷)와 악(幄)이 모두 막(幕)으로서 진영(陣營)에 쓰이는 것이니, 곧 대장이 작전 계획을 세우는 곳

176) 尹容源(1860~1912)은 尹錫鳳의 三從 尹錫禹의 아들이며, 尹錫鳳의 養子 尹秉源의 兄이다.

177) 李敎憲(1862~1935)은 본관이 全義이며 호는 靑靑 또는 寬溫齋로 현재의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당시에는 홍산 소속임) 만수산 아래에 살던 유학자였다. 최익현과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고, 병오홍주 의병에 스승 윤석봉을 모시고 참여하였다가 의병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은거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 낸 학자이다. 그의 제자들이 부여 서천지역에 많았다. 김성당의 창건유사로서 김성당 창설에 기여하였고, 이후 그의 많은 제자들과 함께 김성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거주지가 비록 외산이었지만 그의 주 활동 무대는 김성당과 이 지역 화서학과 인물들이었다. 尹建五의 아들 尹錫祺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가마를 타고 가정(家丁) 5인을 인솔하여 보령 역점(驛店)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비를 만났다.

전 보령군수 박홍양(朴鴻陽)이 아들을 보내어 들어오기를 청하였는데, 이 친구는 본래부터 서로 아는 바이고 또 지기(志氣)가 호매(豪邁)¹⁷⁸⁾하여 역시 이번 일에 서로 도움이 없지 아니하였다. 들어가 보니 병으로 수개월간 누워 있었는데 증세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비록 병으로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어 용태(容態)를 움직이면서 언론(言論)이 강개(慷慨)¹⁷⁹⁾하고 다소의 모략과 계획이 있어 閔台에게 비밀리에 전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는데 그 계획이 반드시 십분절중(十分節中)한 것은 아니나 대체적인 것은 잃지 아니하였다. 비에 막혀 하루를 머물러있으면서 군무(軍務)의 이해(利害)를 간략히 의논하였다.

초 6일에 길을 떠나서 홍주성이 10리쯤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왜병이 이미 이르러 사방을 포위하고 있었다. 주점(酒店)에서 머물면서 방황하는 즈음에 2-3명의 소년이 우리의 행색을 알고 앉아 있는 방으로 급히 들어와 말하기를 소생 등은 서인석(徐仁錫)이온대 선생의 행차를 듣고 급히 왔습니다. 일이 지극히 위태로우니 자못 물러나서 잠시 소생의 집에서 숨어 계시다가 기회를 보아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심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거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옳았다. 즉시 서생(徐生)의 집으로 들어가 유숙하였다.

새벽에 그 동정을 살피고 홍주성 밖으로 곧바로 향하였는데, 성문이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왜병은 점점 모여들고 있었다. 장차 물러가고자 하다가 돌이켜 생각하니 비록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옛날 교훈이 있었으나 이것은 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경중(輕重)을 구분할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약속을 하였는데 적의 형세가 심히 급하다는 것으로 그 난(亂)을 구하지 아니 한다는 것은 의리에 옳지 아니한 것이므로 시석(矢石)¹⁸⁰⁾을 무릅쓰고 성문에 이르러 수문장에게 말하기를 남포의 윤모(尹某)가 왔으니 급히 장대(將臺)에 통고하여 즉시 문을 열라고 하였다. 수문장이 우리 행색을 알고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

白觀亭과는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문집으로 그의 제자 吳在燮 등에 의해 1979년에 간행된 『寬溫齋集』이 있다. 묘소는 미산 양각산에 있다.

178) 뛰어나고 장함

179) 의분(義憤)에 북바치는 것

180) 화살과 쇠뇌로 발사하는 돌. 전쟁상황

지 아니하고 문을 열었으니 그때의 형세가 급한 것을 가히 알 것이다.

【홍주성에 들어가 민중식을 만나다】

군사장(軍師長) 김상덕(金商惠)¹⁸¹⁾의 처소로 곧바로 들어갔고, 전 승지(前承旨) 김복한(金福漢)¹⁸²⁾은 나의 뒤를 따라 들오고자 하다가 문이 닫혀 들어오지 오지 못하고 드디어 화산(華山) 이승지(李承旨) 설(僖)¹⁸³⁾의 집으로 물러났다. 본가로 돌아갔다. 이에 김상덕(金商惠) 유호근(柳浩根)¹⁸⁴⁾과 더불어 두어 마디 말을 한 뒤에 대장 처소로 나아가 군중사기(軍中事機)를 간략히 묻고 군영을 두루 관찰하니 군중 조직(軍衆組織)이 규율을 잃었고 병사들의 마음이 해체가 되어있었으며 무뢰잡객(無賴雜客)이 안팎으로 사심(私心)으로 경영하면서 시끄럽게 출몰해대니 패망의 조짐이 불일간(不日間)에 있게 되었다.

또 적병들이 성을 공격하면 상황이 심히 위급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위태롭고 급박한 형상을 대략 말하여 주고, 또 방어하고 수호할 계책을 청하였다. 閔台가 말하기를 왜병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니 원하옵건대 어른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병사는 겁을 먹는 것이 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은 귀한 것이 아닌데 대감은 어찌 그리 말을 쉽게 하십니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 기병(騎兵)과 보졸(步卒)이 함께 온 것이 수 백인이 넘었는데 어찌 거짓말이라고 하십니까. 閔台가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일진회(一進會)¹⁸⁵⁾의 무리일 것이고 왜병은 두 사람도 온 자자 없는데 선생은 어찌 이

181) 김상덕(金商惠, 1852-1924) 본관은 경주이고 호는 위관(韋觀)이다. 보령 천북에서 태어났고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 직각, 대사성을 지냈고 1896년 홍주 관찰사를 제수 받았으나 나가지 않았다. 1906년 홍주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자수하여 체포되어 유형 관결을 받고 전북 옥구의 고군산 군도에 유배되었다. 풀려나와서는 천북에서 은거하면서 천일대(天日臺)를 만들고 북향재배 하면서 나라 잃은 억울함을 달랬다. 남당 학파의 학맥을 이었으며 李僖 金福漢 柳浩根 趙龜元 등과 우의가 두터웠다.

182) 김복한(金福漢, 1860-1924) 충남 홍성군 이호리 출생으로 호는 志山이며 본관은 安東으로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仙源 金尙容의 후손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향에 홍주에 내려와 의병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보령 청라로 은거하였다. 이실패는 내외종간으로 남당 학파의 종장(宗丈)으로 호서 유럽의 영수였다.

183) 이설(李僖, 1850-1906) 홍성군 결성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호는 복암(復菴)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승지 등을 역임하다가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향 홍주로 돌아와 김복한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김복한과 함께 남당 학파의 영수로 활동하면서 항일운동에 전념한 학자이다.

184) 유호근(柳浩根, 1853-1925) 보령 청라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사가(四可)이다. 金福漢 李僖 趙龜元 金商惠 등과 학문적 교분이 두터웠고, 남당 학파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다. 홍주 의병과 파리장서운동에 가담하였다.

185) 一進會는 1904년 이용구 등이 조직한 친일 미국 단체로 중앙 조직과 지방 조직을 두고 있다. 홍주성이 일본군에 무너질 때도 천도교인으로 위장한 일진회원이 의병이 되겠다고 들어와 동문을 폭파하고, 1906년 11월 민중식이 다시 제기하기 위한 모의 장소를 일본군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일진회원과

같이 두려워하십니까 하였다. 내가 이에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다시는 하나의 일도 묻지 않았고 하나의 계책도 말하지 않았다.

【김상덕 유호근과 함께 처신을 의논하다】

사차(私次)¹⁸⁶로 물러 나와 金商惠 柳浩根 두 친구와 더불어 손을 잡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대사(大事)가 실패하게 되었으니 장차 어찌할 것인가요. 나는 閔台와 더불어 본래 죽기를 약속한 것도 아니고 또 의병진에서 직임(職任)도 없으니 나는 柳友와 더불어 처음부터 같이 죽을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병자년과 정축년의 강도(江都)의 일¹⁸⁷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니 그때 江都에는 종묘의 사당과 대군과 왕자가 있는 곳으로서 선원(仙源)¹⁸⁸이하 여러분이 다 임금의 명령으로 성을 지키었으니 그 의리는 우리들의 아래로부터 의병을 일으킨 것과는 중요한바가 스스로 분별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나 金令(金令)¹⁸⁹은 이미 閔台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과 영화(榮華)와 욕됨에 있어서 의리가 홀로 다를 수 없는 것이니 만약 병사들이 패배하는 날 싸우다 죽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가 잡히어 연명(聯名)으로 상소를 하여 죄를 기다리는 것을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소 글 내용의 큰 뜻은 국가의 곡식과 관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번 일에 실패한 것에서 죄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고, 자신을 칭하는 바는 ‘미사신(未死臣)’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金令이 말하기를 ‘사죄신(死罪臣)’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영형(令兄)이 어찌 이윤(尼尹)의 강도사(江都事)¹⁹⁰로 자처를 하

일본군이 이 곳을 덮친 적이 있다.

186) 개인이 거처하는 사사로운 곳

187) 병자년(1636) 정축년(1637)의 강도(江都)의 일이란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대신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고, 왕자 비빈(王子妃嬪)들은 강화도에 피신하였는데, 청군이 강화도를 먼저 공격하여 강화도가 함락되자 선원(仙源) 金尙容(金尙容) 등 강화성을 지키던 많은 책임자들이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자살하였다.

188) 金尙容(金尙容, 1561 ~ 1637)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호는 선원(仙源)이다. 청음 金尙헌의 형이다. 문과에 급제한 후 병자호란 때 우의정으로서 묘사(廟社)를 모시고 강화도로 갔으나 강화성이 함락되자 성문 위에서 화약 상자에 앉아서 화약에 불을 질러 자살하였다.

189) 金令監(金令監)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김상덕을 말함.

190) 尼尹의 江都事란 尼는 尼山을 말하는 것인데 즉 오늘날의 논산 노성이다. 尹은 노성에 살던 학자 尹善舉를 말한다. 윤선거는 병자호란 때 가족들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강화성이 함락되자 그의 부인은 오랑캐에게 치욕을 당할 수 없다고 하여 목매어 자살을 하였으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 나왔다. 이 후 그는 의리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항상 사죄신(死罪臣)으로 칭하면서 은거하였다. 윤선거는 송시열과는 친구지간이었고 그의 아들 윤拯(尹拯)이 송시열의 제자였으나 송시열은 윤선거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영원히 절교하였다

시는 것입니까. 하니 金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싸우다 죽는 것은 의리에 어
 떠합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병은 아래로부터 일어난 것이요 본래 위로
 부터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출전 하였은 즉 적을 피하
 여 몸을 벗어났다가 다시 의사거행(義事舉行)을 도모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리가 전진(戰陣)에서 용맹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만약 형세가 궁박하고 힘이 다하여 죽음을 회피할 수 없으
 면 적을 꾸짖고 죽는 것이니 이 또한 회양(淮陽)의 순원(巡遠)¹⁹¹⁾과 금산(錦
 山)의 중봉(重峰)과 더불어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나와 柳友는 의리에 있어서는 두 분 영감(김상덕과 민종식)과는
 더불어 차별이 있으나 만약 면하기 어려운 경우를 당한다면 가히 구차하게 살
 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약속과 맹서를 종이에 서서 가로되
 ‘신담(薪膽)과 배주(盃酒)를 아울러 행하는 것이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
 다’ 라고 하였다.

즉시 글을 쓰기를

홍양성 가운데 두 사람의 외로운 신하여

자네들이 아니면 누가 능히 이 仁을 이룰 것인가

나 또한 이때에 의리를 같이 한 자이니

다만 나라가 있는 것은 알고 몸은 알지 못하누나

김영(金令)이 크게 읽으면서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비로소 老兄의 학문 실
 렷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김영(金令)의 시에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님 雙翁¹⁹²⁾은 고려 말엽의 신하이신 데

삶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중하게 여겨 스스로 仁을 이루시었지

하물며 지금은 사람과 짐승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만 종용히 이 몸을 죽이는 것이 합당 하도다.

柳友의 詩에서 말하기를

외로운 성에 바람과 비는 도망치는 신하를 짝하였구나

사람과 귀신이 되는 관두(關頭)에서 각각 仁을 밝았네

191) 당나라의 충신 張巡과 許遠을 말하는데, 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安祿山을 공격하다가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굴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다.

192) 金自粹를 말함. 고려 우왕 때의 현신, 자는 순중(純中) 호는 상촌(桑村) 본관은 경주이다. 고려가 망
 하자 안동에 은거하였다가 이를 비판하여 자살하였다.

만 개의 활시위 소리 가운데서 단란하게 머리를 모았으니
강상(綱常)이 항상 자기 몸에 관계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閔台는 군진(軍陳)을 통솔하고 군중에 사무가 많은 까닭으로 참
여하지 않았다.

【드디어 홍주성이 왜군에 함락되다】

이로 인해 술을 따라 서로 마시는 즈음에 소년 한 사람 최 아무개가 곁에
있다가 총탄에 맞아 피가 흘러 자리에 가득하였으며, 대포의 탄환이 우박같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한 좌석의 사람들이 크게 놀라 실색(失色)하였다.

내가 金柳二友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앉아서 총탄을 맞아 죽는다면 의리가 전
혀 없게 되니 사관(舍館)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적을 방어할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서문(西門)안 빈집으로 옮기고 나서 드
디어 김영(金令)을 대장의 처소로 보내어 시급한 상황을 갖추어 말하였다. 밤
이 이미 깊었는데 김영(金令)이 와서 말하기를 閔台가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
이지 아니하니 어찌하겠습니까 하였다. 모여 앉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포
향(砲響)이 사방에서 일어나 천지가 진동하는데 홀연 대포 한발에 성문이 파
쇄(破碎)되고 왜병이 돌입하여 화광(火光)이 충천하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
고 성중이 시루물 끓듯 하였다. 대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백성들의 호곡(號
哭)하는 소리는 어지러운 개구리울음 소리 같았다. 지척을 통하기가 어려워
閔台의 거류(去留)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김영(金令)의 하인 5-6명이 김령
(金令)을 급히 불러 김영(金令)이 지계문을 나가고 柳友가 따라 나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교헌이 말하기를 金柳 두 분이 나가서 피하였는데 이같이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처신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성의 이번 일은 강도(江都)의 옛 일과는 동일하지 아니하니 오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처의(處義)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李友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캄캄한 밤에 걷기도 어렵고
도로와 산천도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나가겠는가 만약 총탄에 맞아 죽
는다면 이것은 명색 없는 죽음이니 나는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하고 이교
헌(李敎憲)과 안시중(安時中)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속히 나가라고 하였다.

인하여 용원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호흡(呼吸)사이에 박

두하였으니 너는 가히 잠깐 사이라도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하고 함께 빈 집 가운데서 총탄을 피하였다. 그런데 전후좌우에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어지러운 칼로 물건을 찍는 것 같아 차마 듣지 못하였다.

【왜병에게 체포되다】

날이 이미 새벽이 되었으므로 의관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아 잡히기를 기다리는데 왜병 두 사람이 내가 앉아있는 집으로 곧바로 들어와서 두루 살펴보고 나갔다.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왜병이 와서 탐색(探索)을 하고 곧바로 나가자 용원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반드시 생문방(生門方)¹⁹³일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天命이니 반드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하고 용원으로 하여금 싸두었던 한 뭉치의 보자기 보따리를 내놓게 하니 술이 있었다. 술병을 조금 기울여 마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왜병 한 사람이 또 와서 먼저 용원이를 잡아 끌어내었다.

이때 나는 바야흐로 창문과 벽 사이에 몸을 숨겼기 때문에 왜노(倭奴)가 미처 보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용원이가 즉시 칼로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조카가 나로 말미암아 먼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먼저 죽고 조카가 나중에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내가 만약 살아 돌아간다면 어찌 차마 집안 사람들을 보겠는가? 하였다.

바야흐로 몸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왜놈 2명이 또 와서 이 몸을 끌어내어 포승줄로 두 팔을 묶으면서 서로 돌아보고 기뻐하였다. 격설(馘舌)¹⁹⁴의 말을 가히 알 수 없으나 그 뜻이 조선의 양반을 비로소 얻어서 의병의 괴수라고 이르는 것 같았다. 왜놈 두 명이 좌우에서 붙들고 가면서 한번도 때리는 일이 없었으니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었다.

길옆을 돌아다보니 넘어진 시체가 많이 있어 참으로 이른바 목과 등이 서로 보이고 간과 뇌가 땅에 깔린 것으로 있어 차마 보지 못하였다. 나를 객사문(客舍門) 안에 앉혀 놓았는데 용원이가 이곳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으므로 눈짓을 보내어 비밀히 말하기를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살아서 여기에 있으니 아직 기쁘고 다행이다. 죽기 전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하니 용원이 묵묵히 머리를 끄떡였다.

193) 집례에서 8문(八門)중의 하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들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곳.

194) 알아 들을 수 없는 야만인의 언어. 곧 일본어를 말함.

【체포되어 온 다른 의병 참여자들을 격려하다】

보령의 유준근(柳濬根)¹⁹⁵과 정산의 이식(李弼)¹⁹⁶과 비인의 문석환(文錫煥)¹⁹⁷ 세 사람이 차례로 포박되어 왔는데 깜짝 놀라 서로 돌아다보면서도 말을 통하지 못하였으니 왜병이 의심을 할까 봐서 혐의한 것이다.

틈을 타서 내가 비밀히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은 정해진 명이니 조금도 동심(動心)하지 말라. 송나라 문승상(文丞相)¹⁹⁸이 시시(柴市)에서 죽었고, 우리 동방 3학사(三學士)가 연시(燕市)¹⁹⁹에서 순절하였으니 우리들의 오늘의 일은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다행이 삶을 얻는다면 한(漢)나라의 소무(蘇武)²⁰⁰와 송나라의 홍호(洪皓)²⁰¹와 우리 동방의 김청음(金淸陰)²⁰²과 강수은(姜睡隱)²⁰³이 스스로 있으니 조금도 뉘우치고 한탄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다만 우리들의 역량과 지위가 전인(前人)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것이 가히 근심이 되는 것이니라 하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아다보고 말이 없으나 이것은 반드시 나의 말이 견고하고 확실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리라.

하루종일 결박되어 앉아있으니 두 손이 끊어지는 것 같고 몸 전체가 쑤시고

195) 유준근(柳濬根, 1860 ~ 1920) 보령시 대천 내향동 출신이다. 본관은 전주이고 호는 우록(友鹿)인데 대마도 유배시 함께 있던 최익현이 지어준 것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조세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 유병장(儒兵將)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4년 간 유배 생활을 하였고, 후에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馬島日記』가 있다.

196) 이식(李弼, 1873 ~ 1936)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출신으로 본관은 연안이고 호는 화산(華山) 또는 신구당(愼懼堂)이다. 정산에 낙향한 최익현에게 사사를 받았고, 병오 홍주의병시에는 참모사(參謀士)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으며, 1912년에는 고종의 밀지(密旨)를 임병찬에게 전하여 함께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10년 윤석봉의 사망시에는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197) 문석환(文錫煥, 1869 ~ 1925)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幼學으로 본관은 남평이며 호는 운초(雲樵)이다. 을농 신섭과 삼희당 윤석봉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906년 병오홍주의병에 書記로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었다. 대마도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대마도일기가 있다. 윤석봉 사망시 제자의 의리로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198) 남송의 충신 文天相을 말함인데, 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로가 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正氣의 노래를 지어서 충절을 보이고 죽음.

199) 병자호란 때 끝까지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洪翼漢 尹集 吳達濟를 말함

200) 漢무제 때 사신으로 匈奴에 갔다가 單于가 가두어 놓고 항복을 하기를 위협하니 굴하지 않고 19년 만에 귀국한 인물

201) 송나라의 충신

202) 김상헌(金尙憲, 1570 ~ 1652) 호는 청음(淸陰)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병자호란 때 기초 중인 화의 국서를 찢으면서 통곡하였고, 화의가 성립됨에 이르러서는 심양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으나 시종 굽히지 않고 3년을 간혀 있다가 돌아왔다.

203) 강항(姜沆, 1567 ~ 1618) 호는 수은(睡隱)이고 본관은 진주이다. 정유재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패하여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가 귀환하였다 그러나 죄인을 자처하고 은거하였다.

아팠으며 하루의 낮과 하루의 밤을 물과 곡식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혼도불성(昏倒不省)²⁰⁴⁾ 할 것인데 정신이 상쾌한 것 같고, 흉중의 기운이 발발(勃勃)²⁰⁵⁾하여 기운이 산같이 솟구치니 반드시 이것은 쌓인 분노가 있기 때문이리라.

잡혀있는 수 백 여인의 거주지와 성명을 모두 기록한 뒤에 수 백 명의 왜병이 각각 총검을 빼들고 둘러싸고 전후좌우로 나열하여 물고 가는데 참살(斬殺)하려고 하는 모양 같았다. 몇 시간이 안되어 홍주군 감옥에 모두 수감되었는데 그 날이 곧 윤4월 초9일이다.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 왜병이 저녁밥을 내어주는데 한 덩어리의 소금 밥을 주거늘 내가 유준근과 더불어 맹서하여 약속하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밥은 가히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 예산 사람 남경천(南敬天)²⁰⁶⁾이 말하기를 소생도 역시 먹지 않겠다고 하여 세 사람이 밥을 집어던지고 먹지 아니하였다. 이식 역시 처음에는 나의 말을 따르더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 밥을 먼저 받거늘 내가 크게 꾸짖으니 이식이 무안해 하였다. 문석환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저들의 밥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생이 보기에 그 의리가 합당한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한나라 소무(蘇武)가 19년 동안 오랑캐 땅에 거처하였는데 오랑캐의 곡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고, 송나라 홍충선(洪忠宣)²⁰⁷⁾이 17년간 금노(金虜)²⁰⁸⁾에게 수감되었는데 역시 그들의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며, 우리나라 김청음(金淸陰)이 7년 간 심양옥(瀋陽獄)²⁰⁹⁾에서 구류(拘留)되었는데 우리 곡식으로 만든 밥을 들여다 먹었다는 것은 또한 듣지 못하였으니 저들의 밥을 먹고 구차하게 사는 것도 의리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백이 숙제(伯夷叔齊)가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아니한 것을 성인이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혹 살기도 하고 혹 죽기도 하면서 각각 주장하는 바대로 아울러 행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것

204) 정신이 혼미하여 거꾸러져 人事를 살피지 못함

205) 왕성한 모양

206) 대마도에 유배된 병오 홍주의병 9의사 중의 한 사람

207) 홍호(洪皓)를 말함

208)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말함, 금은 북송을 멸망시킴.

209) 靑太祖 누르하치가 이곳에 도읍하고 후금(淸)을 건국함. 오늘날의 만주 선양이다.

이 아니다. 각각 자기의 견해로써 먹고 안 먹는 의논을 정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왜인이 와서 밥을 먹지 않는 까닭을 묻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원수가 되는데 너희는 나에게 줄 의리가 없고 나는 너에게 받을 의리가 없으니 나는 나의 밥을 사서 먹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세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 군자는 차래지식(嗟來之食)²¹⁰⁾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너의 같은 원수의 밥을 받겠는가 하니 저놈들이 이러한 일들을 지목하여 나를 원수로 보는 것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

홍주읍에서 같이 수감된 모든 사람들이 나의 노물(老物)²¹¹⁾을 민망히 여겨 자기들의 밥을 나누어 서로 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가지고 온 밥은 조금도 혐의할 것이 없으니 감히 시저(匙箸)²¹²⁾를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거늘 이에 유준근 남경천 두 사람과 더불어 같이 먹으면서 말하기를 邑人이 주는 것은 비록 혐의쩍은 것은 없으나 이것 역시 조석간사(朝夕間事)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이에 매입(買入)하여 먹으면서 실낱 끈 같은 목숨을 겨우 보전하였다.

결에 있는 사람들이 비소(誹笑)를 하면서 말하기를 소중랑(蘇中郎)²¹³⁾과 김청음(金淸陰)의 일이 분명하게 가히 증거 되는 것이 있으니 제공의 먹지 않는 것은 의리에 어떠한 것입니까? 하거늘 내가 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의 처한 의리는 소중랑과 김청음과 더불어 스스로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소중랑과 김청음은 斥和와 부인(俘人, 포로)에 관한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의병을 일으켜 저놈들을 공격한 사람들이니 그 의리는 부인(俘人)과 더불어 한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찌 차마 그 개·돼지의 밥을 먹겠는가 하니 그 사람들이 꺾이어 승복하였다.

【영관 이기흥이 심문하다】

옥중에 구류된지 2일되었는데 이날은 윤4월 11일이다. 왜병이 와서 포박해 가지고 홍주아관(洪州亞館)에 이르니 영관(領官)이 마루 위에 앉아있고 그 아래 좌석을 만들어 나를 대좌(對坐)하도록 하였다.

210) 무례한 태도로 먹으라고 준 음식

211) 윤석봉 자신이 늙은 자기의 몸을 비하하여 老物이라고 하였다.

212) 숟가락과 젓가락

213) 蘇武를 말함

먼저 거주지와 성명을 묻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실에 쫓아서 자상하게 말하라 하거늘 내가 영관을 살펴보니 하나의 왜추(倭酋)²¹⁴이다. 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느 해부터 우리 나라에 와서 있었는데 언어가 이같이 능숙합니까. 귀국에 있었을 때 무슨 관직에 있었습니까 하니 영관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 또한 조선 사람인데 형색(形色)이 변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노인이 몰라보시는 것이 혹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영관의 성명은 누구십니까 하니 영관이 말하기를 이기홍(李起弘)²¹⁵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슨 이씨입니까. 하니李가 말하기를 국족(國族)입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타성(他姓)도 차마 이러한 행동을 못하는 것이거늘 당신 같은 선파(璿派)²¹⁶로 감히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니李가 말하기를 황명(皇命)을 감히 어기지 못해서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도 받지 못하는 바가 있거늘 또한 이 명령은 본래 황상(皇上)의 뜻이 아니거늘 사람으로서 신하 된 자가 차마 적세(賊勢)를 도와 의병의 진영을 패멸 시킬 수 있습니까?

李가 말하기를 국사(國事)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뜻 있는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한 바이나 도리어 왜인에게 잡힌바가 되었으니 사리에 어둡고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한 탓이 아닌가 하여 도리어 가석(可惜)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으나 어찌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노인께서는 명하사(名下士)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너그럽게 대접하여 형벌을 가하지 않으니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십시오. 후일 다시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언사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왜인의 중형(重刑)을 입을 것입니다 하였다.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내가 즉시 지필(紙筆)을 청하여 쓰기를 대명유민(大明遺民)²¹⁷이요 조선처사(朝鮮處士)²¹⁸인 충청남도 남포군 화정촌²¹⁹ 파평(坡平) 윤석봉(尹錫鳳)은

214) 왜놈의 추장이라는 뜻인데, 왜놈의 책임자를 말함.

215) 관군 순초 보고(官軍巡哨報告.1906.6.22)에 의하면 그는 공주 주재 충청남북도 지휘관 육군 보병 정령(正領)의 직위에 있었다.

216) 조선왕실의 족보를 선원록(璿源錄)이라 한다.

217) 명나라가 망한 뒤에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뜻

218)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

219) 현재의 충남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국가가 장차 망하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왜노(倭奴)가 방자하게 포학(暴虐)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낮이나 밤이나 원통한 마음을 안고 장차 왜놈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으로써 일생가문(一生家門)의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소위 선비라는 것은 본래 토지의 기본과 인민의 세력이 없으니 가히 할 만한 것은 필설(筆舌)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금년 봄 정월에 서울로 올라가서 장차 한 장의 상소로 임금에게 고하려고 하였는데 역시 왜놈들이 막아 형세가 급하게 되어 어찌할 수 없어서 통곡하고 돌아와 다만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호통(號痛)할 뿐이었습니다.

천만 뜻밖에 전 참판 민중식이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대장의 기(旗)를 세우고 북을 치면서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멈추고 사람을 보내어 한번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나가서 접해서 만나 보고 초백왕(楚伯王)의 배를 침몰시킨 계획²²⁰과 손토로(孫討虜)의 책상을 쪼갬 용맹²²¹으로 치하하고 인하여 의병을 일으킨 본지(本旨)를 물은 즉 閔台가 말하기를 먼저 五賊의 머리를 베고 또 오조약(五條約)을 추궁하겠다고 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내가 말하기를 장군의 뜻은 크나 강하고 약한 형세가 같지 아니하니 어떻게 깊이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니 민태가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군자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할 것이고 그 이해(利害)를 모의하지 아니하니 장군의 뜻이 이와 같다면 나의 뜻과 심히 한 가지입니다.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이번 길에 선생과 더불어 수레를 같이하여 入城하고자 합니다.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사례하기를 병사들이 죽는 땅인데 아버지는 늙으시어 몸에 병환이 계시니 감히 허락을 못하겠습니다.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일의 형편이 그러시다니 감히 억지로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작별하고 가면서 다시 후일의 약속을 두었습니다. 홍주성으로 들어간 뒤에 또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청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그 의리에 감동하여 윤4월 7일에 홍주성으로 들어갔는데 8일 밤에 성이 함락되어 9일 아침에 잡혀왔으니 이 같을 따름이요 별도로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병진에 가담하여 나갔으니 의병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220) 楚伯王은 곧 楚나라 項羽를 말한다. 項羽가 배를 빠뜨리면서 적을 토벌한 사실을 말함.

221) 중국 삼국 시대 孫權이 劉備를 도와 曹操 치는 의논을 하는데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쪼개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린 일. 이에 曹操가 孫權을 討虜將軍이라 하였다.

다른 사람의 지목(指目)을 어찌 면하겠습니까 하는데 나는 죽더라도 원한이 없고 사는 것도 無色하니 오직 영관님의 뜻대로 하시고 나는 더 이상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였다.

李가 말하기를 내가 노유숙덕(老儒宿德)²²²⁾으로 대접해 드렸는데 마침내 솔직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솔직하지 않다고 하십니까 하니 李가 말하기를 만약 민태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이러한 대사를 같이 모의하였겠습니까? 이미 의병 진영에 나아갔은 즉 어찌 하나의 군사를 인솔하고 온 것이 없겠습니까? 대장과 더불어 서로 만나 보았다면 반드시 대장에게 계책을 드린 것이 있었을 터인데 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말입니다.

하거늘 내가 안색을 바르게 하면서 말하기를 선비 된 자의 도리는 직(直)으로써 주간(主幹)을 하는 것이니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平生의 심법(心法)입니다. 지금 사실대로 대답을 하였는데도 믿지 아니하니 다른 것은 묻지 마시오. 사람들이 심정이 대개 죽음을 두려워하여 말을 사실대로 아니하는 것인데 나는 이미 몸을 죽을 땅을 밟아 다시는 살길이 없는 것인즉 무엇이 두렵고 겁낼 것이 있어 거짓으로 꾸미겠습니까?

李가 말하기를 이것으로 보고 할 것이니 혹시 원망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秦나라와 漢나라 때 분갱당고(焚坑黨錮)의 화(禍)²²³⁾가 있는 뒤로부터 우리 동방 사화(士禍)에 이르기까지 어찌 한계가 있으리요 마는 오늘의 일같이 큰 것이 없으니 죽어도 오히려 영광이 되겠고, 다시 무슨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가히 부끄러운 것은 민중식과 김상덕 등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에 임하여 도망을 가서 책임을 면한 것이요, 가히 불쌍한 것은 무고(無辜)한 城中의 백성 수 백인이 그 환란을 같이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기홍이 듣기를 다한 뒤에 나로 하여금 나가도록 하였고, 즉시 돌아와 수감되었다. 유준근 등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숨길 것이 없이 사실대로 말을 하시오 남아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不義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222) 늙은 선비의 높은 덕.

223) 秦始皇이 유교서적을 불지르고 유가 사상가를 땅 속에 생매장한 사실과 後漢 말 정치에서 宦官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이 것을 공박한 志士들이 終身禁錮의 刑을 당한 사실

【왜병의 2차 심문에 글로써 답하다】

다음날 왜병이 또 헌병소로 잡아갔는데 왜병 한 사람이 비밀히 말하기를 숨김없이 사실대로 고하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대개 왜병의 밀어(密語)는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비록 심히 의심이 나지만 말인즉 옳은 것이다. 혹시 내가 늙었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긴 것인가? 나를 따라 곁에 서있는 왜추(倭酋) 세 사람이 마루 위에 앉고 나의 결박을 풀어 맞은편 의자에 앉히고 심문을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늙고 또 병들어 눈은 어둡고 귀는 먹었으며 어음(語音)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지필(紙筆)을 얻어 쓰기를 청한다. 하니 왜인이 저희들의 지필을 내놓거늘 받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 너희 나라의 물건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너희들의 지필이 손에 익숙하지 아니하니 다시 우리나라의 지필을 와라 하니 과연 우리나라의 지필을 내주는데 저들이 나의 기식(寄食)이 험뎌거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 말하기를 노인의 기력이 반드시 먹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니 미움을 드시기를 청합니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창자에 가득한 화열(火熱)로 인하여 먹지 아니해도 스스로 배가 부르다. 냉수 한 그릇을 먹겠다. 하니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냉수를 마신 뒤에 일필(一筆)로 썼으니 그 말에 가로되 어리석은 나는 본래 書生으로 군대의 일은 알지 못하였는데 의병 대장 민종식의 거행하는 일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장차 한번 뵈고 계책을 드리려고 하던 즈음에 의병 대장이 우리 집 앞마을 시장 가운데서 행진을 머무르고 사람을 보내어 나를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얹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 보고 위로를 한 뒤에 의병을 일으킨 大義를 물으니 閔台가 말하기를 오적을 먼저 참(斬)하고 또 오조약(五條約)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하거늘 어리석은 내가 대답하기를 영감의 뜻은 크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니 閔台가 말하기를 일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함은 계산할 것이 못되고 장차 大義를 펴고자 합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복하여 용맹스럽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서로 이별을 하였다.

뒤에 홍주성에 들어가서 사람을 시켜 들어오기를 청하므로 어리석은 뜻에 한번 가서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드리려고 윤4월 초 7일에 입성하였는데 8일 저녁에 성이 함락되었으니 그 사이 서로 만나 본 것이 세 차례

에 지나지 않았고 방수(防守)의 계책을 약간 말하였는데, 閔台가 모두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불만이 심하였으므로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이유로 작별을 하고 장차 돌아오려는 즈음에 성이 함락되어 잡히게 되어 장차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사(國事)에는 무익(無益)함이 많았고 노모(老母)에게는 죄를 얻은 것이 크니 비록 죽은들 어찌 한이 되겠는가. 진중에 머무른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軍中에 모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군사장(軍士將) 전 승지 김상덕(金商憲)과 中軍 이세영(李世永) 두어 사람만 알고 그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한다. 나는 위로는 장수의 직책에 참가하지도 못하였고, 아래로는 병졸의 대열에도 보충되지 못한 채 다만 책임 없이 있었다. 비록 그러나 이미 의병 진영에 나갔고 또 대장과 더불어 수 차례 군중의 일을 말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괴수(魁首)라고 하여 참모장이라고 억지로 말을 하니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三學士)의 훈령과 같이 놀 것이고, 혹시 살아나간다면 청음(淸陰) 김선생(金先生)의 묘소에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는가 다만 너희들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요. 다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저들이 이것을 받아서 본 뒤에 다시는 묻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를 정성 들여서 다시 써달라고 청하였다.

마루 위의 동쪽 편에서는 잡혀온 의병들을 형장(刑杖)으로 다스리는데 차마 듣지 못하겠고, 차마 보지 못하겠다. 공초(供招)를 다 쓰고 나서 소리를 내어 크게 곡하면서 말하기를 괴수(魁首)와 장졸(將卒)은 하나도 잡지 못하고 한 일도 없이 잘못 잡힌 사람을 지나친 형장으로 죽이니 이것이 무슨 지경인가. 청하건대 우리 몇 사람의 머리를 베고 무죄한 사람은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그리고 유준근도 큰소리로 역시 힘써 싸워 말리니 저것들이 이에 형장을 그쳤다.

【82명의 의병 가담자 서울로 압송되어 가다】

2일을 머무르고 나니 홍주군수 윤시영(尹始榮)이 선유문(宣諭文)²²⁴을 싸가지고 옥중으로 와서 둘러보고 살펴보았으나 선유문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갔다. 이자는 곧 남인(南人)인데, 유준근과는 더불어 인아친척(姻婭親戚)²²⁵인

224) 임금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내리는 글

대도 결눈질하여 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모양인가? 하고 다시는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날 즉시 관청에 글을 올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들 몇 사람을 피수로 하라고 청하였는데 홍주군수가 결재가 없었으니 저들에게서 겁을 먹은 것을 가히 볼 수 있겠다.

홍주군수편으로 인하여 집에 서찰을 비밀리에 부쳐서 살아있는 것을 알렸다. 그 이튿날 100여 명을 석방하였으니 반드시 이것은 어제 형장(刑場)에서 우리 두 사람이 힘써 말한 탓일 것이다.

윤4월 16일에 왜병이 우리 의병 82인을 다 포박하여 경성 사령부로 압송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피수라고 하여 매양 노상(路上)에서 앞에서 이끌고 나갔는데 머리에는 관과 망건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었으며, 발에는 짚신을 신고 얼굴을 드러내고 걸어가니 창피가 막심하였다.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두렵고 겁을 먹어 피해가지 않는 자가 없었다.

【걸어서, 말을 타고, 기차를 타고 압송되어 가다】

예산 신례원 주점에 이르니 남경천의 늙은 어머니가 그 처첩과 더불어 와서 서로 붙들고 곡을 하니 길가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인 남녀가 문밖에서 엿보면서 말하기를 이 노인이 참모장인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사리에 당연하지만 어찌해서 우리 상민(商民) 세 사람을 죽였는가 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일이 원수(元帥)에게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왜인들이 머리를 끄떡이고 나갔다.

17일에 온양에서 유숙하였는데 온양군수 권중억(權重億)이 의병들에게 조식(朝夕)밥을 먹여준다고 하는 까닭에 마음이 심히 기뻐서 말하기를 온양군수는 우리편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 밥을 먹이는데 이르러서는 한 덩어리의 소금밥이 왜인의 밥과 같았다. 내가 분하게 여겨 물리치고 관속(官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들 여러 사람은 이 밥을 먹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의 책임을 맡은 관원에게 고하라고 하고 인하여 사서 먹었다.

그 이튿날 길을 출발하는데 다리 힘이 다 빠져서 능히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 본관(本官)에게 한 필의 말을 청하였다. 그런데 왜인이 이것을 금지하여 중지시키고 저희들이 한 필의 말을 준비하여 대기시켜 줌으로써 말을 타고 천안 정거장에 이르렀다.

225) 사위의 아버지와 동서를 말함이니 곧 인척(姻戚)

저 사람들이 차 타기를 청하거늘 내가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차를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여러 왜인들이 붙들어 태웠다. 시간 사이에 성환역에 이르러 종숙 泰五의 집이 바라보이는데 소식을 통할 겨를이 없었다. 순식간에 서정(西井)에 이르렀다. 조우여옥(趙友汝玉)이 마침 길 곁에 있었는데 언급할 사이가 없이 이미 차가 출발하였다.

【서울 왜병 사령부 감옥에 갇혔다】

해가 질 무렵 남대문 밖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선혜청(宣惠廳)으로 들어가니 곧 왜인의 감옥서(監獄署)이다. 그 날이 곧 윤4월 18일이었다. 끌려온 82명 중 매양 5-6명씩 정하여 각 칸에 별도로 수감하고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중에서도 柳濬根 李弼 申鉉斗²²⁶⁾ 文奭煥 南敬天 5명은 한 칸에 수감되어있으면서 더불어 매양 의리를 강마(講磨)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 하기로 맹세하였다.

왜병이 주야로 수직(守直)하며 동정을 살피면서 중외(中外)를 격절(隔絶)시키니 비록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도 서로 웃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 날 저녁에 또 한 덩어리의 밥을 주거늘 인하여 물리치고 먹지 아니하면서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니 모든 왜인들이 와서 먹지 않는 까닭을 물었다.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홍주에 있을 때 의리로 처리한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伯夷는 오히려 주나라 성인의 곡식도 먹지 않고 죽었는데도 전성후현(前聖後賢)이 모두 절의로 칭찬하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 같은 이적(夷狄)의 곡식을 먹겠느냐 하니 왜인들이 말이 막히어 물러갔다.

【왜병 사령부에서 심문을 받다】

그 이튿날 사령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것들이 오만한 말로 우리를 대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오만한 말로 나를 대하느냐 하니 저것들이 말하기를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들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君上을 범하였느냐 도당(徒黨)을 거느리고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였느냐 장차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 백성을 위하여 해독(害毒)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또 너희 나라의 국토와 토지와 인민을 탈취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죄인이라고 이르는가. 만약 죄인이라고

226) 병오 홍주의병에 우익장(右翼將)으로 가담하였다.

한다면 어찌 의병이라고 이르는가. 너희들은 본래 오랑캐들이라 義字의 本旨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義라고 하는 것은 사덕(四德)의 하나인데 그 의리를 행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의리를 바르게 하고 그 이해(利害)를 꾀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前人이 하신 말씀이 하려고 하는바가 없이 하는 것을 義라고 하였느니라.

저것들이 말이 굴복되니 단서를 고쳐서 묻기를 대장 민중식의 간 곳을 반드시 알 것이니 자세히 고하라 하거늘 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만약 민장(閔將)이 가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역시 그 때 따라 갔을 것이니 어찌 앉아서 기다리다가 잡혀서 너희들에게 이같이 무한한 곤욕을 당하겠는가. 너는 반드시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찌 즐겨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는가 라고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천하에 막강한 나라인데도 우리 병사가 멀리 만리를 건너가 백 번을 싸워도 반드시 이겼는데, 한국의 약함으로서 어찌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비록 만 번을 싸워도 만 번 패할 것이고 백 번을 일어나도 백 번 멸망할 것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또 제정이달견갑리병(制挺以撻堅甲利兵)²²⁷⁾이란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믿는 바는 仁義이니 목장(木杖, 나무 몽둥이)이 어찌 반드시 필요하리요 인의(仁義)의 주먹으로 족히 당할 것이다. 하고 두 주먹으로 물건을 치는 모양을 하니 저것이 깔깔거리고 크게 웃었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허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남녀를 막론하고 10세 이상이면 모두가 너희들을 토벌할 마음이 있으니 그 숫자는 가히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양국이 화합하여 좋게 지내면 의병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만약 화합하여 좋게 지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너의 나라 임금이 우리 성상과 더불어 산하지맹(山河之盟)을 약속하고 너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조정과 더불어 금석지문(金石之文)을 만들어 양국 신민(兩國臣民)에게 두루 보이고 동서양 모든 나라에 골고루 보이어 서로 침범하지 말고 각각 봉강(封疆)을 지키고 각각 정교(政敎)를 행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날로 萬人을 죽인다 하더라도 의병이 끊이지 아니하여 필경에는 너희들이 먼저 패망할 것이다. 하니 저것이 웃

227) 木杖을 만들어 굳은 갑옷과利로운兵器를 가진 强兵을 종아리 친다는 뜻, 孟子에 있는 말임

으면서 답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경륜(經綸)은 다 이것이 허사이다. 하늘의 一陽이 우리나라에 홀로 있나니 天理는 사람의 힘으로 가히 거슬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대도(大道)가 역시 우리나라에 있나니 사람의 대도는 병력으로 모두 멸하지 못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너희 땅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이치가 소소(昭昭)하니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밀유(密諭)²²⁸⁾가 閔將에게 비밀리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만약 밀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왕사(王師)²²⁹⁾이지 의병이 아니니 의병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의리로 일어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알았다면 민장으로 하여금 먼저 밀유를 쓰고 다음에 전령을 써서 一國에 포고하게 하여 영(令)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역명(逆命)으로 참하였을 것이니 어찌 외로운 성에 홀로 앉아 스스로 패망을 맞이하겠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럴 것 같다고 하였다.

저것이 묻기를 같이 수감된 자 가운데 아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申鉉斗 南敬天 두 사람은 잡혀 온 후 처음 알았고, 유준근과 이석과 문석환 세 사람은 본래부터 친한 사람들이고 그밖에는 모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中軍 李世永²³⁰⁾은 어디에 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중군의 집은 어느 곳이며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일을 같이 한 사람인데 거주하는 곳과 어느 집 자제인지를 알지 못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의리는 같으나 일은 같이 하지 않았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참모장이 되었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참모장은 홍주 옥중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억지로 이름지은 것이니 나는 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또 저것이 말하기를 네가 남포사람인데 같은 道와 같은 시골 사람을 알지 못

228) 임금이 비밀리에 내린 글.

229) 왕의 정식 군대

230) 이세영(李世永, 1869~1938) 아산군 음봉면 신희리 출생. 1896년 을미 홍주의병에 가담하였고, 1899년에는 부위(副尉)가 되어 친위대 부관이 되었다. 병오 홍주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종신 유배형을 당하였으며 석방 후에는 성명학교(誠明學校)를 세웠고 만주에 망명해서는 신흥학교 등을 세우고 독립 운동을 하였다.

하며 어찌 참모장을 아니 하였다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서울의 士大夫이다. 충청도 시골로 내려간지가 불과 10년인데 유행하는 풍속과 더불어 화합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독서를 하였으며, 또 交遊하는 것을 끊었으니 어찌 같은 시골 사람을 모두 알겠는가. 또 참모는 대장의 막하(幕下)이니 내가 비록 하나의 士人이나 閔台가 감히 나로서 막하의 任員을 하게 할 수 없고, 비록 그 참모의 책임을 맡기고자 하였더라도 내가 즐겨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사람들에게 탐문하여 보면 가히 알 것이다. 만약 탐문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너는 마땅히 사형을 당하여야 한다.

이어서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죽는 것은 진실로 내가 원하는 바이니 무엇이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까닭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오적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네가 오적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묻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괴수는 박제순(朴齊純)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 朴齊純을 괴수라고 하는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 역적놈은 나의 선생의 자식²³¹⁾으로 위인이 준매(俊邁)²³²⁾한 까닭으로 괴수라고 이르는 것이다.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李址鎔이니라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그런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의 從姪이기 때문이다. 저놈이 임금의 至親으로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그 다음은 누구인가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先後가 없느니라. 네가 만약 오적을 보거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니 저것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것이 말하기를 물러가 쉬거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조식밥과 의복과 약물과 지필묵 4건을 들이게 허락해달라 만약 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絶食을 하고 죽으리라 하니 저들이 허락하였다.

사령부 감옥에서 면담 최익현도 끌려와 함께 간혀 있음을 알았다.

그 날로부터 나의 밥이 비로소 들어왔으니 족척지구(族戚知舊)간에서 보낸

231) 박제순은 세도정치기의 세도가인 반남 박씨의 후손이며, 그의 아버지 朴洪壽가 윤석봉 이 유증교와 김평묵에게 나아가 수학하기 전의 스승이었다.(윤석봉 행장, 문과방목)

232) 재주가 뛰어나. 박제순은 188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합격함

것인데 누가 보낸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다음날 아침밥 편에 家兒²³³⁾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밥 가운데서 나왔다. 재차 취조를 당한 뒤에父子가 서로 만나보기를 청하였더니 저것이 굳이 거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부자는 천성이니 하루동안에 별안간 죽으면 부자의 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저 왜인이 말하기를 정리(情理)는 그런 것 같으나 법의(法意)가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하루는 아침에 수직하던 왜병이 조각 종이에 勉菴先生의 성명을 써서 창문사이로 보여주거늘 놀라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문기를 어느 날 이곳에 오셨는가 하니 왜병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왔다²³⁴⁾고 하거늘 이에 같이 수감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지금 이후에야 죽을 곳을 얻었도다. 閔將이 도망쳐서 숨은 까닭으로 저것들과 더불어 서로 힐난(詰難²³⁵⁾)하는 즈음에 수치가 심하더니 마침내 이 노인이 같이 수감되었으니 만장(萬丈)의 영광이 생긴다. 오늘 이후 문초하는 처지에서는 諸君들 역시 勉翁으로 주장(主將)을 하라 하였다.

다음날 문초하는 마당에서 내가 말하기를 최판서를 어찌해서 잡아왔는가 하니 저것이 말하기를 의병을 일으킨 까닭이다.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매양 나를 민장군 막하로 여기는데 나는 본래 민장의 휘하가 아니다. 내가 최대감과 더불어 40년 구교(舊交)로 지금은 선생으로 대하나니 가히 살아서는 뜻이 같고 죽어서는 전하는 것을 같이 할 정의(情誼)이다. 오늘의 일에 이르러 사생영욕(死生榮辱)의 의리를 홀로 달리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로서 최대감의 참모를 하게 한다면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인하여 勉翁이 수감된 곳을 찾아가 보게 하기를 청하니 왜병이 엄히 금하여 가히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君師父는一體로서 그 있는 곳에 따라서 죽기도 하는 것이니 우리 아이가 밖에 있으면서 아버지 보기를 청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내가 안에 있으면서 스승을 보고자 하는데도 허락을 하지 않으니 가령 우리 군주가 계신다해도 너희들은 허락하지 아니하겠는가. 천하에 어찌 人道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倭酋 하나가 말하기를 공은 賢人이라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현인은 聖人の 버

233) 養子 尹秉源을 말함

234) 최익현은 전라도 태인에서 제자 임병찬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압송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 최익현은 석방되지 못하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가 殉節한다.

235)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묻고 따지는 것

금가는 것이니 어리석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 또 말하기를 학자이십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옳다 라고 하였다.

【3차 심문에 일본 침략의 부당성으로 대응하였다】

3차 취조를 하는데 大義는 한결같았다. 종말에 가서는 倭酋하나가 나에게 이르기를 일본이 年來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것은 귀국이 천하에서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일본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의병을 일으켜 양국이 교섭하는 일을 해롭게 한다 하거늘 내가 기운을 내어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무슨 보호가 있었느냐 백성들의 국모를 시해(弑害)하고 백성들의 임금을 수감하는 것이 이것이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年前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할 때 우리나라 사람을 몰아 구덩이를 파고 말뚝을 쏘아 결박을 해서 먼저 총포의 탄환을 받아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보호한 것인가.

마관조약(馬關條約)²³⁶⁾이 견고하기가 金石과 같고 밝기가 日星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이등(伊藤)²³⁷⁾이 그 약속을 변개(變改)하여 통감을 두고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을 못하게 하였고 각 항구에 이사(理事)를 나누어 두어 우리 방백 수령(方伯守令)으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으며 각국 공사(各國公使)를 파직해 보내어 하여금 공론이 있지 못하게 하였고 오적과 十部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광산(鑛山)에 이르러서는 백성을 옮기어 국재(國財)로 하여금 고갈하게 하였고 인종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였으며 우리 都城의 民家を 헐어 모두 너희들의 집을 만들었고, 공해(公廩)를 빼앗고 들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었으며, 관제(官制)와 법령(法令)을 하나같이 너희나라 법식과 같이 하였고,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종을 꾸짖듯이 돼지를 질타하듯이 하였으며, 우리의 의관을 훼손하여 모두 너희들의 법과 같이 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천지의 법상(法象)이 양(陽)은 높고 음(陰)이 낮은 것은 제왕의 家法이요 중화를 존숭하고 이적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것인데, 이런 구분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는 의관(衣冠)과 안으로는 지행(志行)

236)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오 사이에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임을 확인하였으나 청의 간섭을 배제한 일본의 침략 의도가 들어있다.

237)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

에 의해서다. 피발(被髮)²³⁸도 오히려 오랑캐 풍속이거늘 하물며 삭발(削髮)²³⁹이겠는가. 상의하상(上衣下裳)과 방령원매(方領圓袂)²⁴⁰는 의복의 제도인데 너희들의 입는 옷이 이런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五姓과 五倫은 이것이 사람의 뜻과 행실인데 너희들의 풍속은 병기(兵器)의 편리(便利)로써 능사(能事)로 여기고 화물(貨物)의 신기(新奇)한 것으로써 양재(良才)로 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기만하고있으니 이것이 과연 보호해서 그런 것인가. 하니

저것들이 말이 막히었는지 다른 말로 돌려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된 말이 여기에 이르는가. 하거늘 내가 소리를 엄숙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안의 내용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 사람이 나를 물러가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3차 문답에 뜻이 다하고 말이 고갈되고 피차 거친 것이 생겨 별달리 한가지 결론에 돌아갈 수 없으니 다시는 나를 부르지 말라 하였다.

【감옥에서 왜병에게 시를 지어준다】

감옥에 있는 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45일이다. 새벽과 저녁에 매양 경전(經傳) 가운데 있는 의리 문자를 외웠는데 저 사람들이 소리와 뜻을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혹시 자기들을 원망하는 일로 알고 엄히 꾸짖어 금지하였다. 혹 시구(詩句)을 읊조리면 역시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사사로이 서로 말하는 것도 이미 심하게 금하니 대개 그 나라의 법이 이와 같다고 한다.

그 가운데 영산(永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왜인이 사람됨이 순수하고 어질어 우리들에게 글을 읽고 시를 짓기를 청하였다. 시가 이루어지니 이식이 곁에 있으면서 시를 읊조리는데 소리가 조금 높았다. 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묻거늘 시를 지었다고 대답하니 저것들이 보여주기를 더욱 청하거늘 이식이 말하기를 저것이 시를 보고 노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이미 死地에 들어왔으니 저것의 노하는 것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 보여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이식이 보여 주었다. 시에 가로되

238) 머리를 풀어 트림

239) 머리를 깎음

240) 위에는 저고리, 아래는 치마, 모진 것, 둥근 소매

나라에 장차 일이 있음으로 해서 하늘이 사람을 내려보냈는데
 한 조각의 외로운 성을 가지고 더러운 티끌을 씻어 버리고자 하였지
 어떤 마음으로 뜻 있는 선비가 모두 재액을 같이 하였는데
 가히 웃기는구나 장군이라는 자가 홀로 몸을 도망하여 재액을 면하였도다.
 죽기 전에는 마땅히 옛 것을 지키고
 살은 뒤에는 다시 새롭게 도모하리
 대의를 펴지 못하였으니 어디를 쫓아 호소하겠는가
 낮이나 밤이나 성스러운 主上이 참되시기를 우러러 바라노라
 또 가로되
 한 방 감옥 속에서 수 십일을 머무르니
 지나가는 재액은 어느 때 비로소 나갈 것인가
 어지러운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것은 지혜와 용감함이 아니구나
 장부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춘추대의를 잡아야 한다네
 사망의 많은 선비들이 연옥(燕獄)을 같이 하였는데
 하나의 외로운 신하가 홀로 초수(楚囚)²⁴¹⁾로 흐느끼누나
 험한 길을 밟아오면서도 평지같이 보이니
 안심하는 이외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
 또 가로되
 머리에는 쓴 관이 없고 몸에는 두루마기가 없으니
 두루 수인(囚人)을 상고하건대 옛날에도 드물었구나
 황패(黃覇)²⁴²⁾는 옥중에서 글을 스스로 읽었고
 소랑(蘇郎)²⁴³⁾은 해상에서 기러기가 일찍이 돌아왔네
 작은 표주박이 간신히 들어와 빈 구멍을 통하니
 온전한 몸은 겨우 용납되어 한자의 삽작을 잠기었구나
 하늘이 남은 해를 빌려주어
 살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석양 낚시터에서 낚시를 당길 것일세
 라고 하였다.

241) 타국에 사로잡힌 자. 초나라 항우가 진시왕에게 옥중에 수감된 사실에서 나온 것.

242) 한무제 때 사람으로 옥중에서 나와서 丞相에 이른 인물

243) 송나라의 문장가 東坡蘇軾 즉 蘇東坡를 말함

永山이 받아서 본 뒤에 조각종이에 써서 보이기를 공 등(公等)은 충신의사(忠臣義士)이시니 가히 공경하여 승복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답하여 쓰기를 충신의사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면 어찌하여 잡아 가두었느냐. 하니 永山이 말하기를 국법이 그리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도 병이지심(秉彝之心)²⁴⁴⁾ 같은 것은 저들이나 우리가 일반임을 가히 볼 수 있었다.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人才라 하고, 柳濬根을 가리켜 말하기를 名士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초에 답할 적에 언사(言辭)가 정직하였던 까닭이다.

홍주로부터 서울 사령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나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다만 내가 늙었다 것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나라 풍속에 학문지사(學問之士)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였다 한다.

아-섬 오랑캐의 인도(人道)가 없는 자로서도 오히려 학문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거늘 어찌해서 우리나라의 환장역두(換腸易肚)²⁴⁵⁾한 자들은 의병을 칭하기를 비도(匪徒)²⁴⁶⁾라 하고, 소위 장수의 직책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는 병대(兵隊)를 인솔하여 토벌하는가. 또 기타 시대의 무리들로 조금 빼어난 자는 말하기를 시세(時勢)를 헤아리지 못하고 임금에게 큰 부끄러움이 되고 나라에 큰 해로움이 된다고 하여 의병을 공격하느라 겨를이 없는데, 오직 도성아래 시정(市井)사람들과 여대주졸(輿臺走卒)의 천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의병을 사모하고 지극히 가엾게 여기니 식견이 서로 반대됨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동안의 감옥 생활을 돌아보며】

그 사이에 곤궁한데 처하여 지필(紙筆)로 가히 기록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만큼이며, 자리 없는 땅에 팔을 구부리고 드러누운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혹 한 때와 하루를 밥을 먹지 못한 것이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밤이 새도록 자지 못하고 무릎을 붙이고 앉은 것이 역시 몇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머리를 빗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한지가 40 여 일인데 터럭은 훌어지고 옷에는 이가 생기니 가려움을 긁어 피부가 상해서 전체가 문둥이가 되었으

244) 하늘에서 정한 상도(常道)를 지키는 마음.

245) 창자가 바뀌고 배가 바뀌어진 사람 즉 마음이 변한자.

246) 떼를 지어 돌아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의 무리.

며, 손톱은 각지 아니하여 그 큰 것이 一寸이나 되는 것 같고, 입은 양치질을 아니하여 파가 흐르는 것 같으며, 얼굴은 씻지 못하여 때 자국에 먼지가 생기고, 왜놈들에게 꾸짖음과 욕설과 주먹과 발길질을 당하지 아니할 때가 없었으나 태연히 있으면서 한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혹 평일 소득(所得)이 경전(經傳) 가운데 동심인성(動心忍性)²⁴⁷⁾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타고난 기질이 심히 약하여 주림과 배부름과 추운 것과 더운 것에 조섭(調攝, 몸조리)을 조금만이라도 잘못하면 따라서 병이 생겼는데 두어 달 사이에 하나의 작은 병도 없었으니 혹 신명(神明)이 묵묵히 도와서 그런 것인가. 수 백 명의 수감된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나와 勉翁이 홀로 이 욕을 면한 것은 우리들의 덕이 성인의 만 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는데 저들의 악한 것이 역시 광인(匡人)과 환퇴(桓魋)²⁴⁸⁾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석방되었으나 마음은 편치 않다.

5월 22일에 불러서 가보게 되었다. 勉翁의 일을 물으리라 생각하였는데 사령부에 이르니 왜추가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홍주와 남포 두 고을의 보고를 본즉 노인의 말이 과연 대단히 어긋나는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석방하여 내려가게 하니 뒤에 만약 민종식과 같은 사람이 있거든 다시는 이런 일에 관계하지 말라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이런 말은 모름지기 말하지 말라. 비록 열 번의 병이 다시 일어나도 곧 내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니 비록 참여하지 아니하고자 하나 의병의 무리가 어찌 나를 놓아두겠는가 라고 하였다.

倭酋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고 작별을 하니 그것들 역시 人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다시 사령부로 들어가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별을 하고자 하니 왜병이 굳이 거절을 하였고, 또 勉翁을 보고자 하다가 역시 뜻대로 안되어 내가 말하기를 멀리 서서 그 안색(顔色)만이라도 보고 가려 한다. 하니 왜인이 성난 눈으로 흘겨보면서 말하기를 범람이 이와 같아 가히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247) 孟子 告子下나오는 것으로, 하늘이 어떤 고난을 내렸을 때 마음을 분발하고 성질을 잘 다스리면 더욱 聖人の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

248) 공자가 匡땅을 지나는데 匡人이 공자를 陽貨로 알고 포위하고 욕을 보였으며, 또 공자가 檀木 아래에서 강론하는데 桓魋가 공자를 죽이려고 檀木을 베어 넘긴 고사.

이에 내가 꾸짖어 말하기를 너의 법이 이와 같지만 이곳은 우리나라 도성 안이니 어찌 너의 나라 법을 시행하는가. 人情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 동안의 일을 기록하다】

사차(私次)에 나와 앉으니 원근에 사는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위로하거늘 내가 대답하기를 스승과 친구와 더불어 죽고 사는 것을 같이 하지 못하고 먼저 석방되었으니 마음이 심히 불안하여 이른바 벗어났어도 구류된 것만 같지 못하고, 살았어도 죽은 것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심정이다. 하고 가마를 타고 곧바로 묘노(墓奴)²⁴⁹⁾ 정금용(鄭金龍)집에 이르니 족척사우(族戚士友)가 많이 찾아왔다. 의관(衣冠)과 대이(帶履)를 사방으로 구하여 하루를 머물고 사동(社洞)에 있는 구종(具從)²⁵⁰⁾의 집에 이르니 서울과 시골에 사는 사우들이 찾아와서 보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 분분하게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여 6월 5일에 고향 고곡(高谷)²⁵¹⁾으로 즉시 돌아와 아버지 묘소에 전배(展拜)하고 한바탕 통곡을 한 뒤에 분암(墳庵)²⁵²⁾으로 돌아와 앉아서 흠어진 정신을 억지로 거두어 그 동안의 전말(顛末)을 간략히 기록하니 오직 보는 자가 재량으로 선택하는데 있다.

영력(永曆) 260년(1906년) 병오 6월 7일에 삼희당 병든 늙은이는 급히 초하노라

부록

〈홍주 倭兵所에서 供招한 말²⁵³⁾〉

남포처사 윤모(尹某)가 말하기를 어리석은 나는 본래 서생(書生)으로서 병사(兵事)를 알지 못하는데 의병대장 민종식이 맨손으로 거사한다는 말을 듣고 그 의리를 사모하고 그 정성에 감복하여 장차 한번 마나보고자 하는 즈음에 의병대장이 이번 4월 초에 기(旗)를 세우고 의병을 인솔하여 우리집 문 앞을

249) 남의 묘를 지키면 보살피는 사람. 묘지기

250) 具氏姓을 가진 戚從 兄弟를 말함이니 尹錫鳳의 外家가 綾城具氏였다.

251)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252)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묘소 아래에 지은 집, 일종의 묘소 관리사이다.

253) 이 부분은 홍경일기의 본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홍경일기의 책갈피에 2장의 종이에 써서 보존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다.

지나가니 그곳이 한천시장(寒川市場)이다.

민중식이 사람을 보내어 만나 보기를 청하는 까닭으로 의리에 감히 앉아서 사양하지 못하고 즉시 나가서 위로의 말을 물은 후 거병(擧兵)의 대의를 물으니 閔將이 답하기를 근일의 5條新約을 도로 되찾고 매국 오적을 먼저 참(斬)할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답하기를 대감의 뜻은 크시나 일이 성공하기 어려우니 어찌하시겠습니까. 민장(閔將)이 말하기를 성패이둔(成敗利鈍)은 감히 미리 예측할 것이 못되나 나의 뜻은 만 번 죽을 계획을 내어 나의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이와 같은 대사(大事)를 거행한 것입니다. 하거늘 내가 기뻐하면서 대답하기를 이와 같다면 누가 장군의 의리에 감동하여 탕화(湯火)에라도 용맹스럽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작별을 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閔大將은 곧바로 남포읍으로 들어가 몇 일 동안 머물다가 홍주로 발행(發行)한 뒤에 여러 차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여 내가 홍주로 오기를 요청하는 까닭으로 어리석은 나의 소견으로 가서 한번 군세(軍勢)를 살펴보고 주책(籌策)을 간략히 드리고자 하여 금월 초6일에 홍주성 안으로 들어갔다.

영중(營中)을 관찰한 즉 요지(要地)의 근거(根據)가 남포보다는 나으나 군사제도(軍師制度)가 연습되지 못하여 통제가 없었고, 사우(士友)들이 책략을 드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으로 마음 속으로 심히 불만스럽게 여기어 즉시 돌아가기를 청하고, 또 사례(謝禮)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집에 계시어 감히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閔將이 말하기를 정세(情勢)가 그러하나 이미 행차를 하시었으니 하룻밤 유숙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하였다.

이날 밤 새벽이 되어 성이 과연 함락되어 패망하니 민장(閔將)은 사기(事機)를 알리지 않고 성을 나가 홀로 도망쳐 버렸으며, 나는 달도 없는 깊은 밤에 산천이 생소하였다. 다만 삼종질 용원(容源)과 더불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훗날 불길을 면한 이웃집에 있다가 마침내 日兵에게 잡히어 지금까지 수감되어 장차 사경(死境)에 이르렀으니 국사(國事)에 무익한 것이 많고 늙은 어머니에게 죄를 얻은 것이 너무 크다. 비록 죽은들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의병 진영에 머물러 있는 지 겨우 하루인 까닭으로 진중에 모인 자들을 알지 못하고 다만 軍師長 金相憲과 中軍 李世永과 더불어 두어번 말을 했을 따름이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알지 못하며 모든 사무도 다 살피지 못하였다.

이미 閔台와 더불어 두어 차례 면접(面接)을 하였은 즉 어찌 가히 의려(義旅)를 알지 못한다고 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위로는 장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였고 아래로는 졸도(卒徒)의 행오(行伍)에 충당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미 나를 괴수라고 하여 억지로 참모대장이라 이름을 한즉 비록 이것이 잘못 인정된 것이지만 만약 죽는 날에는 우리나라 3학사의 영혼과 같이 놀 것이고, 혹 살아난다면 김청음(金淸陰) 선생의 묘소로 가서 참배할 것이니 다시 무엇이 한이 되겠는가. 다만 너희들의 죽이고 살리는 것을 기다릴 뿐이니 다시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VIII. 웅천천의 치수

1. 남포 대천장(大川場)의 명칭 연원이 된 大川(熊川川)

남포현의 대표적인 시장을 대천장(大川場)이라고 한 것은 조선시대 웅천천을 대천 [한내] 이라고 부르는데서 연유하며 이 대천 주변에서 가장 발달한 취락이 웅천읍 대천리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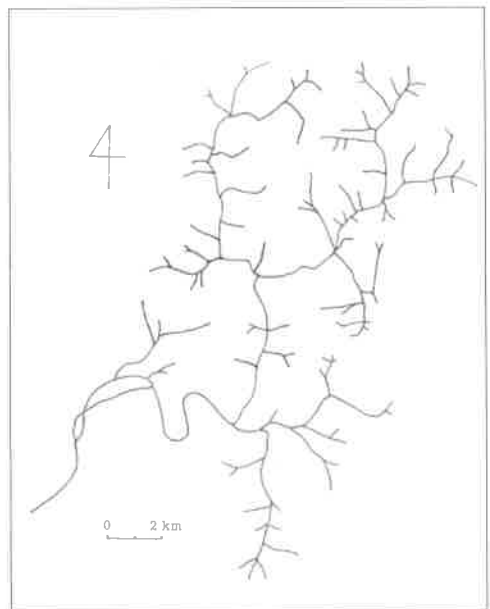
웅천천은 성주산 줄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길이 약 36km의 하천이다. 하천의 한 줄기는 문봉산 밑에서 발원하여 성주면 성주리, 개화리를 통해 흐르고, 다른 한 줄기는 성태산 남쪽에서 발원하여 부여군 외산면을 통하여 남남서 쪽으로 흐른다. 성주리 개화리를 통하여 흐르는 하천은 중생대 대동계 남포층군의 중심지에서 발원하여 흐르기 때문에 깊은 계곡을 급하게 흐른다.

따라서 하천의 바닥에는 원마도가 비교적 높은 자갈이 퇴적되고 곳곳에 바위가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의 평지는 좁다. 개화리 남쪽에 이르면 동쪽으로 90° 회전하여 도화담에 이르러 구조선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흐른다.

외산면을 통과하여 흐르는 하천 줄기는, 발원지는 남포층군 지역이지만 상류지역이 운모편암류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평하게 흐르다가 남포층군 퇴적암 산지를 절단하면서 부터는 좁은 계곡을 흐른다. 이후 계곡은 좁아지고, 하천 바닥에는 원마도가 높은 큰 자갈이 퇴적되고 곳곳에 큰 바위가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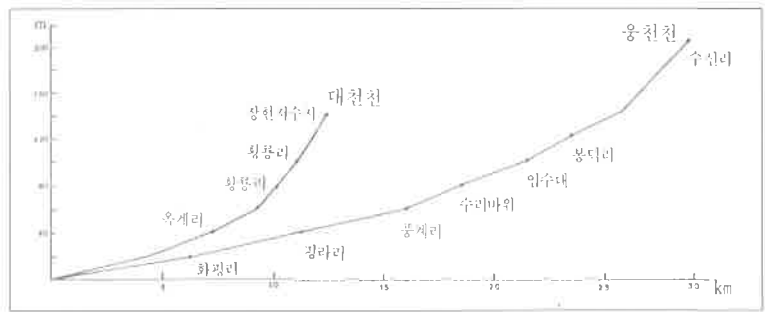
부여군 외산면 소재지인 '임수대' 마을에 이르면 서쪽으로 90° 회전하여 도화담에 이르러 성주리 쪽에서 흘러오는 하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도화담에서 두 하천이 합류한 후 남쪽으로 흐르는데 이때부터는 계곡 사이가 넓어 주변에 많은 논이 개간되었다. 하천의 바닥은 원마도가 높은 자갈이 퇴적되어 있으며, 곳곳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다.



웅천천의 하계망

중생대 퇴적암 지역을 남류하던 웅천천은 미산면과 웅천읍, 주산면 접경지역에서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면서 퇴적암 산지를 절단하고 웅천읍 성동리로 흐른다. 감입곡류된



웅천천과 대천천의 경사도 비교

구간은 깊은 계곡을 이루고 있으며 하천 바닥에 큰 바위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좁고 깊은 구간을 이용하여 보령댐을 축조하였다. 보령댐이 건설되어 홍수 예방 뿐 아니라 보령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각 시군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하여 평소에는 웅천천 하류의 수량이 적다.

감입곡류된 구간을 지나면 넓은 평야가 나타나, 하천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퇴적이 이루어져 큰 하중도(河中島)를 2개나 형성하였다. 상류 쪽에 있는 하중도에는 큰 마을이 들어서 있으며(웅천읍 성동리 밭성굴), 하류 쪽에 있는 하중도에는 석공장들이 들어서 있다(웅천읍 대천리 숙쟁이). 이 하류 쪽의 하중도인 숙쟁이 북쪽에 취락이 생기고 시장인 대천장이 만들어졌다. 하중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하류는 간석지와 이어져 예부터 간척사업이 이루어졌고, 웅천천에서 용수를 공급하였다.



웅천천 하류

웅천천은 물이 맑아 과거에는 은어(銀魚)가 많았다. 19세기 초의 임원경 제지 19세기 말을 충청도읍지 등에도 남포대천장의 주요 거래 품목에 은구어(銀口魚)가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도 은어는 지역 웅천천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궁중의 진상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일제시기에 들어와서도 은어는 계속 서식했고 국내는 물론 외지에서도 주문이 쇄도하여 주민들이 많이 잡아서 멸종 위기에 처해서 포획을 금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웅천천에는 은어가 유명했음을 알려준다.

○ 1928. 7. 18 중외일보

〔銀魚의 명산지 웅천〕

충남 웅천의 특산인 은어(鮠魚)는 今春의 가뭄으로 인하여 시냇물이 말라서 거의 멸종지경인데, 단속이 심해서 잡다가 걸리기만 하면 과료라 아주 잡을 생각을 앓는다고

○ 1934. 4. 24 동아일보

〔忠南名産의 銀魚, 捕取禁止區域 延長〕

충남의 명물인 보령군 웅천 은어는 양어의 목적으로 웅천대교로부터 600메트 간은 포획을 금지하였는바, 금년부터는 더욱 은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종래 600여메트를 1천메트로 연장하였다한다.

○ 1934. 9. 29 조선중앙일보

〔銀魚 잡고 과료〕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 ○○○는 기한이 지난 근일에 이르러서 은어를 잡고 사실이 발각되어서 지난 25일에 과료 10원을 물었다 한다.

○ 1935. 7. 17 매일신보

【公州】熊川の 銀魚 年産五千圓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창리 성동리일대 하천에는 銀魚 所産地로 매년 소득액이 5천원에 달하여 농가부산물로 막대한 援助가 있다는바, 금년은 더욱 수확이 ○○하여 ○○○○에는 ○의 웃음○○○있다는바, 이곳의 은어는 國內는 물론이고 内地에서까지 주문이 쇄도한다고 한다.

이렇게 유명하던 웅천천의 은어는 1970년~80년대 대창리·대천리에 석공장이 들어서고, 석공장이 전기에 의한 연마식 기계로 돌을 가공하면서 돌을 같은 물이 무차별적으로 웅천천으로 흘러들어 은어는 점차 멸종되어 갔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웅천천에 흘러든 돌을 같은 물이 하천을 오염시켜 청정한 물에서만 자라던 은어가 자취를 완전히 감춘 것이다. 뒤 늦게 당국과 석공장에서 정화시설을 갖추고 웅천천의 오염을 줄여 나갔지만 한번 없어진 은어는 더 이상 서식하지 않았다.



홍수시의 웅천천(2011. 8)

2. 웅천천의 수리시설 노전보(洑)²⁵⁴⁾

웅천천은 예부터 대천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식수원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주변의 젖줄 역할을 하는 하천이다. 오늘날도 웅천천 상류에 보령댐을 건설하여 충남 서부지역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웅천천의 홍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를 건설하여 주변 농경지에 효율적인 관개를 하고 있다. 일제시기의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과거의 웅천천의 역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1939 9. 21 동아일보

〔長項水道施設에 保寧郡民 嘆願〕

254) 황의호, 『保寧의 水利梗』, 대천문화원, 2007.에서 요약 정리함

충남 보령군 웅천면내에서 성동(城洞) 수부(水芙) 대창(大昌) 대천(大川) 노천(蘆川) 5개 동리 광야에 농작물은 부여군으로부터 보령군 미산면을 통하여 내려오는 시냇물을 이용하여 각 동리에서 「보」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바, 今春부터 장항항에서 수도를 시설하려는 데 수원지가 적당한 곳이 없으므로 멀리 보령군 미산면과 주산면계에 있는 “매바위”골목을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수도를 이끌어 간다는 소문이 전파됨에 전기 5개동의 천여 호에 딸린 중보(中湫) 주창보(舟滄湫) 사평보(沙坪湫) 화정보(花汀湫) 대룡보(大龍湫) 장연보(長淵湫) 녹수보(綠水湫) 등의 각각 보작인들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 중이라 하며 만일에 저수지가 되어서 수도를 이끌어간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수원이 큰일이라고 하여 불안에 극도로 싸여있다고 한다.

깨끗한 웅천천의 물을 장항의 수원지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에 웅천천의 보를 사용하여 농사짓는 농민들이 동요하는 내용이다. 장항은 1930년대 초 일본인 카타끼리(片桐)과 미야자키(宮崎)에 의해 간척되기 시작하면서 농경지화 되었고 이어서 장항제련소 장항항 건설 등으로 크게 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이 장항 지역의 수원지로서 웅천천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웅천천 주변의 농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대천리 등 웅천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하천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오늘날 매바위 근처에 보령댐이 만들어져 충남 서부 지방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니 이 당시의 계획이 실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웅천천 하류의 본류와 지류에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보(湫)가 건설되어 약 475정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물레방아를 가동시키던 보나, 소규모의 보는 폐지되고 콘크리트로 만든 대형 보가 현재까지도 넓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보는 대천리의 노전보로 웅천천의 본류를 막아 137정보의 간척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조사된 웅천천 하류의 보는 다음과 같다.

웅천천 하류의 보

보 이름	위치	몽리지역	현재 이용 여부	몽리 면적 (ha)	비고
공자보	미산면 평라리	주산면 동오리,삼곡리, 화평리	○	85	웅천천 본류에 건설
증판보	주산면 동오리	주산면 화평리	○	24.6	화산내 마을에 용수 공급, 웅천 천 본류에 건설
배챙이보	주산면 화평리	웅천읍 성동리 안성굴	○	4	보령화력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 웅천천 본류에 건설
한전보	웅천읍 성동리 안성굴		○	-	용수저장, 몽리구역없음, 웅천천 본류에 건설
삽재보	웅천천 성동리 밧성굴 위뜸	웅천읍 성동리 대창리	○	중보, 사평 보에 물 공급	성동리 앞내에 있는 여러 보와 사평보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근래에 만든 보. 웅천천 본류에 건설
방아보	웅천읍 성동리	성동리 밧성굴	×	물레 방아 전용	물레방아는 돌리지 않으나 보는 남아있고 물도 흐름. 앞내를 막 음.
중 보 (큰보)	웅천읍 밧성굴 위뜸	웅천읍 성동리 대창리 일부	○	98	앞내를 막음
수문들보	웅천읍 성동리 밧성굴 중뜸	웅천읍 성동리 내평들 남쪽	×	1	현재사용하지 않음, 중보로 편 입, 앞내에 있는 보.
늑수보	웅천읍 성동리 밧성굴 아래뜸	웅천읍 성동리 밧성굴 아래뜸 남쪽 논과 물레방아	○	2	물레방아는 사용하지 않음, 앞 내에 있는 보
흙 보 (새보)	웅천읍 성동리 아래뜸. 용두부 리 북쪽	웅천읍 대창리 새터 일원	○	15	철길을 통과하여 새터에 용수 공급앞내에 있는 보
장 연 보 (중보)	웅천읍 대창리 새터와 사이	웅천읍 대창리 서쪽일원	○	44	대창들에 용수 공급. 진보,중보, 양희보라고도 부름. 앞내에 있 는 보
사평보	웅천읍 성동리 밧성굴 위뜸	웅천읍 성동리 밧성굴 사평 (모래들)	○	60	과거에는 앞내 입구에서 취수했 으나 현재는 삽재보에서 취수, 웅천천 본류에 있던 보

무태논보	웅천읍 성동리 맞성굴 모래들 북쪽	웅천읍 성동리 맞성굴 모래들 북쪽 일부	×	4	본류를 막지 않고 일부만 취수
노전보	웅천읍 대천리, 성동리 사이	웅천읍 노천리 간척지	○	137	웅천읍 노천리 사그내 마을에 간척지가 들어서면서 생긴보, 웅천천 본류를 막음.

1) 웅천천 하류의 간척사업

웅천천 하류 유역에 있는 대천리 대창리 노천리는 바닷물과 웅천천의 밀물이 만나는 지점이고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많은 간척지(갯벌)가 형성되어 간척사업이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결과 오늘날 까지 5차에 걸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드넓은 농경지가 만들어졌다. 웅천천 하류의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큰 보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천리의 노전보이다.

① 1차 간척

웅천천 하류의 최초 간척지로 생각되는 곳은 웅천 대창리와 노천리를 연결하는 두루다리에서 노천리 사그내 마을로 통하는 도로의 북쪽이다. 사그내 마을은 대천리 남단과 노천리 북쪽 지점에 있는 마을이다. 해발 고도로 보아 이곳도 원래는 갯벌(간척지)인데 도로가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간척지 제방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곳은 좁은 면적이고 주변의 웅천천보다 높은 곳이어서 웅천천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화락산 서남쪽의 뒤로 흘러서 웅천천에 합류하는 구룡천의 물을 막아 이용하여 간척한 것으로 보인다.

② 2차 간척

2번째로 이루어진 간척은 현재 노천리 두루다리 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다른 간척지보다 높은 곳이다. 1:5,000지형도에 의하면 해발고도는 3.5~4.2m이다.

이 2차 간척지의 서쪽제방이 1915년 측도된 지형도에 남아있다. 2차 간척지가 만들어지면서 대천리에 노전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간척지를 경작하는 데는 염기를 제거하기 위해 다량의 물이 필요한데 기존에 사용하던 구룡천의 물은 한계가 있고 주변의 웅천천은 간척지보다 낮기 때문에 부득이 1,700여m 상류에 보를 막아(노전보)물을 끌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3차 간척

1914년 축도된 지형도에 나와 있는 간척지이다. 구룡천을 서쪽으로 돌려 가라티 마을 앞으로 흐르게 하고 노천리 새터 마을 앞까지 제방을 쌓아 넓은 간척지를 만들었다. 이때까지 간척한 면적이 현재 몽리 면적의 1/3쯤 된다.

④ 4차 간척

일제시기인 1932년에 완공된 간척지이다. 이 간척지를 준공한 기념비가 세워져있어 준공연도와 간척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간척에 참여한 사람은 일본인 田中敏夫, 한국인으로는 沈宜秀, 李箕範, 李圭熙, 金奭元, 金煥冀 등 6명이다.

⑤ 5차 간척

마지막 간척사업이다. 마을에서는 2차 간척지라고 부른다. 이 간척지는 중앙대학교에서 막았는데 1966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제방만 완성되고 아직 논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1970년대 초부터 경작했다고 한다.

2) 노전보의 기원

대천리의 노전보는 그 아래쪽의 노천리 지역의 간척지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천리 지역의 간척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노천리 마을에서 보의 축조와 간척을 유추할 수 있는 마을 이름이 ‘사그내’이다. 사그내는 새로 개간한 마을에 붙이는 이름이다²⁵⁵⁾. 노천리 사그내 마을은 화락산의 서남쪽 산기슭과 웅천천의 하구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앞에는 넓은 간척지(현재는 간척지)가 있었다.

웅천천이 바로 옆을 지나지만 물을 끌어 올릴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밀물 때 바닷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약 1.7km 상류 대천리에 보를 막아(노전보) 물을 끌어와 간척을 한 것이다.

사그내라는 마을 이름은 간척지에서 왔고, 간척지는 노전보의 산물이기 때문에 노전보는 사그내라는 마을 이름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사그내라는 마을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여지도서(輿地圖書)』이다.

輿地圖書 藍浦縣

255) 강길부, 『땅이름 국토사랑』, 1997. p86

西熊川面：沙斤川里 自南門距三十里 編戶百六戶 男二百五十一口 女百九十口

따라서 노전보는 최소한 여지도서가 만들어진 18세기 중엽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지도서의 사근천리(沙斤川里) 당시 인구는 남포현의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²⁵⁶⁾. 이는 여지도서 이전에 이미 상당히 간척이 되어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그내의 思勤洞天碑(1883년)

당시의 보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은 노전보라고 칭한다. 이 보의 소재지는 대천리이지만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노천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전보로 불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 제시된 동아일보 1939년 9월 21일자 내용에 보면 웅천천의 보(湫) 들 중에 화정보(花汀湫)가 있는 것으로 보아 노전보가 일제시대에는 소재지의 명칭을 따서 화정보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노전보(웅천읍 대천리 향교말 소재)

256) 사그내 마을에 예는 1833년에 만들어진 思勤洞天碑가 있다. 洞天은 신선이 산다는 비경을 말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 노전보의 수로

노전보는 웅천천 하구에 형성된 하중도인 대천리 숫쟁이 북쪽 끝에 위치한다. 이 곳은 해발 7m쯤 되는 곳으로 140m 길이로 웅천천의 본류를 막아 작은 내 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 곳은 웅천천의 본류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 홍수 때는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이 흐른다. 따라서 이곳에는 영구적인 보 시설이 없었고, 가마니를 대어 가면서 돌과 떼를 쌓아 보 시설을 하여 물을 작은 내 쪽으로 넘겼다. 홍수가 나면 독이 터져서 다시 쌓아야 되었고, 해마다 보를 반복해서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보자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나중에는 보를 쌓지 않아도 작은 내 쪽으로 물이 넘어왔지만, 물이 많이 필요한 모내기철이나 가뭄이 심할 때면 전체를 막아야 되었다.

197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최중성 씨의 도움으로 보령관내에서는 최초로 시멘트 보를 축조하여 이후에는 보를 쌓는 일은 없어졌다.

시멘트보가 완성된 뒤에는 보 안쪽에 넓고 깊은 저수지가 생겨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게 되었다. 특히 겨울철에 보의 수문에서 참게의 어획이 많아, 노전보를 관리하는 노천리 사람들이 대천리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어 연간 70여 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①노전보에서 두룡천까지

노전보의 수문을 통과한 물은 하중도인 숫쟁이 북서쪽 끝을 438m 흘러 두룡천과 합류한다. 두룡천은 웅천읍 두룡리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비교적 큰 하천인데, 중간에 농경지가 많아서 비가 올 때나 농한기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만, 농사철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

두룡천과 합류하여 63m를 흐르던 봇물은 또 하나의 보에 의하여 물길이 연결된다. 이곳은 이 지역에서 통상 ‘오리집뒤’로 불리는 곳으로 두룡천을 막은 보이다. 이곳에 1.5m 높이로 돌을 쌓아 노전보에서 넘어온 물과 함께 두룡천 물도 노천리 쪽으로 흘러보낸 것이다. 홍수 때는 이 곳에서 물을 버려 작은 내로 흘러가게 하였다.

② 두룡천에서 두루다리까지

오리집 뒤 두룡천을 가로지른 봇물은 21호 국도 밑으로 통과하여 웅천초등학교 남쪽 범람원 중앙을 흐르면서 대천리 남쪽들에 용수를 공급한다.



웅천초등학교 앞의 노전보 수로

대천리 지역에서는 이곳이 논농사 지역이다. 이 때 수로의 동쪽은 경사가 낮지만 수로 서쪽은 경사가 높아서 이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 뚝이 넘칠 정도로 수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문을 설치하여 수위를 높인다.

웅천초등학교 운동장 울타리 아래를 흐르던 이 봇물은 과거 웅천초등학교의 보조 용수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0년대-70년대 웅천초등

학교는 1,50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여서 규모가 크고 교실 등이 많아 청소 등에 많은 물이 필요했는데, 교실 바닥을 닦는 손걸레를 빨기 위한 물과 구식 화장실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한 물을 학생들이 양동이에 수없이 길어다가 사용한 물이었다. 현재 이 부분은 복개되어 흔적을 알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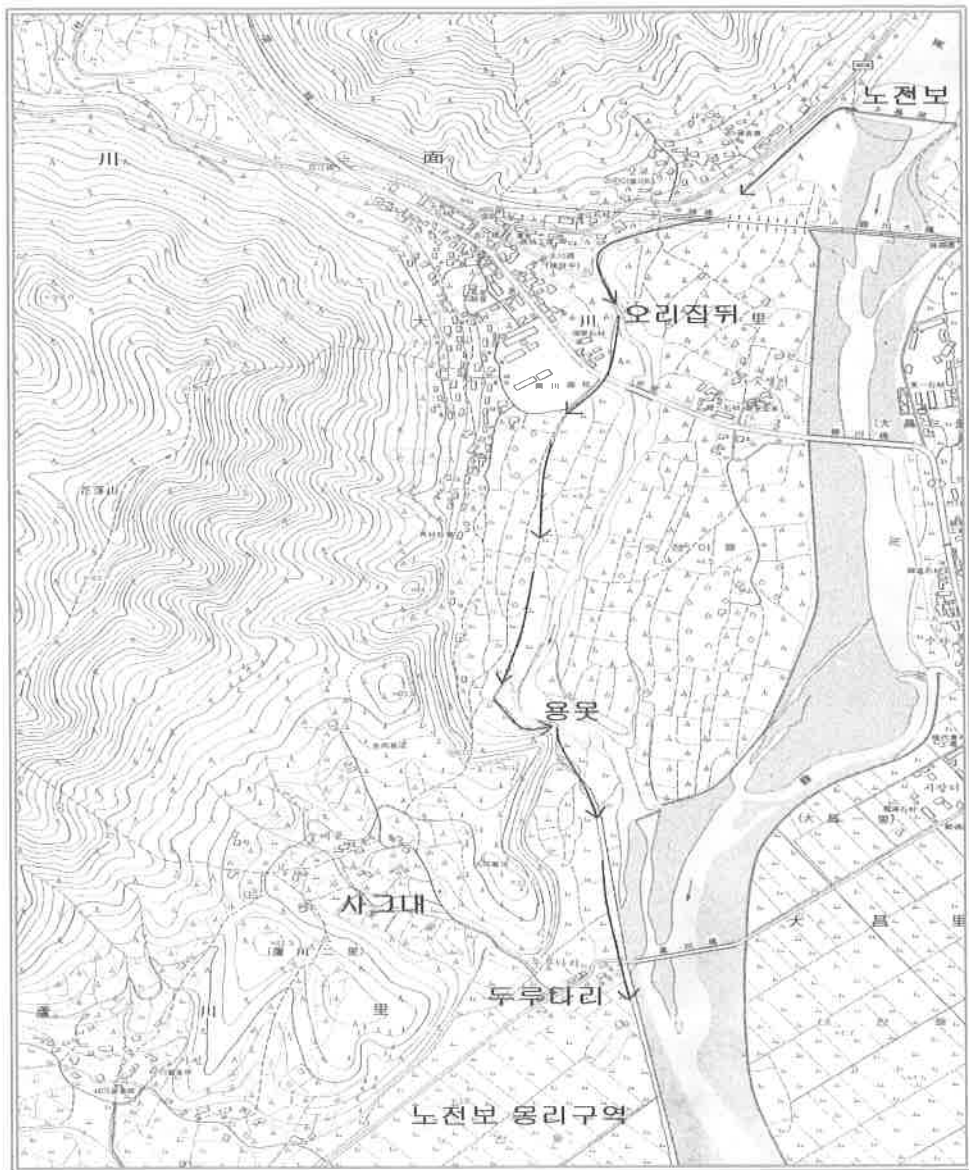
노전보의 수로에서 가장 험한 곳이 웅천초등학교를 지나 남서쪽으로 범람원을 흘러 그 하류지점에 위치한 용밑 구간이다. 이곳은 작은 내가 점판암 암벽과 만나 방향이 바뀌는 곳으로 급경사의 절벽과 깊은 못으로 이루어져있다. 수로가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바위 절벽에 홈을 파고 용못 쪽에 흙과 돌을 쌓아 수로를 통과 시켰다. 두룡천에서 이곳 용못까지의 거리는 781m이다.

용못 구간은 홍수 때 위험했기 때문에 용못에 도달하기 직전에 수문을 만들어 홍수 때는 작은 내로 물을 빼내었다.

③ 용못에서 두루다리까지

용못을 통과한 수로는 400m를 흘러 노천리 간척지의 동북쪽 끝이면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두루다리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수로를 통해 여기에 도착한 물은 웅천천 하류지역의 1-5차에 걸쳐 간척한 드넓은 간척지에 물을 공급한다.

두루다리 마을에 도착한 수로는 경지정리 이전에는 일정한 수로가 없이 논에서 논을 통하여 용수가 공급되었으나 경지정리 이후에는 용배수로가 완비되었다.



노전보 수로도

이로써 대천리 노전보에서 노천리 두루다리 마을 간척지까지 노전보 보수로 길이는 1,682m에 이른다. 간척지 말단부 해발 고도가 2.2m, 노전보의 해발고도가 약 7m 정도이므로 수로의 기울기는 약 1/1000m이다.

4) 노전보의 관리

노전보는 대천리에 있지만 물을 사용하는 간척지가 노천리에 있기 때문에 노천리 지역 농민들이 수리계를 만들어 관리하며 사용하고 있다. 노천리 수리계의 물리구역은 노천리 마을 앞 간척지 전부와 대천리 웅천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들이다.

수리계의 임원과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계장 : 노천리 수리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수리계를 총괄하고 행정기관에 접촉하여 수리계원의 권리를 유지하게 하고 보조금 등을 수령하여 예산서를 작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수리계 총회에서 선출한다. 수리계에서 보수가 지급된다.

총무 : 이사라고도 부른다. 일제시대 수리계를 등록할 때는 대의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없어지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이사 또는 총무라고 부른다. 총무는 수리계의 문서를 보관하고 정리하면서 수리계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만 수문을 개폐하는 등의 일을 직접 하지 않는다. 수리계에서 보수가 지급된다.

보주 : 수문을 개폐하는 등 물리구역에 물을 공급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보주의 독점적 권한이다. 1990년대 까지 계장이나 총무보다 2배의 수당을 받았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계장과 같은 수당을 받는다. 근래에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업무가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보주라는 명칭은 수리계를 대표했던 사람의 명칭이었는데 일제시대 획일적인 수리계가 조직되면서 수리계를 대표하는 ‘계장’이 생겼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실제로 물을 공급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주’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보군 : 수리계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한보맥이 등 일거리가 많을 때는 ‘전보맥이’를 하지만 소수의 인원이 필요할 때는 보에 관하여 잘 알고, 여유 노동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10여명, 또는 5~6명의 보군을 두었으나 근래에는 대천리에만 2명의 보군을 두었다. 대천리의 노전보와 노천리의 물리구역 사에는 거리가 멀어 왕래가 어렵기 때문에 노전보가 위치하는 대천리 주민을 전적으로 고용해 쓰는 것이다.

보군에 대한 품삯은 연급제로 하기도 하고 일품으로 계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 : 총회는 1년에 1번 열리는데 농사를 다 짓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 개최한다. 지난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결산 보고하고, 신년도의 예산을 세운다.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총회 장소는 대개 노천리 가라티 마을 회관이며, 과거에는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하였으나 최근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다.

임원회 : 수리게 임원인 계장 보주 총무 외에 몽리구역 내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수리게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 6~7명이 참여하여 수리게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논의한다. 총회전에 회의를 열어 총회 안건을 논의하고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

수리게원의 부담 : 몽리구역에 농경지를 가진 수리게원은 수세를 납부해야 되고, 노동력을 부담해야 한다. 수세는 1년 중 사용한 비용을 총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마지기당 또는 평당으로 결정한다. 수세는 과거에는 현물(벼)로 부담했으나 근래는 모두 현금으로 부담한다.

용수의 확보와 배수(配水) : 가뭄 때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전보의 하천을 완전히 막는 ‘한간매기’ 공사를 한다. 가마니나 쉼 등에 모래와 자갈을 넣어 쌓아 하천에 흐르는 물을 모두 보에 끌어 모은다.

1972년 시멘트로 노전보를 만든 뒤에는 한간매기 작업은 없어졌고 보에 판자만 끼우면 된다.

노천리 수리게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배수(配水)의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가뭄이 계속되어 물이 부족하면 계장, 총무, 보주 3사람에 의해 배수된다. 특히 보주에 의해 관리된다.

3. 웅천천의 다리

1) 웅천철교(鐵橋)

가. 장항선 철도 건설

일제는 한국을 침략하면서 수탈의 수단으로 철도를 건설하였다. 오늘날도 일제의 철도 건설이 근대화 추진 시설인가 식민지 착취를 위한 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가 놓여진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 일제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철(國鐵)을 건설하는데 1899년의 경

인선 부설, 1905년의 경부선 부설 1905년 경의선 1914년 경원선 부설 등이다. 이 국철사업으로 X자망 기간 철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점차 총독부 주관의 국유철도 건설의 어려움으로 1910년대에는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여러 정보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설철도를 즉 사철(私鐵)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1910년대 초 일제의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철도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10년대 말에 이르러 1차대전 후 경기 호황으로 1919년 이후 일본 자본가들의 철도 투자가 러시를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장항선 충북선 경춘선 등이 사설 철도로 건설되기에 이른다.

1920년 2월 경남철도주식회사(京南鐵道株式會社)가 1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다. 이에 앞서 1919년 9월 천안 장항간 144km의 철도 부설권이 허가되었고 이름은 충남선이였다. 이어서 1921년 5월 천안-온양간 공사가 시작되었고 1923년 12월에는 홍성-광천구간까지 완성되어 영업이 시작되었다.

1929년 12월 광천-남포간 완성되고 대천역이 영업을 개시했다. 이어 1931년 8월 1일 남포-판교간이 완공되어 웅천역이 영업을 개시했다.

○1931. 7. 23 동아일보

京南鐵道の 忠南線全通,

경남철도에서 그동안 공사 중이던 충남선 남포 판교간 공사는 이달 말까지 준공되게 되었으므로 내 8. 1부터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 개통으로 말미암아 경남철도의 충남선은 천안에서 군산대안에 이르기까지 전통(全通)되게 되었다.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웅천역이 1931년 8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했지만 웅천역의 설치는 남포대천장이 있던 대천리에 만들어지지 않고 대창리에 만들어졌다.

철도 계획단계부터 웅천역이 대창리에 만들어지기로 한 것이 웅천시장과 면사무소 이전에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현재의 노선처럼 장항선이 웅천을 통과한다면 대천리 지역에 웅천역을 설치할 장소를 찾기 어렵다.

이어니재 터널을 지나 잔미산 북쪽 기슭을 따라내려온 철도는 대천리에서도 경사가 급한 잔미산 중턱을 통과하여 옛 시장자리를 지나자마자 철교를 통하여 곧 바로 웅천천을 건너야하기 때문이다. 이 철교를 건너서 평야지대인 대창리에 웅천역이 만들어 진 것이다.

1931년 8월 1일 대창리에서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웅천역은 1982년에

는 역사를 신축하였고 1991년에는 소화물을 취급 중지 하였다. 장항선 직선화가 이루어지면 외곽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나. 웅천철교와 성동리 제방건설

장항선 철도가 웅천지역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웅천천 하류를 가로지르는 철교가 건설되어야 했다. 웅천천은 물이 흐르는 폭도 다른 하천

에 비하여 넓지만 주변에 형성된 범람원 평야까지 감안하면 긴 철교가 필요하였다.

이 철교 공사는 1929년 봄에 설계가 완료되어 시행하게 되었는데, 성동리 입구의 성동리와 대천리의 경계지점 웅천천을 가로질러 70여 간(약 126m)의 제방을 쌓고 나머지는 철다리(철교)를 만들어 철도를 건설하기로 설계 된 것으로 보인다.



웅천역



웅천철교(하단부)



웅천철교(상단부)

이에 성동리 주민들은 홍수 때 철도 제방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아 수해가 염려된다고 조선총독부 충청남도청 보령군청 웅천면사무소 등에 진정하였다.

그러자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는 제방 20여간을 축소하고 대신 철교를 늘리기로 하였으나 그래도 철교의 교각에 막혀 물이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황시현 웅천면장이 적극 진정하여 수해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줄

것을 촉구하였다.

웅천천의 하류는 웅천읍 성동리를 북쪽으로 감아 돌아서 수부리·대천리를 지나 바다로 흐르는 하천이다. 성동리의 밭성굴 마을은 웅천천이 범람하여 만



웅천철교 원경

든 하중도로 마을의 뒷 쪽으로 웅천천의 본류인 큰 내가 흐르고 마을의 앞쪽으로는 웅천천의 지류인 작은 내가 흐른다. 그리하여 홍수 때는 마을과 인접한 앞 내가 범람하여 밭성굴에 많은 피해를 주었을 것이다. 하천의 흐름으로 보아 성동리의 밭성굴 마을은 보호사면에 해당되고 밭성굴의 반대편인 큰 내 건너의 수부리 수안 마을은 공격 사면에 해당되어 홍수 때 더 큰 피해를 입

었을 것이다.

결국 제방을 줄이고 철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했지만 성동리 주민들은 철교가 없을 때보다 홍수의 위험성은 더 커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민원을 배경으로 하면서 대천리·대창리·성동리의 경계 지점에 웅천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긴 철교가 건설되었고, 사실상 웅천천 하류에 건설된 최초의 근대식 다리였던 것이다. 6.25 때는 유엔군의 폭격을 맞기도 했으나 파괴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철교 건설로 성동리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서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홍수방지 사업을 해야 했으니 성동리 제방 건설이 그것이었다. 철교 건설 계획 당시에 성동리의 주민들이 결국 진정한 것은 철교의 제방과 교각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철교를 넓히는 것보다 웅천천과 성동리 마을 사이에 제방을 쌓아 웅천천의 물이 성동리에 달려들어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

1930년 주민 대표 임성순과 김박제가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도 직원이 나와 실측해 보니 820간(1476m)의 제방을 쌓는데 15,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안성굴 배창이에서부터 수안마을 앞까지 밭성굴 마을을 완전히 둘러싸는 큰 토목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4,000원의 보조금이 내려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수부리 수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가 변경되었다. 아마도 수안 마을

사람들은 성동리 쪽에 제방을 쌓으면 홍수 때 수부리 쪽으로만 물이 공격하여 피해가 커진다는 항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동리 쪽에서는 성동리는 물이 휘감는 안쪽이어서 자연히 제방이 형성되어 인공적인 제방을 쌓을 필요가 없을 정도이나, 다만 예전에 쌓은 원뿔이 홍수에 허물어져서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이라는 논리로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홍수가 나면 보호사면인 성동리 쪽은 보호되고 수안 쪽이 공격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이익호 웅천면장이 중재하여 교각이 있는 다리인 제중교 22간(39.6m)을 건설하고 나머지 790간(1422m)은 제방을 건설하였다. 즉 성동리 앞내로 흐르는 물이 유입되는 삼재보 근처는 제방을 쌓지 못하고 다리를 가설한 것이다.

수부리 수안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수 때 물이 분산되도록 한 것이다. 이곳에 다리 22간을 건설한 것은 홍수 때 흐르는 물이 성동리의 앞내로 분산하여 범람하면 다리를 통하여 안성굴로 탈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리하여 다리의 이름이 홍수 때 밧성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다리라고 하여 ‘생명의 다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 다리의 교각은 모두 5개로 현재도 제방 속에 들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성동리의 상습 수해를 막을 수 있었고, 수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공사는 1932년 9월 7일 시작하여 1933년 3월 9일 준공되었다. 이러한 웅천철교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성동리 제방비에 있어 자세히 알려준다.

【성동리제방사실비(城洞里堤防事實碑)】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안성굴 입구
- 건립연대 : 1933. 5
- 지은이 : 윤명오(尹命五)
- 석질 : 오석
- 크기 : 32×127×29
- 자경 : 9×9, 2.5×3
- 비고

일제시대 장항선 철도의 웅천철교 건설에 따라 성동리 아래 쪽에 제방을 건설하는 문제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의 전말을 기록한 비석이다. 성동리를 관통하는 웅천천을 성동리 아래쪽에서 제방을 쌓아서 막으면 성동리가

홍수시에 침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방의 길이를 줄이고 철교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한 내용이다.

지은이 : 윤명오(尹命五, 1856~1938) : 본관은 파평이고, 재종질 윤석봉 등과 함께 경기도 양주에서 낙향하여 웅천 노천리에서 거주하였다. 을미사변 후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이원적성 단양군수를 역임하였고, 한일합방 후에는 독립의군부 남포지역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城洞里堤防事實碑

성동리제방사실비

蓋城洞一區以雲峰來脉平遠廣開插川東來北馳流

于入海爲城洞水岸之所以界也又一小支側出流于村前卽一灌溉之溝也屢經大水連陸橫斷里古爲患築堤繼持中至破壞川口漸廣每當夏潦洪浪氾濫侵害家屋或至四五尺人命濱危況至昭和四年春慶南線鐵橋架設沮害本里水口延築七十餘間堤防者乎里爲憂陳情府道郡面矣郡守金容誠屢報本道朝會慶南社自諧社深燭地形撤二十間築堤其餘五十間尙延袤鐵橋水之停滯理固然矣面長黃始顯極陳形便于慶南社打協水害防禦之策該社延拖歲月五年六月代表任性淳金珀濟面質于本道矣後十餘日水產課長冒暑踏查時郡守面長警官入會使管區主任石塚實測八百二十餘間堤防計算一萬五千圓工費矣追後編成五千圓補助豫算但以地方費不足不則支發六年春郡守趙豐鎬課長杉山又繼審查數月廖廖代表二十一人面陳于本道確得道補助承認到付郡面趙郡守黃面長依道指示案來石塚再作八百二十間以九月末日付上申果蒙四千圓補助矣但水岸之異議工事遷延而杉山猝變設計亦一魔障也元川排流水域天作之形不容人力者也至若設計原案則歷代課長所以目睹實地丁寧指揮者也至於異議又非設計後始起者也昔日垣岸歷史昭然在目則今此復舊建築有何不可但因若干土地沮遏巨役是可得乎面長李益鎬任事於難關力主解紛建設臨時濟衆橋二十二間又築堤防七百九十八間元狀雖不盡復從此庶免巨漫豈不幸哉夫役也七年九月十七日始八年三月九日竣工此其始終顛末之大略也今當竣役不可無傳後伐石紀績任君任性淳囑余記之以其衰謝難任操觚之役辭不獲已撮要旨叙實蹟如右云爾

通訓大夫丹陽郡守坡山尹命五記 前參奉吳昌植書

代表 任性淳 吳炳允 吳亨植 任衡淳 任祥準 任碩鎬 吳炳郁 金珀濟 金麟濟 任○

宰 任興準 任璣宰 金信濟 李鍾林 金商彦 白南用 吳炳熙 吳炳壽 吳炳翊 金冕濟
任哲宰 金商哲 金達濟 吳祥圭 任喆宰 金龍濟
昭和 八年 五月 日 立

(역)성동리제방사실비

성동리 일대의 대체적인 모습은 운봉산의 맥이 뻗어내려 오다가 이윽고 평평해지며 들판이 멀리까지 넓게 펼쳐진다. 그 사이를 커다란 내가 동쪽에서 흘러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치달려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로 인하여 성동리와 수안으로 경계가 나뉘게 된다. 또하나의 작은 지류가 곁에서 나와 마을 앞을 흐르는데 일종의 관개수로인 셈이다.

큰물이 자주 나 마을을 휩쓸고 지나감에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커다란 근심거리로 여겼다. 제방을 쌓아 유지해 오던 중 냇가의 입구 쪽이 무너져서 점점 넓어지자 여름철 장마철만 되면 냇물이 불어 넘쳐 가옥이 네댓 자씩이나 침수되고 주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화4년(1929) 봄 경남선의 철교를 가설하여 성동리의 수구에 70여칸을 연장하여 제방을 쌓는 다고 하니 마을에서는 침수를 우려하여 총독부와 충남도청·보령군청·웅천면 등에 진정하였다.

김용성 군수가 여러 차례 도에 보고하고 철도회사인 경남사에 조회하니 회사에서는 지형을 자세히 살펴 20여칸을 축소하여 나머지 50칸만 막는다고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철도회사에서는 아무문제가 없을 것이라지만 철교의 구간이 늘어나므로 물이 막혀 제대로 빠지지 않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황시현 면장이 경남철도회사에 그러한 상황을 극력 진정하고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회사는 마냥 세월만 끌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인 소화5년(1930) 6월 주민대표인 임성순과 김박제가 도에 서면으로 질의하니 열흘쯤되어 수산과장이 더위를 무릅쓰고 현장답사를 왔다.

군수와 면장 거기에 경관까지 입회한 가운데 구역을 관할하는 이시스까 주임에게 실측하게 하니 820칸의 제방을 쌓는데, 15,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보조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곧바로 지급 발송하지 못하고 추후 5,000원을 편성하기로 하였다. 소화6년(1931) 봄 조풍호 군수와 스키야마 과장이 또 심사하였으나 몇 달째 아무 소식이 없자 주민대표 21명이 도에 서면으로 진정하였다.

보조금의 승인이 확정되어 군과 면으로 하달되자 조 군수와 황 면장은 도에

서 내려온 지시안대로 일본인 주임인 이시스씨가 다시 820칸의 제방을 설계하여 9월 말일 부로 上申하니 과연 4,00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안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스기야마 과장이 설계를 갑자기 변경한 것이 하나의 장애가 되었다.

성동리 마을 앞을 흐르는 지류가 아닌 본류의 물을 제방공사를 하기 위하여 돌려 흐르게 할 때 城은 천연의 모습이어서 아무런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설계 원안대로 하는 것은 역대 과장들이 실제 똑똑히 본 바이고, 또 그렇게 지휘한 것이다. 수안 사람들이 이의를 하고 비난까지 하는 것은 설계 후에 비로소 제기한 것이다.

전날 垣岸 의 役事가 아직도 눈에 또렷이 남아있거늘 지금 이렇게 무너졌던 제방을 복구하여 쌓는 일이 어찌 잘못이란 말인가. 단지 약간의 땅 때문에 거대한 공사가 저지되는 것,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일인가.

이익호 웅천면장은 난관에 부딪힌 일을 책임지고 분쟁을 힘써 해결하며, 임시 제중교 22칸을 건설하고 790칸의 제방을 쌓았다. 본래의 모습대로 다 복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큰 물로 가옥이 침수되는 화는 면하게 되었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는가.

본 공사는 소화7년(1932) 9월 7일 착공하여 이듬해인 3월 9일 준공되었다. 이상이 성동리 제방공사 전말 대략이다. 이번에 공사를 마치며 그 내용을 뒷날에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돌을 다듬어 새겨둔다. 임성순 군이 나에게 글을 지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미 노쇠한 몸으로 붓을 잡을 만한 형편이 못됨을 들어 사절하였으나 한사코 사양할 수만도 없어 부득이 그 요점을 들어 사실대로 위와 같이 기록한다.

통훈대부 단양군수 파산 윤명오 지음
전 참봉 오창식 서
소화8년 5월 일 세움
(역 : 송하순, 보령문화 제12집)

2) 웅천대교(熊川大橋)

과거에도 대천리의 남포대천장과 대창리를 연결하려면 웅천천을 건너야 했다. 또한 조선시대 남포현에서 비인현으로 가려면 웅천천을 건너야 했다. 웅천천을 건너는 다리는 조선시대에는 현재 웅천 큰 철다리와 웅천교 사이에 석교(돌다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성동리 입구 동일교역 부근에서 향교말 앞을 연결하였다.

언제부터 여기에 석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 조선 전기에 편찬된 읍지 등에는 기록이 없다. 웅천천의 석교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지리지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²⁵⁷⁾ 남포현 관량조(關梁條)에 처음 등장한다.

關梁：大川橋 在縣南二十里 跨大川 <대천교는 남포현 남쪽 20리에 있는데 대천을 넘는다>

이 다리가 석교인지 목교인지는 구별이 없다. 이어서 1760년 경에 만들어진 여지도서(輿地圖書) 남포현 교량조(橋梁條)에도 웅천천의 석교 기록이 나온다.

橋梁：大川橋 石橋 在縣南三十里

이로 보아 대천교가 석교임을 알 수 있으며, 이후의 충청도읍지 등에 같은 기록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제시대 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길이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나 오늘날 한내 돌다리가 12칸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들어와 신작로가 만들어지면서 현 웅천대교 부근에 목교를 가설하고 남북을 연결하였고 웅천시장과 면사무소 이전 후에도 이 목교를 계속 이용했다. 그러나 시장발달로 통행량은 많아지고 목교가 부식되어 위험성이 커지자 일제는 공비 2만 2천 9백원을 투자하여 길이 82미터 폭 4.85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로 완전한 교량을 가설하기로 하여 경성 장문조(長門組)합자회사가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32년 7월 완공하고 개통하였다.

당시 웅천대교 건설과 관련된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257) 실학자 유형원(1622~1673)의 저작으로 알려짐

○ 1931. 11월 9일 매일신보

保寧 熊川橋 架設 決定

【공주】충남 서산 전북 군산선 2등 도로 중 보령군 웅천에는 종래 木橋로 교통을 圖하여 오든바 腐朽하여 극히 危機함이 鑑하여 金 회 도당국에서는 窮民 보호의 목적을 겸하여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공비 2만 2천 9백원을 投하여 길이 82미터 폭 4.85미터의 철근 콘크리트로 완전한 교량을 가설케 되어 지난 4일 경성 長門組²⁵⁸⁾가 낙찰하여 不日內에 공사를 실시한다는데 준공은 明年 5월 30일경이라 한다.

○ 1932. 7월 24일 매일신보

保寧 熊川橋 初渡式 舉行

【천안】공사 중이던 충남 보령 웅천교는本月 19일 완전히 준공되어 21일 오후 2시에 관민 다수가 參列하여 初渡式을 거행하고 겸하여 성대한 낙성연이 있었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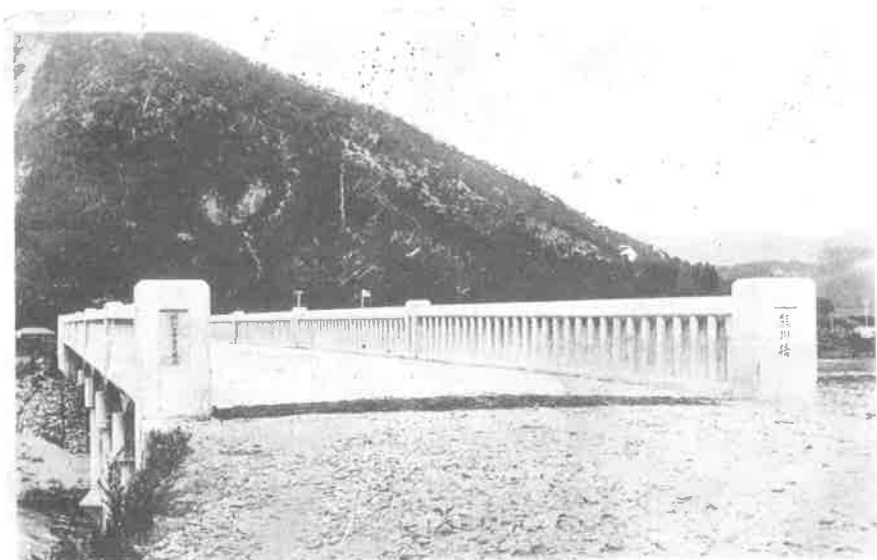
○1932. 7. 28 동아일보

熊川橋完成 二十일부터 通行

【보령】충청남도 보령군 웅천 대중교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착수하여 오던 중 공사가 대단 거창함으로 인하여 장구한 시간을 요하던 바 지난 20일에는 공사를 완전히 종료하고 통행을 개시하였다더라.

이렇게 완공되어 사용하던 웅천대교는 6.25때 웅천철교와 함께 미군의 폭격을 맞았고, 철교와 달리 많이 파괴되어 임기응변으로 복구하여 통행하다가 1967년 완전 복구 완료하여 현재와 같이 통행하고 있다.

258) 장문조는 1915년 경성부 한강통 16-11번지에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50만원이며, 토목건축 청부, 재료 인부 공급 청부업을 주로하는 회사였다.



1932년 개통당시의 웅천대교(오현규 님 사진)



현재의 웅천대교

IX. 웅천발전

1. 석공예 산업²⁵⁹⁾

1) 보령 특산 석재(오석, 애석, 청석)

보령은 예로부터 돌의 고장이다. 옛 남포현 지역인 웅천, 청라, 미산, 성주 지역에서 나오는 검은 빛의 사암은 석질이 단단하고 흡수율이 낮아 잘 깨지지 않으며 검은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비석 등을 제작하면 풍화에 강하여 오랜 기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남포오석(藍浦烏石)’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남포 해안가 및 섬 지역에서 나오는 애석(艾石)은 미정질 화강암으로 역시 풍화작용에 강하며 갈면 희고 푸른 빛이 나는데, 비석 이외의 석제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 한편 청석(靑石)으로도 불리는 흑색 세일은 벼루를 만드는 데 사용 되었는데, 이 세일은 충리로 이루어져서 마모율이나 강도에 따라 벼루돌 또는 벼루의 뚜껑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 우수한 돌로 만들어진 벼루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여 예로부터 ‘남포벼루’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우수한 석재의 산지였기 때문에 보령 지방은 석재산업이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보령지역은 역사적으로 돌을 가공하는 석공장(石工匠)을 많이 배출하였고 각종 석제품 역시 보령산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였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남포였고, 현재의 웅천이었다.

대천리지 지역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석공업 업체가 있다.(2011전화번호부)

건흥석재, 경남석재, 경성석재공사, 그린예석조경, 그린예술석, 금암석재, 금호석재, 대전석재, 대한천마산업, 대흥석재, 돌이좋은사람들, 문영석재, 반석석재, 백보석재, 보령예석, 보령조경, 삼미석재사, 삼부석재, 신안석재, 신일석재, 신흥석재, 웅천석재, 원미석재, 유동석재, 일진석재, 제일석재, 천궁석재, 태양석재, 태창석재, 한국석재, 한일석재, 한진석재, 형제석재 (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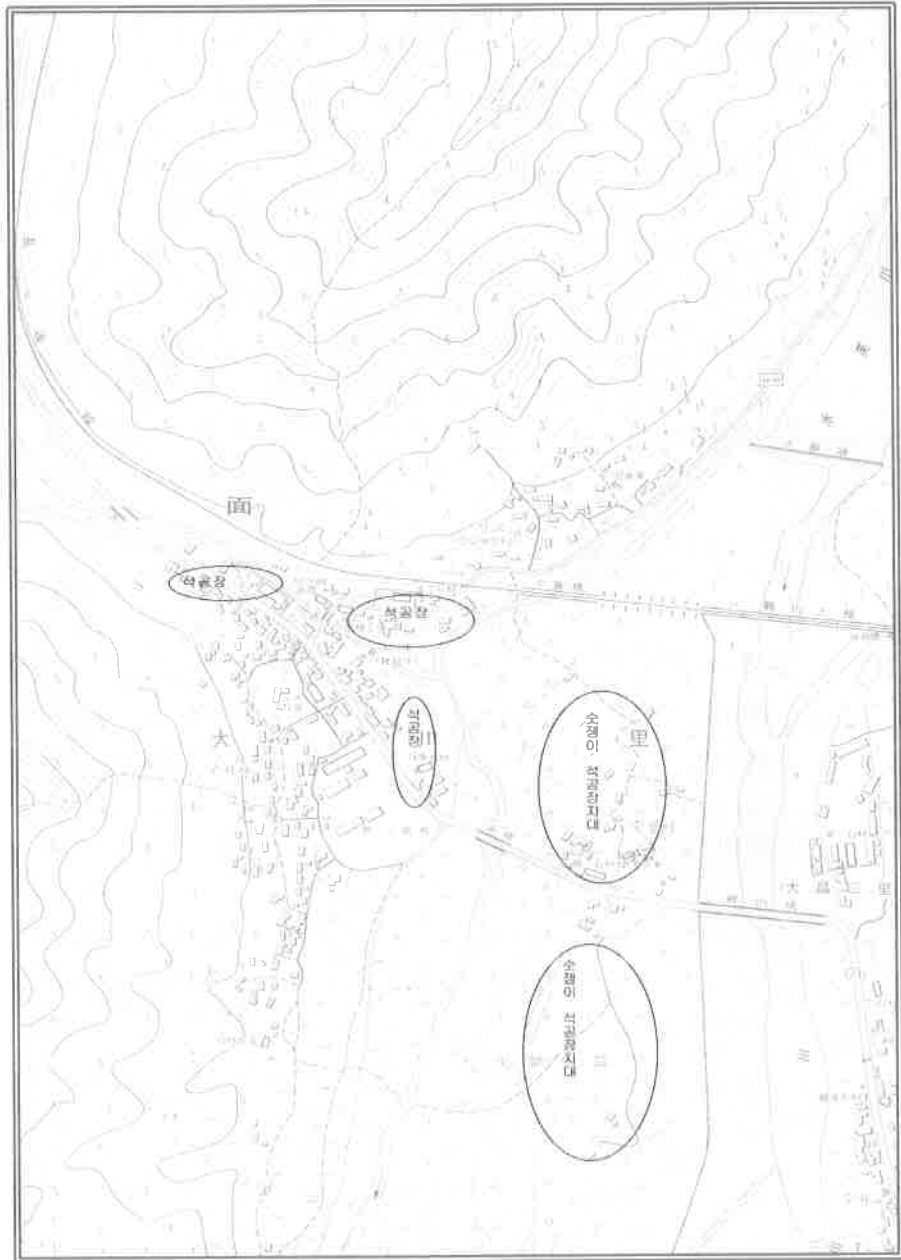
2) 석재 가공업의 발전 과정

① 맥을 이어 온 보령의 석공업

석재 가공 산업은 주로 원석으로 쓰이는 오석(烏石)과 애석(艾石, 쑥돌 또는 쑥석)의 산지인 웅천과 남포 지역에서 시작되고 발전하여 온 것으로, 초기에는 망치와 정, 켄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수한 석질의 돌을 만나거나 노

259) 황의호, 보령 석공업 300년, 2012, 대천문화원. 참조

두를 발견하면 적당한 크기로 금을 긋고 정으로 구멍을 뚫어 썰기를 박아 망치로 쳐서 떼어내 다시 정과 끌로 다듬고 마모석으로 갈아서 제품을 만들었다.



대천리 석공장 분포

제품은 주로 생활 필수품으로 곡식을 가공하는 돌확에서부터 맥, 돌절구, 돌메(우리 고장 사투리: 메갱이)등이 만들어졌고, 이것은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인근 지역의 희망자에 공급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석공업은 석불, 석탑, 석등, 비석 등의 제품을 생산하면서 크게 발전해 왔다.

현재 오석으로 된 비석은 성주사지의 국보8호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비가 세워진 통일 신라 시대부터 석공업이 발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령지역의 석공업은 18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원석산지와 가까운 지역이었던 남포면 월전리와 웅천읍 수부리에서 석제품을 만들었는데, 월전리의 경우 경주이씨(慶州李氏)가 1650년경 부터 살기 시작하여 집성촌을 이루어 오면서 이들 중에서 석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제 말기에는 120호 중에 100여 호가 석공업에 종사하였다.

② 웅천 대천리에서 발전한 보령의 근현대의 석공업

가, 전기 가설과 마석(磨石)의 기계화 계기

보령 석공발전에 있어 마석의 기계화 시대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이다. 이제까지 모든 공정을 수공으로 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마석공정에 동력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천리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다른 지역보다 빠른 1928년 무렵으로 짐작된다.

○ 1928. 7. 18 중외일보

충남 웅천에는 수력전기회사가 설립된다더니 생구어먹은 모양인지 소식이 감감하다고.

이 기사로 짐작하면 1928년 이후에 웅천 대천리에 전기가 들어와 마석의 기계화가 대천리에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석의 기계화는 웅천 대천리 김재동(金在東, 1901~1964)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1920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 석공(石工)으로 일하면서 선진 기술을 익히고 1932년 귀국하여 우리나라 전통 석공 공정에서 마석분야의 기계화를 시도하였다.

1940년에는 웅천읍 구룡리 황명현(黃命顯) 등과 함께 웅천 대천리에 충남 석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마석공정이 기계화된 공장을 선보였다. 이 때는 웅천읍 대천리에 전기가 들어온 뒤였으므로 일본에서 습득한 기술을 곧바로 전

할 수 있었다. 마석 기계는 간단한 철 구조물과 전기모터, 금강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전에 수공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 십배의 능률을 올릴 수 있어 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를 가져왔고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일제 말기에는 기계화된 기업형 석재 공장이 설립되는데 忠南石材(株)가 1940년 1월 9일 충남 보령군 웅천면 대천리 181-3번지에 들어선다. 자본금은 180,000원이고, 설립목적은 특산물 藍浦鳥石 및 艾石의 채굴 가공 판매, 藍浦硯 제조 판매, 석재 미술품의 제조 판매, 석재 생산 임야의 경영 등 일체의 사업이었다. 사장은 松川高明, 이사는 長水成海, 完原聖九, 金山在東이고, 감사는 松川武平, 吳炳彦이었다.

앞에서 말 한대로 김재동은 일제시기 전기에 의한 기계식 연마기 석공업 방식을 도입해서 웅천지역 석공업 발전의 전기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였던 인물이다. 이 시기 석공장은 전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고 애석 오석 산지에서 원석을 구하기 쉬운, 교통이 아주 편리한 웅천 대천리에 공장이 집중적으로 입지하게 된다. 남포 월전리(용머리)나 웅천 수부리 등의 원석산지에서 공장이 있는 대천리 까지 약 4Km의 원석 운송은 주로 우마차를 이용하였다.

그래서 원석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원석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농사짓는 소보다 훨씬 큰 황소를 길들여서 우마차를 끌게 했다. 먼 도시로의 제품 운송은 주로 기차를 이용하였으며 근거리의 제품 운송은 우마차나 트럭을 이용하였다.

나. 절단기 도입 시대의 석공업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석공업도 기계화가 되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1970년대에 들어 묘비석을 중심으로 한 석공업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기계화가 진행되었다.

공정의 기계화는 동일교역주식회사(東一交易株式會社)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동일교역주식회사는 화강암 대리석 등 여러 석재를 가공하여 탑·비석 등을 만들어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로 웅천 대창리에 박기억에 의해 1974년 세워진 회사였다²⁶⁰⁾. 보령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석과 애석은 강도가 높고 고

260) 1974년 7월 25일 매일경제

[비석재 공장 준공, 동일석재공업]

동일석재공업(대표 朴基億)의 비석재 가공 공장이 3일 충남 보령군 웅천면 현장에서 준공식을 갖고 이날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부터 일부 시제품 생산 단계에 있던 同社는 석재류 가공 시설 기자재가 최근 일본에서 전량 도입됨에 따라 이날부터 조업을 개시했는데, 월간 120-150세트의 비석재를 생산 일본에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가(高價)여서 사용하지 않았으나 숙련된 석공을 한꺼번에 구하기 쉬워 노동지향으로 들어선 회사로 1972년에 베틀을 생산하여 수출하다가 1975년부터 탑과 비석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였다. 이 회사는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원석을 켜는 절단기, 연마하는 마석기 등을 설치,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여 주변의 재래식 석공장들을 자극하여 기술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원석을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데는 절단기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형의 톱날 끝에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붙여 동력으로 톱을 돌려 돌을 절단하는 것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가 사용되고 있다.

또 돌에 천공(穿孔: 구멍을 뚫음)할 때 쓰는 에어툴, 돌을 깎거나 다듬는 그라인더, 돌의 표면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버너램프, 등이 있는데 특히 소형 에어툴은 돌에 글자를 새기고 정교한 조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돌을 쪼는 핀의 끝 부분에 당가루라는 금속을 처리하여 강도를 높여 돌을 조각하는 데 적합하도록 하여 사용한다.

이처럼 석공업에 기계가 도입되면서 생산 능력 또한 크게 증가하여 늘어나는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 물량까지 충당하는 대규모 석공장이 등장하였다. 특히 우수한 석질과 정교한 기법으로 제작된 보령 지방의 석공예품을 일본인들이 선호하면서 일본식 납골 묘비석이 제작되어 대량으로 수출길에 올라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동일교역은 이러한 석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인 1990년대 초 대북사업까지 구상하였다. 다음의 신문기사가 사실을 알려준다.

평안도 강서가 고향인 동일교역 박기억(69, 당시) 회장은 통일원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내놓고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충남 웅천과 대천에 공장을 두고 화강암을 묘비로 가공해서 해마다 1천만 달러씩 수출하고 있는 동일교역은 북한에 석재공장을 세우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화강암을 원석 상태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북한의 무한정한 석재 자원과 남한의 기술 자본을 결합해서 부가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교역 박기억 회장 외에도 태평양화학 서성환 회장, 영창악기 김재섭 회장, 한국유리 최대섭 회장등도 대북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²⁶¹⁾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는 절단기였는데 이 절단기의 설치는 많은

261) 한겨레신문 1992.7.25일자

자본과 고압의 전기, 튼날의 마찰열을 식히는 다량의 물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종래 전기 마석기 등을 설치하여 큰 규모로 운영하던 업자를 중심으로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기계화단 공장이 입지한 곳은 고압의 동력선이 들어오고 물을 구하기 쉬우며 교통과 노동력 조건이 좋은 웅천읍 대창리였다. 대창리에는 대천리에 있었던 공장이 이주하기도 했으며, 새로 생겨난 공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이시기부터 보령 지역의 석공업의 중심은 대천리에서 대창리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동력선이 대천리·수부리까지 들어가고 자본을 축적한 공장이 많아 웅천읍 대천리·수부리 등에도 절단기를 설치한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 가동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석공장에서 대량의 물을 사용,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함으로써 부유된 돌가루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웅천천의 특산인 은어(銀魚)가 줄어드는 등 웅천천이 황폐화되었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대규모의 공장이 입지하여 소음 공해 또한 심각하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공장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웅천천 하구에 있는 하중도(河中島)인 숫쟁이들로 공장들이 이주하여 이곳이 1980년대 말 이후에는 보령 석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숫쟁이들은 대천리의 남쪽지역으로 웅천천의 큰 내와 작은 내 사이에 형성된 하중도이며, 대천리 지역이다.

③ 석공예 제품

대천리를 중심으로 보령지역에서 생산되는 석가공품은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겪으면서 발전하여 왔는데 8·15 해방 이후 주로 생산되던 것은 묘비석이었다. 초기 장비가 없을 때에는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크기의 민 비석이 고작이었으나 교통 및 장비의 발달과 함께 생활 형편이 좀 나아지면서 조상 묘역을 치장하기 위한 비석의 수요도 급속히 늘어났다.

비석도 좌대와 갓석을 갖추어 정교한 조각으로 가공하고 크기와 모양도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며 부대 시설로 상석과 망주석, 심지어는 장명등과 동자석, 문관석까지 옛 고관택 묘역에서나 볼직한 것들을 묘역의 치장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그리고 매장할 때에도 돌로 관(棺)을 만들어 쓰고, 봉분에 원형 또는 사각형의 둘레석을 설치하는 등 묘역 정화를 위한 다양한 석제품이 생산되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장묘 문화의 변천에 따라 제품들도 납골묘(지상식, 지하식)와 같은 것들이 생산되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또 새로운 사찰들이 늘면서 불교용품인 석불, 석탑, 석등 등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정교하게 석재로 제작되고 있다. 그 외에도 문패, 꽃병, 화분, 돌항아리 등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과 각종 장식품을 조각하고 납골묘지 조성을 위하여 규모와 종류가 다양한 장묘석들이 등장하고 있다.

2. 도로 건설 운동

1) 웅천-무창포간 도로

1930년 무렵에 웅천 대창리와 대천리를 경유하여 남북으로 통하는 도로는 이미 완성되어 대창리와 대천리를 중심으로 웅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동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아직 등외 도로로 있어서 우마차 정도 밖에 통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웅천의 유지들을 중심으로 웅천을 분기점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전개되었다.

우선 웅천-무창포간 도로는 1923년 웅천면장 황시현의 적극적 노력으로 개설되어 무창포 해수욕장개장보다 먼저 도로가 만들어졌다. 무창포의 해산물 유통의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웅천-무창포간 도로의 분기점은 웅천 대천리였다.

○ 1923. 12. 3 동아일보

道路問題로 道知事에게 陳情, 保寧郡熊川面 黃面장에게 대한 불평으로 순회하든 김지사에게 진정

보령군 웅천면에서는 도로문제로 여러달 동안 떠들어 오다가 지나달 27일 오후 3시에 충남 도지사 김관현씨가 지방 순실차로 보령군 웅천시장 부근을 지날 때 면민 대표와 지주들이 모여 자동차를 막고 진정하였는 데, 내용인즉 그면 면장 黃始顯은 熊川市場에서 관당리까지 통하는 등외도로 3240간을 2등도로와 같이 광두간식 산을 파고 들을 메워 인부 수만 명을 희생하게 하는 바 토지 승낙을 아니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과동하라고 솔나무 가지를 허가 외에 더 베인 것을 모조리 압수하고 人民에게는 道廳에서 新作路를 내이라고 허가를 받았다고 핑계하고 郡守에게는 地主들이 승낙하였다고 속인 일이 탄로되어 人民들이 모두 분노하고 지주들이 동맹하여 가지고 道知事에게 진정하여 양해를 얻었다더라(보령)

2) 웅천-미산간 도로

이어서 1930년에 들어와 웅천발전을 위하여 웅천-미산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1930년 2월에는 웅천의 일본인 유지 정상청(井上淸)이 중심이 되어 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도로 개통을 요구하는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1930년 8월에는 경남철도 개통이 박두함에 따라 더욱 웅천 미산간 도로 개설운동에 박차를 가했고, 1932년도에는 보령군과 부여군의 관계 6개면 유지들이 도로 건설을 진정하였다.

그리고 1933년 1월에는 보령 웅천 미산 주산 부여군민들이 참여하고, 任熙準, 井上淸, 石村次太郎 등이 주도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하여 정확히 언제 3등도로 승격되어 도로를 넓혔지는 모르지만 1933-34년 무렵에 웅천-미산간 도로가 3등도로²⁶²⁾로 개통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도로의 분기점 역시 웅천 대천리였다. 오늘날 옛 시장터 두룡천 끝 부분에 놓여진 화정교(花汀橋)는 일명 먼소다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미산-부여 방면 도로 개통으로 이 다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 다리를 건너 동으로 가면 미산방면으로 통하게 되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대천 홍성 방면이 된다.

1923년의 무창포로의 도로 건설과, 1930년대 중반의 미산방면으로의 도로 건설로 인하여 대천리는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도로의 분기점이 되었다. 오늘날 대천(보령)과 부여간 도로는 1939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오히려 부여쪽으로의 접근은 보령시(대천)보다 웅천 대천리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 1930. 2. 11 동아일보

熊川發展圖謀, 井上淸씨가 上道(保寧)

【보령】충남 보령군 웅천면 미산면간에 등외도로가 있는 바 우리치라는 고개가 면계를 정하여 있어 구루마와 마차는 통행하나 자동차는 통행이 곤란하므로 작년 중에 도당국에 출원하여 3등도로로 개수하려고 웅·미 양면 유지 측에서 군 당국과 교섭 중이던 바 동군 주산면 유지들이 帽珠 통로를 개척할 예정으로 도당국과 군당국에 교섭까지 하여 맹렬히 운동하였으나 이 도로에 주간되는 미산면민 일반은 기성한 웅천 통로만 개설하였으면 일반 면민의 부담도 적고 보령의 제2 도회지인 웅천의 발전책도 되니 帽·珠통로는 도저히 반

262) 총독부령으로 1911년 공포되고 1915년 개정된 〈도로규칙〉에 의하면 1등도로, 2등도로, 3등도로, 등외도로로 구분된다. 각 도로의 등급은 행정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했으며, 도로의 관리는 1,2등 도로는 총독, 3등은 도장관, 등외도로는 부윤이나 군수가 담당했다. 1938년에는 〈조선도로령〉을 발표하고 국도·지방도·부도·읍면도로 구분하고 각각 총독·도지사·부윤·읍면장이 관리했다.

대라고 수창하여 진정서까지 작성하여 수 백 명의 성의서를 첨부하여 웅천면 일반유지에게 타협한 결과 熊嶺 有志 諸氏는 웅천시에 거주하는 유지 정상청(井上淸)씨를 교섭위원으로 선정하여 今月 2일경에 前記 井上淸氏는 도당국에 교섭하는 동시에, 진성서를 제출하고 귀래하였는 데 도 당국에서는 심분 양해하여 불원간 실지조사에 착수하리라 한다.

○1930. 2. 17 동아일보

熊川面民大會

충남 보령군 웅천면에는 산업조합공동작업장은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실시하여 현금 작업 중이나 작업장부지는 면에서 기부하기로 하고 施設한 바 地代는 매 坪 3원씩 158坪을 매수함에 총액이 474원인데 등급이 18등에 분하여 면민이 부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기보와 如히 熊嶺通路는 上京하였던 井上淸氏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다년간 현안으로 있는 무창포해수욕장 문제는 시기문제인 만큼 금년 내로는 철도 개통되는 데에 따라 경남철도회사에 교섭하여 속속히 시설에 착수하도록 타협하기 위하여 교섭위원은 本面長 黃始顯 有志 井上淸 兩氏를 선정하고 下午 五時에 산회하였다.

○ 1930. 2. 17 중외일보

웅천면 면민대회 개최, 2개 조항 토의

보령군 웅천에서는 면사무소 주최로 거 11일에 면민대회를 개최하였었는데, 출석회원은 유력자 18명이었고, 토의사항 1조는 산업조합공동작업소 대지를 면소유로 하기 위해 垆價 475원을 면민의 부담으로하여 호별 27전 이상으로 기부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제2조는 경남철도회사에서 보령지방에다가 보령지방에 해수욕장을 설치하고자 함에 이를 웅천면 관당리 무창포에다가 설치하게 해달라고 회사에 교섭하기로 결의한 후 폐회하였다더라.

○ 1930. 8. 27 매일신보

웅천도로개수 面民連書 陳情

【공주】 충남 보령군 웅천면에서 부여간 통하는 등외도로를 개수하여 3등도로로 승격하고자 웅천 미산 양면민은 일치협력으로 개수 기성회를 조직하여 경남철도 개통이 박두하였음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부근 일반 주민들은 실현을 期成하기로 맹렬히 운동 중이라는 데 면민 999명이 연서하여 도당국에 진정하였다는데, 토목과에서는 근간 출장하여 실지 답사하기로 하였다 한다.

○ 1932. 5. 23 조선일보

熊川 扶餘間 道路 昇格 期成, 6개대표 會合

【熊川】충남 부여군 구룡, 내산 외산 兩面과 청양군 사양면 보령군 미산면 등지에서 산출되는 物品 林産物 石材 穀物 日用雜貨 生活必需品이 다수이 보령군 웅천으로 수출되는 바 곡물만 하여도 1년 수출량이 2만석 이상을 돌파하는데 저간의 도로가 불안전 하므로 일반 영업자에 대 곤란이 되어서 소화 4년도 부터 각 면별로 도로를 수선하여 3등 도로에 대한 승격운동을 하여 오다가 당국의 허가가 되지 않음으로 지난 5월 14일 오후 1시에 부여군 무량사에서 이상 6개면 대표와 보령경찰서장 加藤新作 부여군 서무주임 朴永俊 兩氏가 출석회합하여 웅천 구룡간 3등도로 운동 期成會를 조직하여 道 당국에 진정기로 결의 한바 집행위원은 1면에서 2인씩 선정한 바 氏名은 다음과 같으며 同日 오후 6시에 폐회하였다한다.

집행위원 주소씨명

熊川面 井上淸 任熙準 外山面 金相培 徐基遠 帽山面 李圭三 李晁雨 內山面 韓相夏 金容默 九龍面 孫鏞喜 金靜圭

○ 1932. 6. 3 매일신보

熊川九龍間 道路昇格運動-海水浴場關係로

忠南保寧郡熊川海水浴場武昌浦起點熊川面外山面內山面을 經由하여 扶餘郡 九龍에 達하는 五箇面道路昇格에 對하야는 數年以前부터 一般面民이 熱望이 던 바 今番目的을 達成키 爲하야 期成會를 組織하고 發會式을 舉行하였는데 各面代表數百名과 扶餘郡守代理加藤保寧郡長及各面長等이 臨席하야 井上淸이 座長으로 推薦되어 各面으로서 實行委員六名式選舉하야 種種協議한 結果會長으로 井上淸氏 副會長으로 金相培氏가 選舉되어 目的貫徹에 努力하자고 決議한 後散會한바 此道路가 産業開發上 極히 重要な 줄은 當局에서도 認定된 바인데 此가 實施되면 忠南海岸橫斷道路로 大田까지에 中間에 論山에 彌勒像桃花潭에 絶勝川에 銀魚武昌浦에 海水浴場等 各所에 遊覽道路로 價値잇시 利用되리라 한다

○ 1932, 8. 18 동아일보

熊川帽山通道路 速成聯合陳情, 五개면에서 련합활동해 期成會組織코 活動

【보령】웅천 미산간과 미산 주산간 도로문제는 다년간 현안이 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였는바 월전부터 주산유지들이 미주통로연합기성회를 조직하고 대대적으로 운동한다 함으로 웅천면 유지들도 미산 부여군 외산 내산 구룡 4개면과 연락하여 지난 13일 동도 토목과장 내용을 기회로 하여 우 각 면 유지와 각 면장이 부여군 무량사에 회집하여 토목과장을 실지로 인도하여 도로속성을 진정하고 지난 14일 동도 지사 가 무창포해수욕장 시찰을 기회로 하여 웅천유지대표 井上淸氏가 지사에게 직접 건의하였다 한다.

○1933. 1. 30 중앙일보

熊, 扶連路의, 도로승격운동, 兩면민의 靑기

보령 웅천 미산 주산 부여군민들 참여, 任熙準, 井上淸, 石村次太郎 등이 주도
 【保寧】보령군 웅천에서 부여로 통하는 도로가 등외인 관계로 차마가 통행하기 곤란하여 3등도로 승격하여 달라는 교섭을 과거 10년전부터 웅천면민들이 해마다 군과 도에 진정하여 자진 노력하여오던 중 작년부터는 본군 주산면에서도 역시 자기 면내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교섭을 하여 양면에서는 각각 면민들이 날인한 진정서를 도당국에 보내고 인가가 나오기만 고대하더니 지난 20일에 이르러 웅·주양면 의 대표자들이 상의한 결과 어디로든지 결정이나 속히하여 달라는 의사로 대표자로 任熙準 井上淸 石村次太郎 三氏를 선정하여 당국에 교섭하였다한다.

3. 무창포해수욕장

1928년 대천리에서 대창리로 시장과 면사무소가 이전되고, 1932년 웅천역이 대창리에 세워지면서 웅천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지만, 또 하나의 웅천 발전 전기를 마련한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이 개장되어 운영된 것이다. 경남철도주식회사에서 철도 수입을 올리려는 차원에서 무창포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모집해 왔기 때문이다.

웅천역에서 무창포까지 도로로 관광객을 운송하였는데 남포대천장터가 있던 대천리에서 무창포 도로가 분기되었다. 그동안에는 남북 연결도로 상에서만 존재하던 대천리는 국도 21호에서 무창포로의 분기점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 약화되던 지리적 위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수욕장은 191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1910년대-1920년대는 원산 부산 인천 등지의 해수욕장이 번영했다. 모두 철도교통 연결지였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접근이 쉬웠기 때문이었다. 보령지역도 1929. 12. 1 대천역 영

업개시(대천 장항선 통과)와 1931. 12. 1 웅천역 영업개시(웅천 장항선 통과)를 계기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개발·개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물론 철도로의 접근도 쉬운 원인도 있지만 사철(私鐵)인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대천해수욕장이 1932년 7월 15일에 개장되었지만, 무창포해수욕장은 그보다 1년 빠른 1931년 7월에 개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니 보령지역 뿐만 아니라 충남 서해안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전하는 말로는 일본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경남철도의 정식 경영이전에 해수욕장이 있었다면 당시 웅천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인 유지 정상청(井上淸, 이노우에 기요시)의 활동과 관계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1941년에는 무창포 어항이 축조되어 해수욕장과 함께 무창포와 웅천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

무창포해수욕장 설치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신문기사는 다음과 같다.

○ 1931. 7.31 매일신보

〔武昌浦에 海水浴場 설치키로〕

南鐵 熊川驛에서 二十分이면 到着

【天安】慶南鐵道株式會社에서는 今番 天安-長項間 전통함에 따라 同線 熊川驛에서 自動車로 二十分에 到着되는 地點 武昌浦에다 海水浴場을 設置 經營한다는데 同海岸은 水淸白沙地이고 兼하여 遠淺임으로 海水浴場으로는 가장 絶好地가 되리라한다.

○ 1932. 7. 16 동아일보

武昌海水浴場 十五일에 개시

【보령】충남 보령군 웅천면 무창포해수욕장은 작년부터 설치한바 내객이 만喫음으로 금년에는 도로를 2등도로와 같이 수천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대수선에 착수하얏든바, 일간 준공하고 오는 15일부터 해수욕에 착수하기로 되었는데, 차비는 반 할인 될것ियो. 웅천역에서 해수욕장까지는 자동차로 운전한다고 한다.

○ 1932. 7. 22 동아일보

武昌浦海水浴場 旅客列車賃割引

경남철도회사에서는 무창포해수욕장에 가는 객을 위하여 천안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임금을 할인하기로 했다. 천안 대천간 왕복2등 4원 70전, 3등 2원 98전, (소아반액), 천안 웅천간 왕복 2등 5원 44전3등 3원 44전(소아반액)

○ 1932. 8. 6 동아일보

武昌浦 海水浴場 運動場도 施設,

【保寧】충남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은 개장이래 매일 욕객이 200-300명이고, 일요일에는 천명을 돌파하게 됨으로 웅천유지 일동의 발기로 백 여 원의 기부를 모집하여 해수욕장 옆의 동대(東垜) 석대(石臺) 두 곳의 새 장소 해변에다가 운동장을 시설하고자 방금 준비 중이라 한다.

○ 1932. 8. 18 동아일보

臨時列車運轉, 대천 웅천간에, 武昌浦海水浴場開場으로

【보령】충남 대천면 군입리와 웅천면 무창포 해수욕장 개장을 한 이래 대성황을 이룬다 함은 본보에 루차 게재한 바이어니와, 매양 일요일에는 기차승객이 혼잡을 이루어 정기차로만은 운전할 수 없으므로 경남철도에서는 매 일요일마다 임시 열차를 2-3차씩 내어 일반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준다고 한다.

○ 1933. 7, 11 조선중앙일보

보령에 해수욕장 올해에는 번창

【보령】하절이 돌아오면 대천 군입리와 웅천 무창포 2곳에서는 경남 철도회사의 경영과 지방 관민의 후원으로 해수욕장을 설비하는 바, 작년까지도 여관과 식당이 많지 않아서 각 처에서 운집하는 해수욕객들에게 불평이 있더니 금년 부터는 그곳 관련 유지의 열렬한 노력으로 각처로부터 영업자들이 모여들어 수십 채의 신 가옥을 건축 중이므로, 금년 부터는 무엇이고 욕객에게 만족을 주게 되었다 하며 해수욕은 금월 15일 부터 시작되겠고, 대천역 웅천역에서는 10여대의 자동차가 충분히 준비된다고 한다.

○ 1933년 7월 19일 동아일보

漸漸 높아가는 炎熱 時熱 얻은 海水浴場 松田海水浴場 十五日 開場式//西湖海水浴場 十六日 開場式(興南)//大川武昌浦兩處海水浴場(天安)

【천안】충남 천안읍에 본사를 둔 경남철도회사 운수과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 중에 있던 京南沿線인 대천과 무창포 두 곳에 일반 피서객을 위하여 다만 하루의 유쾌한 마음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의미로 해수욕장을 설비 중 이든바 이달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55일 동안에 임시 열차의 운전을 할 것은 물론 이요. 기차 할인은 본선 3할인 경남선 5할인 내지 6할 5분이고 대천과 무창포 두 곳에 유료 무료의 휴게소를 설비하였는바 경남회사에서 첫 시험이니만큼 모든 설비가 이상적으로 되어 일반의 많은 쾌감을 이끌고 있다하며 규정은 다음과 같다더라

汽車賃：천안 - 대천간 5할인 대인2등 4,70 3등 2.98

천안 - 웅천간 5할인 대인2등 5,44 3등 3.44 小兒는 此에 반액

대천 - 해수욕장간 대인 60전 소아 35전

웅천 - 무창포해수욕장간 대인 35전 소아 20전

대천해수욕장 유료휴게소 무료휴게소 입장료 1인에 20전 소아 반액 30인이상 단체 2할인

무창포에는 다만 무료휴게소만 있음

○ 1933. 7. 28 동아일보

保寧 大川 武昌浦浴場 繁昌

충남 大川 武昌 해수욕장은 지난 15일부터 개장하였는데, 각 처에서 단체와 개인이 매일 답지하여 임시열차로 운전하는데 작년보다 한층 번창한다고.

○ 1933. 8. 12 조선일보

京南線 武昌浦海水浴場 閑散, 熊川驛의 不親切이 其要因, 地方住民 影響 甚大

【홍성】충남 보령군 무창포해수욕장은 벌써 시설한지 오래였는데, 오늘날 그 현상을 본다면 설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완전하다 할 수 없으나 대략은 피서객과 수영객으로 하여금 그다지 불편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 곳은 날로 쓸쓸한 상태에 빠져 그 시설이 공연히 묵고 있음은 무슨 까닭일까. 그 이유로 불만한 것을 들은 바에 의하건대 무창포 해수욕장을 가려면 반드시 웅천역에 내려서 자동차로 약 20분 동안을(임금 왕복 35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동차를 취급하는 곳은 즉 웅천역이라는 바 해수욕기간에는 당역에 열차가 도착함에 따라 해수욕장행 승객이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를 발차시키기로 京南本社에서는 규정되어 있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역에서는 동 차표는 팔아놓고서도 만원이 되지 아니하

먼 차를 내지 아니하고 다음차 시간을 기다려 가라는 등 길이 위험하여서 차를 내지 못하겠다는 등 해수욕장행은 정기차가 아니니까 내마음대로 하여도 관계치 아니한다는 등 별별 이유를 붙여서 수영객의 불편과 불만을 느끼게 함으로 일반 해수욕객들은 돈을 주면서도 이러한 창피를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손님이 차츰차츰 줄기 시작하여 요지음에는 거의 폐지 상태에 달하게 됨으로 웅천역과 무창포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됨으로 당 역장의 처치에 대하여 비난과 불평이 날로 높아간다고 한다.

○ 1934. 12. 9 부산일보

放漫經營の積弊から業績不良の京南鐵道

放漫經營의 積弊로부터, 業績 不良의 京南鐵道, 海水浴設備費도 不當, 會社當局의 公私混同

경남철도로서는 여객 유치 副業的 시설인 대천 군입리와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한 경비지원상에 대하여 회사의○ 失當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다. 철도당국에 신고 되어 있는 대천해수욕장의 설비비로서 4천여원 지출방안 승인이 요구되는 금액은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무창포는 대천 장항간 철도공사 중에 인부들을 파견하여 도로를 개수하고 해면의 암석을 제거하는 정도로 설비비로서 幾何도 투자한 것도 없을 뿐만아니라, 철도건설의 부산물적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을 개설했을 뿐 이극고 4천여원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

대천군입리는 대천 토지유지가 대천면의 발전책으로서 해수욕조합을 조직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3천여원, 경남철도가 海面 정리 및 脫衣하는 別莊을 빌리는데 4천원 가까이 투자해서 개설했기 때문에 완전하다. 大川繁榮上有志가 經營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한 푼도 대금을 거둘 수 없는 데에 있다. ...

무창포에는 전력을 쏟아 浴客誘致策을 강구해 오고 있고, 京南鐵道 沿線의 해안에 있는 군입리가 해수욕장으로서 천혜의 이상적 해수욕장이다라는 定評이 있어와 유망시 되어 회사가 인수하여 경영하는 시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일까지는 군입리에 海水浴場地를 시설을 한 것은 ... 부당 부실한 경영의 원인이다.

○ 1941. 11. 14 매일신보

武昌浦 漁港 築造

地元民들이 道에 陳情

보령군 웅천면 무창포는 충남 연해안의 중심지적일 뿐만 아니라 각종 어족의 서식(棲息)이 풍부한 곳으로 매년 성어기에는 본도의 어선은 물론이고 멀리 경기 황해 전남 전북 경남 등 타도의 어선이 수척씩 몰려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터이어서 본도 어장으로 굴지되는 지위에 놓여있으나 아직까지 어항으로서의 모든 시설 즉 방파제(防波堤)라든지 기타 이에 따른 부속 시설이 없음으로 조난되는 일이 종종 있어 본도 수산업 진흥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터이므로 지방 주민들은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모든 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요망이 자못 높아왔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지난 11일에는 도회의원 금광도수(金光道秀) 기타 유력자 정상청(井上淸) 송천고명(松川高明) 금촌임(金村稔) 제씨가 지방민의 대표자로 무창포 어항의 방파제 시설에 따른 촉진 진정서를 도당국에 제출한바 있다.



일제시대 무창포해수욕장 모습(전면의 산 아래가 현재 무창포 포구)

X. 주변 관방유적

대천리 지역은 과거 남포현 치소의 주요 통행로에 위치했을 뿐아니라 주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어서 이곳과 관련된 관방시설이 주변에 존재한다. 주변의 대천리 산성 수부리 산성 운봉 산성(성동리 산성) 그리고 수군기지 인 마량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천리 주변의 관방유적 위치

1. 대천리 산성(大川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와 두룡리 사이에 있는 잔미산 정상(해발 367.9m) 지점에 있다. 웅천읍 대천리 철길 건널목에서 잔미산 능선을 따라 오르면 만난다. 산성의 중심에는 봉수대가 있고, 주변은 석성으로 둘러져 있는데, 남북 길이 약 250m, 동서 길이 약 70m이다. 성의 북·서·남쪽은 성벽이 무너져 형성

된 돌무더기가 넓게 분포하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용하여 석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동쪽 성벽 위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의 치 일부가 남아 있고, 남쪽 성문지에도 다량의 돌더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축성 방법은 내탁에 의한 것 같으나 그 상태가 심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다. 내부에서는 승석문·격자문 계통의 경질토기 파편이 발견된다. 둘레는 450m 정도 된다.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보인다. 현재는 돌무더기가 남아 있고, 민묘가 들어서 있다. 봉수대가 있던 곳 남쪽에는 여러 단의 평지가 있는데, 기와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천리 산성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어골문이나 격자문 기와이다. 대천리 산성은 산 정상 부분의 극히 좁은 지역을 둘러싼 것으로 보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성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대천리산성 동쪽 약 1.5km 떨어진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수안 마을에 남포현의 치소가 있을 때 봉수대의 기능을 하다가 치소의 이동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성(城)의 옛 순수 우리말은 ‘жат’이었다. 그리하여 산성이 있는 이 산을 사람들은 ‘жат피’로 불렀고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 산이 잔미산이 되었던 것이다.

2. 성동리 산성(운봉산성)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의 동남쪽에 해발 338m의 운봉산이 있고, 이 운봉산의 정상부와 성동리 쪽 서북향 골짜기를 에워싼 석축의 포곡식 산성이다. 운봉산에 있기 때문에 운봉산성이라고도 한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450m 정도로

규모가 큰 산성이다.

성벽의 축조 상태를 살펴보면 자연할석을 이용하였으며, 공돌쌓기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남쪽인 정상능선 부분의 성벽은 지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면서 취약지점만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부 남벽 부

분에는 평탄지도 있는데 건물지로 추측되기도 한다. 대창리 쪽의 서벽은 돌무더기가 많이 남아 있다.

성의 주향은 서향이다. 운봉산의 지세가 동남향이 가파르고 서향한 방향이 비교적 완만하므로 이 완만한 산의 등성이를 따라서 구축했다. 서쪽 아래에는 웅천천이 있고 그 옆에 고남포의 치소가 있으며 마주보는 산이 잔미산으로, 그곳에는 수부리산성이 있어, 고려시대 수부리산성과 함께 고남포와 웅천천하구의 통로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안에서는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 사용된 산성으로 보인다. 2005년 운봉산 정상부에 시민의 쉼터인 정자(雲峯亭)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정상부인 남벽 일부가 훼손되었다.



성동리 산성(운봉 산성)

3. 수부리 산성(水芙里山城)과 옥미봉 봉수대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두룡리, 남포면 옥서리

웅천 수부초등학교 뒷산인 해발 416m의 잔미산과 건너편 북쪽에 위치한 봉화산에 걸쳐서 축조된 산성이다. 성의 주향은 동남향으로 해안 쪽이 아닌 웅천천 방향의 동남향이다. 잔미산 정상과 봉화산 정상을 연결하면서 그 골짜기를 에워싼 포곡식 산성이다. 기본적으로 자연할석으로 축조하였



수부리 산성과 옥미봉 봉수대

다. 그러나 군데군데 자연의 암반을 이용한 곳도 있고 등성이 부분의 성벽은 토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축조의 형태를 보면 내탁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지 부분만 약간의 협축이 보인다. 잔미산과 봉화산이 형성한 자연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문지로 확인되는 곳은 수부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곳과 정상부의 남부 사현리에서 오르는 곳의 2곳이 있다. 이 두 문지를 연결하는 고개를 사현(沙峴) 또는 새아니재라고 하여 현재의 이어니재를 넘는 국도 21호가 있기 전에는 과거 웅천과 남포를 연결하는 주된 통로였다.

이 산성의 방향이 웅천 쪽의 동남향으로 건너편의 성동리산성과 마주보고 있다. 이 산성의 바로 아래에는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남포현의 치소가 있었고, 이 남포현의 치소는 성주사의 대외 관문이며, 고려말에는 왜구가 침입하여 교두보로 삼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너편의 성동리 산성과 함께 고남포의 치소를 방어하는 기능과 밀접히 관련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부리산성 남쪽부분

또한 이 산성의 전체 길이는 약 2,800여 m로 보령지역의 산성 중 가장 크다. 주변 산성의 배치나 규모, 그리고 바다로 연결되는 통로 기능 등을 감안하면 백제부흥운동 당시의 주류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이다. 앞으로 기능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산성이다.

이 산성이 있는 잔미산의 정상인 해발 416m 지점에는 조선후기 만들어진 옥미봉 봉수대가 있어 남으로는 비인 칠지산 북으로는 보령 조침산 봉수대에 응했다.

『여지도서』 남포현 봉수조에 옥미봉 봉수(玉眉峰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 칠지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보령현 조침산 봉수에 응한다 라고 기록된 봉수이다. 이 옥미봉 봉수는 조선전기에는 없다가 18세기에 신설된 봉수대이다.

보령시 남포면 사현리와 웅천읍 두룡리·수부리의 접경에 있는 잔미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해발고도는 416.8m이다. 21호 국도의 이어니재 남쪽 오

석공방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산 능선을 타고 오른다. 이 봉수대는 비인 칠지산 봉수대에서 받아 주교면 조침산 봉수대에 전하였다. 칠지산과 조침산과의 직선 거리는 도상거리로 모두 14km이다.

옥미봉 봉수대 주변에는 서쪽으로 2.2km 떨어진 남포면 신흥리 봉산 봉수대 터, 서남쪽으로 6.5km 떨어진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봉수대 터, 9.25km 떨어진 웅천읍 소항리 통달산 봉수대 터가 있으며, 남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는 옛 봉수대지로 보이는 대천리산성이 있다. 봉수대는 삼각점이 있는 산 정상에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104m 떨어진 곳에는 돌담장이 남아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능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만들었는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5개의 봉대가 보인다. 남쪽에 있는 봉대가 가장 크고 뚜렷한데, 돌로 직경 11m 정도의 원형 축대를 만들고 가운데에 봉돈을 만들었었다.

최근까지 흔적이 뚜렷하였으나 2000년 보령시에서 봉수대를 복원한다고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 굴뚝처럼 만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유구를 고려해서 쌓은 것도 아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축대의 대부분은 원형이다.

남쪽 봉돈 북쪽으로 4개의 봉돈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모두 직경 2m 정도이고 1~2m 간격으로 있다. 이것들은 축대도 없고 산 능선 위에 원형으로 1줄의 돌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1872년 남포현 지도의 옥미봉과 남포대천장

남쪽 축대 남쪽 4m 지점까지는 호를 만들었고, 호 밖에는 담의 흔적이 있고 문지(門址)도 보인다. 문지의 폭은 180cm이다. 문지의 동쪽에는 폭 120cm, 길이 400cm 정도의 돌담 흔적이 있다. 축대의 동쪽과 서쪽 급경사지는 삭토하여 내려쌓아 평탄지와 급경사지를 만들어 방어에 이용하였다.

봉수대지 남쪽 104m 지점의 평탄지에는 24m×17m 정도의 타원형 돌담 흔적이 있다. 돌담의 폭은 150cm, 높이는 남아 있는 것이 약 130cm 정도이다. 이 돌담 동쪽에는 평탄지가 있고 주변은 온통 신하대로 덮여 있다. 이곳은 봉수대의 연료를 저장했던 곳으로 보이고 동쪽의 평탄지는 건물지이고 신하대는 건물지 주변에 방풍림으로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고려말 왜구 침입과 마량진(馬梁鎭)

1) 고려말의 왜구 침입과 고남포

14세기 공민왕 대에 이르면 고려가 원(몽고)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는 북쪽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과 함께 남쪽으로부터는 왜구의 침입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공민왕에 이은 우왕대에는 왜구의 침입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기록상으로 고려 말 우리나라 전체 왜구 침입 건수는 471건, 침입지역은 226곳의 사례가 나타나는데, 그 침입은 영남·호남과 함께 충청지방이 특히 심했다. 그리하여 충남의 경우만 침입횟수 78건, 침입지역 38곳에 이르고 있다. 충남의 경우 왜구 피해가 있던 지역은 서천, 한산, 안흥, 태안, 서산, 면천, 보령, 아산, 온양, 천안, 목천, 청양, 공주, 연산, 금산 등 전도에 걸쳐 있는데, 해안을 끼고 있는 보령지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는 20척에서 많을 때는 500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구성하여 한반도의 연해안과 내륙 각지를 위협하였으며, 이들은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서 선박과 말을 이용하여 고려의 정규군을 연파하면서 고려를 유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 말의 왜구는 단순한 해적 집단이 아니라 뛰어난 전투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적 전투 집단이었다.

고려 말 보령지역에 대한 왜구 침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고려사』 세가 우왕 7년 11월 왜(倭)가 보령현(保寧縣)에 침입하였다
- 『고려사』 지리지 남포현조에 우왕 6년(1380)에 왜구로 인하여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비로소 진성(鎭城)을 두고 유망민을 불러 모았다.
-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홍무(洪武) 13년(1380)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 2년(1390)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6년(1397)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보령지역의 왜구 침입 기록은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령현의 경우에는 그 이웃한 홍주나 결성지역 침입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함께 많은 피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남포현 지역은 대단히 특이한 기록을 보인다. 고려사 지리지 남포현조에는 1380년 왜구가 침입하여 1390년까지 10년 동안 유린 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

는데, 같은 지리지의 다른 군현에는 왜구침입 피해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남포현 지역만 왜구 피해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진성(鎭城)을 설치함으로써 백성을 불러 모아 수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그 영향으로 진병마사를 두고 판현사를 겸하게 하여 군사적 요충지로 삼았음을 보여 준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 남포현의 치소는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에 있었으므로, 10여 년 동안 왜구들이 남포현인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배를 정박하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을 약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수안의 고남포와 웅천천 하류 쪽에 이웃한 대천리 지역도 왜구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이때 남포(고남포)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치기 위하여 중앙에서 군대까지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사 열전 정몽주조와 변안열조에는 “왕안덕이 남포의 전투에서 모든 군사가 패배하여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으며, 돌아올 때는 여주(驪州)에 귀양 간 우왕을 만나고 왔음이 확인되어 그 죄를 물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사절요에도 “왕안덕은 장수란 명칭을 가지고서도 매양 패배하였으며, 남포(藍浦)의 전쟁에서는 전군이 크게 패하여 국가의 위엄을 크게 손상시켰으니, 군법으로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기록은 우왕이 남포에 왜구가 침입한 기간인 1388년에 여주에 귀양 갔다가 1389년에 사망하므로 시기적으로 왕안덕이 남포의 왜적과 싸운 시기는 고려사 지리지의 왜구 남포 침입 기사 시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고려사 왕안덕 열전에는 “찬성사(贊成事)를 제배(除拜)하였을 때 왜적이 옛 비인(庇仁)의 경계에 주둔하였으므로 왕안덕(王安德)이 광주 절제사 최운해, 양광도 도절제사 이승원과 함께 90리를 추격하여 도둔곶(都屯串)에서 싸워 대패하여 왕안덕은 말에서 떨어져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나 사졸의 죽은 자가 4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것이 앞에서 말한 남포전투(수안과 대천리 지역)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웅천천 하구 유역에서의 전투인 것은 분명하다.

도둔곶은 현재 웅천천 하구지역에 있는 서천군 비인 지역이다. 즉 도둔곶은 웅천천 하구의 반대편 연안이기 때문에 남포현의 웅천천 하구에서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왕안덕은 고려말기 무신으로 많은 전투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남포에 왜구가 침입한 같은 시기, 즉 1380년 8월, 금강 하구인 진포에도 倭

船 500여 척이 정박하여 이곳을 교두보로 삼고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이 화약으로 물리친 진포대첩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추격하여 이성계가 남원에서 물리친 황산대첩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 금강 하구와 남포현의 웅천천 하구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왜구의 교두보였고 피해가 컸던 곳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남포현에는 진성(鎭城)이 설치되고, 수군기지인 마량진이 웅천천 하구에 설치되고, 서천포영이 금강하구에 설치되어 충청수영의 속진으로 기능하게 된다.

2) 마량진의 설치

마량진은 조선시대 첨사영으로서 장항의 서천포만호영을 지휘하면서 충청수영 관내의 남부 지역인 현재의 보령시 남부해안과 서천군 지역 해안 방어를 담당한 수군기지였다.

그 위치는 조선초기에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있었고, 조선후기에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옮겨져 설치되었다. 마량진의 위치는 현재 학계에서 발간되는 모든 도서(圖書)에 시기 구분 없이 서천군 비인으로만 표시되고 있는데²⁶³⁾, 그만큼 마량진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마량진이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에 있었던 기간과,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었던 기간은 조선 500년 동안 거의 절반씩 비슷한 기간이었으며, 마량진성(馬梁鎭城)도 보령 웅천에 남아있다.

마량진이 처음 설치된 곳은 현재의 웅천읍 황교리 광암 부락인 웅천천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웅천만구(熊川灣口)지역이다. 남포 대천장이 있는 웅천 대천리와는 웅천천을 따라 4Km 서남쪽에 위치한다.

웅천천은 보령시 성주산과 부여군 만수산에서 발원하여 감입곡류하면서 서해 바다로 유입되는 36km에 이르는 하천이며 충청서해안 지역에서 금강과 삽교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하천이다. 과거에는 大川으로 불리어 지면서 이 고장의 젖줄과 교통로 역할을 하던 곳인데²⁶⁴⁾ 현재는 하구에 부사방조제가 건설되어 그 주변은 대부분 육지화 되었다.

이 웅천천 하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외통로 역할을 하였던 곳이어서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에 웅천천 상류에 우리나라 선문9산

26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이기백 『한국사 신론』 등

264)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조: 대천은 본현 남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그 근원이 성주산에서 나와 靑淵浦로 들어간다. 靑淵浦는 본현 남쪽 23리 지점에 있으며, 彌造浦는 본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중의 하나인 聖住寺가 세워졌는데, 이 성주사는 백제시대에는 烏舍寺라는 절이었다. 오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聖住寺事蹟記』에서도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의 성주사지 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의 가람지와 유물이 확인되었다²⁶⁵⁾

『성주사사적기』에는 백제 법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오합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聖住禪院이라고 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의자왕 19년에 크고 붉은 말이 오합사에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15년에 붉은 말이 북악의 오합사에 나타나 울면서 절을 돌다가 수 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 등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를 오합사와 연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사적기의 기록대로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찰이라면 백제시대 이곳 보령 남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 컸으며,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점²⁶⁶⁾이라든가, 사당적(祠堂的) 성격의 원찰(願刹)이라든가 하는 점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 있는 호국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 서해안 보령의 寺浦縣(현재 웅천천 하류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때 오합사의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의 포구가 寺浦로 불리면서, 대외통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에도 백제 멸망 징조와 관련하여 성주사의 전신이었던 백제 烏舍寺 기록²⁶⁷⁾이 나오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일본서기』에 오합사 기록이 나오는 것은 보령 남포 烏舍寺에 일본 승려들이 내왕하였거나, 아니면 오합사가 일본과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때 일본과의 통로는 웅천천 하구가 된다. 따라서 웅천천 하구 지역은 금강하구와 함께 백제 시대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성주사는 禪門9산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禪宗불교를 크게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거대한 사찰이었다. 『성주사사적기』의 성주사 건물을

265) 충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266)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중앙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지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

267) 일본서기 濟明4年 백제가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한 말(馬)이 오합사 사찰의 金堂을 行道하기를 낮과 밤을 쉬지 않았다. 오직 풀을 먹을 때만 그쳤다.(百濟伐新羅還 時馬自行道於寺金堂 晝夜勿息 唯食草時止(或本云 至庚申年 爲敵所滅之應也))

살펴보면 ‘전단림(梅檀林) 9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전단은 有香木材로 동남아의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자단(紫檀)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홍덕왕 때 수입을 금지한 사치품이었다²⁶⁸⁾ 이러한 전단으로 지은 건물이 성주사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해외무역을 통해서 유입시키는 귀족이나 지방 호족의 해상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가 큰 포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러한 대외 통로의 중요성 때문에 고려 원종 때는 웅천천 하구를 통하여 삼별초가 남포에 상륙하여 남포 감무(監務)를 잡아가지도 하였다.²⁶⁹⁾ 고려 말에는 왜구 침입으로 우리나라 해안이 황폐화 될 때, 이곳 웅천천 일대에도 우왕 때인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황폐화되었고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1390년(공양왕2년) 고남포(현재의 웅천천 하류 웅천읍 수부리)에 藍浦鎭城을 쌓고 병마사를 파견하여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았다.²⁷⁰⁾ 이것으로 보아 10여 년 동안 왜구들이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배를 정박시키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을 약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¹⁾.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외 통로이면서 고려말 왜구의 침입 교두보 역할을 하던 웅천천 하류지역 고남포에 藍浦鎭城이 만들어져 태안의 순성진 덕산의 이산진과 함께 조선초기 진관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충청도 지역 육군 3대 방어기지가 되었다.

이 남포진성의 일선 방어기지로 바다와 만나는 웅천천 하구에 고려말 조선초에 수군기지가 들어선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忠淸右道 水軍都萬戶가 藍浦縣의 龜井에 머무른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말 이전이나 조선 초기에도 수군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포현의 구정은 현재 지명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남포현 관할의 해안인 현재의 보령시 남포면과 웅천읍 해안에서 요충지는 웅천천 하구이외에는 상정할 곳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인 세종 18년경에도 마량포(馬梁浦)의

268)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山門」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69) 『고려사』 원종13년 9월 무진

270)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각 고을 소개에서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본 고을은 남포현만 기록되어있다. 다른 고을도 왜구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현만 기록 된 것을 보면 남포가 왜구들의 주요 거점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71) 금강하구에도 고려말 倭船 500여 척이 정박하여 이 곳을 교두보로 삼고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이 화약으로 물리친 진포대첩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추격하여 이성계가 남원에서 물리친 황산대첩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 금강 하구와 웅천천 하구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왜구의 교두보였던 것이다.

명칭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²⁷²⁾ 구정이라는 명칭은 마량포 주변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인다.

이 구정의 도만호영은 세조 때 진관체제와 수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마량진으로 불려지고 경국대전²⁷³⁾에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마량진이 바다에서 웅천천 하구의 만구를 따라 내륙쪽으로 약간 들어온 곳에 위치한 관계로, 좀더 바다 쪽의 경계를 위하여 만구 건너편의 도둔곶에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하여 마량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초기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륙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웅천천 하구를 양쪽에서 방어하는 체제도 갖춘 것이니, 당시 왜구침입에 대한 웅천천 하구지역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강하구의 양쪽에 서천포영과 옥구진이 설치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도둔곶은 현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이다.



구마량진 포구



구마량진 포구(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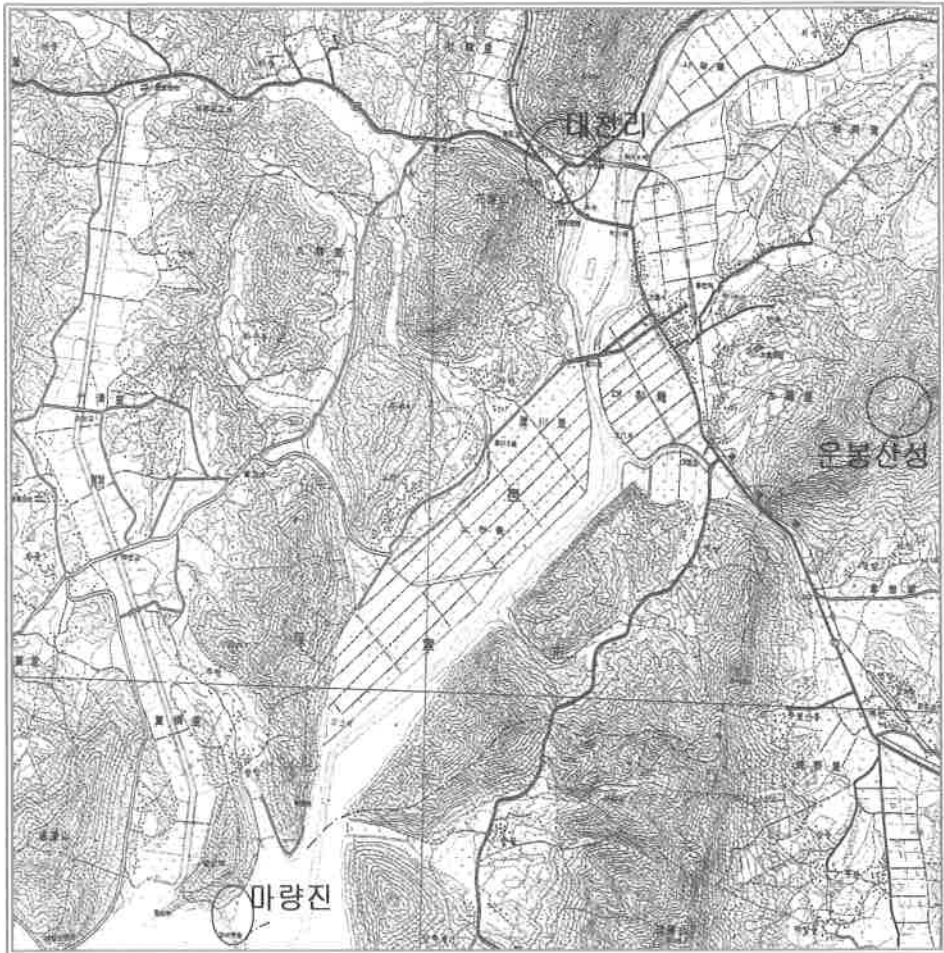


구마량진성 성벽



구마량진성 성벽

272)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6월 20일 을유



마량진 위치도

3) 마량진의 이설(移設)

백제시대 이래로 웅천천 하구가 대외통로의 요충지이면서 왜구의 빈번한 침입 때문에 웅천천 하구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설치되었던 마량진은 입지의 불편성으로 인하여 성종 때부터 이전 논의가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 성종21년(1490년) 9월 28일 정축조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하기를, “남포(藍浦)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碇泊)한 병선(兵船)은 조수(潮水)가 차면 뜨고, 조

수가 물러가면 물에 있어 위급(危急)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賊船)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應變)할 만합니다. 또 그 지역은 산이 둘러 있고 물이 넓어서 배를 감추어 둘 만합니다.

도둔곶[都菴串]은 비록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라 하더라도 배를 정박하는 곳이 얕게 드러나 조수가 물러가면 배는 마땅히 물에 있게 되니, 마량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오나 마량은 본시 긴요한 곳이니, 진실로 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므로, 그전대로 둬야 편하겠습니다.

도둔곶도 또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전에 조전소(助戰所)라고 일컫고, 마량 군관(馬梁軍官) 1인이 병선 1척(隻)과 수군 30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방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병선 1척(隻)만으로 요해지(要害地)를 수비하기란 심히 고단(孤單)하니, 모름지기 마량진(馬梁鎭)의 소맹선(小猛船) 2척(隻)과 수군 60명을 더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마량진 이전 논의가 있게 된 것은 서해안의 특징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입지의 불편성이었다. 마량진의 위치는 육지에서 뻗어온 산 줄기에 형성된 웅천천 하구의 88m의 야산이 바다와 면한 지점에 있었는데, 이 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만구(灣口)여서 다른 곳 보다도 간척지가 넓게 분되어 있다.

그리하여 최대 썰물 시에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며, 이 때 빨의 가운데에 겨우 수심 0.2-0.4m²⁷³⁾의 물길만이 열릴 뿐이다. 이러한 지형이어서 현재는 그 하구가 간척되어 물으로 변하였다. 물론 밀물이 되면 강물과 어울려 완전한 바다를 이루고 또 진 앞에는 만구의 중심부로 내민 ‘과녁쪽불’로 불리는 한 줄기의 조그만 산등성이가 있어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 어떤 폭풍에도 절대 안전한 곳이 된다.

그러나 강 하구에 넓게 형성된 빨은 자주 불편함을 노출하면서 진의 이전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위 기록에서 지적한대로 왜적 방어의 긴요한 곳이라는 점이 더 감안되어 이설은 실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결국 조선후기 효종 때에 이르러 마량진은 웅천만구 건너편의 비인현 관내인 도둔곶 끝단으로 옮겨진다.

『조선왕조실록』 효종6년 11월 7일 정해조에

273) 대한민국 수로국, 해도

충청도 비인현(庇仁縣)의(비인현은 남포현의 오기임-필자 주) 마량진(馬梁鎭)을 도도(都島)에 옮겼다. 조정이 수사 김한문(金漢文)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구진(舊鎭)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했기 때문이다.

『국조보감』 효종6년(1655) 11월조에

비인현(庇仁縣)의 마량진(馬梁鎭)을 같은 현의 도도(都島)로 옮기도록 명했다. 옛 진(鎭) 자리가 배를 정박해 두기에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배를 정박해 두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옮겨졌는데, 이때는 마량진이 요충지로서의 기능보다는 빨리 인한 불편성이 더 부각되어 결국은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불편성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정세변화도 마량진 이설에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왕조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왜적에 대한 경계는 약화되고 그 대신 대륙의 청나라와의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이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방어 중심의 국방 강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육군은 수도권 주변에 5군영이 설치되고, 수군은 인조 11년(1633) 경기도 교동에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하고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제하였다²⁷⁴⁾

임진왜란당시 왜적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제영에 편입되었던 충청수영이 양란 이후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어영에 편입된 사실은 남방의 왜구 방어보다는 수도권 방어 임무에 무게가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왜구 침입로에 위치하여 내륙 요충으로 들어가는 왜구를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남포현 마량진의 위치는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수도권 구원(救援)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때는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남포 마량진은 왜적 방어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보다 빨리 인한 수군진 운영의 불편성이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의 충청 수군진의 위치는 조선전기의 왜구 방어 시기와는 다르게 수도권 방어를 위해 재편성되면서 내만(內灣)하여 숨겨진 곳이 아닌 좀더 바다 쪽으로 나간 육지의 끝단에 설치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내만

274) 『萬機要覽』 군정편

한 곳에 있던 마랑진이 도둔곶 끝단으로 이설 되어졌던 것이다.

도둔곶은 이전에도 마랑진의 분병수지가 설치된 곳이며, 도둔곶의 끝단은 오늘날 서천군 서면 마랑리로서, 분병수지였던 도둔곶보다 더 바다 쪽으로 나아간 반도 끝이어서 바다를 관찰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며, 썰물시에도 바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²⁷⁵⁾. 그리하여 현재도 어항(마랑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서천 마랑포구

도둔곶 끝단인 현재의 서천군 서면 마랑리에 마랑진이 옮겨지면서 이 곳이 마랑진으로 불려지고, 원래의 마랑진이었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는 구진(舊鎭)으로 불려지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지명이 계속되고 있다.

4) 마랑진성

마랑진의 이설 초기에는 조정에서조차도 마랑진은 남포(보령)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²⁷⁶⁾ 남포의 마랑진은 그만큼 요충지였던 곳이었다. 충청수영의 속진 중에서 가장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무관심 지역으로 남은 곳이 오늘날 구진으로 불리는 남포현 마랑진이니 만큼 마랑진성은 사실상 학계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셈이다. 조선초기 전국 수군기지 축성 정책에 따라 마랑진도 중종 5년(1510)에 축성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관방조에 〈마랑진은 본현의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우도수군첨절제사의 영문이 있으며, 그의 소관은 서천포이다. 첨절제사 1명이 있다. 정덕(正德)5년 경오년에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371척에 높이는 9척이며 그 안에 우물하나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1510년 축성된 마랑진성은 웅천천 하구의 88m 야산의 남사면을 에워쌌고, 내탁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남벽은 바닷물에 접해서 축조한 삼태기 모양의 조선전기 전형적인 수군진성이다.

275) 마랑항 주변은 썰물시에도 수심이 2.7-6.7m에 이른다.(앞의 海圖)

276) 『承政院日記』 현종7년 1월25일 2월25일조

義禁府啓曰, 本府罪人李經漢, 以忠淸道藍浦縣馬梁鎭充軍定配, 啓下矣, 聞馬梁, 移屬於本道庇仁縣云, 藍浦二字, 以庇仁, 改付標以入之意, 敢啓

다른 수군진성에 비해 산의 높리와 경사도가 가장 높아 성의 내부가 가파른 점이 특징이다. 현재 길이는 약 660m 정도로 전 구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정상부의 북벽은 산정상이어서 파괴의 손길이 덜 미치어 치성과 함께 석축이 잘 남아있으며, 동벽과 서벽의 아랫부분은 은 토성의 형태로만 남아있는데, 최근의 웅천천 제방공사 때에 배를 대고 돌을 날라다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와 접하는 남벽은 기단부의 석축만이 남아있지만 그 흔적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가가 오랫동안 들어선 관계로 많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동문지와 웅성, 서문지와 웅성 그리고 성내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성의 하단부에서 정상부를 연결하는 동벽에는 그 바깥에 해자를 만들어 성벽의 높이를 높게 만듦으로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내륙 쪽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남사면에 만들어진 마량진성에서 바다쪽이 아닌 내륙쪽에 축성된 성벽(동벽)의 바깥에 해자 시설을 한 특징은 파지포영성 서천포영성 당진포영성 등에서도 보여 지는 공통적 현상들이다.

또 마량진성의 북벽은 충청수영관내의 성벽 중 조선후기에 축성된 안흥진성을 제외하고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성벽으로서는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조선초기에 축성되어 양호하게 남아있는 수군진성인데도 지역과 학계의 무관심 속에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량진성의 포구는 성벽(남벽) 앞에 형성되었는데, 마량진성이 만들어진 산줄기에서 걸가지로 뻗어내려 만의 중심부로 향하여 돌출해 들어간 높이가 약 10m 정도의 ‘과녁쭉불’로 불리는 작은 산줄기가 외양 쪽을 막고 있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포구는 이 자연적 방파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655년 이설된 서천 마량리의 마량진은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영사(營舍)만을 건립하고 수군기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마량리에서는 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영사 건물의 흔적인 와편(瓦片)만이 발견될 뿐이다.

『해동지도』에도 서천 마량진은 성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서천 마량진은 바다로 뻗어 들어간 산줄기 끝의 야트막한 야산의 완만한 동사면에 바다를 면하여 영사를 건립하고 그 앞에 군선을 정박시켰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내민 곳의 끝단이어서 풍랑의 위협을 피하고자 외양을 바라보는 서사면에 진을 건설한 것이 아니고, 서쪽의 외양을 등지고 동쪽의 내양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량진 포구도 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이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천혜의 U자형 포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설되어진 비인 마량진이 성을

쌓지 않고 수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은 조선후기 왜적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국방 체제상 유사시 이곳에서의 전투보다는 강도(江都)구원의 역할을 하는 기능에 중점이 두어지고, 그러면서 조운선 안내와 보호가 주된 임무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진 터는 성벽이 없었던 관계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도 없이 수군진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당진의 왜목 마을과 함께 서해안 해돋이 관광의 명소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령 웅천의 구마량진은 성벽이 남아있으나, 그 위치조차 아는 이가 별로 없으며, 단지 1999년 웅천읍에서 세운 안내기 하나만이 무성한 대나무 숲에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보령시지편찬위원회, 『보령시지』 2010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시기의 동아일보 등 신문자료
- 대천문화원, 『三希堂先生集』, 2008.
- 대천문화원, 『保寧의 金石文』, 2010.
- 공주대박물관, 『藍浦邑城』, 2003.
- 황의천. 오현규 『집성당지』, 대천문화원, 2007
- 황의천 『마지막 보부상 6군상무사』, 대천문화원, 2012.
- 『병오홍주의병과 홍경일기』, 대천문화원 2004.
- 「남포현 治所의 이동에 관한 연구」 『보령문화』 7집, 1998
- 「三希堂 尹錫鳳 先生의 洪京日記」 『보령문화』 11집, 2002
- 「병오홍주의병과 최상집(崔相集) 의사」 『보령문화』 14집, 2005
- 「조선말기 坡平尹氏家の 보령입향」 『보령문화』 15집, 2006
- 「朝鮮時代 忠清水營의 屬鎭과 位置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집, 2007
- 황의호 『보령의 수리계』, 대천문화원, 2007
- 『보령 석공업 300년』, 대천문화원 2012
- 『보령의 지명』, 보령시. 1998.
- 「웅천 성동리 堤防事實碑에 관하여」 『보령문화』 12집, 2003
- 「보령지방의 근대교육」 『보령문화』 22집, 2013
- 황선민 『보부상의 경영활동 연구』, 서울, 보경문화사. 1989.
- 윤인희 「평라제일교회에 대한 추억」 『보령문화』 20집, 2011
- 웅천농협 『웅천읍 전화번호부』 2012
- 강릉최씨족보발간위원회 『강릉최씨남포파족보』
- 『고려사』
- 『여지도서』

편집후기

조선 시대 이전에는 보령 지역이 보령현(保寧縣)과 남포현(藍浦縣)의 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합해져서 보령군이 되었고, 현재는 보령시가 되었다. 보령시 북부인 보령현 지역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주포이다. 보령현의 중심지인 주포는 읍성 향교 등 현 치소의 역사를 알려주는 유적으로 인하여 과거에 보령현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보령시의 남부지역 남포현은 남포현 중심지가 조선 세종시기까지는 웅천 수부리에 있다가 세종 때 현재 남포 읍내리로 이동되었다. 그리고 읍내리에는 읍성이나 향교 등의 읍치 유적이 남아있어서 남포현의 중심지였음을 알게 해준다.

남포현 치소 이동 후에도 웅천의 고남포 지역은 웅천 대천리를 중심으로 남포대천장(藍浦大川場)이 만들어지면서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가 형성되었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보령시 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삼국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보령시 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웅천 대천리와 주변 지역의 역사는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잊혀져 가는 보령시 남부지역 중심지 역할을 했던 대천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본 책자의 목적이다.

대천리와 주변 지역은 넓지 않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남포대천장을 중심으로 오랜 역사동안 보령시 남부지역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 현상들이 아직 남아있다. 다른 지역의 한정된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좁은 지역을 답사하며 다양한 문화현상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인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정리하였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면 증보판으로 정리하기를 기약하며, 이 책자가 웅천지역의 역사를 찾고 즐기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12월

황 의 천

역은이 황의천 (黃義千)

1960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화망 출생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 교육대학원 졸업

현 서천여자고등학교 교사, 국사편찬위원회지방사료조사위원

저서 : 보령시지(2010), 보령의 금석문(2010) 집성당지(2007) 등

논문 : 남포오석의 역사적 위상, 성주사지 이해를 위한 몇 가지 문제 검토 등

수상 : 만세보령대상(2006),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상 등

남포대전장과 주변의 문화

<비매품>

◦ 2013년 12월 15일 인쇄 / 12월 20일 발행

발행처 : 대천문화원

충남 보령시 대흥로 63

전화 (041) 934-3061, 931-3061

FAX (041) 936-3071

<http://daecheon.cult21.or.kr>

발행인 : 임 기 석

역은이 : 황 의 천

인쇄처 : 명문당인쇄사

충남 보령시 대천로 40

전화 (041) 935-2850 / E-mail : ming2850@naver.com

* 이 책은 '2013 우리문화 즐기기사업'으로 충청남도과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본 원 허락 없이 무단복제 절대 불가함

